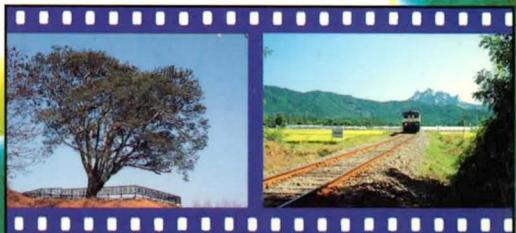


재미있는 고양이야기



정동일 (고양문화원 연구원) 지음



고양시의 현대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도시 일산 APT 단지 / 북한산 산신 도당굿의 한 장면 / 서삼릉 흐름의 무인석 / 일산 신사가지 내의 유일한 문화유산인
불기사 초가집 / 태고사 원종국사탑 / 고양시의 상징 나무인 송포 백승 / 교외선 기차철도와 북한산의 아름다운 모습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재미있는
고양이야기

재미있는 고양이야기



추전하씀글

고양 사랑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어 한(고양문화원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고양시는 한반도의 중심부인 기전(경기도의 옛 이름) 지방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고양 지역은 한강이 남서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는 우리 나라의 명산인 북한산이 둘러싸고 있어 선조들께서 일찍이 터를 잡고 역사를 시작한 복받은 땅입니다. 이러한 좋은 자연, 역사적 환경은 고양 사람들을 늘 역사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충절의 역할 중 한 예가 왜군을 당당히 물리쳐 임진왜란을 종결짓게 한 행주대첩입니다. 또한 고양 땅의 산 기슭, 들, 마을에는 이러한 훌륭한 조상들의 열이 듬뿍 담겨 있는 많은 문화 유산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삼국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유산들이 우리 고장 사람들의 자긍심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고양 사람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은 결코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옛부터 우리 고양 땅은 고려의 수도인 개경과 조선의 도성이었던 한양 부근에 위치해, 늘 우리 나라 역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양 사람들의 언어와 풍습, 의식 등은 한국사의 표준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당시 한 나라의 역사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요즈음 일산을 비롯한 신시가지 개발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 고양 땅은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의 역사가 모두 영광스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북방 오랑캐의 침입과 왜적의 침범으로 온 산이 피로 물들었던 때도 있었고, 연산군 시대에는 모든 땅이 혁파되어 사람이 살지 못해 3년 간 역사가 단절되었던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근대에 들어서는 일제의 탄압으로 수많은 고양 사람들이 고문과 총칼 앞에 시련을 당하였고

6·25 전쟁 때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고양 역사의 영광과 치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양의 향토사(역사)이며 이를 극복한 것이 바로 고양의 얼, 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효자동 박태성의 효성, 밥 할머니의 지기와 용기, 행주치마 아녀자들의 절개 등이 오늘날까지 그 당당한 고양 정신과 얼을 갖게 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문전옥답, 명산지수가 훼손되고 자연환경은 날로 악화되며 급속한 물질 만능주의, 서구문화 지향 등으로 인해 그동안 지켜온 우리 고유의 향토 문화가 점차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왔던 정든 고양을 떠나고 새로이 이주해 온 주민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자칫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고양의 얼을 훼손시키고 변질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발간되는 「재미있는 고양 이야기」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그마한 책자에 고양시의 많은 내용들이 쉽게 담겨져 있다니 대단히 기쁩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 해내고 싶어했던 일 중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 책자는 단순한 이야기 책이 아니라 1990년대를 기록한 고양의 역사 기록서입니다. 부디 이 좋은 책자를 통하여 고양의 21세기 주역인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역사 의식, 애향 의식을 심어주어 우리 고양시가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고양의 얼과 숨결이 듬뿍 배어 있는 좋은 서적들이 연이어 발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알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재미있는 고양 이야기」는 우리 고양시의 아득한 옛날, 선사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비록 그 내용이 고양 지역을 연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편히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원고를 집필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양 땅을 역사책에 자세히 수록한 대표적인 서적은 조선조 영조년간(1755년)에 발간된 이석희 편의 「고양군지」입니다. 이 군지에는 당시 고양 지역의 역사적 사실들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조선조 후기 고양사 연구는 물론 고양 역사 연구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50여 년이 흐른 1987년 고양군지가 다시 만들어져 고양 역사의 기록서, 근대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우리 고양 지역은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산천들이 불과 10여 년 동안에 크게 바뀌었고 주민들도 몇 배로 증가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고양 이야기」는 1413년 고양이란 명칭이 처음 생긴 뒤부터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한 고양의 역사·지명(땅이름)·문화재 이야기 등 총 20여 개의 큰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양시에 살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통괄적인 내용들을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신시기지 개발로 옛 모습이 모두 사라진 지역과 마을 이야기는 사진과 함께 마을의 유래까지도 담았습니다.

한 지역의 향토 역사를 이 자그마한 책자에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지역의 여러 가지 내용을 교육한다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이 중심이 되었고 이에 따라 교과 과정도 대폭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많은 시민들로부터 고양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책자의 발간을 제의받게 되었고, 더이상의 큰 변화가 있기 전에 하루 속히 이러한 책자를 발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전설, 설화, 마을 유래, 농요 등 구전되어오는 무형문화재 전수자, 여러 가지를 증언 해준 제보자들께서는 대부분 연령이 높아 시급히 조사, 기록하지 않을 경우 영원히 사라질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고향을 고양으로 알고 살아온 수만 여 명의 토박이들의 향토 역사와 새로이 이주해 온 주민들의 현대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며, 이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 책을 통해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지역 의식, 역사 의식이 조금이라도 더욱 고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책자의 발간이 고양시 알기 운동의 시작으로 승격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야기 책이 아닌 한 지역의 현대 역사를 잘 정리하고 기록한 역사서로, 그리고 향토사 교육의 좋은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자가 무사히 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서출판 민의 김종순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자문하여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신 어 한 고양문화원장님, 그리고 흔쾌히 추천의 글을 주신 신동영 시장님, 홍을선 교육장님,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6. 6
나무드머리 마을에서 정동일

차례

추천하는 글

고양 사랑의 계기가 되길 바리며/어 한 고양문화원장

저자의 말

고양시 알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고양의 자리와 자연 환경 이야기

13

고양의 역사 이야기

25

고양의 지명 이야기

61

고양의 문화재·문화 유산 이야기

82

고양의 인물 이야기

128

고양의 전설 이야기

135

고양의 민속놀이 이야기

151

고양의 민속·풍습 이야기

162

고양의 집 이야기

174

고양의 김치 이야기

181

고양의 옛 시장 이야기

186

고양의 이름난 나무 이야기

191

고양의 주요 행사와 특산물 이야기

196

고양의 새로 만들어진 이야기

202

통계로 본 오늘날의 고양 이야기

211

고양의 각 기관 이야기

221

고양의 교육 이야기

228

그밖의 고양 이야기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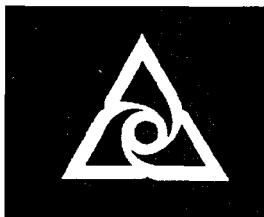
부록

기관 및 사회 단체 현황

우리 고장의 상징

시(市) 상징 마크

고양시 마크(상징 그림)는 1992년 2월 1일 시 승격 이전의 고양군(郡) 상징 마크를 새롭게 공모해 결정,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뜻)는 다음과 같다.



1. 푸른 녹색 세 변의 삼각형은 고양시의 주봉(主峰)을 이루는 고봉산, 덕양산과 더불어 우리 고장의 명산인 북한산의 우뚝 솟은 모양이며, 62만 고양시민의 높은 기상을 뜻한다.

2. 마크 중앙의 둑근 원은 고양시민의 화합과 단결로, 통일된 하나를 이루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3. 중앙의 원을 감고 도는 소용돌이는 수도 서울의 젖줄인 한강을 의미하며, 진취적이고 발전하는 고양시 시민상을 나타낸다.

시 상징 새(鳥)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상징 새는 까치인데 옛부터 길조(吉鳥)로 널리 알려진 새이다. 사람과 곡식에게 해로운 벌레를 잡아 먹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반가움과 기쁨을 전해주는 새로 알려져 있다.

보통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들 하며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덧새 중의 하나이다.

시 상징 꽃(花)

우리 고양시를 상징하는 꽃은 미(美)의 대명사인 장미로, 고유의 꽃은 아니지만 1980년대에 들어 옛 신도읍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배 농가가 증가해 시민의 주 소득원이 된 꽃이다.

장미는 아름다움과 정열의 표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양시에서는 매년 5월 우리 고장의 꽃을 널리 알리기 위해 꽃 아가씨 선발대회와 꽃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 상징 나무(木)

우리 시를 상징하는 나무는 고양시의 유일한 천연기념물 제60호인 송포 백송(白松)이다.

이 백송은 약 600년 전 조선조 세종 당시 김종서 장군 휘하의 최수원 장군이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심은 것으로 처음에는 당송(唐松)이라 불렸다. 백송은 상록침엽 고목으로 나무껍질이 흰색을 띠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백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백송으로 알려져 있다. 수령에 비해 매우 튼튼하며 멋진 모양새가 특징이다.

현재 나무의 높이는 10.8m, 가슴 높이 나무 둘레가 2.9m, 가지의 길이는 동쪽 5m, 서쪽 9.8m, 남쪽 8m, 북쪽 6m 정도이며 가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역삼각형의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자연 환경 이야기

1) 위치와 면적

고양시는 경기도 전체로 볼 때 서북쪽에 위치하며 동남쪽으로는 서울특별시와 인접하고, 북동쪽으로는 양주군, 북서쪽으로는 파주군, 남서쪽으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군과 인접하고 있다. 또 우리 나라의 수도인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북한산, 한강 등을 사이에 두고 경계하고 있다. 서울의 중심부로부터 약 20km 정도에 위치하며 시의 남북으로 통일로, 자유로가 연결되어 있다. 고양시의 지도상 모양은 물고기의 일종인 가오리와 유사하며 동서남북의 거리는 거의 비슷하다. 시가 차지하는 경·위도상의 위치는 동경 126도 45분~126도 56분, 북위 37도 34분~37도 41분에 위치하고 있다.

13

동경			북위		
방위	지명	경도	방위	지명	경도
극동	고양시 효자동	126도 56.5분	극남	고양시 현천동	37도 34분
극서	고양시 구산동	126도 45.5분	극북	고양시 벽제동	37도 41분

고양시의 남단은 현천동, 북단은 벽제동, 서단은 구산동, 동단은 효자동으로, 총 면적 266.47km²에 달하고 있다.

2) 지리와 지세

고양시의 지리적 위치는 한반도의 중심부인 중부 지방에 속하며 지세는 동북부가 높고 서남부가 완경사로 되어 인근 한강까지 평

야 지대가 발달되어 있다. 산세의 형성은 광주산맥의 한 여맥이 고양 근교에서 북한산(836.5m) 등의 준봉을 이루고 있다. 그 중 북한산의 혐준한 산세로부터 빗어나온 낮은 구릉성 산지가 고양 일대인 벽재, 원당, 화전 지역으로 이어져 있으며 한강이 고양 지역의 남서부를 관통함으로써 이 유역은 넓은 퇴적 평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평야 지역은 주로 옛 일산읍, 송포면, 지도읍 등에 발달되어 있는데 그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퇴적 평야인 일산 지역은 현재 신시가지가 건설되었다.

특히 신평동에서 법꽃동 일대에 걸쳐 폭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토지가 매우 비옥하며 산출되는 쌀은 매우 유명하다. 그리고 한강의 지류인 곡릉천 일대는 충적층으로 덮여 있고 해발 고도가 낮기 때문에 항상 침수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제방을 쌓아 비닐하우스 등이 건설된 최고의 농경지를 이루고 있다. 또 시의 동남쪽으로는 창릉천이 흐르고 있는데 하천 주변에 소규모의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하천이 상류에 발달하는 산지는 남동쪽의 북한산, 북동쪽의 우암산과 서북쪽의 고봉산, 그리고 서남쪽의 덕양산 등이 주봉을 이루어 낮은 구릉성 산지의 형태로 한강 방면으로 이어져 있다.

고양시의 기반암은 대부분 시생대 선캄브리아기에 속하는 것으로 남부는 화강 편마암, 북부는 결정 편마암계로 구성되어 있다.



고봉산에서 바라본 고양의 전경



고양시 행정 구역 지도

3) 명산(名山)

■ 북한산(北漢山)

북한산은 고양시의 동쪽 끝에 위치하여 서울시, 양주군과 경계를 이루는 고양의 주산(主山)이다. 해발 836.5m로 일명 삼각산, 또는 화산이라고도 한다. 산의 최고봉인 백운봉을 두고 인수봉, 만경봉의 세 봉우리가 주봉(主峰)을 이루고 있다. 산의 봉우리는 연분홍색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으며 여러 곳에 험한 절벽과 기봉을 형성한다. 이러한 지세를 이용하여 백제 초기에 성을 쌓았으며, 18세기 초에 쌓은 북한산성이 지금도 남아 있다. 산 안에는 이름난 사찰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 터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백제 시대에 온조 형제가 도읍할 때 살피던 곳이라 하여 국망봉이라 하기도 한다. 비봉에는 신라 진흥왕이 세운 순수비가 서 있었다.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수백만의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아름다운 산이다.

■ 고봉산(高峰山 또는 高峰山)

고봉산은 시청이 있는 주교동에서 북서쪽으로 5.5km, 경의선 일산역에서 북동으로 2km에 위치하며 일산동과 성석동의 경계를 이루는 산의 명칭이다. 해발 208.8m의 고봉산은 일명 태미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산의 정상 아래부분에 평평한 평지가 떠를 두른 듯 산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삼국 시대에는 고구려의 성(城)이 있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봉수대가 설치돼 있었다. 주변 지역의 도시개발로 산의 서북쪽 기슭이 깎였으며 전통 사찰인 만경사, 영천사가 위치해 있다.

■ 덕양산(德陽山)

덕양산은 행주내·외동에 걸쳐 위치한 산으로 일명 행주산, 성산으로 불린다. 해발 124m의 덕양산은 임진왜란 당시 우리 나라 3대 첨의 하나인 행주대첩 전투가 있던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의 남쪽과 서쪽은 한강과 맞닿고 북쪽과 동쪽은 넓은 별판과 닿아 마치 큰 섬과 같은 모습이다. 서울 근교에 위치하여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즐기며 국난극복의 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 정발산(鼎鉢山)

정발산은 고양시청에서 서쪽으로 약 4.5km 위치에 있는 산으로

일산 신시가지 안의 주산이다. 해발 약 59.3m의 야산으로 현재는 중앙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정발산에서는 수백년 전부터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여 도당굿을 지내왔는데 고양시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주변의 호수공원 등과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의 휴식·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옛부터 명산으로 알려진 견달산

■ 견달산(見達山)

견달산은 해발 132m로 일산구 식사동, 문봉동과 경계를 이루며 고양시청에서 북으로 약 4km 거리에 위치한다. 산의 모양이 잘생겼고 옛부터 기우제를 지내던 명산이다. 견달산은 산의 정기가 중국에까지 달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봉대산(峰臺山)

해발 95m로 덕양구 강매동에 있다. 창릉천 하류 어구에 있으며 덕양산에서 북동쪽으로 2km, 화전역에서 서쪽으로 1.7km에 위치한다. 일명 강고산으로 불리우며 산 정상에는 봉화대가 있었다. 이 봉화대는 당시 서울 안산의 무악으로 연락되었으며 최근 인근에 행신 지구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다.

■ 가라산(加羅山)

해발 54.5m로 시청에서 남쪽으로 5km, 능곡역에서 동쪽으로 2km, 덕양산 북쪽 2.5km에 위치하며 행정 구역상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이다. 옛부터 가라뫼 산신제와 푸른 소나무 지역으로 유명하였으나 능곡·화정·행신 지구 아파트 공사로 인해 대부분의 산이 깎이고 새롭게 배수지가 조성되었다.

■ 영주산(映洲山)

해발 52m로 덕양구 대장동, 내곡동 일대에 소재한다. 대곡초등학교 북쪽 산으로 옛 지도읍과 일산읍이 경계를 이룬다. 시청에서 남서쪽으로 2.3km, 교외선 대정역에서 서쪽으로 700m, 경의선 곡산역 동쪽 800m 거리에 위치한다.

■ 국사봉(國祀峯)

해발 109.4m로 덕양구 성사동과 화정동의 경계 지점에 소재한

다. 국사봉은 옛부터 이곳에서 나라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시청에서 남동쪽으로 약 1.8km 떨어져 있으며 최근에 산 앞으로 화정 지구, 신원당 아파트가 새로이 건설되었다. 국사봉으로부터 북동쪽으로 1.5km에 한양골프장, 2.5km에 서삼릉이 자리잡고 있다.

■ 망월산(望月山)

해발 169.4m로 덕양구 화전동에 소재한다. 화전역에서 북동으로 1.7km 떨어져 있으며, 동쪽으로 1.3km 가면 서울과의 경계점에 이른다. 서오릉, 경릉의 안산으로 망월산은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만월(滿月)을 보는 산이라 하여 이렇게 이름지었다 한다.

■ 봉산(峰山)

해발 209.6m로 덕양구 용두동과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구산동과 경계를 이루며, 북쪽으로 1.5~2km 위치에 서오릉이 있다. 조선 시대에 서울 안산으로 이어지는 봉수대가 있었으며 서울 방향으로 수국사가 있다.

■ 앵봉

해발 235.7m로 덕양구 동산동과 서울시 은평구 구파발동, 갈현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쪽 기슭에 서오릉이 있으며 정상에서 익릉까지의 거리는 약 700m이다. 예전에 봉수대가 있었다 하며 서오릉의 주산에 해당하는 곳이다.

■ 황룡산(黃龍山)

해발 134.5m로 일산구 성석동 및 탄현동,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이다. 고봉산에서 이어지는 산줄기로 북서 방향 2.5km에 정상이 위치해 있다. 이 산의 남쪽 아래에 새롭게 중건한 용강서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 인근 지역에 탄현 지구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산의 서쪽 앞으로 경의선 철도가 지난다.

■ 독산(禿山, 일명 문수산, 봉화둑)

해발 133.4m로 일산구 문봉동과 지영동, 사리현동에 둘러싸여 있다. 조선 시대에 봉수대가 있었는데 서쪽의 파주대산에서 받아 동쪽으로 봉산을 거쳐 서울 안산으로 신호를 전하였다. 일명 솟달산[所叱達山]이라고도 부른다. 산의 정상에서는 부근의 통일로 일

대를 두루 살펴볼 수 있으며 산의 서쪽 등성이에 문봉 공원 묘지가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 명봉산(鳴鳳山)

일명 장령산으로 해발 247.6m이다. 덕양구 내유동과 파주시 조리면 장곡리 및 광탄면 용미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산에서 발원하는 모든 하천은 곡릉천으로 합류한다. 시청에서 북쪽으로 9km, 내유초등학교 북쪽 2.3km에 위치한다. 산의 서남쪽으로 경찰연수원이 있으며 용미리 방향에는 공동묘지가 있다.

■ 우암산(牛巖山, 일명 비호봉)

해발 328.6m로 덕양구 벽제동과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정상의 서쪽에 혜음령이 있으며, 북쪽 능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서울시립 공동묘지가 있다. 고양초등학교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져 있으며 이 산에서 발원하는 모든 하천은 곡릉천과 합류한다. 최근 88골프장, 서서울 골프장 등이 인근에 건설되었다.

■ 개명산(開明山)

해발 545m로 덕양구 벽제동과 양주군, 파주시 광탄면, 백석면 및 장흥면과 경계를 이루며 이 산에서 흐르는 계곡물은 모두 곡릉천과 합류한다. 고양초등학교에서 북동쪽으로 5.5km에 위치해 있으며 산의 서북쪽에 퇴폐현이 위치해 있다. 고양시 북쪽 끝으로, 부근 산봉우리 중 가장 높은 지점이다.

■ 대자산(大慈山)

해발 약 210m로 덕양구 고양동, 대자동에 둘러싸여 있는데 해발 148m, 130m의 봉우리, 210m · 122m · 150m의 봉우리 등이 줄지어 이어져 있어 산책이나 등산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동현의 뒷산으로 산 남쪽에 관아, 객사인 벽제관, 향교, 사직단, 성황당 등이 있었다. 현재는 시청에서 북서쪽으로 7km, 벽제역 북쪽 2.5~3km까지 산봉이 이어져 있다. 또한 고양초등학교 서쪽 산으로 약 700m 떨어져 있으며 대자산에서 발원하는 모든 하천은 곡릉천으로 흐른다. 산 기슭에 최영 장군 묘, 경안 · 임창군 묘 등 많은 문화 유적지가 산재되어 있다.

■ 노고산(老姑山, 일명 한미산)

해발 495.7km로 덕양구 효자동과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삼하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북한산의 한 여맥으로 이 산줄기를 분수령으로 하여 북쪽으로 곡릉천, 남쪽으로 창릉천이 흐른다. 시청으로부터 동북쪽으로 10.5km, 삼송동 삼거리에서 동북쪽으로 5.5km 떨어져 있다. 산의 정상에서 남쪽 기슭에는 지축동에 위치한 신라시대 사찰인 흥국사가 소재해 있다.

■ 건지산(乾芝山)

덕양구 원흥동 나무드머리 마을에 위치하며 성사동과 경계하고 있다. 산 정상의 동쪽에 원흥동 청자 도요지가 있으며 최영 장군이 머물렀다는 바위가 현존하고 있다.

■ 성라산(星羅山, 일명 베라산)

덕양구 성사동 국사봉 남쪽과 마주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별아산'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성라산이 한자 '별성' 자를 우리 말로 '별라산'이라 발음한 것을 그대로 옮겨 쓴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인근 주민들은 '베라산'이라 부르고 있다.

■ 철마산(鐵馬山)

해발 148m로 덕양구 관산동과 대자동 경계에 위치하며 산 꼭대기에 철마가 있었다고 하나, 확인할 수 없다. 산 동쪽으로 고양시의 옛 군청 자리가 위치해 있으며 남서쪽으로 통일로가 뻗어 있다.

■ 구산(龜山, 일명 거그뫼)

일산구 구산동에 위치하며 파주시 교하면 심악산과 접경하고 있는데 산의 형태가 거북 모양을 하고 있어 '구산'이라 부른다. 스스로 그 이름을 구봉이라고 한 송익필 형제가 나서 살던 터가 지금도 남아 있다.

■ 장산(獐山, 일명 노루뫼)

일산구 구산동에 위치하고 있다. 거북바위가 물을 등지고 넓은 들판을 대면하고 있는 산의 형태가 노루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적에는 김포군 통진과 경계하며 삼남 지방으로 왕래하는 배가 이곳 포구에서 조석으로 물 때를 기다려 출발했다고 한다.

4) 고개[峴]

■ 관청령

대자동 고읍 마을에서 고양동으로 넘어가는 산등성이를 넘는 고개의 이름이다. 군청 자리가 있던 고읍 마을에는 당시 관아 청사의 주춧돌과 계단, 기와 조각 등이 지금도 남아 있고, 그 앞에는 효종의 넷째 공주인 숙휘 공주와 부마인 인평위 정제현의 묘가 있다. 산 아래마을은 행정 구역상 관산동 고골 마을로 되어 있다. 조선 인조조 이후에 관청 자리가 고양동 읍내 마을로 옮겨지게 되는데 읍내 마을로 넘어가는 약 3km에 이르는 산등성이라 해서 ‘관청령’ 또는 ‘관청현’이라 한다. 일명 바느라지라 부르기도 한다.

■ 월현(망현)

옛 벽제읍 사리현 1리에서 3리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다. 마을 앞쪽에 큰 산이 없어 달맞이하는 데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일명 망현이라고도 부른다.

■ 휴암현

옛 벽제읍 사리현 2리와 지영동 사이에 있는 산언덕으로 독산(문수산)의 한 줄기이다. 일명 부엉이 고개 또는 새매 고개라고 부르는데 이름자의 ‘휴’자가 ‘부엉이 휴’ 자이다. 일제 때 이 언덕의 끝 쪽인 휴암복(곡릉천) 접경 마루턱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바위가 있었는데 그 구멍이 부엉이나 새들의 잠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일제 때 곡릉천의 둑을 막을 때 이 바위를 깨뜨려 썼기 때문에 지금은 남아 있지 않으나, 바위의 이름을 지금도 옛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송강현(일명 정철현, 송강 고개)

옛 원당읍 신원 1리 송강 마을에서 원당동 진텃말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또 원당동 쪽으로 넘어와서 옛 벽제읍 관산리 시장 쪽으로 가는 길 산 모퉁이를 송강 모퉁이라고 부른다. 송강 고개에는 정철 선생의 옛 집터가 있었고 곡릉천에 접한 산 위에 말바위가 있었는데 여기가 송강 정철 선생의 낚시터였다고 한다. 산중턱에 선생의 묘가 있었는데 지금은 충청도로 옮기고 없다.

■ 어석현(숫돌 고개)

옛 원당읍 신원리에서 신도읍 오금리 경계를 거쳐 삼송동으로 넘어가는 통일로 상의 고개를 부르는 이름이다. 신도동 방향 언덕 밑에는 고양종합고등학교, 삼송초등학교가 있으며 신원동 쪽은 뉴코리아골프장 입구이다. 지금은 통일로가 넓게 뻗은 아스팔트 도로로 되어 있다. 이 산등성이에서 칼을 가는 돌, 즉 수돌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하여 수돌 고개란 이름이 붙었다. 임진왜란 때 군인들이 이곳에서 칼을 갈았다고 하며,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한양을 향해 진격하다 대패한 곳이기도 하다.

■ 성황당령

옛 일산읍 고봉산에서 정발산으로 연결되는 준령(峻嶺)이다. 지금 이 준령에는 일산에서 원당으로 통하는 도로와 일산에서 정발산을 거쳐 능곡으로 가는 도로가 있다. 일산동과 풍동, 일산동과 마두동의 경계를 이루는 능선이다. 중간에 옛 일산읍의 공동묘지와 원당으로 가는 도로변에 천년은 되었음직한 성황당 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 밑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던져놓은 돌멩이가 3~4m 가량 쌓였었고 나뭇가지에는 무당(무녀)들이 걸어놓은 색색의 천이 걸려 있었는데 1970년대 도로 확장 및 포장 때 베어지고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이 성황당령에 대하여 1755년에 간행된 「고양군지」에는 ‘견달산에 나타난 용이 북쪽으로 나가 고봉산을 만들고 남쪽으로 나가 정발산을 만들었으니 그 아래가 곧 성황당령이다. 비록 높지는 않으나 들 가운데에 닥나무밭(저전)이 서리서리 우거져서 풍후하고 남으로 한강이 흐르니 대개 잔산미록이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남이 없이 가히 칭찬할 만한 곳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5) 강과 하천

■ 한강

한강은 건설부 직할 하천으로 고양시의 서남부와 경계를 이루며 강 건너는 서울시와 김포군이다. 즉 서울특별시 난지도 시계에서 일산구 구산동의 파주 시계까지 연장 22km 구간이 본 시를 흐른다. 한강은 우리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하천으로 연장 514km, 유역

면적 26,219km²이다. 즉 하천의 길이는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 다음이고, 유역 면적은 압록강 다음으로 넓다.

한강 수계는 금강산에서 발원하는 북한강 수계와 오대산, 태백산에서 발원하는 남한강 수계로 나뉘어진다. 북한강은 남서류하면서 금강천, 금성천, 서천천, 수입천, 소양강 가평천, 홍천강 등을 합친 후 양평군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한다.

남한강은 북서류하면서 평창강 달천천, 섬강 청미천, 양화천, 부하천, 흑천 등의 지류를 합친 후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만난다. 남한강과 북한강은 양수리 근처에서 합류하여 북서~남서 방향으로 흘러 서울을 지나 황해의 강화만으로 유입하는데 도중에 왕숙천, 한천, 탄천, 양재천, 안양천, 창릉천, 곡릉천 등의 지류를 합류한다.

이렇게 하여 한강 수계에는 현행 하천법에 의하면 8개의 직할 하천, 20개의 지방 하천, 700개의 접용 하천이 있으며 수계의 조밀도를 나타내는 차수로 8차 하천까지 포함한다. 또한 한강 하구의 높은 조차 때문에 감조 구간은 대단히 넓어 본 시 지역을 포함하여 서울 광진교 일대까지 조석의 영향이 나타나며 하천수의 감도 측정에 의해 이 지역까지 반담수 구역이 형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한강은 서울을 비롯한 춘천, 제천, 충주 등 유역 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의 상수도원이 되며 유역 내의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한강은 옛부터 중요한 수로로 이용되어 왔다. 즉 한강의 하구로부터 상류 330km 지점까지 역강이 가능하여 마포, 용산, 뚝섬, 여주, 목계, 충주, 청평 등지가 항으로 번창하기도 하였다.

■ 곡릉천

곡릉천의 원 기점은 덕양구 선유동과 양주군 장흥면과의 경계선이었는데, 1965년 3월 1일 건설부 고시 제3143호에 의해 양주군 장흥면 금곡리로 정해졌다. 그리고 종점은 파주시 교하면의 한강에 합류되고 있다. 즉 곡릉천은 한강의 제1지류로서 연장 30.50km, 유역 면적 253.05km²이다.

지금 오금천 합류 지점부터 대자천 합류 지점 사이를 옛날에는 신원천이라고 하였으며 신원천에서부터 하류 쪽으로 옛 벽제읍 관산리, 사리현리, 지영리 앞 부분의 곡릉천을 옛날에는 심천 또는 가돈천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고양시에 흐르는 하천으로 곡릉천에 합류되는 한강의 제2지류는 덕양구 선유동에서 발원하는 연장 2.5km의 선유천, 덕양구

오금동에서 발원하는 연장 4.75km의 오금천, 덕양구 벽제동에서 발원하는 연장 7.4km의 벽제천, 덕양구 대자동에서 발원하는 연장 2.5km의 대자천, 옛 원당읍 원당리에서 발원하는 연장 2.5km의 원당천, 옛 벽제읍 지영리에서 발원하는 연장 6km의 장진천 등이다.

그리고 옛 벽제읍 문봉리에서 발원하여 장진천으로 합류하는 한강의 제3지류인 연장 1.75km의 문봉천이 있다. 그 외에 파주시 일대에서 곡릉천으로 합류되는 한강의 제2지류로 연장 1.9km의 울벌천, 2.5km의 부곡천, 2km의 교현천, 13km의 석현천, 10.5km의 고산천, 4.3km의 소리천, 2.5km의 사포교천, 3.75km의 소위지천, 4.4km의 청룡두천 등이 있다.

■ 창릉천(덕수천)

창릉천은 고양시 덕양구 호자동 북한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지축동, 현천동 및 강매동을 지나 한강으로 합류한다. 즉 창릉천은 한강의 제1지류로서 연장 22.5km, 지역 면적 78.92km²이다.

그리고 창릉천으로 합류되는 한강의 제2지류로 덕양구 북한동에서 발원하는 연장 4.5km의 북한천(청담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에서 발원하는 연장 2.5km의 비봉천과 진관천, 덕양구 성사동에서 발원하는 연장 500m의 성사천 등이 있다.



창릉천과 북한산의 준봉들

■ 향동천

향동천은 덕양구 향동동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한강의 제1지류이며 연장 3km, 지역 면적 5.75km²이다.

■ 대장천

대장천은 덕양구 원당, 성사동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한강의 제1지류로서 연장은 5.6km이다. 또 대장천에 합류되는 한강의 제2지류로 덕양구 행신동에서 발원하는 연장 2.6km의 행신천이 있다.

■ 장월평천

장월평천은 일산구 고봉산 서남쪽에서 발원하여 일산 철도역 앞

을 거쳐 일산구 덕이동, 가좌동 앞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한강의 제1지류로서 연장 10km, 지역 면적 17.75km²이다. 그리고 하구에는 이산포 나루가 있다. 또 장월평천으로 합류되는 한강의 제2지류로 일산구 덕이동 고봉산 서북쪽에서 발원한 탄현천이 있고 가좌동에서 발원한 연장 2.6km, 유역 면적 5.25km²의 가좌천이 있다.

연장 10km 중 발원지인 고봉산에서부터 송포 지역 접경까지의 일산구 지역 5km는 삼정천이라고 불렀는데 가물 때는 마르는 하천이었다. 그러나 1981년에 이 지역 일대를 농촌진흥공사에서 경지 정리를 실시하고 야계 수로를 설치하여 임진강 물을 끌어올려 유역을 수리안전지구로 만들어 지금은 이 지구의 임진강 배수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탄현 택지개발 등으로 그 모습이 크게 바뀌었다.

■ 공세천

공세천은 일산구 식사동 견달산에서 발원하여 일산구 풍동, 백석동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한강의 제1지류로서 연장은 6.5km, 지역 면적은 19.75km²이다. 가물 때는 마르는 하천이었으나 지금은 경지 정리를 하여 임진강물을 이용한 용배수로로 이용된다.

이상의 하천은 직할 하천으로서 고양시에는 한강 본류 22km 구간과 지방 하천 총 연장 106.35km로 되어 있다.



고양의 역사

이야기

1) 구석기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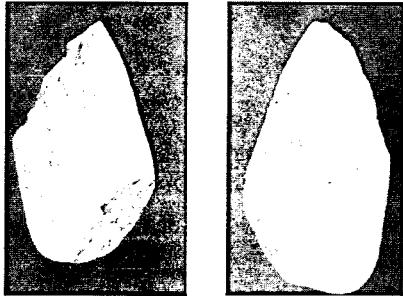
고양시 지역은 동북 방향의 높은 산악 지역으로부터 남서 방향의 낮은 언덕 지역이 길게 이어져 한강과 만나 산줄기가 끝난다. 이 중간중간에 소규모의 계곡, 평야들이 발달해 있다. 특히 일산, 송포, 능곡 지역에는 해발 80~200m 고도의 정발산, 고봉산, 덕양산 등이 있는데 이들은 북부 고봉산과 북한산에서 뻗어나온 작은 산줄기의 봉우리이다. 산과 함께 자연 환경의 주요한 요소가 되는 하천은 한강으로 합류되는 소규모 지류들로 발달해 있다. 이를 하천으로 인해 하류 지역에는 적은 규모의 평지가 형성되어 있다.

고양은 제4기의 퇴적 지층이 널리 분포해 있는데 대부분 한강 유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산 신시가지 현장인 옛 송포면 대화리와 일산읍 주엽리 부근 지역에 발달되어 있는 토탄층은 가와지 지층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에는 청회색의 사질 점토층(대화리층)이 분포하며, 토탄층 상부에는 사질 점토층(새말층)이 분포해 있다.

일산지구역사유적조사단에 의해 발견된 구석기 시대 토탄층과 유적 자리는 옛 송포면 대화 4리 성저 마을과 가와지 마을, 그리고 옛 일산읍 주엽 1리 새말 지역, 주엽 2리, 오마리, 그리고 마두리의 강촌, 설촌 지역이다.

이 지역은 한강 하류에 자리해 한강물과 조수에 의한 바닷물의 영향을 받아 토탄층이 쌓인 지형이다. 발굴 당시 해발 5~8m 사이에 드는 낮은 지대에 거의 1~1.5m 깊이에 토탄층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토탄층 주변의 언덕들은 해발 10m 내외의 낮은 언덕으로 주로 구석기 시대 집터와 석기들이 발견되었다.

고양시의 구석기 시대 유물은 대부분 석기류들인데, 작개는 한두 점부터 크개는 몇백 점에 이르기까지 유물이 발견되는 지역은 넓고 다양하다. 옛 일산읍 마두 2리 강촌 마을 지역에서 찍개가 발견되었고, 마두 3리에서는 끌개가. 그리고 주엽 1리, 2리 지역에서는 몸돌, 찍개 등이 발견되었다.



일산 지역에서 발굴된 구석기 시대의 찍개

이러한 작은 언덕에서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구석기 시대에는 지금의 논농사 지역인 토탄층 부근이 바닷물이 들어오던 습지 지역이었고, 사람들은 습지보다 약간 높은 지대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일산 신시가지 지역발굴 조사단의 중간 발표에 의하면 지하 1~3m 사이의 토탄층에서는 각종 나뭇잎, 꽃가루, 오리나무, 줄풀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모두 아주 습한 늪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들로 밝혀졌다.

토탄층 유적은 모두 6층으로 쌓여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맨 위층부터 아래로)

⑥겉 흙층 : 예전에 농사 짓던 토양인데 객토의 높이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⑤회색밸층(상위 점토층) : 나무 열매, 씨앗, 곤충이 발견되고 회색, 갈색의 연질 토기가 발견된다.

④토탄층 : 검은 유기질 층에서는 민그릇 종류가 발견되고 갈색 층에서는 나무 줄기, 등걸, 잎, 줄기, 뿌리 등이 깔려 있다.

③청회색밸층 : 나무, 나뭇잎, 2백여 년쯤 자란 나무, 통나무 등이 발견된다.

②회색 모래층 : 빗살무늬토기나 뗀석기가 발견된다.

①암반 풍화층 : 노란 또는 붉은 빛을 띠는 자연 편마암층이 발견된다.

발굴단에서는 언덕지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석기가 무려 5만 년 전부터 7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 인근 파주시 금파리와 신촌리 유적에서도 구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좀더 구체적인 비교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 중석기 시대

한반도에 빙하기가 물러가고 후빙기로 들어서면서 지구상의 기후는 지금과 같은 기후로 차츰 바뀌었다. 현세가 시작되는 후빙기

의 첫머리에 중석기 시대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이 중석기 시대인들은 구석기 시대와는 달리 양식 채집 단계에서 양식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길목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때의 사람들은 돌이나 짐승의 뼈, 뿔 같은 재료를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썼다. 또 짐짐승 기르기의 효용성에 대하여 차츰 눈을 떴으며 야생 식물을 따먹으며 생활 터전 주변의 자원을 체계있게 활용하기 시작했다. 고기잡이와 관련된 도구의 발달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들의 생활은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 정착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중석기 시대에는 세석기(細石器) 제작 기술이 크게 발달하였다. 물론 세석기는 중석기 시대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이를 광범위하게 쓴 것은 중석기 시대의 일이었다. 세석기란 석기를 같고 다듬어서 예리하게 만들어 쓰던 것으로 구석기 시대에 비하여 수와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석기는 대체로 삼각꼴, 둥근꼴, 반달꼴, 네모꼴의 형태로 나타났다.

일산 송포 지역에서 발견된 석기 유물들 중 격지를 이용한 석기들이 발견되어 세석기의 가능성을 높게 하였다. 이 석기들의 조개진 부분은 매우 날카로워 다양한 용도로 석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밝혀진 세석기 가능성이 있는 유물이 발견된 곳은 구석기 시대 유물이 출토된 가와지 유적, 새말 유적, 성저리 유적이다.

3)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의 사냥, 채집 단계의 원시 생활을 하다가 식량 생산 경제에 기반을 둔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농경의 성공에 있다. 농경에 의한 식량 생산 경제의 시작을 배경으로 문화가 크게 발달한 시기가 신석기 시대이다.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는 시기와 계통을 달리하는 두 개의 다른 문화, 즉 신석기 시대 전기(B.C 5000~3000년), 선줄문 문화와 신석기 시대 중·후기(B.C 3000~1000년)의 줄문 문화로 구분된다. 현재 까지 발견된 고양시의 신석기 시대 문화 유적은 일산 신시가지 지역 이외에 덕양구 지영동, 신원동, 지축동 유적이 있다.

(고양시의 선사 유적 및 유물)

유적지	시대	유구 및 유물	인접 하천	참고 자료
마두동	구석기 시대	석기(찍개, 끌개)	한강 주변	일산 신시가지 유적 조사단
주엽동	구석기 시대	석기(몸돌, 찍개)	한강 주변	일산 신시가지 유적 조사단
대학동	구석기 시대	석기(찍개, 끌개, 몸돌)	한강 주변	일산 신시가지 유적 조사단
지영동	신석기 시대	줄문 토기	곡릉천변	횡산(일본의 고고 사학자)
신원동	신석기 시대	줄문 토기	곡릉천변	횡산(일본의 고고 사학자)
오부자동	신석기 시대	줄문 토기	창릉천변	횡산(일본의 고고 사학자)
대학동	신석기 시대	볍씨	한강변	-
관산동	청동기 시대	토기, 석기	곡릉천변	횡산(일본의 고고 사학자)
내유동	청동기 시대	마제석부	곡릉천변	횡산(일본의 고고 사학자)
사리현동	청동기 시대	마제석부	곡릉천변	-
문봉동	청동기 시대	지석묘 3기	문봉천 ~곡릉천	횡산(일본의 고고 사학자)
설문동	청동기 시대	자석묘	곡릉천변	횡산(일본의 고고 사학자)
성석동	청동기 시대	지석묘	장진천 ~곡릉천	횡산(일본의 고고 사학자)
성사동	청동기 시대	동모 용범	성사천 ~창릉천	-
신원동	청동기 시대	지석묘, 다두석부	곡릉천변	-
오금동	청동기 시대	토기, 석기	오금천 ~곡릉천	김무룡(국내 사학자)
지축동	청동기 시대	토기, 석기	창릉천변	횡산(일본의 고고 사학자)
오부자동	청동기 시대	반월형석도(직배와반형)	창릉천변	횡산(일본의 고고 사학자)
백석동	청동기 시대	토기, 석기	도촌천변	횡산(일본의 고고 사학자)

■일산 신시가지 지역의 신석기 시대 유적

일산 신시가지 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의 유물은 대부분 일산구 주엽동(새말 지역)과 일산구 대화동 가와지 마을에서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주요 유물은 토기와 자연 환경을 알 수

일산 성저, 가와지 마을에서 발굴된 벽씨



있는 나무, 벽씨, 보리 등이다. 특히 성저 마을에서 발견된 벽씨는 연대 측정 결과 지금으로부터 $\pm 4,460$ 년 전으로 판정되어 신석기 시대의 농경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주었다. 또 새말 지역에서의 대화리층과 가와지층 아랫부분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토기와 빗돌이 발굴되었다. 여기에서 나온 토기는 모두 새김무늬 종류로서 중부 서해안 일대에서 보고된 신석기 시대의 토기와 매우 닮은 특징을 보여준다.

■지영동 유적

지영동 유적은 곡릉천 하류에 위치한 유적으로 작은 언덕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지영동 유적 부근에는 파주시 조리면의 지석묘군이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신석기 시대의 즐문 토기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고고학자 횡산(横山)에 의해 곡릉천변에서 발견되었다.

■신원동 가좌 마을 유적

신원동 가좌동 유적지는 곡릉천 하류에 위치한 유적인데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도 지영동과 비슷한 즐문 토기이다. 이 유적 역시 일본인 고고학자 횡산에 의해 발견되었다.

■지축동 오부자 마을 유적

지축동 오부자동 유적은 북한산에서 발원하는 창릉천(덕수천)에 있는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청동기 시대 유적과 함께 발견되었다. 오부자동에서 발견된 유물은 신석기 시대의 즐문 토기와 청동기 시대의 토기, 석기가 역시 횡산에 의해 발견되었다.

위에서 소개한 중석기 시대의 유적(추정)과 신석기 시대의 유적은 그 흔적조차 알 수 없이 파괴되었으며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들도 일산 지구의 경우, 연구를 위해 충북대, 단국대, 한국선사문화연구소 등으로 흘러져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영동, 신원동, 지축동 유적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자료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유물의 형태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양시의 체계적인 선사 시대 연구를 위해서는 보고된 지역의 유적과 유물에 대해 전문성 있는 고고학자의 유적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청동기 시대

(1) 한반도의 청동기 유입

몇 차례의 기후 변화, 자연 현상 등 파상적인 파동으로 인하여 신석기인들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오랫동안 신석기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유지되어 왔다.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9세기 내지 8세기에 청동기가 유입되면서 신석기 문화는 퇴색하고 새로이 청동기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한반도에 형성된 청동기 문화의

대표적 유물은 무문토기와 고인돌인데 무문토기가 등장하면서 신석기 시대의 출문토기 유적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2)고양의 청동기 유적

무문토기와 고인돌의 출토를 특징으로 하는 청동기인의 유적은 주로 한강의 하류 유역이나 그 지류인 곡릉천, 창릉천, 원당천, 장진천 등 하천을 따라 펼쳐진 평야를 앞에 둔 언덕진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입지 조건은 청동기인의 식생활이 농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옛 송포면 대화리 가와지 유적과 성저리 유적에서 발견된 벽씨는 고양의 농경 생활을 증명해 주는 역사 유물인 것이다.

■문봉동 지석묘군

옛 벽제읍 문봉리 지석묘는 일본 학자 횡산에 의해 조사되었는데 보고서에는 모두 3기의 지석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형태가 가장 확실한 것은 길이 60cm, 폭 50cm, 높이 30cm의 규모로, 출토 유물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고 이들은 현재 모두 손실되어 분명한 지석묘군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옛 원당읍 성사리 출토 동모 용범 편(片, 조각)

이 용범 편은 1934년 매원부치(梅原夫治)가 한반도 동검, 공모의 자료를 정리해 놓은 자료 속의 한 부분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실물은 일본인 대조승태랑(大鳥勝太郎)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밖에도 많은 수집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매원은 보고서 자료에서 이 용범이 한반도에서 직접 용범을 제작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하고 있다. 이 용범 편이 발견된 곳인 옛 원당읍 성사리 지역은 인근의 국사봉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 국사봉 정상부에서 지석묘군이 확인된 것과 유경식 청동 석검이 발견된 것이 앞으로 추가 발굴의 가능성은 높게 해주고 있다.

■사리현동 출토 마제석부

사리현동 출토 마제석부는 모두 두 점인데 1972년 이진순 씨에 의해 매장 문화재로 보고된 것이며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석검이 발견된 위치는 곡릉천 주변인 벽제읍 사리현 2리 산 11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석검의 형식은 두 점 모두 양면에

서 날을 갈아 세운 합인석부로 머리 부분은 둥글게 처리되었고 전면이 매끄럽게 잘 다듬어져 있다. 칼의 몸체는 가운데가 불룩하거나 인부로 내려오면서 폭이 약간 넓어지지만 거의 일자에 가깝고 단면은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출토된 마제석부 두 점 모두 인부가 약간 훼손되었다.

■ 관산동 유적

관산동 유적은 곡릉천변 언덕에서 발견되었는데 무문토기와 석기가 일제시대에 발견되었으나 현재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 내유동 유적

내유동 유적은 앞에서 소개한 관산동 유적에서 파주시 방향, 즉 북서 방향 곡릉천 주변에 위치하는데 사리현동 유적과 비슷한 마제석부가 출토되었다.

■ 성석동 유적

성석동 유적은 곡릉천의 지류인 장진천 주변에서 지석묘가 발견되었는데 특별히 보고된 출토 유물은 없으나 인근의 문봉동 지석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신원동 유적

신원동 유적은 곡릉천 유역에 위치하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물은 몇 기의 지석묘와 다두석부인데 신원동 유적의 경우 신석기 시대의 출문토기가 발견되어 문화 유적의 시기가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 오금동, 지축동 유적

오금동 유적은 청동기 시대의 유적인데 곡릉천으로 유입되는 오금천 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은 무문토기와 석기이며 지축동의 유적은 창릉천 주변 지역에 위치하는데 특히 지축동 오부자 마을에서는 반월형 석도(직배외반형)가 출토되었다. 반월형 석도는 벼를 추수할 때 손에 쥐고 이삭을 자르는데 사용했던 도구이다.

■ 화정동 유적

덕양구 화정동 지역은 원당~능곡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데 동

북쪽의 국사봉(해발 109.4m)에서 시작된 산줄기가 남서로 길게 이어져 지령산, 가라뫼산으로 늘어져 있다. 각 마을의 촌락들은 낮은 언덕 산지 기슭에 자연 촌락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 앞 39번 도로 건너편에는 범람원 대장천과 그 부근 유역에 넓은 충적 평야가 펼쳐져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유적은 다음과 같다.

· 국사봉(國祀峰) 유적

국사봉은 화정동의 동북쪽에 위치한 해발 109.4m의 봉우리로 부근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유적은 이 산봉우리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경사면에 있으며 현재 봉우리 전체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곳의 유적은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 보이는데 정상부로부터 20~30m 아래 능선까지 바위가 있다. 또 국사봉에서 북쪽으로 약간 멀어져 있는 능선에도 지석묘의 하부 구조와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퇴적층이 나타나고 있다.

이곳 국사봉의 높이는 표고 100m가 넘고 바위들이 봉우리 주변에 분포하고 있어 다른 지석묘군에 비해 높은 유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인접한 파주시 교하면에서 조사된 지석묘군은 표고 80m 구릉에서 발견되었고, 파주시 월릉면 옥석리 지석묘군은 100m가 넘는 구릉에서 유물이 발견돼 국사봉도 이들 유적과 입지면에서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국사봉에서 발견된 유경식 마제 돌칼은 국사봉 북사면에서 군부대 병사가 참호를 파던 중 발견한 것을 필자와 서울대 박물관이 고증하여 학계에 알려졌는데 이는 화정 지구에서 확인된 유일한 선사 시대 유물이다. 칼의 형식은 유경식에 속하며 칼 몸체의 윗부분이



성사동 국사봉에서
발굴된 마제 돌칼

잘려진 채 발견되었다. 남아 있는 칼 몸체의 길이는 5.8cm이고 경부는 4.1cm, 총 길이는 14~15cm의 크기이다. 칼 몸체의 두께는 0.7~0.8cm이고 경부의 두께는 중앙에서 0.7cm로 시작해 끝부분으로 가면서 점점 얇아져 0.3cm가 된다. 칼 몸체의 형태는 아랫부분으로 내려오면서 곡선을 그리며 넓어지고 칼 몸체의 중앙부에는 두 줄의 가는 구멍이 나란히 패여 있다. 경부는 끝부분에서 1cm 떨어진 곳에 좌우로 흄이 패여져 있으며 석재는 짐판암 계통이다.

유경식 돌칼은 주로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많이 발견된다 고 전하는데 황해도 황주군 침촌리 청진동 지석묘에서 출토된 석

검과 비교할 때 유경식이라는 점과 경부에 좌우로 흄이 패여 손잡이와의 결합을 돋는 점이 비슷하다. 그러나 칼 몸체의 외형이 곡선이 아니고 직선인 점과 칼 몸체부에 가는 구멍이 없는 점, 칼 몸체부와 경부의 비율이 다른 점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돌칼이 출토된 정확한 위치는 국사봉의 정상부에서 북동쪽으로 내려가는 경사면이고 돌칼이 출토될 당시 돌칼과 함께 붉은색을 띤 일정한 두께의 파편이 출토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무문토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사봉 부근에서 확인된 유물은 한 점뿐이라 석기, 토기 등의 유물이 더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옛 화정 2리 찬우물 마을 뒷산 지석묘 상석(추정)

상석은 옛 화정 2리 찬우물 마을에서 옛 원당읍 성사리 베라산 마을로 넘어가는 도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석묘의 긴 길이는 남북 방향이고 크기는 긴 곳 280cm, 작은 곳 190cm, 두께 70cm이며 돌은 전면이 다듬어져 있다. 바위의 평면에는 모두 24개의 성혈이 있는데 그 크기는 직경이 3~5cm, 깊이가 1~2cm 정도이다. 상석의 남쪽에는 70cm 정도 되는 지점에 상석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파편들이 있으며,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고인돌의 아래 구조가 없거나 아래 구조가 있던 위치에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옛 화정 3리(백양동)의 동쪽 지령산 정상 부근 해발 40m 지점에서도 지석묘로 추정할 수 있는 상석과 두 개의 지석이 발견되었다.

■ 일산 신시가지 지역 유적

일산 신시가지 지역의 문화유적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은 주로 토기 편이었는데 적개는 몇 점부터 많게는 한 지역에서 수백 점의 토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특히 가와지 지역에서는 찰흙띠겹 입술 토기, 쇠뿔 손잡이 토기, 굽잔 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토기들은 굽은 서리기 방법으로 몸통을 만들고 바닥을 이어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바닥과 몸통의 접합 부분을 왼쪽으로 돌려가며 염지와 겸지로 누른 손자국이 남아 있다. 주엽동 새말 지역에서는 청동기 시대 후기에서 초기 철기 시대에 걸치는 것으로 보이는 겹아가리 토기 조각을 비롯하여 여러 점의 쇠뿔 모양 손잡이 등이 출토되었다.

5) 고조선 · 삼국 시대

(1) 고조선

현재까지 고조선 시대의 유물이라고 기록되어 발표된 고양 지역 유물은 없다. 다만 일산 신시가지 지역 문화유적발굴조사에서 발견된 범씨, 보리씨, 석기 등을 조사하고 관찰한 결과, 지금으로부터 약 4천 년 이전부터 5,100년까지로 산출되어 고조선 시대나 그 이전부터 고양 지역에 주민이 거주했고 농경 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뿐이다. 발굴 조사에 참여했던 이용조 충북대학교 교수는 이를 한반도 농경 문화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했다. 측정 결과에 의하면 가와지 유적, 대화동 유적의 범씨는 고조선 시대의 유물이 확실하며 고양 지역의 최초 거주민들이 농경 생활을 영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양 지역과 직접 관련 있는 역사적 사실은 문헌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직까지 없다.

(2) 백제

삼국 중에서 제일 먼저 고양시 일대를 차지한 것은 북방 이민 집단인 백제였다. 백제 건국 때 부여에서 남하한 온조(溫祚) 형제가 관내의 북한산 인수·백운봉에 올라 지상을 살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후 백제는 북한산 아래의 하북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미추홀·불류 집단을 복속시켰다.

신라와 고구려를 견제하면서 고대국가로 성장한 백제는 미추홀·불류 집단을 복속시킨 뒤 그 여세를 몰아 북으로 예성강 상류 까지 그 영토를 확장하였다. 백제를 건국한 주요 지배 계층들이 북쪽 지방으로부터 횡해도 지방을 거쳐 한강 유역에 정착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경로 속에서 자리적으로 고양 지역 일대를 경유 또는 선정착지(先定着地)로 삼았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백제의 역사적 흔적은 북한산 고성과 그 주변 지역의 토기 등으로 증명되고 있다. 한국 고대사에 있어 북한산성은 백제 초기의 도읍지인 위례성 부근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한강 유역을 통제, 수비하는 요충지였다.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세력이 충돌하는 격전지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百濟本記)’에 보면 백제 제4대 개루왕 5년 (132년) 2월에 북한산성을 쌓았으며 제21대 고이왕 15년(469년) 10월에 북한산성에 병사를 주둔시켰다고 되어 있다. 전투에 관한 기

록은 백제 제13대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남진 세력과 백제의 북진 정책이 이곳 북한산성에서 대결하였고 근초고왕 26년(371년)에 이곳에 도읍을 정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4세기를 지나 5세기에 접어들면서 고구려의 남진 정책이 광개토왕, 장수왕에 의해 강력히 실행되었다. 5세기에는 고구려·백제군 사이에 7일 간의 공방전이 있었고 고구려군에 의해 성이 함락되었다. 그리고 급기야 백제군은 고이왕이 전사하는 시련을 맞았다.

(3) 고구려

삼국 중 가장 일찍 고대국가의 모습을 갖춘 고구려는 광개토왕, 장수왕대에 이르러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한 결과, 백제에 이어 한강 유역의 새 주인공이 되었다.

장수왕을 이은 문주왕은 군현제를 실시하여 지금의 고봉에 달을 성현(達乙省縣)을 설치하였고 지금의 북한산 지역과 서울 지역에 북한산군을 설치하여 남평양으로 호칭하면서 신라, 백제를 경략하는 거점으로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달을성현은 후에 고봉현으로, 개백현은 우왕(遇王), 왕봉(王逢), 행주(幸州)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먼저 고봉현에 대한 삼국사기 김부식의 설은 '한씨 미녀가 달을 성현의 높은 산 위에서 봉화를 올려 고구려의 안장왕(安藏王)을 맞이하였다'고 해서 고봉이라 했다는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다.

왕봉에 대해서는 한씨 미녀가 개백현에서 안장왕을 맞이했기 때문에 왕봉으로 칭했다는 것이다. 왕봉은 지금의 행주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또 옛 송포면 대화리 성지 마을 앞 벌판에는 토성을 쌓아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했다. 아마 이 토성은 달을성현의 고봉 산과 한강을 연결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고양 군지에 기록되어 있다. 현재 토성이 있던 대화 4리 성저리 마을은 일산 신시가지 공사로 인하여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마을 앞 벌판에 있던 성터 역시 뒤늦은 발굴 조사로 정밀 조사에 의해서도 발 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봉산에 혼존하는 토성에서 삼국 시대에 해당하는 토기 등이 발견되고 있어 고구려 시대 유적도 발굴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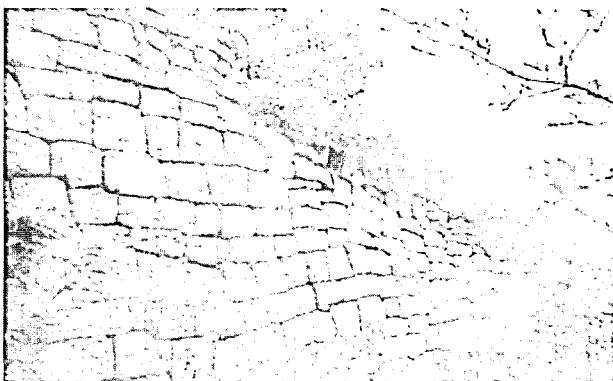
(4) 신라

한반도의 남반부에서 성장한 신라는 6세기 중엽 고구려의 세력

이 약화된 것을 이용해 백제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비롯한 고양시 지역을 점령하였다.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은 인적·물적 자원의 획득 외에 고구려, 백제의 중간 부분을 끊고 강력한 군사를 배치하여 중국과 직접 통할 수 있는 문호를 얻어 군사, 정치, 외교상의 거점을 확보하였다.

신라에게 허를 찔려 한강 유역을 빼앗긴 고구려와 백제는 고양 지역을 포함한 한강 유역을 재탈환하기 위해 여제(麗濟) 동맹을 결성, 신라를 협공하였다. 신라군과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유명한 고구려 온달 장군 이야기도 이때의 이야기이다. 또 북한산성에서는 수만 명의 삼국 군사가 몇 개월 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삼국간의 공방전 결과 고양시 지역은 진흥왕대의 번영을 누린 신라에 의해 지배되고 이를 기리기 위해 신라는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건립하였다.

북한산성의 성벽 일부



5세기 말 6세기 초에 들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한 후 북한산성을 둘러싼 정세는 삼국의 존립에 대한 격전장이 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전투는 진평왕 25년 8월에 고구려의 장군 고승(高勝)이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의 최북방 기지인 북한산성을 포위, 공격했던 북한산성 전투였다. 이때 신라 진평왕이 친히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한강을 건너 고구려군을 퇴각시켰으며, 문무왕 원년 5월에는 고구려·말갈 연합군이 산성을 포위하고 20여일 간 대격전을 벌였다.

당시 성내에는 2,800명과 약간의 군량이 있어 여러 가지로 신라 군이 불리하였다. 그러나 성주 동타천(冬陀川)을 중심으로 수성군 전원이 합심하여 궁포 화전법으로 고구려군을 물리쳤다. 산성 일부에 남아 있던 고구려군은 때마침 낙뢰와 폭풍우가 몰아쳐 그 기가

꺾여 북쪽으로 퇴각하였다. 만약 이 전투에서 신라가 패배하고 고구려군이 승리하였더라면 신라의 삼국 통일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신라 진평왕 5년에 있은 고구려 장군 고승의 대군과 신라의 수성군 및 진평왕 친위대 1만 명의 전투. 그리고 태종 무열왕 때 있은 고구려군과 말갈 연합군 및 신라 군대와의 격돌은 그 전투의 규모로 보나 전략상의 위치로 보나 하나의 산성을 쟁탈하기 위한 공방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즉, 이 성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가 삼국의 존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삼국군 모두 최대의 전투 역량을 동원했던 것이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신라 진흥왕 때의 ‘북한산 순수비’ 인 것이다.

신라군, 고구려군의 충돌 이후 백제 세력권은 완전히 호남 지방, 충청 지방으로 한정되어졌고 고구려군은 북한산성에서 퇴각하여 고봉산성에 은거하였다. 고봉산성은 산세가 험하거나 높지는 않으나 주변의 평야 지대를 모두 조망할 수 있고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고구려의 전투 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고봉산의 한씨 미녀’ 설화로 입증되고 있다.

고구려 세력을 물리친 신라군은 북한산성을 대고구려와의 전초 전투 기지로 삼아 고구려를 견제하였으며 당나라의 세력을 규합하여 고봉산 부근의 고구려군을 완전히 축출시킨 뒤 삼국 통일을 달성하였다.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한반도의 중심지이며 교통의 요충지인 북한산성을 점령한 데서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북한산성 고성 중 일부는 조선 숙종조에 완성된 북한산성과는 달리, 중성문 부근의 남루한 성벽으로 남아 있다. 이외에도 고양시 지역에서 발견되는 많은 종류의 토기들도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라 하겠다.

6) 통일신라 시대

삼국의 정립 시대를 종결시키고 최초의 부분적인 민족 통일을 이룩한 통일신라는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대부분의 고구려 영토를

행주산성 토성 일부



상실하고 한반도 내의 영토만을 영위하게 되었다. 통일신라는 백제, 고구려 등 통일된 땅에 구주오소경(九州五小京)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 행정직을 완성하였다.

당시 지금의 고양 땅은 646년에 설치된 한산주(漢山州)에 편입되었다. 이때 한산주 지역은 현재의 서울·충청·황해도 대부분 지역이었다. 그후 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 고양, 서울 지방은 한양군(漢陽郡)으로 개칭되어 한주에 예속되었다. 그리고 한양군의 속현으로 우왕현(愚王縣, 지금의 행주 지역)을 두었다. 아울러 한양군에는 태수(太守)와 소수(小守)의 지방관이 두어졌으며 고구려 시대의 달을성현(현재의 일산구)을 고봉으로 개칭하여 교하군에 예속시켰다.

고양 땅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당시 현이 설치되었던 행주, 덕양산과 그 부근 지역이다. 즉 조선조 임진왜란 이전의 행주산성은 현재 복원 작업이 완성된 토성(흙으로 쌓은 성)을 중심으로 방어 기지로서의 큰 역할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 증거는 1990년 서울대학교 박물관 팀에 의해 이루어진 유적 조사에서 밝혀졌으며 조사단에서는 토성의 판축 시기를 8~9세기로 추정하였다. 또 토성 이외에 성 부근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토기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이렇게 볼 때 통일신라 시대의 행주산성은 당시 방어적 전투 수행이라는 고대의 군사 전략을 최대한 이용한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관내의 고봉산성, 북한산성 등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역사 유적이다.

또한 통일신라를 대표할 수 있는 불교 문화 역시 관내 덕양구 지축동에 소재한 흥국사(興國寺)에 잘 나타나 있다. 사찰의 위치나 규모, 옛 문헌의 기록으로 보면 과연 원효대사가 창건했을 만한 고사찰임을 알 수 있다.

또 덕양구 행주외동에는 통일신라 시대의 인물 은영(殷影)의 묘소가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은영은 통일신라의 행주에 자리잡아 은(殷) 씨가 그 본관을 행주로 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은영은 ‘신라 효공왕 15년(911년)에 왕이 천한 처에 빠져 정사를 들보지 않아 이를 아뢰었으나

왕이 듣지 않자 직접 그 처를 죽이고 옥에 갇혔던 충신'으로 전해져 오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고양 지역은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도외시되었다. 불교가 급속히 성장하며 안정된 평화가 유지되는 동안 고양 땅은 한양군의 속현인 우왕현과 교하군의 하나인 고봉현으로 나뉘어져 통일신라의 종말을 맞이하였고 새로운 고려조에 편입되었다.

7) 고려 시대

통일신라에 이어 등장한 고려조는 신라의 경주에서 한반도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태조 23년(940년)에 전국의 행정 구역을 재편성하여 한양군은 양주, 한주는 광주로 바꾸었다. 그후 성종 2년에 전국을 12목(牧)으로 나누어 고양 땅은 양주에 포함되었다. 아울러 고양 땅의 고봉현과 왕봉현도 고려 현종 9년에 양주에 속하였고 명칭도 우왕현을 행주로 개칭했고 성종 때는 별호(別號)로 덕양(德陽)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문종 21년(1067년)에 양주지주사(楊州知州事)가 남경유수관(南京留守官)으로 승격하여 서경(平양), 동경(경주)과 더불어 지방구 계획상의 근간인 삼경제(三京制)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고양 땅은 남경의 속현이 되었다. 그런데 고려 말에 이르러 남경은 한양부(府)로 격하된다. 즉 고려 충렬왕 34년(1308년)에 중앙과 지방 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남경유수관은 한양부로 개편되었고 동시에 관제 개편까지 단행하여 고양 땅은 한양부의 속현이 되어 조선조를 맞게 된다.

관내에 고려 시대 초기의 역사 유적으로는 덕양구 원흥동 나무드머리 마을의 고려청자 도요지를 들 수 있는데 정밀한 지표 조사나 발굴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연대나 특징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원흥동의 고려청자 도요지의 경우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이루어져 그 제작 시기를 10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마터는 1937년 조선총독부의 노모리 다케시에 의해 처음 조사되었는데 총 50m×70m에 달하는 넓은 지역으로 도자기 편의 유색은 암록색과 갈색을 띠고 무늬는 없지만 대토는 잘 만들어져 있다. 출토된 도편의 굽은 비교적 넓고 내화토를 빚어 얇게 밭쳐 구웠다. 현재 이곳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접시, 대접, 항아리 등이며 원통형의 M자형 갑발(匣鉢)이 작은 언덕을 이루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이곳은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청자가 도입되면

서 형성된 가마터인 듯하며 이미 전문 학자들에 의해 여러 번 고려 초기 청자 도요지로 규정되어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64호로 지정되었다.

신라에 이어 고려조에 들어서도 북한산성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음이 기록에 보이는데 그 한 예가 몽고의 2차 침입 때(1232년) 몽고군과의 치열한 전투 기록이다.

끝으로 아직 그 정확한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한양대학교, 명지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일산 2동 중산 지구의 고려 시대 분묘에 대한 발굴 작업은 고양 지역의 고려 시대 역사를 증명해 준 중요한 사건이었다.

결국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에 이르기까지 고양 지역은 주변 지역의 변화에 따라 움직였고 경주에서 개성으로 역사 무대의 중앙이 움직임에 따라 정치·경제·군사상, 그 역할과 기능도 변하여 서서히 역사의 중심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1) 고려 시대의 향(鄉) · 소(所) · 부곡(部曲)

우리는 흔히 향 · 소 · 부곡이라 하면 천민 집단이 모여 살거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특수 지역 ·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역사 연구의 산물이다. 실제로 향 · 소 · 부곡에 관한 연구는 일제 식민지 시대 일본 사학자, 또는 이들에게 교육을 받은 친일 성격의 사학자들에 의해 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터무니없는 식민사관에 입각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향 · 소 · 부곡에 관한 연구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즈음 향 · 소 · 부곡에 관한 새로운 연구들은 기존의 천시 여기던 집단의 지역 규정에서 향(鄉)은 군(郡)과 군(郡) 사이의 작은 특수 행정 구역 단위로, 소(所)는 전문 기능인 집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문현상(세종실록지리지)으로 남아 있는 고양 지역의 향은 황조향(荒調鄉)과 장사향(長史鄉), 소는 건자산소(巾子山所)와 파을곶소(巴乙串所)이며 부곡은 율악부곡(栗岳部曲)이다.

■ 황조향(荒調鄉)

세종실록지리지는 황조향에 관해 '황조향은 군(郡, 지금의 옛 벽제읍 대자 1리 고읍 마을 군청시대) 서쪽 15리 지점에 있으며 속청 주엽리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아마 지금의 일산 신시가지가 건설된 현재의 주엽동과 그 주변 지역인 듯하다. 이 시기 주엽동 마을의 벌판에는 논 농사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꿀

동산 · 상주 · 하주 · 정발산 줄기 등에 사람이 제한적으로 거주했을 것으로 보인다.

■ 장사향(長史鄉)

세종실록지리지에 ‘장사향은 군 동쪽 10리 지점 건자산 밑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 파을곶소(巴乙串所)

파을곶소는 행주에 있던 곳으로 현재 덕양구 행주내 · 외동 지역이다. 이 지역은 고양 지역에서 가장 큰 포구로서 옛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며 웅어나 갈대 등을 국가에 공출했다는 기록이 있다.

■ 건자산소(巾子山所)

건자산소는 현재의 원흥동 고려청자 도요지 부근 지역으로 주변의 자연 지형을 이용해 고려청자를 굽던 곳이다. 현재 이곳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자료인 고려 초기 청자 도요지가 남아 있다.

■ 율악부곡(栗岳部曲)

율악부곡은 세종실록지리지에 ‘고봉현에 있으며 군 서쪽 12리 거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마 옛 일산읍 일산 9리 밤가시 마을과 그 주변 지역으로 추정되나 이 지역의 대부분이 일산 신시 가지에 편입되어 정밀한 조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2) 고려 시대의 유적

고양 시내의 고려와 관련된 유적은 무수히 많으나 다른 곳은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덕양구 원당동의 고려 공양왕 고릉과 옛 벽체읍 대자 2리의 최영 장군 묘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조는 무신정권 이후에 급격히 그 통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몽고 침입과 불교 사상의 퇴락에 의해 국가 근본 질서가 와해되어 갔다. 더욱이 30여 년 간의 몽고지배시대는 고려조의 통치제도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14세기에 들어 왜구의 침입, 신진 사대부의 등장, 유교의 확산, 불교의 변질 등으로 고려 왕조는 1392년 종말을 맞게 된다. 당시 최영을 중심으로 한 고려조 권선 세력과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 사대부간의 갈등에서 이성계는 새 왕조를 창출하게 된다.



건자산소가 있었던 원흥동 마을

최영은 고려왕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위화도 회군에 의해 모든 정권에서 쫓겨나 유배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당해 옛 벽체읍 대자 2리 선친의 선영에 묻히게 되었다. 한편 고려조의 공양왕은 개성에서 피신, 최영이 묻혀 있는 고양 땅으로 와 잠시 머물다 죽음을 맞아 이곳 왕릉골에 묻히게 된다. 결국 이 두 사람은 고려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 경우로, 고양 지역의 전환기적 역할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고려조 중·후기 시대에 큰 권신 세력의 하나였던 행주기씨, 원당동 왕능골, 식사동의 대궐고개, 어침이, 그리고 어침사 등의 인물, 유적, 지명들 또한 우리 지역의 고려 시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14세기 후반에 들어 고려조에 이어 새로이 조선조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고양 지역은 개성의 주변부적 역할에서 한양 중심의 중심지적 역할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중앙의 권력 기반을 위한 지방통치제도의 하나로서 그 체계가 조선 초기에 전면적으로 개편되게 된다.

8)조선 시대

(1)조선 전기 고양 지역의 역할

1392년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조의 구세력을 완전히 축출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조로 바꾸고 개경에서 즉위하였다.

조선왕조를 개창한 태조 이성계는 1392년 8월 13일 왕위에 오른 지 1개월도 못되어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하교하여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한양의 시설 미비를 이유로 일단 흐지부지되었지만 태조의 천도 의지는 확고하였다. 태조는 새 왕조의 개창과 함께 군신과 신하의 일체감,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송도 지역의 기(氣)에 영향을 받은 것, 조선왕조 개창 과정에 있었던 충신들을 살해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개경 백성들의 움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천도하기에 이르렀다. 처음 천도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일시 중단된 이후 새로운 후보지로 떠오른 곳이 계룡산 아래와 서울의 안산 아래(지금의 연희동·신촌 일대), 옛 남경 궁궐(지금의 경복궁 뒤편)이었다. 이에 태조는 무학대사와 답사한 후 남경 궁궐로 천도할 것을 정하고 1394년 9월 경복궁이 완성되었다.

한양 천도로 고양 지역은 개경과 한양 사이의 지리적 위치로 도로가 정비되고 사람의 왕래가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대명(對明) 관계의 수립으로 양국간에 사신이 왕래하면서 고양 지역은 외교 관계의 중요한 지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태조 3년, 1394년)에 고양 지역의 고봉(高峰)에 감무(監務)가 파견되었고 행주를 병합하고 지금의 서울 용산 지역의 부원현과 부평부 소속의 황조향을 여기에 붙였다. 또한 지방 행정의 비능률을 해결하기 위해 태종 13년(1413년)에 고봉의 머릿글자와 행주의 옛 지명인 덕양의 끝자를 따서 ‘고양’으로 고치고 현감을 두었다. 그후 세종 때 고양의 인구는 1,314명에 이르렀다.

태종 13년(1413년) 이후 고양현은 지금의 면적과 거의 비슷한 지역으로 국한되었으며 옛 벽제읍 대자 1리(고읍 마을)에 현감을 두었다. 이러한 지방관리 체제는 고려조의 모순된 관리 체제를 개혁하고 왕권 중심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다. 결국 태종을 지나 세종을 거치고 세조·성종을 거치면서 국가의 기틀이 성숙되었고 국가의 근본 사상인 성리학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왕위에 즉위한 성종은 1471년 10월 13일에 지금의 용두동에 경릉(서오릉 내의 덕종과 소혜왕비의 능)과 창릉(예종과 안순 왕비의 능)의 두 개 큰 왕릉이 있으므로 옛 중국의 관급·유교의 관례에 따라 현을 군으로 승격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525년 전의 일인데 당시의 상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지배층 왕족의 무덤이 만들어지면서 군으로 승격된 고양 지역은 그후에도 왕족·지배층·양반층의 능침지로 많은 지역이 사용되거나 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패지지로 직접적인 지배층의 통치 관할하에 있었다. 성종에 이어 즉위한 연산군(燕山君)은 고양시 지역을 강무(講武)라 평계대고 날마다 수렵자를 보냈다. 이에 고양·광주·양주 고을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고, 특히 고양은 그 첫 대상으로 피해 또한 매우 극심하였다. 이러한 폐정에 대하여 다른 지방의 백성들까지 연산군의 폐정에 대하여 비판을 가할 정도였다. 경기도 광주와 고양군민으로 심언, 이오을, 말장수 등이 국가와 왕실에 대해 무도한 말을 했다고 하여 능지참사당하고 그 가산도 완전히 물수당하였다. 이 일련의 사건은 연산군 일파에



서오릉의 정자각과 봉분

게 좋은 구실을 주었다. 연산군은 연산군 10년(1504년) 4월에 의정부·육조·한성부·대간·홍문관을 불러 광주와 고양군의 혁파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다. 처음 유순(柳洵) 등 대신들은 예로부터 선 왕의 왕릉 능침지가 있는 곳은 함부로 혁파하지 않는 것이라고 간 하였다. 죄인이 살던 지역만 빼어내어 다른 이웃 고을에 불이고 두 고을은 그대로 두자는 타협안도 나왔으나 연산군은 두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국 고양군을 혁파하고 말았다. 이어 8월에는 고양을 수령장으로 만들어 금표(禁標)를 세우고 군의 창고 곡식을 파주로 옮겼다. 또한 연산군 11년 7월에는 금표 지역을 더욱 확대하였다.

즉 한양의 동북 지역으로는 광주·양주·포천·영평에서 서남쪽으로는 파주·고양·양천·과천·통진·김포에 이르는 지역 네 귀퉁이에 금표를 세우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 5백여 호를 모조리 내쫓고 내수사의 종을 옮겨서 채우게 하였다. 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생업을 잃게 되고, 금표 밖의 사람들도 나무를 베려 왔다 잘못 금표를 범하게 되면 여지없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외에도 예빈사(禮賓署)에서 기르는 양과 돼지의 사료 재배용 농장이 설치되어 그것의 재배, 수확한 사료의 수송 등을 주민이 담당하게 되니 이에 따른 고통은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였다.

연산군대 말엽의 고양군 혁파 사건은 고양 지역에 일체의 주민 거주를 허락하지 않고 관청·가문·가옥들을 텅텅 비게 만들었다. 또한 사패지지로 하사받은 토지나 능침지는 관리할 사람이 없어 폐허가 되었고 관청의 관사는 모든 역사적 기록이 분실되어 실질적으로 고양군 역사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 이러한 역사적 단절은 후에 고양의 역사 연구·사료 정리에 큰 제약을 초래하게 되었고, 고양을 떠난 주민들은 황폐화된 고양 땅으로의 복귀를 외면하였다. 이미 허물어진 집과 황폐화된 토지, 도축되어 버린 가축은 중종반정 이후 군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전까지 완전히 복구되지 못했다. 이러한 황폐함은 중종반정에 의해 일부 복구되기는 하나,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진 중종, 인종, 명종조를 거쳐 선조대에 이르러 우리는 또한번 역사 사상 가장 처절했던 임진왜란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현재 고양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는 가문들의 대부분이 이 혁파 사건 이후 고양 땅에 처음 거주한 듯하며 많은 고양의 원주민은 여러 가지 여건상 고향으로의 복귀가 어려웠다.

(2) 벽제관(碧蹄館) 부근 전투

■ 일반 정세

명나라 군사의 임진왜란 개입 이후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명나라군은 계속 남진하여 1593년 1월 25일 개성으로 입성하였고 부총병 사대수(査大受)는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성의 모화관 부근을 정찰하고 돌아와 한성 탈환을 논의했다. 한성 탈환 작전은 특별한 전략없이 준비, 시작되었고 한성의 왜군은 각지의 병력을 한성에 집결시키고 있었다.

■ 전투 경과

명나라 부총병 사대수는 파주를 거쳐 창릉(昌陵, 지금의 서오릉 지역)에서 적을 기습하여 60여 급을 베어내고 평양의 이여송에게 적의 허약성을 보고하였다. 이에 명과 조선군은 임진강을 도하하여 오전 7시경 명나라 사대수군, 조선측의 고언백(高諺伯) 군과 왜군 사이의 전투가 여석현(礪石顯, 지금의 삼송동~오금동간 고개)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군측이 전술을 제대로 사용치 못해 후퇴하고 적군은 아군을 쫓아 벽제관으로 계속 진군하였다. 이때 아군측의 이녕(李寧)이 지휘하는 군사 8천여 명이 적을 급습하여 전투는 치열한 백병전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아군측 명나라 군사의 주력은 이여송 등의 차오로 이 전투에 참여치 못하고 파주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결국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세는 적에게 유리하게 전개 되었고 주력 부대의 뒤늦은 참여로 아군측은 벽제관을 지나 혜음령을 넘어 파주에서 개성으로 퇴진하였다. 당시 여석현과 혜음령 사이에는 전투에서 베어진 시체의 피비린내가 진동하였으며 부러진 깃발 등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고 기록은 전한다.

이여송의 명나라 군은 벽제관 부근 전투의 패배를 반성치 않고 더욱 교만하게 굽어 꾸준히 추진되었던 한성 탈환 작전은 결국 4월에 왜군이 물러난 뒤에야 수복하게 되었다.

(3) 행주 전투(幸州戰鬪)

■ 전투 전의 상황

평양 전투에서 패퇴한 왜군은 벽제관 전투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쟁 초기보다 전력이 크게 약화되어 한성 방어에만 급급하게 되었다.

한편 전라도 감사로서 순찰사를 겸하고 있던 권율(權慄)은 화성의 독산산성에 머물면서 한성과 가까운 행주산성을 전략적 요충지로 선정하여 목책을 만들고 병력을 독산산성에서 이곳으로 은밀히

이동시켰다. 그리고 인근의 파주·양천·강화·광교 등에 병력을 분산 배치하여 한성에 머물고 있는 왜군을 유인하였다. 그리고 권율 자신은 의병장 처영(處英) 등과 함께 정병 2천 3백여 명을 직접 거느리고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왜군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 전투 경과

권율이 한성부 서쪽 20리 지점에 진을 치고 적의 주력 부대와 일전을 준비하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한성의 왜군은 3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목책 토성으로 이루어진 행주산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모두 7개 부대로 나누어 차례로 공격을 가해 왔다. 많은 수의 병력과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은 당장에 산성을 점령할 기세였고 성 안의 아군은 최신형 무기인 화차(火車), 수차석포(水車石砲) 등을 사용하여 차례로 적을 몰리쳐 나갔다. 전투가 진행될수록 적의 시체는 산성 부근에 쌓여 갔고, 지형적으로 한강과 인접해 있어 일시에 공격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결국 수천 병력을 상실한 뒤 왜군은 서서히 패퇴하기 시작하였다. 산성 부근에는 수많은 적의 시체와 말, 깃발 등으로 어지러웠고 산성 안의 아군은 육전에서 큰 승리를 얻었다. 특히 행주산성의 싸움은 주변 주민들과 의병·승병·관군 모두가 참여해 거둔 승리였으므로 그 의미는 더욱 크게 후세에 전달되었다. 행주 전투 후 왜군의 한반도 경략이 임진강 이남 지역으로 한정되었고 점차 공격 형태에서 방어 형태로 전환되었다.

(4) 고양 지역의 의병 활동

임진왜란 당시의 고양 지역 의병 활동은 일반민을 중심으로 한 의병 활동으로 대표될 수 있다. 특히 행주 전투·벽제관 전투가 전개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그 활동 범위·규모·횟수가 절정을 이루어 행주산성 전투 때나 왜군의 후방 교란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고양 8현의 한분인 석탄 이신의 같은 분은 향군을 이끌고 전투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들 의병 부대의 대부분은 고양 지역의 농민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이들은 창릉·경릉(서오릉)과 행주산성 부근 지역, 그리고 벽제의 고양과 파주 등의 경계 지역에서 소규모의 부대로 형성되어 있었다.

행주 전투에 참여한 의병은 주로 고양 지역의 농민들로 구성되었는데 비록 무장이 허술하고 훈련은 부족하였으나 사기가 높아 관군을 도와 행주대첩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밖에도 행주대첩에는 최영 장군이 이끄는 승군도 서북쪽의 자성에서 진을 치고 왜적을 물리쳤다. 싸움이 오랫동안 계속됨에 따라 화살과 포

탄이 떨어지자 성 안의 부녀자들이 행주치마로 돌을 날라다 주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한다.

또 하나 고양 지역의 대표적인 의병 활동은 현재 숫돌 고개 정상 부근으로 옮긴 밤보시(밥할머니)에 대한 것이다. 「불교세계」

(1992년 5월호)에는 '밥보시 할머니는 여인 부대를 구성하여 행주산성의 승병을 돋기 위해 각자로 흩어져 봉화불을 지르고 북, 꽹과리, 징 등으로 적의 대열을 어지럽게 하였다'고 했으며 '조선 조의 도원수 김명원을 찾아가 왜군의 약점을 일러 대폐시킬 수 있는 묘책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 이 부대 중의 하나인 꼬깔부대는 밥할머니의 지략으로 큰 바위 위에 짚을 입혀 군량미같이 노적봉을 만들고 시냇물에 헛가루를 뿌려 적으로 하여금 쌀뜨물로 오인하게 해 군사가 많음을

암시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고양시 옛 신도읍 지역의 '밥할머니와 노적봉'이라는 전설로 구전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고양의 의병 활동이 부각된 것은 첫째, 고양 지역이 한성과 평양·의주간 교통의 요충지로 전략상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고 둘째, 서울의 근교로서 항상 왜적의 침탈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해야 했으며, 의병에 가담함으로써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고양 8현과 같은 사상가들이 일찍이 고양 지역의 문화의식·역사의식을 고취시켜 민족의식이 남달리 높았다는 점이다.

(5)「고양군지」에 보이는 고양의 모습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조 중·후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자세한 기록이 있는 것은 이석희 편 「고양군지」이다. 군지의 편찬자인 이석희는 영조 29년(1753년) 고양군수로 부임하여 경도(京都)의 근교이며 중국과의 교통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지승람」의 기록이 너무 간략하고 또 군지가 간행된 지가 오래되어 경내에 새로 설치한 능묘나 현인·효열(孝烈)의 기록이 모두 빠진 것을 보고 군지 편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중앙에서 범례(凡例)와 그 항목을 정해 각 읍면(邑面)별로 소략한 점이 많았다. 그리하여 다른



행주대첩의 의병 활동을 보여주는 부조

기록에서 채록하기도 하고, 듣는 대로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며, 각 면 각 자연 춘탁 마을과 이에 얹힌 전설까지 수록, 영조 31년(1755년) 정월 상순에 상세한 군지를 완성하였다.

현존하는 서울대학교 교내의 규장각(奎章閣) 소장본의 고양군지 체제를 보면 1행(行) 20자(字), 1엽(葉) 20행, 총 65엽의 단권(單卷)으로 된 필사본이다. 군지의 앞 부분에 이석희 군수의 서문이 있는데 서문을 통해 고양군지 편찬 동기를 기록하고 있다.

군지의 구성은 대개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론 부분과 각 면 단위로 기술한 각론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총론 부분은 각 경계, 건치 연혁, 성씨, 관원, 방명(坊名), 전답, 봉대, 역전, 관아 노비 등 15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각론 부분은 8개 면으로 나누어 리 명칭, 산천, 고적, 교량, 인물, 사찰 등의 순으로 기록하였다.

군지에 기록된 사방 경계는 군에서 한성까지는 남쪽으로 40리 떨어졌고 양주까지는 20리, 동쪽으로 양주 경계 서리동(書吏洞)까지 3리, 양주 관문까지는 40리, 서쪽으로 교하 죽원리와 접경 경계까지는 30리, 북쪽으로 파주 경계 혜음령까지 5리, 파주 관문까지 40리 떨어졌다.

당시 옛 군의 명칭은 달을성현·고봉·행주·개백·우왕·왕봉·덕양의 명칭이 있고 관원으로 군수 1인, 훈도(訓導) 1인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에 거주하던 성씨(姓氏)는 고봉에 고(高)·태(泰)·강(康)·송(宋)·전(田), 행주에 최(崔)·김(金)·강(康)·부(夫)·은(殷)·기(奇)·고(高)·즉(則)·나(那)·차(車)·이(李), 건지산에 황보(皇甫), 용산에 변(邊)·이(李)·강(康)이 살고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당시 군청 자리는 지금의 벽제 고양동 벽제관지 서북쪽 100m 지점에 있었다.

군지에 기록된 행정 구역은 사리대면(沙里大面), 원당면(元堂面), 구이동면(九耳洞面), 송산면(松山面), 중면(中面), 구지도면(求知道面), 하도면(下道面), 사포면(已浦面) 8면에 총 3,508호(戶)로 남자 6,785명, 여자 7,076명, 총 13,878명이다. 총 전답은 장부에 본군과 부원을 합하여 논밭 3,937결 52부 1속이 있는데, 본군 원장부의 3,213결 61부 3속 내에는 밭이 1,599결 40부 1속, 논이 1,614결 20부 2속이 있다.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곡식을 합하면 8,383석 2두 2승 6합 5

작이며 군인의 총 수효는 양군(良軍)과 사군(私軍)을 합하여 3,774명이다. 아전은 총 102명, 각 관아의 노비는 10명이다.

사리대면은 처음 경계에서 서쪽으로 대자리와 10리 떨어져 있고 끝으로는 하패리와 25리 떨어져서 교하와 접하고 있다. 원당면은 처음 경계에서 남쪽으로 신원리까지 10리, 마지막 경계인 구지도면 접경에서 도내동리까지 25리이다.

구이동면은 초입 경계에서 서쪽으로 성동리까지가 20리, 마지막 경계에서 식사리까지가 20리이다. 송산면은 처음 경계에서 서쪽으로 덕이리까지가 30리, 마지막 경계는 구산리에서 50리의 한강으로 통진 경계와 접한다. 사포면은 처음 경계에서 성저리까지는 30리,



조선조 후기 고양군 지도

〈고양군지에 보이는 관할 구역(1755년 영조대)〉

면 (面)	리동면 (里洞名)	호구수 (戶口數)	마을명 (坊名)	면 (面)	리동면 (里洞名)	호구수 (戶口數)	마을명 (坊名)
사리대면 (沙里大面)	읍내리	251		중면 (中面)	저전일패리	84	후곡촌(後谷村), 주이근촌(舟鷺谷村),
	대자리	103	오리동(梧里洞), 용복원(龍伏院), 요어지관촌(要施寺官村), 고군촌(古郡村)		저전이패리	90	와이촌(瓦野村)
	관산리	75	시모동(寺慕洞), 미근포(麻根浦)		마두리(馬頭里), 징황리(鐘潢里),		
	사리현리	63	옹임동(甕岩洞), 구서원촌(舊書院村)		내곡촌(內谷村)		
	내신리	102	내동촌(內洞村), 계기동(鎰基洞)		득증촌(德宗村里)		
	죽원상패리	64	즉영동(即榮洞), 빙식촌(氷石村)		식곡촌(植谷村)		
		93	은령촌(銀杏村), 어제동(於堤洞), 신촌(新村), 동산후촌(東山後村), 대을촌(伐乙村)		석곶촌(石串村)		
	합계	756戶 男1,428 女1,608			방기리(方基里), 갈두리(葛頭里), 천조리(泉草里)		
		7개 리			상도촌(上島村), 무겁촌(無劫村)		
					합계 7개 리 男1,088 女1,026		
원당면 (元堂面)	일패리	133	청대동천(靑大洞村), 도촌(島村), 물고리촌(勿古里村), 신촌(新村), 루(樓), 능곡(陵谷)	사포면 (已浦面)	성저리	66	장리촌(場里村), 신촌(新村)
	이패리	103	박재궁촌(朴齋宮村), 주교촌(舟橋村), 이임곡(利鶴谷), 시근사(沙斤寺), 성라산촌(星羅山村)		대화리	94	강서동(江西洞), 포번리(浦邊里), 도촌(島村)
	신원리	72	한정촌(寒井村), 학릉피촌(蛤陵皮村), 묘지촌(墓地村), 주막(召幕)		이산리	90	동서촌(東西村)
	목희리	81	승현촌(松懈村), 극촌(駁村), 궁촌(宮村)		합계	250戶 男498 女455	
	도내동리	86	엄포(鹽浦), 동두내촌(東頭內村)		대장리	184	내곡촌(內谷村), 갈산리(葛山里), 냉정촌(冷井村), 화수촌(花水村)
합계	475戶 男854 女881	5개 리		구지도면 (求知道面)	토당리	72	삼청당리촌(三唱堂里村), 빙석리(氷石里), 능곡촌(陵谷村)
					강고산리	55	마상종리(麻桑種里)
					가라산리	42	가라산촌(加羅山村)
구이동면 (九耳洞面)	성동리	139	부사문촌(婦死門村), 김로촌(甘露村), 마위곡(馬位谷), 이진촌(泥田村)		동행신리	24	지근리(柱匠里)
	식사리	86	영수미촌(英水味村), 오릉곡(五龍谷), 견달산촌(見達山村), 도감촌(都監村)		서행신리	34	번답리(番答里)
		225戶 男493 女505			내성동리	42	성곡리(城谷里), 엄진촌(染田村)
	합계	2개 리			외성동리	79	행주소아동(杏村小兒洞), 걸석촌(結石村)
					합계	533戶 男1,039 女1,071	
송산면 (松山面)	덕아동리	152	탄현촌(炭峴村), 한산촌(寒山村), 도리곡(道里谷), 길안산(笠安山)	하도면 (下道面)	청담리	98	사기묘촌(沙基募村), 목리촌(木里村), 삼승리촌(三松里村), 지정리촌(抵寧里村)
	기좌동리	79	당맹도(唐盲島), 석음암곡(石音染谷), 증산리(中山里), 아미촌(夜昧村)		용두리	101	신촌(新村), 우라리촌(牛羅里村)
	구산촌리	59	구산촌(龜山村), 장산촌(獐山村)		회전리	77	자선산촌(地石山村)
		290戶 男630 女609			향동리	43	일촌(一村)
합계	3개 리				난자도리	127	신초리촌(新草里村), 덕근리촌(德斤里村)
					합계	446戶 男772 女921	

마지막 경계는 법꽃리에서 45리 떨어져서 강수를 경계로 김포와 맞닿고 있다. 중면은 처음 경계는 고을에서 서남쪽으로 일폐리까지의 거리가 30리, 동쪽으로 구지도면과 접하고 서쪽으로 사포면과 접한다. 마지막 경계는 도중리인데 강물로 김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구지도면은 처음 경계가 남쪽으로 대장리까지 20리, 마지막 경계는 행주촌 35리인 해면이다.

하도면은 처음 경계는 남쪽으로 청담리와 20리 떨어져 있고 마지막 경계는 공암리진과 40리 떨어져 있는데 양천과 접경하고 있다.

9) 일제 시대

(1) 구한말 일제 시대

조선 고종 32년(1895년) 이전의 지방 행정 조직은 앞에서 살펴본 8개 면이 줄곧 이어져 유지되었다. 구한말인 1895년 종래의 8도제(道制)를 폐지하고 한성부 아래 23부가 설치되어 각 부에는 관찰사가 임명되었다. 당시 고양 지역은 1년 3개월 동안 한성부에 속해 다음해 건양(建陽) 원년(1896년) 8월 4일에 칙령(勅令) 제36호에 의해 실시된 13도제로 바뀌었으며 당시 고양군은 경기도의 4등군(等郡)이 되었다. 일제국주의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침략이 완성되어지는 1906년(광무 10년) 9월 24일에 칙령 제49호(지방구역정리 전)로 양주군의 신혈면(神穴面)이 고양군으로 편입되어 8개 면에서 9개 면(사리대면·원당면·하도면·구지도면·구이면·중면·송산면·사포면·신혈면)이 되었다.

그후 1910년 일본인의 제도권 아래 8월 23일 경기도 고시 제6호로 리동(里洞)을 합병 개칭하였다. 이때 개칭된 내용을 보면 먼저 사리대면의 대자상하리(大慈上下里)를 합하여 대자리라 칭하고, 관산일이폐리(官山一二牌里)와 시묘동(侍墓洞)을 합하여 관산리라 하고, 내산리(奈山里)와 유산리(遊山里)를 합하여 내유산리로, 상일폐리(上一牌里)를 지영동(芝永洞)으로, 하폐리(下牌里)를 설문리(雪門里)라 개칭하였다.

중면(中面)은 대소주엽리(大小注葉里)를 합하여 주엽리라 칭하고, 이폐리 일부분 장항리와 도중(島中) 일이폐리를 합하여 장항리(獐項里)로 하고, 이폐리 일부 마두리와 율동(栗洞) 일부분과 신촌(新村)을 합하여 마두리(馬頭里)라 칭하고, 율동 일부분을 와동(瓦

洞)과 합하고, 사포면(巴浦面)에 성저리(城底里)와 대화리(大化里)를 합하였으며, 송산면(松山面) 추산리(秋山里)를 덕이동(德耳洞)에 합하였다.

구지도면(求知道面)은 일패리를 내곡리(內谷里)라 칭하고, 이패리를 대장리(大壯里)로 하고, 화수리(花水里)와 냉정리(冷井里)를 합하여 화정리로 칭하고, 능동(陵洞)과 삼성당리(三星堂里)를 토당리(土堂里)에 합하였고, 매화정리(梅花亭里)와 강고산리(江古山里)를 합하여 강매리로 개칭하고, 동서행신리(東西幸信里)와 가라산리(加羅山里)를 합하여 행신리(幸信里)라 하고, 내성동(內城洞)을 행주내리(幸州內里)로 고치고, 외성동상하리(外城洞上下里)를 합하여 행주외리로 칭하였다.

하도면(下道面)은 향동 상하리를 합하여 향동(香洞)으로 칭하고, 난상중리(蘭上中里)를 합하여 덕온리(德隱里)라 칭하였고, 화전리 일부분 현천에 합하여 현천리(玄川里)라 칭하였다.

신혈면(神穴面)은 일패리와 목암리(木岩里)를 합하여 벽제리(碧蹄里)라 칭하고, 지정리(紙亭里)와 축리(柵里)를 합하여 지축리로 하고, 목암리는 진관 부분 외리에 합하여 진관내리(津寬內里)로 칭하였으며, 전석리는 진관 일부분 외리에 합하여 진관외리로 하였다.

원당면(元堂面)은 일패상하리를 합하여 원당리(元堂里)라 칭하고, 송현리(松峴里)와 목희리(木稀里)를 합하여 원홍리(元興里)라 칭하고, 사근사리(沙斤寺里)와 삼패리를 합하여 성사리(星沙里)로 하였으며, 주교상하리와 박재궁리(朴齊宮里)를 합하여 주교리(舟橋里)로, 간촌리(間村里)를 도내동(道乃洞)에 합하였다.

한편 한일합방에 이은 식민지로의 전락 이후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써 경성부 내의 부와 면의 명칭 및 구역을 정하고 바로 시행하였는데 종래의 5서(署)는 폐지하고 다시 부의 명칭을 복구하였다.

이것은 종래의 5부와 성저십리제(城底十里制)를 경성부 5부 8면 제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고양 지역과 직접 연관된 것은 성지 10리 지역으로서 8면에 해당되는 지역의 일부가 때에 따라 고양 지역에 편입되기도 하고 서울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이 성 외의 8면은 승인면(崇仁面, 40개 동리), 인창면(仁昌面, 40개 동리), 용산면(龍山面, 31개 동리), 서강면(西江面, 10개 동리), 한지면(漢芝面, 9개 동리), 두모면(豆毛面, 11개 동리), 은평면(恩平面, 36개 동리), 연희면(延禧面, 30개 동리)으로써 8면 207동리 지역이다. 이

8개 면은 서울의 인근 지역이라는 지리적 관계로, 고양·서울의 행정 구역이라는 지리적 관계로 행정 구역 변경에 따라 각 면의 일부 또는 전 지역이 고양과 서울로 소속이 번갈아 변하였다.

그리고 1912년에 들어 8면의 동리 일부가 성내 5부에 편입되었으며 이때 고양은 9면 50개 동리의 행정 구역을 관할하였다. 이 9면 50개 동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사리대면(沙里大面), 옛 벽제읍 지역.

당 읍내리, 고양리 대자리, 관산리, 내유리, 사리현리, 지영리, 문봉리, 설문리, 모두 8개 리.

②신혈면(神穴面), 옛 벽제읍 동남쪽, 옛 신도읍 동북부 지역.

벽제리, 선유리, 오금리, 지축리, 진관내리, 진관외리, 구파발리, 모두 7개 리.

③원당면(元堂面), 옛 원당읍 지역.

신원리, 원당리, 주교리, 원홍리, 성사리, 도내동, 모두 6개 리.

④하도면(下道面), 옛 신도읍, 화전읍 지역.

삼송리, 동산리, 용두리, 향동리, 덕은리, 현천리, 화전리, 모두 7개 리.

⑤구지도면(求知道面), 옛 지도읍 지역.

내곡리, 대장리, 화정리, 토당리, 행신리, 강매리, 행주내리, 행주외리, 모두 8개 리.

⑥중면(中面), 옛 일산읍 지역.

산황리, 풍리, 백석리, 마두리, 장황리, 와동(일산리), 주엽리, 모두 7개 리.

⑦구이면(九耳面), 옛 원당읍, 벽제읍 지역.

식사리, 성석리, 모두 2개 리.

⑧사포면(巴浦面), 옛 송포면 남동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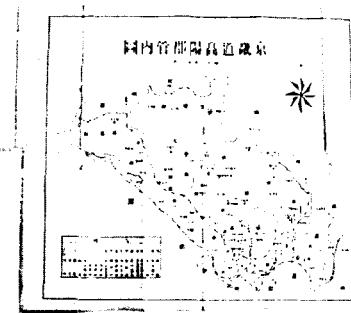
대화리, 범꽃리, 모두 2개 리.

⑨송산면(松山面), 옛 송포면 북서 지역.

덕이리, 가좌리, 구산리, 모두 3개 리.

(2) 일제 시대의 고양

1912년에 이어 1914년에 들어 고양군의 관할 구역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2회에 걸친 행정 구역 변화는 경성부의 성내(城內)를 제외하고 성외(城外) 8면과 양주군의 고양주 면 전부를 고양군에 편입시키고 경성부의 남부 일부도 고양군 용산면에 편입시켰다. 또 1914년 3월 13일 경기도령에 의해 2차 행정 구역 변경이 있었으며



1910년대에 만들어진 고양군 지도

이때 새로이 경성부에서 편입된 지역은 한지면(현재의 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 지역), 뚝(독)도면(현재의 성동구·송파구), 숭인면(현재의 성북구·동대문구·노원구·도봉구), 은평면(현재의 서대문구·은평구), 연희면(현재의 서대문구·은평구·마포구), 용강면(현재의 마포구·영등포구)의 모두 6개 면이었으며 기존의 벽제·신도·원당·지도·중면·송포면을 합하여 12개 면 155개 리가 되었다.

이 기간 중 고양 지역의 행정·교육·교통 체계는 경성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군청 역시 지금의 충정로 부근 지역에 있어 현재의 고양시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후 고양군 지역은 3·1운동이 전개되면서 운동의 중심 세력을 조직하게 되었고 관내 연희면의 연희전문학교(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주축으로 경성부 주변 지역에서 3·1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 많은 지역에서 노동 야학 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본 경찰에 의해 노동 야학 운동이나 민족독립운동이 경성부에서는 불가능해지자 그 여파가 경성부 부근의 고양군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고양군 지역은 여러 형태의 민족 운동으로 그 모습이 나타났다. 일제의 무단 통치가 점점 강력해지면서 일본인들의 정책도 일부 수정되어 1936년 2월 14일 관내의 용강면·연희면·한지면 지역을 경성부에 편입시키고 군청을 충정로에서 을지로 6가로 옮겼다.

1930년대 중반까지 지금의 고양 지역은 행정 구역 명칭상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원당초교·일산초교·고양초교 등이 설립되어 일인들의 식민지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관개 사업의 하나로 한강 제방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또 경의선을 중심으로 화전 지역에는 대규모의 일본군 군수공장이 만들어져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했고 그 주변 지역에 대홍관사와 같은 일본인 거주 지역도 생겼다. 또한 신작로라 불리는 길들이 곳곳에 만들어져 기존의 상권이 무너지고 전통·민속 등이 일제의 정책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다.

관내의 주민들은 주로 경성부에 떨감이나 독(항아리) 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작을 하는 영세 영농민들로, 이들 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 징집되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였다.

통일로, 경의선의 신설은 주변의 상권을 기존의 고양리 중심에서 일산·능곡·벽제 지역으로 바꿔게 했다. 또 일본 경찰이 주재하면서 이들은 철저한 강압 통치를 자행하였다.

일본은 고양 지역 곳곳의 산봉우리, 산줄기 등에 명산(名山)의 기운을 죽이기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풍수 침략을 하였고, 이때 각 마을에서 오랫동안 전래되어 오던 마을굿이나 공동체 도당 행사 등도 중단시켜 서서히 그 맥이 끊어졌다. 또 관내의 문화 유적·고분 등이 일인 사학자들에 의해 도굴되거나 일본으로 유출되어 온전히 보존된 유적이 거의 없었다.

결국 해방과 함께 일본인들은 고양 땅을 떠났으나 그들이 남기고 간 역사의 오도와 왜곡의 여파는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를 그대로 답습하는 과오도 범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0) 6·25 당시의 고양

(1) 초기 전투

6·25 초기, 전투가 발발하기 전 고양 지역은 국군 제1사단의 좌전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사단 본부는 수색(水色)에 위치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개성 방면의 제1사단 12연대는 초기 전투에서 북괴군의 기습에 의해 완전히 주방어 진지가 붕괴되었다. 임진강, 문산, 봉일천 전투에서 계속 후퇴를 거듭하던 아군의 제1사단은 송포의 이산포와 행주 나루터를 이용, 도하하여 김포 지역으로 후퇴하였다. 초기 단계에 있어 고양 지역의 6·25 당시 전투는 일방적으로 아군의 후퇴 상황에서 전개된 것이며 그만큼 피해 또한 매우 커졌다.

(2) 태극단의 활약

초기 전쟁에서 국군의 일반적인 후퇴와는 달리, 경의선을 중심으로 한 유격부대인 태극단(일명 T·K)이 조직되어 크게 활약했다. 태극단은 1950년 7월 5일 당시 고양군 중면 일산리에서 이장복, 안영근, 홍원식, 김복환, 최희성, 박정량, 이승국 등이 모여 조직한 반공청년단체였다. 이들은 20대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경의선을 이용하여 인근의 수색으로부터 파주 지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조직을 만들어 벽보 및 전단 제작·살포, 적의 통신망 절단, 철로 파괴, 강제 동원된 의용군의 분산 유도 및 도피 지원과 같은 간접 전투는 물론 국군과 함께 직접 전투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으로 무기를 갖

추어 유격전을 전개했다.

이들은 1950년 9월 유엔군측의 반격이 개시되자 적의 내무서원과 직접 전투를 벌이는가 하면, 각 조직지단을 결합하여 고양·파주 일대에서 패주하는 공산군의 잔병을 수색, 소탕하는 일에 전력하였다. 특히 국군의 9·28 서울 수복을 며칠 앞두고 수행된 태극단 백마지단 정발산 전투는 고양 지역의 수복과 치안 확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면전은 지하에 숨어 있던 태극단의 조직을 노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곳곳에서 단원들이 체포되어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다.

(3) 9·28 수복 후 전투 상황

서울 수복 이후 압록강까지 진출한 아군측은 중공군의 강압적인 전투 참여로 후퇴를 거듭하여 임진강선에 방어선을 구축한 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4월에 접어들어 대규모의 중공군이 집결하여 아군측은 고양동·벽제동 일대로 이동하고 서쪽으로는 일산·송포 지역으로 이동했다. 또 화전 지역에서는 망월산과 현천동, 토당동, 주교동에 진지를 구축하고 동산동, 삼송동에서는 창릉천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러한 전투 상황이다보니 고양·파주 지역에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관내의 송포·일산·교하 지역의 일반 주민 중에서 수십, 수백 명의 주민이 죽음을 당한 현장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당시 이곳은 현재 흔히들 말하는 '금정 구덩이'로 불리우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곳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벽제·송포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 오늘날의 고양

1950년대 6·25를 겪은 고양 땅은 실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1960~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근대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후 19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고양시 지역은 옛 지도읍 토당리, 원당읍 주교리, 성사리, 일산읍 일산리, 탄현리 그리고 벽제읍 관산리, 고양리 지역에 도시계획이 적용되어 본격적인 도시화 작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작업이 추진된 곳은 원당 지역

으로 주교리는 군청 등 관공서 밀집 지역으로, 성사리 지역은 고밀 주거 지역으로 개발되었다. 개발되기 이전의 원당 지역은 주교리의 박재궁, 이작골, 념말, 모탱이, 배다리 등 각 자연 촌락별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성사리 지역은 사근절이, 서풋말, 동풋말, 용우출이, 살꼬지 등 전통적인 농촌 촌락으로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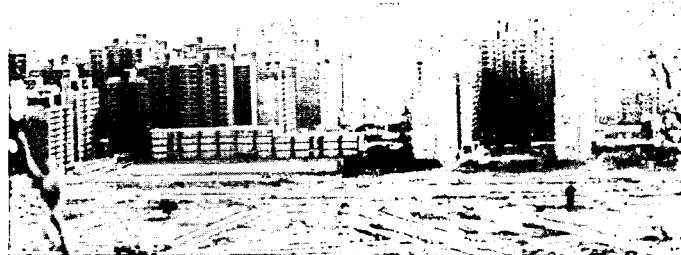
옛 지도읍 토당리의 경우, 기존의 경의선 부근 역세권 상권에서 현대적인 주거 형태의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여 농경 중심의 상권이 서비스업 등으로 전환되었으며, 아울러 행신리, 능곡 지역도 이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대식 구조물로 변화되었다.

일산 지역은 일산역 주변의 일산 재래 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었다가 새로이 일산 사거리 탄현리 지역으로 상권이 분산되었으며 고밀 주거 형태의 아파트가 제한된 범위에서 건설되었다.

벽제 지역은 크게 통일로 주변의 관산리 지역과 39번 국도 주변 이면서 파주군의 통로가 되는 고양리 지역이 중점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고양리 지역의 경우 그 개발 면적이 부족하고 주변이 군부대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매우 기이한 형태로 개발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자체의 도시 개발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기존의 농경 생활권이던 고양 지역은 수도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서서히 주목되었다. 결국 외부 인구의 급증으로 교육 문제, 교통 문제 등이 군(郡) 행정이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농촌의 농경 작물 역시 벼농사, 밭농사 중심에서 비닐하우스, 화훼 농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지역 이외의 고양시 대부분 지역은 개발



신시기자가 개발중인 일산강선, 문촌 마을)

제한 구역 내에 포함되어 축사, 창고 하나도 넓히거나 개축하지 못 하였으며 기계화 작업이 느리게 추진되어 생산성 또한 저조한 실정이었다.

1989년 4월, 일산 신시가지 건설 발표는 고양시 지역의 지역 운동과 조직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수백 년에 걸쳐 일가(一家)를 형성했던 농촌 지역에 이러한 신시가지 개발 발표는 엄청난 과급 효과를 내었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대응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신시가지 개발 반대 운동은 지금까지도 변화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택지 개발 지역의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이어 발표된 중산, 탄현, 성사, 능곡, 행신, 화정 지역의 신시가지 발표는 그 방법이나 시간에서 볼 때 엄청난 변화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일산 신시가지 건설중에 있었던 한강 제방 붕괴는 고양 지역의 서쪽 벌판을 진흙 속에 묻히게 하였고, 수천 명의 주민이 생활 터전을 잃거나 전환하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고양 지역의 지역 경제는 크게 활성화 되었다. 인구가 급증하고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 발전을 가져왔다.

결국 이러한 많은 긍정적, 부정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고양군은 1992년 2월 1일부로 시로 승격되었으며, 작은 농촌시 규모가 아닌 전국에서 특별시, 직할시를 제외한 가장 넓은 면적의 광역 도시로 발돋움하였다. 신시가지 택지 개발 지역에 대규모의 주민이 입주하면서 인구가 급증해 1996년 3월 1일 일산구와 덕양구로 구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2) 고양의 2천년대 미래 모습

2천년대는 1백만 규모의 대도시로 발전, 남북 교류의 중심지 및 서북 지역의 국제 도시화로 성장하고 내부 지향적인 자족 도시로 정착, 정치, 문화, 관광, 외교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의 2천년대 미래 모습〉

구분 연대	1981	1995	2000	신장률
인구	158,839명	564,111명	964,862명	1.7배
가구	33,962가구	185,703가구	198,390가구	1.1배
재정 규모	7,142백만원	383,354백만원	913,724백만원	2.4배
주택 공급	21,383호	158,725호	174,439호	1.1배
상수도 보급율	-	85.4%	92.5%	1.1배
하천 개수	21km	78km	104km	1.3배
도로 포장	32km	529km	605km	1.1배
자동차 보급	1,392대	116,183대	183,113대	1.6배
전화 보급	7,172대	194,481대	579,289대	3.0배
의료 기관	21개소	278개소	362개소	1.3배
교육 시설	34개교	100개교	102개교	1.0배
공장	206개소	569개소	1,490개소	2.6배
문화예술 시설	2개소	8개소	15개소	1.9배

시대	연대	주 요 사 항
선 사		구석기 시대 토기·석기 밸글 일대(대화동, 주엽동, 마두동). 신석기 시대의 유물인 토기·석기(관산동, 내유동, 오금동, 지축동, 백석동). 빗살무늬토기(지영동, 가좌동). 고인돌(문봉동, 관산동, 신원동, 회정동, 성석동). 빗살무늬토기·반달 모양 돌칼(지축동, 오부자동). 신석기 시대 범씨 출토(대화동, 주엽동). 청동기 시대 동모·동과·동검(원당동, 회정동 석검).
고 대	371 475 551 552 661 757 911	대방군→백제→고구려→신라. 고구려→개백현, 신라→우왕현. 백제 근초고왕 28년, 도읍 천도, 북한성으로 불림. 고구려 장수왕 63년, 남정달을에 속함. 이후 달을성현(고봉), 개백현(행주, 덕양)으로 구분. 백제 성왕 29년, 나제동맹군 북방 공략으로 백제 영토로 수복. 신라 진흥왕 13년, 백제 6군 점령, 신라의 영토로 됨. 신라 문무왕 1년, 원효 홍국사 창건(덕양구, 지축동). 신리 경덕왕 16년에 고봉현(교하군 영현), 우왕현(일영 왕봉현). 궁예, 태봉국 건국, 태봉국 영토.
고 려	1018 1285	현종 9년, 양주에 소속(지양주시, 남경유수관, 한양부사) 관리를 밟음. 충렬왕 11년, 부원으로 고침.
조 선	1394 1413 1471 1504 1506 1593 1842	태조 3년, 고봉으로 명칭, 현감을 둠(행주·부원·향조향 예속). 조선 태종 13년, 고봉·덕양(행주 별칭)을 합쳐 고양으로 고치고, 현감을 둠. 성종 2년, 고양군으로 승격(관내에 왕릉이 있으므로). 연산군 10년, 군 폐지, 왕의 유흥지로 변함. 중종반정, 고양군으로 복귀. 선조 26년, 복제관 전투, 권율의 행주대첩(행주산성). 현종 8년, 행주서원 창건(덕양구 행주외동).
근 대	1895 1906 1910 1911 1914 1919 1936	고종 32년, 고양군이 됨(한성부 소속). 양주군 신혈면이 고양으로 편입. 관내의 마을 이름을 합병하여 개칭. 9면 50개 리를 관할. 경성부 8개 면, 12개 면 155개 리를 관할 용강면, 연희면, 은평면, 숭인면, 뚝도면, 한지면(이상은 현재의 서울 지역)과 벽제면, 신도면, 원당면, 지도면, 송포면, 중면, 군청 소재지는 서울시 충정로. 3월 9일 한지면 및 군민 3.1독립 만세 시위. 용강·연희·한지 3개 면 경성부로 편입.
현 대	1946 1950 1961 1963 1967 1973 1979 1980 1985 1989 1992 1995 1996	은평·숭인·뚝도 3개 면 서울시 편입. 북한공산군 침입, 주민 수난. 군청 임시 이전(당시 원당읍 성사리). 군청 이전(당시 원당읍 주교리 97번지). 신도면 화전 출장소 설치. 구파발리, 진관내·외리가 서울시로 편입. 신도면 읍으로 승격. 원당면 원당읍으로 승격. 증면 일산읍, 벽제면 벽제읍으로 승격(4읍 2면). 지도면 지도읍으로, 화전 출장소가 화전읍으로 승격. 일산 신도시(신시가지) 개발 발표. 고양군 전체 고양시로 승격. 초대 민선시장 선거 결과 현 신동영 시장 당선. 고양시 덕양구, 일산구로 나뉘어짐.

3

고양의 지명 이야기

이야기

다음의 지명 유래 내용은 시 승격 전 고양군 당시의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여 수록하였으며 덕양구, 일산구를 따로 구분하였다.

1) 덕양구(德陽區)

■ 주교동(舟橋洞)

주교동은 고양시청이 위치한 곳의 법정동 명칭으로 농촌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마을의 동쪽 끝으로 서울 교외선이 통과하며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지명에 대한 첫번째 유래설은 1920~30년대 한강 제방이 쌓여지기 전, 이곳 주교동(배다리)에는 한강으로 흐르는 샛강이 있었는데 이 샛강에 다리가 없어 배(舟)를 가지고 다리(橋)를 만들어 건너 다녔다고 해서 생겨난 지명이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갯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토탄충이 대규모로 출토되고 있다. 관내에 원당초등학교, 원당중학교가 있다.

두 번째 유래설은 지형과 관련된 유래설로, 마을의 모양새가 마치 배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배다리(주교동)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교동에는 박제궁, 독곶이, 이작골, 넘말, 능골, 장터거리 등의 작은 마을이 있다.

■ 식사동(食寺洞)

식사동은 주교동에서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고양 공단으로 유명한 곳이다. 마을 뒤편에 고양시의 명산인 견달

산이 우뚝 솟아 있는데 영심이, 오룡동, 동거리, 방아고개, 어침이, 견달, 고운 마을, 능안골 등의 작은 마을이 있다. 마을 가운데로 개발 제한 구역 경계선이 지나며 논과 밭 그리고 산, 공장, 마을이 함께 있다. 관내 공단 입구에 원중초등학교가 있다.

식사동의 지명 유래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조선 태조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사류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이들의 칼을 피해 개성을 빠져나와 임진강을 건너 남쪽으로 도망가고 있었다. 개성에서 도망친 왕이 이곳 식사동에 도착했을 때 더이상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날이 어두워 공양왕은 이곳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쉬게 했다. 우리는 오늘날 이곳을 어침(御寢)이라 한다. 공양왕이 건너편을 바라보니 멀리서 한가닥 불빛이 보여 반가운 마음에 불빛이 비치는 곳을 찾아가 보니 그곳은 사찰이었다. 그후 공양왕이 원당동 왕릉골에 숨어 있을 때 이 절에서 매일 밥을 해 주었다 하여 식사란 명칭이 생겼다고 한다. 이 절 근처를 현재는 박적골(밥절) 또는 박절이라고 부르는데 식사동(食寺洞)은 밥절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원당동(元堂洞)

원당동은 고양시청이 있는 주교동의 북쪽과 동북쪽에 위치한 법정동 명칭으로 서삼릉, 고려 공양왕릉 등이 있는 곳이다. 교외선 기차가 마을을 통과하고 원당골, 섬말, 다락골, 제청말, 청대골, 진턱말, 왕릉골 등의 마을이 있다. 아파트, 상가 등은 거의 없고 옛 농촌 모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교외선 삼릉역과 39번 국도 등이 지나 교통이 편리하다.

이곳의 지명 유래는 서삼릉과 같이 뛰어난 문화 유적과 밀접한

원당동의 유래가 된 서삼릉의 정자각



연관을 갖고 있다. 예로부터 이곳은 정승이 많이 났고 또 그분들의 묘 자리로 널리 쓰이던 명당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서삼릉인데 이곳에 왕릉의 재실이 있어 '으뜸 원(元), 집 당(堂)' 자를 써서 원당이라 쓰게 되었다고 한다.

■ 신원동(新院洞)

신원동은 원당동의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곡릉천과 통일로를 사이에 두고 대자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관내에 뉴코리아 골프장이 있으며 개량식 주택이 많이 있다. 능골, 송강 마을, 안터, 조관동, 해방촌, 새원, 한우물, 장뜰 등의 마을이 있다. 통일로변에 장미농원, 석재상 등이 이어져 있고 교육 기관으로는 신원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조선 시대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이 옛 신원 2리(조관동 마을)에 위치한 신원초등학교 앞에 궁을 짓고 살았는데 그때 그 궁의 이름이 신원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또 다른说是 예전 이 마을 앞은 한양에서 중국으로 이어진 관서대로(關西大路)가 통과하였는데 새로 원(院)을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라고도 한다.

■ 원흥동(元興洞)

원흥동은 고양시청으로부터 동쪽으로 3~4km에 위치해 있는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솔개, 가시골, 나무드머리(육골, 구석말, 웃말, 궁석말) 등의 자연 출락 마을이 있다. 이곳에는 신라 말·고려 초기의 청자 도요지 등 몇 곳의 문화재가 있으며 견지산이 우뚝 솟아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이곳은 원래 목흥리(木興里)였는데 조선 시대 태종의 여덟 번째 아들인 익녕군이 죽어 이곳에 묻히게 되었을 때 지관이 이르기를 '이곳의 지형은 니구예형(泥龜曳形)인 바, 거북이는 본래 물에서 사는 동물이니 육지에 오르면 필시 거동이 불편할 것이니 이곳의 지명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며 '흥(興)'자를 '드물 희(稀)'자로 바꾸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이곳은 목희리로 불리우게 되었으며 「고양군지」에도 목희리로 표기되어 있다.

이즈음 인조의 옹립에 공이 컼던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 이괄은 반군의 무리를 동원하여 한양으로 진격, 벽제 땅에 이르게 되었다. 바로 이때 성묘를 갔던 심창이 이 급보를 듣고 곧바로 한양에 위급함을 알려 인조로 하여금 공주로 남행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은

이귀 휘하에 들어가 반란군과 대적하였다. 난이 평정된 후 인조는 심창에게 나라의 운을 근본적으로 일으키게 한 공이 있다고 치하하였고, 그때부터 이곳이 근본을 일으켰다는 원흥리(元興里)라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 도내동(道乃洞)

도내동은 원흥동의 남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원흥동과 비슷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 관내에 흥도초등학교가 있으며 고양 8현의 한 사람인 석탄 이신의 선생과 관련된 유적이 남아 있다. 마을 앞으로 화전, 용두동 지역과 경계로 창릉천이 흐르며 그 주변에 기름진 농토가 넓게 펼쳐져 있어 벼농사, 비닐하우스로 이용되고 있다. 마을은 석탄촌, 서촌, 동촌, 샛말, 은못이, 서재동(소죽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명 유래설은, 임진왜란 당시 석탄 이신의 장군이 이곳에서 용두동에 포진하고 있던 왜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창릉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지연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왜군의 수는 너무 많고 아군의 수는 적어 쉽게 공격을 당할 처지였다. 이에 이신의 장군은 아군도 왜군만큼의 병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병 3백여 명을 이끌고 며칠 동안 산을 돌았다 한다. 이런 사연으로 인해 이곳 산 이름을 도란산이라 하게 되었고 도내동이라는 고을 이름 역시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 성사동(星沙洞)

성사동은 흔히들 원당이라 부르는 성사 1·2동과 흥도동에 속해 있는 성사동으로 나뉜다. 성사 1·2동 지역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리골, 살곶이, 용우출이, 사근절이, 윗배다리, 수역이 등의 자연 촌락 마을이 있는 농촌 지역이었다. 이곳은 논과 밭이 많아 농사에 의존하였는데 도시계획에 의해 상가, 아파트가 건설되었으며 그후 신원당 마을인 성사 2동이 1990년대 초반에, 그리고 최근 일산선 전철 원당역이 이곳에 건설되었다. 마을 부근에 복재 기준 선생의 묘소를 비롯해 성라산, 성래 약수터, 성사·성라초등학교 등이 있다.

옛부터 이 마을에 있는 성라산(星羅山)에 올라가 별을 보면 별이 비단같이 많이 보인다 하여 ‘별 성(星)’ 자, 사근저리 마을의 ‘모래 사(沙)’ 자를 따서 성사리(星沙里)라 하였다고 한다.

■ 북한동(北漢洞)

북한동은 북한산 밑 산 기슭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고양시에서는 평균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이다. 마을은 대표적인 산촌 마을로 주로 바위 밑이나 하천 옆에 위치해 있다. 북한동은 북한산성의 안쪽 마을을 그 경계로 하며 많은 문화재들과 민속, 풍습 등이 남아 있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에 나무를 생업에 이용하였으나 요즈음에는 식당, 작은 규모의 가게 등 주로 등산객을 상대로 상업을 하고 있다. 마을은 하창, 서문안, 음짓말, 양짓말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동은 북한산 안에 있는 동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효자동(孝子洞)

효자동은 북한동의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구파발에서 의정부로 이어진 도로 우측에 있는 마을의 법정동과 북한, 효자, 지축을 합친 마을의 행정동 명칭이다. 마을은 자연 촌락 형태로 옛 모습이 많이 남아 있으며 밭농사, 관상수 재배, 상업 등을 주된 생업으로 하고 있다. 효자동의 지명 유래는 아래와 같은 전설이 그 기원이다.

조선 시대 한양 사대문 안에 살던 박태성이란 사람이 부친상을 당하여 지금의 효자동에 무덤을 썼다. 그는 효성이 유달리 지극하여 부친이 돌아가신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묘에 참배를 하였는데 이에 많은 사람들이 감복하여 박효자의 효성을 기리어 이때부터 마을의 이름을 효자리라고 하였다 한다.



효자동의 유래가 된
박효자(태성) 묘

■ 지축동(紙杻洞)

지축동은 효자동의 남서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효자동에 비해 비교적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 이곳에는 지축초등학교, 전철 3호선 지축역, 지축 기지 등이 있으며 창릉천 주변에 많은 주민이 살고 있다.

지축동은 마을에 싸리나무가 많이 서식하여 싸리나무골이라 불리던 옛 지명 축리와 닥나무가 많아 종이를 만드는 집이 많았기

때문에 불려진 지정동(紙亭洞)의 ‘지’ 자, 축리 마을의 ‘축’ 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 오금동(梧琴洞)

오금동은 삼송역의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마을의 남서쪽으로 1번 국도인 통일로가 지나고 있다. 마을은 크게 하촌, 중촌, 상촌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래는 모장말, 큰골, 새말, 당꼬말, 독정, 산막골 등의 자연 촌락으로 불리던 곳이다. 밭과 산이 많고 80년대 이후 비닐하우스가 대규모로 조성되었다. 주민들은 오금천 주변에 밀집해 살고 있으며 지명에는 여러 가지 유래설이 있다.

첫째, 마을의 생긴 모양이 마치 가야금 같다고 하여 생긴 설과 둘째, 옛날 한 선비가 이 마을 큰 오동나무 밑에서 거문고를 탔기 때문이라는 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을에는 정월 대보름날 마을 한가운데 있는 약정산 또는 백토산에 올라 달맞이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어느 해 뜻하지 않게 이 산에서 오동나무가 발견되어 오금동이 되었다고 한다. 끝으로 이곳에 아주 옛날부터 오동나무가 매우 많아 이 오동나무로 가야금을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유래설이 있다.

■ 삼송동(三松洞)

삼송동은 일산선 천철 삼송역을 비롯하여 삼송초등학교, 고양 중·종합고등학교가 위치한 곳의 법정동 명칭이다. 이곳은 옛 신도읍의 중심 지역으로 신도동사무소, 농협, 파출소 등이 위치해 있다. 통일로, 고양시청으로 이어진 310번 도로 등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주로 단층의 단독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서울에서 가까운 입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산, 능곡 지역에 비해 개발이 저조한 편이다. 마을 동쪽으로 창릉천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벽제관 전투가 벌어진 숫돌고개, 밥할머니 석상이 위치해 있다. 마을은 크게 신성주택, 세수리, 대갓뿌리 마을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삼송동은 세솔리(또는 세수리)라고도 불리는데 예전의 세수리 마을에 커다란 소나무 세 그루가 있어 세솔리라 부르다가 한자 음으로 바뀌어 삼송동이 되었다는 것이다.

■ 동산동(東山洞)

동산동은 삼송동의 동쪽에 위치한 법정동으로 최근 구파발~원

홍동간 도로가 새로 개통되었다. 집들은 창릉천 주변에 많고 화훼 비닐하우스, 석재상 등이 많다. 마을은 하촌, 바깥말, 새말, 상촌, 뱀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산동은 이 지명이 생길 당시 고양군청의 위치가 옛 벽제 지역에 있어 고양군청에서 불 때 동쪽 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불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 용두동(龍頭洞)

용두동은 동산동의 남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일명 용머리로 불리우며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관내에 서오릉이 있으며 구산동~고양시청간 도로가 개통되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마을 앞으로 60번, 55번, 59번 도로가 이어져 있고 주로 비닐하우스 화훼 농업, 채소 농업, 논농사가 성행하고 있다. 관내에는 용두초등학교가 있고 비선말, 아랫말, 능말, 윗말, 가운뎃말, 운하리 등의 자연 촌락 마을이 있다.

지명 유래설은 첫째, 이곳 마을의 형세가 마치 용(龍)의 머리(頭)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둘째, ‘아기 장수와 용마’ 전설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설이 있다.

■ 벽제동(碧蹄洞)

벽제동은 고양시의 가장 동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파주시, 양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의정부로 이어진 39번 국도와 66번 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개명산, 우암산, 앵무봉 등 높은 산들이 주위에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가 부분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은 농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응달촌, 목암동, 상곡촌, 전마을 등의 자연 촌락 마을이 있다.

지명 유래설은 첫째, 조선 시대 영조가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둬 짊거 죽인 후 이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시호를 사도(思悼)라 내리고 세자의 혼을 달래던 중 우연히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주위의 숲이 너무도 울창하고 골이 깊어 벽제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옛날 고위 관리가 길을 지날 때는 이를 큰 소리로 알렸는데 이 소리를 내는 기구를 벽제라고 했다. 이곳 벽제는 중국 북부 지방과 연결되어 있어 이 벽제 소리가 끝없이 났다고 하여 불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선유동(仙遊洞)

선유동은 교외선 벽제역의 동쪽으로 약 400m~2km 내 거리에 떨어져 있는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월촌, 성촌, 불미지 등의 자연 촌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며 도시화된 곳은 없다. 마을의 동쪽과 남쪽으로 곡릉천이 흐르고 교외선 철도가 마을을 가로질러 관통하고 있다.

선유라는 이름은 옛부터 이곳은 뜻이 맑고 경치가 좋아 신선(神仙)이 내려와 자연을 벗삼아 놀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고양동(高陽洞)

고양동은 벽제동의 남쪽, 대자동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고양시 동북쪽의 중심지이다. 관내에 고양동사무소, 고양 초등학교를 비롯해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다. 또한 벽제관지, 고양 향교 등 문화재도 다수 있으며 39번 국도 등이 지나 교통도 편리하다. 관내에 읍내, 점막, 향고골 등의 마을이 있다.

고양 시내에 고봉현과 덕양현이라는 두 개의 현이 있어 군 이름을 지을 때 이 두 현의 이름 중 고봉현에서 ‘높을 고(高)’자를, 덕양현에서 ‘별 양(陽)’자를 따서 고양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고양동은 이곳에 군수가 머무는 관사·관아 등이 있어 ‘고양의 중심지’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라고 한다.

■ 대자동(大慈洞)

대자동은 고양동의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대부분 자연 촌락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관내에는 쌍궁말, 고골, 대적골, 빙정동, 용복원, 한오동, 새원 등의 자연 촌락 마을이 있다. 고양 시내에 가장 많은 문화 유적이 있는 곳 중의 하나로 최영 장군 묘를 비롯해 연산군대 금표비 등도 이곳에 위치해 있다. 67번 도로, 1번 국도, 39번 국도가 관내를 통과하고 있으며 남쪽 끝으로는 교외선 기차가 통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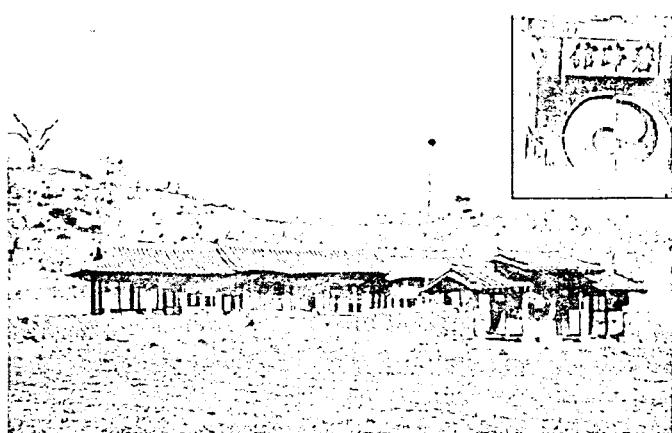
대자동이란 유래설은 다음과 같다. 조선조 태종 임금의 넷째 아들인 성령대군은 총명하고 용모가 단정하여 태종 임금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만 홍역에 걸려 일찍 죽고 말았다. 이에 상심한 태종은 무덤 근처에 암자를 세워 불공을 드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길이 너무 멀어 임금이 이곳을 자주 왕래하면 후 나라 일을 소홀히 할까 봐 잊은 행차를 삼가하도록 진언하였다. 이에 태종은 무덤 근처에 큰 자비를 내린다는 뜻으로 대자사(大慈寺)라는 절을

지어 성령대군의 명복을 빌었으며 이때부터 이 절의 이름을 따 대자리로 부르게 되었다.

■ 관산동(官山洞)

관산동은 대자동의 서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통일로가 통과해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마을의 자연 촌락 명칭은 시묘동, 깊으내, 주막거리, 넘말, 두포동, 가장동, 고골 등의 마을로 되어 있다. 일부 지역은 아파트, 상가 등이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논, 밭,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서쪽으로 곡릉천이 흐르고 시민들의 휴식처인 벽제 전체육공원도 이곳에 있다. 인근에는 필리핀 참전 기념비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관산동이란 이름은 조선 시대부터 한양에서 평양, 개성, 의주 그리고 멀리는 중국 등을 왕래하던 관원들이 숙박을 하던 객사(벽제관)가 조선 초~인조조에 이곳에 있어 붙여진 명칭이다.



관산동의 유래가 된
소설되기 전의 벽제관 모습

■ 내유동(奈遊洞)

내유동은 관산동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관산동에서 파주, 봉일천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관내에는 내산동과 응달촌, 신성동, 유산동 등의 자연 촌락 마을이 있는데 통일로인 1번 국도가 마을 앞쪽에 위치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내유초등학교, 경찰 연수원 등이 관내에 있으며 도시화된 곳은 거의 없고 대부분 농촌 마을로 남아 있다.

내유동은 이 지역에 있는 내산(奈山)과 유산(遊山)의 두 마을 이름에서 첫글자씩을 따 만든 명칭이라고 한다.

■ 토당동(土堂洞)

토당동은 경의선 능곡역이 있는 부근 마을의 법정동 명칭이다. 옛 지도읍의 중심지로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이 동시에 있는 곳이다. 사뫼, 능골, 얼음뜰, 삼성당 등의 자연 촌락 마을이 있으며 시장,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기도 하다. 능곡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능

곡종합고등학교 등 교육 기관과 파출소, 동사무소, 농지개량조합, 농협 등 여러 기관과 사회 단체 등이 밀집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히 도시화 되었으며 이전에는 주로 논과 밭, 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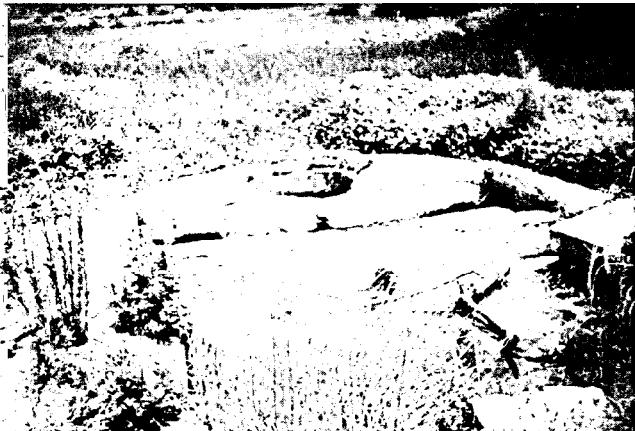
토당동의 유래에는 첫째, 이 마을에는 예전부터 치성을 드리던 삼성당이라는 사당이 있어 마을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 삼성당에 흙으로 만든 사당, 곧 토당(土堂)이 있어 마을 이름이 토당리가 되었다는 것과 둘째, 삼성당에서 지내던 도당굿, 도당제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로, 도당굿(제)을 지내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도당리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토당리가 되었다.셋째, 옛부터 이곳에는 낙향한 선비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들이 돈이 없어 흙으로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토당리라 하였다고 한다.

■ 내곡동(內谷洞)

내곡동은 토당동의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능곡역에서 일산 신시 가지 방향에 위치한 법정동 마을이다. 마을 뒤편으로 염주산이 있으며 앞쪽의 한강 방향에는 드넓은 능곡 평야가 펼쳐져 있다. 마을 앞으로 통일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경의선이 관통하고 곡산역이 마을과 가까운 곳에 있다. 대부분 농촌 지역으로 안골, 뒤꾸지(뒷골) 마을이 있는데 집들은 대부분 개량식 한옥이 많다. 교통은 능곡으로 이어진 마을버스와 기차를 이용하고 있다.

내곡동은 멀리 능곡 방향에서 볼 때 염주산 산 기슭의 안쪽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불여진 지명이다.

화정동의 유래가 된 찬우물



■ 대장동(大壯洞)

대장동은 내곡동과 토당동 사이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흔히들 '대재이'라 부른다. 대부분 농촌 마을이며 상대장, 중대장, 갈머리 등의 자연 촌락 마을이 있다. 마을 중앙으로 교외선이 지나고 마을에 대정역이 위치한다. 화정동과의 사이에 큰 벌판이 형성되어 있으며 내곡동에서 이어진 도로가 있다.

대장동은 이 마을 뒤편에 있는 산의 생김새가 마치 '큰 대(大)' 자처럼 뻗어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 화정동(花井洞)

화정동은 능곡과 원당 사이의 39번 국도 우측에 있는 마을로 화수촌(골머리), 냉정(찬우물), 백양동 등 일반 농촌 마을이었으나 1990년대 초 아파트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현대적인 아파트 지역으로 조성되었다. 본래 배밭, 채소밭, 논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곳이다. 국사봉과 그 산줄기에 안겨 서쪽을 향해 있던 마을은 맑고 깨끗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옥빛, 달빛, 은빛, 별빛 마을로 구분되어 있으며 덕양구청이 이곳에 소재한다.

화정은 옛 화정 1리 화수촌과 화정 2리 찬우물(냉정), 두 마을의 '꽃 화(花)' 자와 '우물 정(井)' 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 행신동(幸信洞)

행신동은 토당동의 동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이곳은 장고뫼, 벤데뫼, 가라뫼, 소만이, 차장말, 무원이, 송장 고개, 성신 마을 등의 자연 촌락이 있던 곳이며 현재는 소만 마을, 무원 마을로 구분되어 있다. 논농사 위주의 마을로 마을 남서쪽으로 경의선, 교외선이 지나며 화전, 수색으로 이어진 398번 도로가 있다.

행신이란 이름은 약 300년 전 청주 한씨 자손들이 이곳에 묘지를 쓰면서 머물러 살게 되었는데 그 후손들이 이곳에 머물러 사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서로 믿으면서 살라는 뜻에서 행신리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 강매동(江梅洞)

강매동은 행신동의 남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매화정, 은행정, 강구산 마을로 되어 있다. 대규모의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으며 대부분 농촌 지역으로 남아 있다. 마을 동남쪽 끝으로 창릉천이 흐르고 경의선 강매역이 마을 입구에 있다.

옛 지도읍의 대표적인 마을인 강구산 마을의 '강(江)' 자와 매화정 마을의 '매(梅)' 자를 따서 강매리(江梅里)라는 법정동 이름이 만들어졌다.

■ 행주 내·외동(幸州 内·外洞)

행주내동은 강매동의 서쪽에 있는 마을로 행주산성 안쪽의 자연 촌락 이름이다. 행주산성이 주변에 있으며 자유로가 지나고 있다. 관내에 행주초등학교가 있고 최근 현대식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서

고 있는 추세이다. 행주내동에는 잣골과 맨돌 마을이 있다.

행주내동은 행주산성의 바깥 방향에서 바라보면 산성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으로 본래 행주(幸州)라는 말은 이곳에 살구나무가 많아 행(杏)주라 하였으나 후에 한자가 변하여 행(幸)주가 되었다 한다. 산성의 안쪽을 행주내동, 바깥쪽을 행주외동이라 부른다. 행주외동에는 행주서원이 있으며 많은 음식점들이 위치해 있다. 행주외동에는 달동네, 갭뱃말, 서화촌 등의 마을이 있다.

■ 신평동(新坪洞)

신평동은 토당동 삼성당 마을의 서쪽에 있는 마을로 자유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 마을에는 논과 밭만 있고 산이 전혀 없는 곳이다. 주택들도 논, 밭을 일부 매립하여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이곳은 원래 김포군에 속해 있던 곳이나 1922년에 고양군으로 편입되면서 고양군에서는 새로운 펄이 생겼다 하여 새펄이라 불렀고 이것을 한자 표기명으로 옮긴 것이 신평리(新平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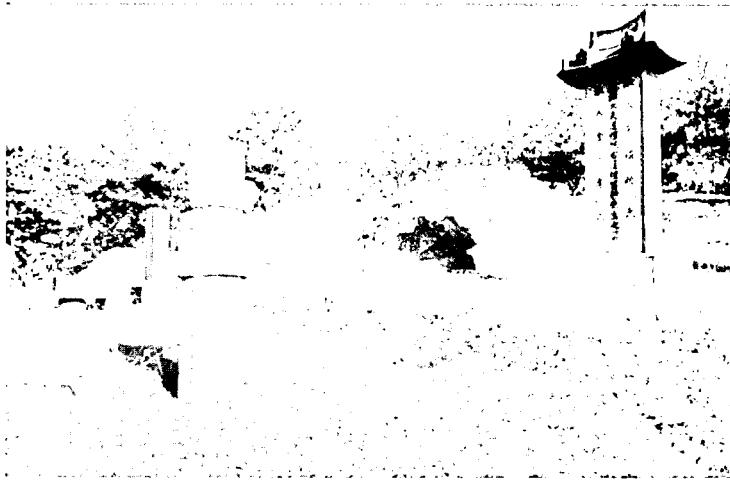
■ 화전동(花田洞)

화전동은 고양시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마을 중의 한 곳으로 고양시 도내동의 동남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이다. 경의선 화전역이 있으며 한국항공대, 덕은초등학교, 덕양중학교 등도 이곳에 소재한다. 398번 도로가 지나며 서울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그러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주택은 1970년대에 조성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안골동네, 별말, 밤나무골, 대홍관사 등의 마을이 있다.

화전동의 첫 번째 지명 유래설은, 옛부터 이곳에는 각종 꽃들이 많이 피어나 꽃밭이라는 뜻으로 화전(花田)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과, 둘째는 이곳 땅이 원래 밭에다 불을 지른 후 파종하고 농사를 지은 화전(火田)이었는데 ‘불 화(火)’ 자 대신 ‘꽃 화(花)’ 자를 써서 지금의 화전이 되었다는 것이다.

■ 현천동(玄川洞)

현천동은 화전동의 서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읊짓말, 아랫말, 난점, 먹골, 봉룡골 등의 마을이 있다. 한강과 가깝고 대부분이 농촌 지역으로 남아 있다. 마을의 서쪽 끝으로 한강 제방



현천동의 유래와 깊은
관련이 있는 민순 선생의 묘소

이 쌍여 있고 자유로가 지나며 마을 앞과 옆으로 대덕산이 있다.

이곳의 자연 춘락 명칭은 가무내(거무내, 먹골)로 「고양군지」의 기록을 보면 이곳의 유래는, 예전, 이곳에 고양 8현의 한분인 행촌 민순 선생이 사셨는데 너무 가난하여 수학할 당시 종이를 살 돈이 없어 궁리 끝에 큰 가랑잎에 글씨 연습을 하였다고 한다. 봄에 삼각산의 얼음이 녹아 흐를 때가 되면 행촌 선생이 겨우내 글씨를 연습했던 가랑잎들이 그 물에 씻겨 내려 검은 물이 흘렀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을 ‘검을 현(玄)’ 자와 ‘내 천(川)’ 자를 써서 현천리(玄川里)라 하였고, 한자를 쓰지 않고 ‘검은 내’ 혹은 ‘거무내’, ‘가무내’라 하였으며, 또 다르게는 먹물이 흐르는 골짜기라 하여 먹골이라 불렸다고 한다.

■ 덕은동(德隱洞)

덕은동은 화전동의 남쪽 현천동의 동쪽 마을에 위치한 법정동 명칭이다. 고양시의 가장 끝쪽 마을로 주변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관내에는 국방대학원이 있고 부근에 군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이 농촌 지역이다. 유곽골, 대터, 원골, 샛말 등이 있다. 마을 중앙으로 수색~능곡으로 이어진 398번 도로와 경의선, 교외선이 통과한다.

덕은동이란 지명은 옛날 덕정 선생이라는 분이 덕은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덕산에 은둔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또 다르게는 이 분이 대덕산의 큰 은혜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덕은이란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경의선 일산역



■ 향동동(香洞洞)

향동동은 화전동의 동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많은 지역이 서울시 은평구와 경계를 하고 있다. 마을의 북쪽은 서오릉으로 유명한 용두동이다. 398번 도로에서 59번 도로로 이어져 있는데 이 부근에 개량식 한옥 형태의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다. 특히 농협향동지소 부근에는 1980년대 말부터 소규모의 공단이 조성되어 있다. 마을은 크게 원수골, 간절, 애기능, 묘골 등의 자연 촌락이 있다.

향동이란 이름에 대해서는 첫째, 마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져서 산골 또는 향골로 불리웠는데, 봄이 되면 산골짜기로부터 여러 가지 꽃들이 만발하여 마을이 온통 꽃향기로 가득 차기 때문에 꽃향기의 마을이라고 해서 '향동'이라 불렸다고 한다. 둘째는 이완용의 집안인 우봉 이씨들이 그들의 선신에 여러 가지 좋은 꽃을 많이 심어 그 향내가 가득하다 하여 향동리라 불렸다고 한다.

2) 일산구(一山區)

■ 일산동(一山洞)

일산동은 일산역 주변의 옛 일산과 일산 신시가지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광대한 면적의 법정동 명칭으로 일산 1~4동 총 4개의 행정동이 있는 곳이다. 마을 중앙에는 경의선을 비롯해 310번, 398번 도로가 지나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관내에는 일산초등학교를 비롯해 중·고등학교가 있으며 동사무소, 파출소 등의 기관 등도 밀집되어 있다. 신시가지 개발 전까지는 논과 밭, 산 등이 많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이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일산에 대한 유래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제가 1904~1905년경에 경의선을 부설할 당시 중면의 면사무소를 옛 일산읍 백석 4리에서 일산역 부근으로 옮김에 따라 이 지역을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개편하였는데, 새로운 행정 구역의 명칭을 옛 송포면 턱이리 한산 마을의 고유 명칭인 한뫼를 따 일산(一山)이라고 불렸다는 것이다.

둘째, 일산은 곧 고봉산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순수한 우리 명칭으로 바꾸면 '한

산'이 된다. 이 한산의 의미는 큰 산, 높은 산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 관리들이 우리 민족의 고유 지명 비하책의 하나로 한산의 높고 큰 의미를 일산(一山)으로 뜻을 낮추어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셋째, 일산은 본래 고유의 지명으로서 한산 마을의 옛 이름인 일산을 따 붙여진 것이라는 설이다.

■ 탄현동(炭峴洞)

탄현동은 일산동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일명 숯고개라 불리우고 있다. 본래 탄현동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초 탄현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현재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마을 안에 SBS 탄현 제작소, 일산 홀트학교 등이 있으며 상탄·일산동 초등·고등학교 등의 교육 기관이 있다.

탄현동을 한글로 풀어쓰면 숯고개가 되는데 「고양군지」에 따르면 이곳 탄현동에는 예전부터 참나무가 많았는데 이것을 베어 숯을 구웠다 하여 숯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주엽동(注葉洞)

주엽동은 일산 신시가지 내 문촌·강선 마을 등이 위치한 곳의 법정동 명칭으로 일산동의 서남쪽에 위치한다. 고양시의 여러 마을 중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의 하나이며, 전철, 버스 등 교통 수단이 발달되어 있다. 300여 년 된 회화나무도 이곳에 보존되어 있으며 상가, 고층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서 있다. 시 승격 이전 이곳은 새말, 오마리, 문촌, 강선, 하주, 상주 등의 마을이 있었다.

주엽이라는 이름은 옛 주엽 3리의 문촌 마을에 있는 골동산(곡동산) 꼭대기에서 볼 때 마을 전체의 지형이 잎사귀 모양으로 보여 주엽이라고 했다 하며, 또 달리 마을 중앙으로 흐르는 샛강에 가을만 되면 큰 나무의 잎사귀가 떨어져 흘러내려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장항동(獐項洞)

장항동은 행주대교에서 문산 방향으로 이어진 자유로변과 일산 신시가지 일부가 포함된 마을의 법정동 명칭이다. 이 중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항동 지역은 논, 밭 중심의 농사를 주된 산업으로 하고 있다. 주택들은 1990년 한강 제방 붕괴 이후 현대식 양옥으로

대부분 개축되었으며 일산과 능곡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고양 시 내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장항동은 마을의 생김새가 노루의 목처럼 길다고 하여 '노루 장(獐)' 자와 '목 항(項)' 자를 써서 장항리라 했다는 설과, 정발산에 옛부터 노루가 많이 살아 자주 마을에 나타났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하기도 한다.

■ 마두동(馬頭洞)

마두동은 정발산의 동쪽과 남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현재 마두 1·2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신시가지 개발 전에는 논농사 중심의 농경 산업에 주로 종사하였으나 현재는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다. 마을의 동쪽으로 경의선이 길게 이어져 있고 백마 마을 부근에 백마역이 위치해 있다. 신시가지 개발 전에는 낙민, 강촌, 설촌, 냉천, 모범 마을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현재는 강촌, 백마 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마두동은 정발산에서 볼 때 마을 전체의 형상이 마치 말의 머리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백석동(白石洞)

백석동은 마두동의 남동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신시가지 개발 이전에는 방기, 샘풀이, 알미, 백석, 동굴매 등의 자연 촌락 명칭으로 불렸으나 현재는 백송 마을, 흰돌 마을로 부르고 있다. 개발 전의 모습은 398번 지방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언덕 기슭에 집들이 위치하고 그 앞으로 밭과 논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마을 동쪽으로 경의선 철도가 지나고 예전 용채이 벌판이라고 불리던 벌판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백석이란 이름은 옛 백석 4리 흰돌 마을 도당산에 가로 약 2m, 세로 약 1m 크기의 백석이 놓여져 있어 붙여진 것이다.

■ 풍동(楓洞)

풍동은 백석·마두동의 동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식사동의 서쪽에 해당한다. 이곳에는 식골, 민마루, 풍삼리 등의 자연 촌락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촌 지역으로 남아 있다.

마을 이름인 풍동은 옛부터 이 마을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 피해가 잦자 주민들이 바람을 막기 위해 단풍나무를 심었다는 데서 유



백석동의 흰 돌(백석)

래한다. 이 나무가 가을이 되어 단풍물이 곱게 들면 매우 아름다웠다고 한다.

■ 산황동(山黃洞)

산황동은 풍동의 남동쪽, 경의선 곡산역의 동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이다. 마을은 한 개의 법정동으로 대부분 농촌 마을이다. 마을은 당재말, 안말, 밤말, 모동말, 샛골, 온수골, 주막골, 노자골 등의 자연 촌락이 있다.

산황동은 이 마을의 산에 있는 흙이 다른 곳에 있는 흙보다 유난히 누런 빛깔을 띠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사리현동(沙里峴洞)

사리현동은 관산동의 서쪽 지역으로 벽제초등학교가 위치한 부근의 법정동 명칭이다. 마을 중앙으로 69번 도로가 지나고 동쪽 끝으로 곡릉천이 흐르고 있다. 사리현동에는 신촌, 댓글, 월현, 학교말, 인정골, 안골, 사당골, 음지골, 새터, 혁명촌 등의 자연 촌락이 있다. 사리재 고개 옆에는 현대그린 아파트, 예총 연수원 등이 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촌 지역이며 1980년대 후반부터 논 대신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고 있다.

이곳은 본래 사리대면이었으나 1914년 벽제읍으로 통합되었으며, 사리현동이 된 것은 마을 앞으로 흐르는 곡릉천이 모래를 이곳에 쌓아 큰 고개를 만들어 사리현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유래설은 사리현동에서 문봉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모래가 많아 붙여진 지명이라고 하기도 한다.

■ 지영동(芝英洞)

지영동은 사리현동의 북쪽 파주 방향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이다. 대부분 농촌 지역으로 논과 밭에 대규모의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다. 오목촌, 증골, 하촌, 우거촌 등의 마을이 있다. 마을의 동쪽 끝으로 통일로가 지나고 곡릉천이 흐른다.

예전에는 이곳을 지영리(芝靈里)라 표기했으나 일제 시대 때 지영리(芝英里)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을 벌판에 연꽃과 난초 등 꽃뿌리가 많이 자라 붙여졌다고 한다.

■ 설문동(雪門洞)

설문동은 지영동의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대

부분 농촌 지역이다. 파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군주리, 오촌
말, 빙골, 샛상골, 앞말, 신촌, 맴골, 가장골, 넘말 등의 자연 촌락이
있다. 마을의 서쪽으로 일산~봉일천간 307번 도로가 관통하고 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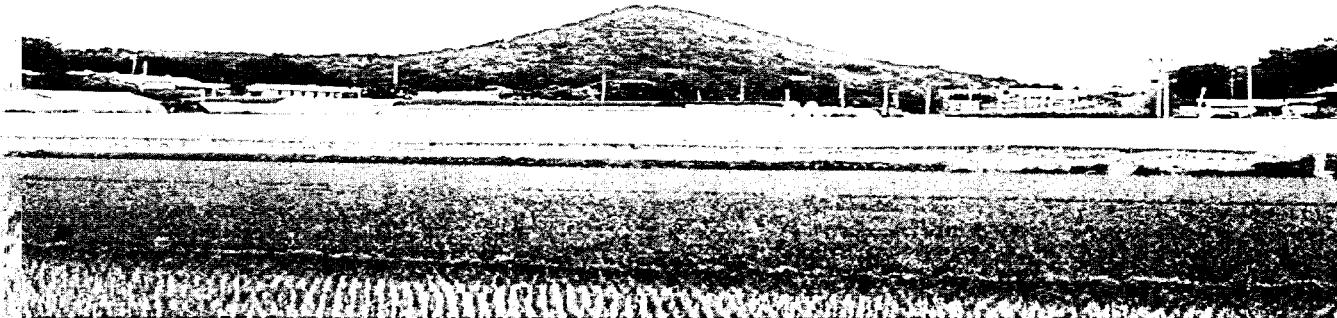
설문동은 이곳에 설씨 문중(高氏門中)이 많이 살아 설문리라 했
다고 하는데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제의 행정 지명 개칭에 따라
설문리(雪門里)로 바뀌었다고 한다.

■ 문봉동(文峰洞)

문봉동은 사리현동의 서쪽, 일산 방향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상촌, 빙석촌, 안촌, 장진네 등의 자연 촌락 마을이다. 고
봉동사무소, 성석초등학교 등이 있고 대부분 농촌 지역이며 마을
중앙으로 벽제~일산으로 이어진 69번 도로가 지나고 있다.

문봉동의 지명 유래는 세 가지 설이 있다. 그 첫째는 조선 시대
때 지금의 빙석촌에 ‘문봉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어 선비들이 글을
배웠다고 한다. 이 서원 도로 앞에는 하마페라는 곳이 있어 이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말을 탄 채로는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신성
시하였다고 한다. 또 말에서 내려 걸어갈 때에도 예를 갖추고 조심
해서 지나갈 정도로 문(文)을 받드는 곳이어서 문봉리(文奉里)라
불렸다고 한다. 두 번째 유래설은 여러 자연 촌락 마을이 합쳐져
이루어진 이곳의 모습이 마치 견달산 산봉우리를 모은 것과 같다
고 하여 모은봉이라 부르다가 이것이 점차 몬봉으로 바뀌었고 마
침내 이 몬봉을 한자로 표기하여 문봉(文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 유래설은 고양 8현을 모신 문봉서원이 이곳에 있었

문봉동 문봉서원지 방향에서 본
견달산 모습



는데, 문봉은 곧 견달산으로 견달산의 모양새가 마치 봇의 끝과 같아 생겨 문봉리(文峰里)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성석동(城石洞)

성석동은 문봉동의 서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진발, 사당골, 잣골, 두테비, 감내 등의 자연 촌락이 있다. 마을 중앙으로 58번 도로와 봉일천~일산간 도로가 지나고 있다. 대부분 농촌 마을로 비닐하우스, 벼농사 재배 등을 하고 있으며 주택은 개량식 한옥이 많고 명문 거족들의 선산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의 지명 유래는 고봉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산으로 병풍을 쳐놓은 듯 하기도 하고, 성을 쌓아 놓은 듯 하기도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또 이와는 달리 이곳에는 이무기를 끔짝못하게 했다는 두꺼비 바위(두텁바위)가 있었다는 전설로 ‘돌 석(石)’ 자를 붙여 성석리(城石里)라 불렀다고 한다. 이외에 고봉산에 옛 삼국 시대부터 토성(土城)이 축조되어 있었는데 성석이란 명칭은 돌과 흙으로 성을 쌓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기도 한다.

■ 대화동(大化洞)

대화동은 일산 신시가지의 가장 끝 한강 주변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이다. 현재 일부 지역은 일산 신시가지에 포함되어 아파트, 공설운동장 예정지로 되어 있다. 나머지 대화동 지역은 대부분 농촌 마을로 벼농사를 주로 했으나 요즈음에는 마을 모습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본래 이곳에는 양촌, 김서, 김동, 성저리, 장성, 장촌, 백암, 멱질, 내촌, 서촌 등의 자연 촌락 마을이 있었다. 마을 앞으로 307번 도로가 지나고 최근 개통된 대화역도 이곳에 있다.

대화동이란 이름은 1914년 3월 1일 부, 군, 면 폐합 당시 김동(金東), 장촌(場村), 김서(金西), 백암(白岩), 강서(江西), 성저리(城低里) 등의 여러 개 자연 촌락을 합쳐 ‘크게(大) 된(化) 마을’이라 하여 대화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가좌동(加佐洞)

가좌동은 대화동의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대화동과는 장월평천을 사이에 두고 있다. 마을 앞쪽으로 송포벌이 길게 이어져 고양시 최대의 곡창 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집들은 산과 농경지가 만나는 구릉성 산지에 위치하고 있다. 관내에 송포초등학교를 비롯해 송포 농협가좌지소 등이 있고 일산으로 이어진

신시가지 개발 이전의
대화동 모습



30번 도로, 56번 도로가 있다. 중산, 배미, 음송, 두신, 당음, 새말, 소대, 울리, 고새기, 안말 등의 마을이 있다.

가좌라는 이름의 유래는 첫째, 지금의 가자울에는 가재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물이 어찌나 맑고 시원한지 가재들이 살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가좌가 됐다는 설과 둘째, 가자울에는 개울이 여럿 있었는데 이 개울에 가재들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는 설이 있다.

■ 구산동(九山洞)

구산동은 가좌동의 서쪽과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고양시의 서쪽 끝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 중 한강 방향에는 넓은 벌이 있으며 자유로가 이어져 있고 뒤편에는 조그마한 산이 길게 이어져 있다. 마을 앞으로 70번 도로, 56번 도로가 지나고 거그뫼, 노루뫼, 장월, 새태말 등의 마을이 있다. 많은 지역이 파주시 교하 지역과 경계를 하고 있으며 장월평천이 흐르고 있다.

이곳의 지명 유래는 첫째, 옛 구산 4리 마을에 있는 산 모양이 거북이와 닮았다 하여 유래했다는 설과 둘째, 옛 구산 1리와 4리에 있는 산은 거북이 꼬리를 닮았고 구산 2리에 있는 산은 거북이 머리를 닮아 전체적으로 마을 모양이 거북이 형상과 유사하다 하여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끝으로 1,500년경 전주 이씨와 안산 피씨가 정주한 구산동 지역이 거북이 형상과 같은 야산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는 설도 있다.

한편 일제 시대 거북 구(龜)자가 일인들에 의해 아홉 구(九)자로 변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 법꽃동(法串洞)

법꽃동은 대화동의 서쪽인 한강 방향에 있는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도촌, 동촌, 서촌, 이산포 등의 자연 촌락이 있다. 마을 중앙으로 장월평천이 흐르고 주변으로 기름진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 산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옛 모습이 남아 있으며 서남쪽 끝으로 자유로가 지나고 있다. 최근 들어 비닐하우스, 창고 등이 지어져 마을 모습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법꽃동은 예전 한강 계방이 축조되기 이전에 한강을 왕래하는 배들이 정박하던 조그마한 포구 이름에서 유래한다. 즉 '법' 자는 법수산에서, '꽃' 자는 이산포에서 유래한다. 이곳 이산포는 행주나루와 함께 고양시의 대표적인 나루였다.

■ 덕이동(德耳洞)

덕이동은 대화동의 북쪽과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으로 일산 신시가지와 인접해 있다. 금촌으로 이어진 307번 도로, 경의선 철도가 지나고 있으며 72번 도로, 70번 도로가 지나고 있다. 앵굴, 할미, 덕위, 자방, 운장, 추산, 창리 등의 자연 촌락 마을이 있고 일산공단, 철산 아파트 등이 있어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도 하다. 덕이초등학교가 있고 마을 입구에 신성교통 버스 정류장이 있다.

정확한 지명 유래설은 전하지 않으나 일설에는 옛 덕이 4리 덕위 마을의 명칭을 따 붙여진 것이라 한다.

4

고양의 문화

재·문화 이야기

1) 문화재 현황

총계	국가 지정 문화재				지방 문화재				시 지정 향토 유적
	소계	보물	천연기념물	사적	소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문화재 자료	
54	9	2	1	6	13	3	3	7	32

〈국가 지정 문화재 현황〉

구 분	지정 번호	명 청	소재지	지정 일자	비 고
보물	611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북한동 15	1977. 8. 22	금석문
보물	749	태고사 원증국사탑	북한동 15	1983. 12. 27	석탑
사적	56	행주산성	행주내동 산 26	1963. 1. 21	산성
사적	144	벽제관지	고양동 55-1	1965. 2. 2	건물지
사적	162	북한산성	북한동 산 1-1	1968. 12. 5	산성
사적	191	고려 공양왕 고릉	원당동 산 65-1	1970. 5. 28	분묘(무덤)
사적	198	서오릉	용두동 산 30-1	1970. 5. 26	분묘(무덤)
사적	200	서삼릉	원당동 산 38-4	1970. 5. 26	분묘(무덤)
천연기념물	60	송포 백송	덕이동 산 207	1962. 12. 3	나무

〈도 지정 문화재 현황〉

구 분	지정 번호	명 청	소재지	지정 일자	비 고
유형 문화재	74	행주대첩비	행주내동산 26	1978. 10. 10	금석문
유형 문화재	87	북한산성 금위영이건기비	북한동 132	1979. 9. 3	금석문
유형 문화재	143	흥국사 국락구품도	지축동 203	-	그림
기념물	23	최영 장군 묘	대자동 산 70-2	1975. 9. 5	분묘(무덤)
기념물	50	유형 장군 묘	행신동 산 106-2	1978. 10. 10	분묘(무덤)
기념물	136	종흥사지	북한동	1993.	절터
문화재 자료	57	한미산 흥국사 약사전	지축동 203	1985. 6. 18	건축물
문화재 자료	64	고려 초기 청자요	원홍동 산 88	1985. 6. 18	도요지
문화재 자료	69	고양 향교	고양동 306	1986. 9. 10	건축물
문화재 자료	71	행주서원지	행주외동 275	1986. 4. 30	건축물
문화재 자료	79	월산대군 사당	신원동	1989. 12. 29	건축물
민속 자료	8	일산 밤가시 초가	일산 4동	1991. 10. 19	건축물
문화재 자료	88	연산군 금표비	대자동	1991. 10. 19	금석문

〈시 지정 향토 유적〉

구 분	지정 번호	명 청	소재지	지정 일자	비 고
향토 유적	1	월산대군 묘, 신도비	신원동 산 16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2	성녕대군 묘, 신도비	대자동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3	계원군 묘, 신도비	성석동 산 83-3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4	이성군 묘	대자동	1986. 6. 16	분묘
향토 유적	5	경안군 묘, 임창군 묘	대자동 산 65-1	1986. 6. 16	분묘
향토 유적	6	남효은 선생 묘	대장동에서 이장	1986. 6. 16	분묘
향토 유적	7	이천우 묘, 신도비	성석동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8	민순 묘, 신도비	현천동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9	이무 묘, 신도비	주교동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10	김영원 선생 묘, 신도비	관산동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11	정지운 선생 묘, 신도비	일산동	1986. 6. 16	분묘
향토 유적	12	김전 선생 묘, 신도비	원홍동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13	홍이상 선생 묘, 신도비	성석동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14	이신의 선생 묘, 신도비	도내동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15	유여립 선생 묘, 신도비	관산동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16	이지신 선생 묘, 신도비	행동동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17	기준 선생 묘	성사동 산 47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18	김주신 선생 묘, 신도비	대자동 산 26-1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19	박세영 선생 묘, 신도비	오금동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20	박대립 선생 묘, 신도비	오금동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21	한계미 선생 묘, 신도비	관산동 산 87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22	기건 선생 묘, 신도비	성사동 산 54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23	기응세 선생 묘, 신도비	성사동 산 47	1986. 6. 16	분묘 및 금석문
향토 유적	24	김홍집 선생 묘	대자동 산 26-1	1986. 6. 16	분묘

구 분	지정 번호	명 칭	소재지	지정 일자	비 고
향토 유적	25	한규설 선생 묘	원흥동	1986. 6. 16	분묘
향토 유적	26	박충원 선생 묘	주교동	1986. 6. 16	분묘
향토 유적	27	강지 선생 묘	오금동	1986. 6. 16	분묘
향토 유적	28	류진동 선생 묘	행신동	1991. 6. 25	분묘
향토 유적	29	류림 선생 묘	행신동	1991. 6. 25	분묘
향토 유적	30	류구 선생 묘	행신동	1991. 6. 25	분묘
향토 유적	31	류겸 선생 묘	행신동	1991. 6. 25	분묘
향토 유적	32	북한산 3.1운동 암각문	북한동	1993. 4. 10	암각문

2) 천연기념물(天然紀念物)

천연기념물은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 지정한 동물의 종과 서식지, 식물의 개체·종 및 자생지, 지질 및 광물을 부르는 명칭이다.

■ 송포(松浦)의 백송(白松)

—이름다운 흰 소나무

지정 번호 : 천연기념물 제60호

소재지 : 일산구 덕이동 덕위 마을

고양시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인 백송은 총 높이 10m, 가슴 높이 2.9m, 가지 길이 동쪽 5m, 서쪽 9.8m, 남쪽 8m, 북쪽 6m의 규모이며, 나무 수령은 약 600여 년 된 고양시의 대표적인 나무이다.

이 백송은 조선 세종 때 도절제사(都節制使) 김종서(金宗瑞)가 개척한 육진(六鎮)에서 복무하던 최수원 장군이 가져다 심었다는 희귀한 나무이다.

원산지는 중국 북서부, 특히 호북(湖北)과 섬서(陝西)이며 북경 교외에도 옛부터 많이 심어져 있다. 1831년 소련의 Alexander Von Bunge 박사가 북경에서 발견한 후 세계 각국에 알려졌으며 나무 껍질이 백색과 녹색의 조화를 이루어 우아하며 옛부터 승려와 학자들이 신성한 나무라고 여겨 왕궁의 정원이나 사찰, 분묘, 유명한 정원 등에 심어 왔다.

우리 나라에는 약 600여 년 전에 중국에서 도입하여 인가(人家) 부근에 심은 상록침엽교목(常綠針葉喬木)으로 나무 껍질의 백색 문양을 보고 백골송(白骨松), 사피송(蛇皮松) 등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어릴 때에는 음지성 식물이나 차차 양지성 식물이 되며 추위에 강하고 각종 공해에도 잘 견디며 뿌리가 깊이 뻗는다.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라며 산성 흙을 좋아한다. 가는 뿌리가 적으로 옮겨 심을 때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잎은 3개씩 뭉쳐서 나며 길이 7~9cm, 넓이 1.8mm로 삼릉형(三稜形)을 이룬다. 꽃은 자웅일가화(雌雄一家花)로 5월에 피고, 열매는 이듬해 10월에 익으며 길이 6cm, 넓이 4.5cm이고, 종자는 길이 9~12mm, 넓이 7~9cm인 난형(卵形)으로 황갈색 줄과 불완전한 날개가 있다.

번식은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섭씨 5도의 기온에 저장하였다. 파종 1개월 전에 길가에 묻어 두었다 파종하면 약 3주일 후에 싹이 난다. 발아율은 약 60% 내외이고 싹의 성장이 매우 느린 것이 특징이다. 이 백송은 고양시를 상징하는 나무이다.

3) 탑(塔)

탑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축조물로 탑파의 준 말이다. 탑파는 인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스투파라 부른다.

■ 태고사 원증국사탑 1기(太古寺圓證國師塔 1基)

—고려 불교 미술의 극치

지정 번호 : 보물 제749호

소재지 : 덕양구 북한동

1983년 보물로 지정된 이 탑은 화강암을 재료로 하여 축조하였다. 고양 시내에서는 보기 드문 고려 시대의 유물로 전체 높이는 총 4m에 이른다. 이 부도탑(浮屠塔, 스님의 사리를 봉안해 둔 탑)은 태고사 북쪽 봉우리 중턱에 있다. 태고사 대웅전 옆에 서 있는 태고사 원증국사탑비는 먼저 보물 제611호로 지정되었다. 보물로 지정될 당시 이 부도탑은 도굴(盜掘)로 인해 원형을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1980년 10월, 겨우 각 부재(部材)를 수습, 복원했다.

부도는 2단의 넓적한 축단(築壇) 중앙에 세워져 있는데, 하대(下臺) 위에 8각의 중대석(中臺石)을 놓고, 다시 그 위에 8각의 상대석(上臺石)을 놓아 탑신석(塔身石)을 안치했다. 탑의 몸체는 전체적으로 등근 모양이지만 위쪽은 매우 좁은 편이다.

태고사 원증국사탑



8각의 옥개석(屋蓋石)은 모서리의 전각(轉角)마다 귀꽃이 장식이 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장막(帳幕)을 들린 시문(施文)이 고려 시대 특유의 수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위로 편주형(偏珠形)과 보개(寶蓋) 등 상륜부(上輪部)가 얹혀 있는데, 보개는 옥개석과 같은 수법의 형식이다. 현재 옥개석의 일부가 부서졌을 뿐 각 부재는 완전하다. 앙복련(仰伏蓮)은 대칭적이며, 중대석 각면의 화문(花紋)과 함께 고려 시대 후기의 솜씨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하대가 넓어서 안정감이 있으며, 문양(紋樣)과 조식(彫飾)이 고려 후기의 특징으로 두드러진다.

탑비에 의하면 원증국사는 우왕 8년에 돌아갔고, 11년에 비를 세웠으니, 이 부도의 건립 하한을 우왕 11년(1385년)으로 보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봉성암 성능 부도탑(奉聖庵聖能浮屠塔)

—북한산성을 축성한 인물

시대 : 조선 시대

소재지 : 덕양구 북한동

이 부도탑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탑으로 총 높이는 2.8m이며 재료는 화강암이다. 북한산 태고사(太古寺) 뒤편의 봉성암(奉聖庵) 경내에 있다.

부도탑의 구조는 4개의 판석(板石)을 짜맞춘 방형(方形) 지대석(地臺石) 위에 방형 하대석과 중대석, 팔각 모양의 상대석이 안치되어 있다. 그 위로 팔각의 탑신석(塔身石), 팔각의 옥개석, 상륜부(上輪部)로 구성되어 있다. 팔각의 옥개석 일부는 현재 파괴되었으며 전체 규모는 높이 280cm에 이른다. 탑의 기단부 앞에는 74×70×59cm의 불규칙 육면체 석재(石材)가 놓여져 있는데 부도탑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능은 조선 중·후기의 승(僧)으로 호는 계파(桂坡)이며 자리 산 화엄사에서 승으로 있다가 숙종 때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이 되어 북한산성 축조에 동원된 중들을 총 지휘 감독하였다. 영조 21년(1745년) 팔도도총섭 자리를 서윤(瑞胤)에게 인계할 때 산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14조를 ‘북한지(北漢誌)’라 이름 붙여 판각해 놓았다.

그후 다시 화엄사로 돌아가 대화엄경을 판각하고 장육전(丈六殿)을 중수했으며 영조 26년(1750년)에 통도사 계단탑을 증축하였

다. 또한 석가여래 영골사리탑비도 세웠다.

성능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기문절차조열」 등이 있다.

현재의 부도탑은 6·25 당시 폭격으로 일부 파괴된 것을 봉성암 건립 후 복원한 것인데 완전한 상태는 아니며 탑신부 부분의 부재(部材)는 소실된 상태이다.

4) 성곽(城郭)

성곽은 성벽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한데 돌이나 나무, 벽돌 등으로 벽을 만들어 쌓은 것을 부르는 이름이다. 우리나라에는 토성, 석성, 산성 등이 많다.

■ 행주산성(孝州山城)

—고양 사람의 자긍심인 행주얼의 현장

지정 번호 : 사적 제56호

소재지 : 덕양구 행주내동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된 행주산성은 총 규모 108,098평의 규모로서 임진왜란 이전인 통일신라 시대에 쌓여진 산성이다. 권율 장군은 1592년 7월 8일 이치(梨峙)에서 왜군을 크게 격멸하여 대첩을 이루고 12월에 수원 독산산성에서 또 왜적을 무찌른 후 한성을 수복하고자 작전을 개시하였다. 전라 병사 선거이(宣居怡)는 수원 광교산에, 전라 초모사 변이중(邊以中)은 양천에, 창의사 김천일(金天鎰)은 통진에, 충청감사 허옥(許頃)은 파주와 양주를 연결하는 전선을 펴고 명나라 군사와 협공하고자 하였다.

1593년 1월 8일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고 그 여세를 몰아 한성으로 내려오다가 1월 28일 벽제관 부근 숫돌 고개에서 왜장 소조천옹경(小早川隆景)의 복병에게 패하여 북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조선군은 단독으로 한성에 집결한 왜군을 공격할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권율 장군이 조방장 조경(趙敬)과 승장 처영(處英) 등 정병 2천 여 명을 거느리고 한강을 건너 행주 덕양산에 진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권율 장군은 아현 고개를 정하려 하다 조경이 행주 덕양산을 물색하여 권율에게 아뢰어 성지로 결정하였는데 이곳이 바로 행주산성이다.

권을은 해발 124m의 덕양산 중턱에 이중의 튼튼한 목책성(木柵城)을 쌓았다. 전투 준비가 끝난 1593년 2월 12일 새벽 6시경 왜군 총수 우희다수가(宇喜多秀家)는 3만 명에 이르는 7개 부대를 거느리고 행주산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대는 소서행장(小西行長)의 군사로 조총을 쏘면서 목책까지 접근하자 화포(火砲)와 수차석포(水車石砲)의 공격을 일시에 퍼부어 말과 사람이 뒤범벅이 되어 궤멸하였다. 제2대는 석전삼성(石田三成)의 군대로 역시 화살과 화포의 공격을 받아 많은 살상자를 냈으며 적장 전야장강(前野長康)은 가슴에 화살이 꽂혀 중상을 입고 물러났다. 제3대는 흑전장정(黒田長政)의 군사로 누대를 만들어 성책을 공격했으나 석포와 화전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패퇴하였다. 제4대는 22세의 젊은 충사 우희다수가가 선봉이 되어 성책을 무너뜨리고 내책까지 들어왔으나 화포의 공격을 받아 우희다수가는 부상을 입고 물러났다. 제5대는 길천광가(吉川廣家)의 군대로 내책까지 들어와 불을 지르고 넘어들려 했으나 우리 군사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적장 길천광가는 중상을 입고 물러났다. 제6대는 모리원강(毛利原康)과 소조수포(小早秀包)의 군사로 산성의 서쪽 완만한 비탈로 쳐들어왔다. 이때 처영이 거느리는 1천의 승군이 재 주머니를 터트려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백병전을 전개해 적을 물리쳤다. 제7대는 60세의 소조천옹경의 군사로 제6대의 뒤를 이어 승군 진영을 뚫고 성내에 들어왔다. 권을 장군과 승장 처영은 필사항전의 돌격 명령을 내려 베고 찌르는 처참한 접근전이 벌어졌다. 치열한 공방전이 있은 후 드디어 적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물러갔다. 이때가 어둠이 깔려드는 6시경이었다. 이 대첩이 충무공의 한산대첩과 함께 길이 빛나는 행주대첩(幸州大捷)이다.

이 대첩에는 고양의 부녀자들까지도 치마폭에 돌을 날라 석전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유명한데 그 치마를 행주치마라고 한다. 지금도 산 중턱에 목책 자리가 남아 있고 삼국 시대 토기 조각이 출토되어 옛날에도 군사 기지였던 것을 알 수 있다. 1603년에 건립한 행주대첩비가 비각(碑閣) 속에 남아 있으며 1963년에 세운 대첩비도 서 있다. 이 비의 전면 글씨는 박정희 대통령이 썼다.

1970년 대대적인 정화공사를 하면서 권을 장군의 사당인 충장사(忠莊祠)를 다시 짓고 정자(亭子)와 문(門)을 세워 경역을 규모 있게 조성하면서 1845년에 세운 행주 기공사 경내의 대첩비는 충장사 옆으로 옮겼다.

■ 북한산성(北漢山城)

-우리 나라 최대의 석성

지정 번호 : 사적 제162호

소재지 : 덕양구 북한동

총 길이 9.5km의 성곽을 갖춘 북한산성은 삼국 시대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쌓여진 산성으로 1968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산성의 규모는 168,989평으로 주된 재료는 화강암 및 나무를 사용했다. 이 산성은 우리나라의 명산이며 서울시의 주산인 북한산에 축조되어 있는 석성(石城)이다.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할 때 도성을 지키는 북방의 성으로 백제 개루왕 5년(132년)에 축성되었다. 이때 백제의 주력군이 이 성에서 고구려의 남진 세력을 막았다. 그후 근초고왕의 북진 정책에 따라 북정군(北征軍)의 중심 요새가 되었다. 그러나 개루왕 21년(475년)에 강력한 고구려군은 북한산성을 7일 간 공격하여 치열한 공방전 끝에 성이 함락되자 백제의 도성도 유린되어 백제 개루왕이 고구려군에 잡혀 살해당했다.



북한산성 대서문과 원효봉

이로 인하여 백제는 공주 웅진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연합 전선으로 막았다. 그러나 진흥왕 14년(553년)에 신라는 백제의 영토였던 한성 지역을 빼앗았다. 진평왕 25년(603년) 8월, 고구려 장군 고승(高勝)이 신라의 북한산성을 포위 공격하여 신라 진평왕이 1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였으며 무열왕 8년(661년) 5월 고구려 장군 뇌음신(惄音信)이 말갈 장군 생개와 더불어 북한산성을 20일 간 포위 공격하여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북한산성 성주 동타천(冬陀川)은 성내 주민을 합한 2,800명의 인원으로 필사 결전을 감행하여 성을 방어하였다. 당시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킨 후 백제 부흥군이 일어나 곤란에 빠졌던 시기로 만일 북한산성이 고구려에게 함락되었다면 신라의 삼국 통일 판도가 바뀌었을지도 모를 싸움이었다. 성주 동타천은 이 전공으로 대사에서 대내마에 승진되었는데 이 싸움을 삼국사기는 크게 기록하고 있다.

1232년 고려 고종 때는 동고군과의 격전이 있었고, 고려 현종은 글안의 침입을 피하여 이 성에 고려 태조의 신궁(神宮)을 옮겨 왔던 일도 있으며, 이때 성의 증축이 있었고, 1387년 고려 우왕 때 개축 공사가 있었다. 조선 시대에 와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외침을 자주 당하자 도성의 외곽성으로 축성론이 일어나고 1711년 숙종 37년 왕명으로 대대적인 축성 공사가 시작되어 7,620보(步)의 석성이 완성되었다.

성의 규모를 보면 대서문(大西門), 동북문(東北門), 북문(北門) 등 13개의 성문과 시단봉상(柴丹峯上)에 동장대(東將臺), 나한봉(羅漢峯), 동북쪽에 남장대(南將臺), 중성문(中城門), 서북쪽에 북장대(北將臺)가 있었고 136간의 행궁(行宮)과 140간의 중홍사가 산성 내에 있었다. 그리고 성 내에는 99개소의 우물과 26개소의 저수지가 있었다.

숙종 때의 군체를 보면 수성대장(守城大將)에 영의정이 겸하고, 훈련(訓鍊), 어영(御營), 금위(禁衛)의 삼군문(三軍門)이 모두 배치되었다. 지금은 대서문이 남아 있고 성곽의 여장은 허물어졌으나 성의 모습은 완전히 보존되어 있다.

최근 대성, 대남, 대동문 등도 복원되어 있으며 수십만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문화 유적지이다.

5) 능(陵)

사람의 사체를 매장한 시설물 중에서 왕이나 왕비의 무덤을 부르는 명칭이다.

■ 고려 공양왕 고릉(高麗恭讓王高陵)

—고려 시대의 초라함, 망국한을 보여줌

지정 번호 : 사적 제191호

소재지 : 덕양구 원당동 왕릉골 마을

고양시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고려 시대 능인 고릉은 1970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 능은 고려의 마지막 왕인 34대 공양왕과 순비 노씨(順妃盧氏)의 능이다. 폐가입진(廢假立眞)의 명분을 내세워 창왕(昌王)을 폐위시킨 이성계(李成桂) 일파에 의하여 옹립되었던 만큼 그들 앞에서 바로 보좌에 앉지 못하였다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허위(虛位)에 앉아 있었다. 재위 4년 만에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폐위되어 원주로 쫓겨났고 공양군으로 봉하여 간성군에 두었다가 강원도 삼척으로 옮겨 가 조선 태조 3년 그곳에서 50세로 돌아갔다. 그뒤 태종 16년 공양왕으로 추봉하고 봉릉하여 수호호(守護戶, 능을 지키는 집)를 두었다.

순비 노씨는 교하군인(交河郡人) 창성군(昌城君) 진(墳)의 딸로 공양왕 원년 11월 순비가 되고 1남 3녀를 두었으며 나라가 망한 후 왕과 함께 쫓겨나 돌아간 후에 이곳에 묻혔다.

능은 왕과 왕비를 쌍릉 형식(雙陵形式)으로 하였다. 능 앞의 석물(石物)로는 비석 일좌(一座)석과 상석이 놓여 있으며 양측에 석인(石人) 두 쌍이 서로 상대하여 세워져 있다. 정면으로는 석호 한 마리가 남아 있다. 석인은 모두 키가 1m 내외로 두 종류가 있는데 능 앞쪽 것은 더 작으며 특물(特物) 없이 공수(拱手)하고 있으며 그 옆 것은 키가 좀 크고 홀(笏)을 쥐고 있다. 양 끝 앞 상석 뒤에서 있는 비석은 봉릉(封陵) 당초의 것으로 보이며, 양 끝 중간에 조선 때 세운 것으로 보이는 '고려 공양왕 고릉'이라는 비가 서 있다.

석물의 양식과 수법은 고려의 여러 왕릉에서 보이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왜소하고 소박한 것들이다. 장명등은 옥개가 팔각인데 체석(體石)이 사각인 것으로 보아 체석만 후에 만들어 맞춘 것이 아닌가 한다. 장명등의 화창(火窓)은 두 개이다. 석수 옆에 옥개석과 걸맞는 크기의 팔각의 화대석(火袋石)인 듯한 돌이 놓여 있는데 옛 장명등의 잔석(殘石)이 아닌가 여겨진다. 석수 역시 건원릉(健元陵)과 현릉(獻陵)에서 보이는 고려 석수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공양왕의 능은 이곳 고양시의 고릉뿐 아니라 유배지이며 사사지(賜死地)로 알려진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궁촌리에도 있는데 이는 당시 어수선하며 위약했던 고려 왕실의 마지막을 상징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 서오릉(西五陵)

—석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곳

지정 번호 : 사적 제198호

소재지 : 덕양구 용두동

1970년 사적으로 지정된 서오릉은 총 규모 553,616평으로 화강암과 흙 등을 주된 재료로 사용하였다. 현재 동구릉(東九陵) 다음으

서오릉 명릉의 무인석



회세자(順懷世子)의 순창원(順昌園)이 경내에 있으며 근래에 숙종의 후궁인 장희빈(張嬉嬪)의 대빈묘도 경내에 옮겨 놓았다.

■ 서삼릉(西三陵)

—태실 등 한국사의 영육이 함께 깃든 곳

지정 번호 : 사적 제200호

소재지 : 덕양구 원당동

총 규모 65,970평의 서삼릉은 1970년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서울 서쪽의 세 개 능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왕릉지이다. 중종(中宗) 계비(繼妃) 장경왕후(章敬王后) 희릉기(禧陵基)로 택해진 이후 한때 중종의 정릉(靖陵)이 이곳에 있었고 그 아들 인종(仁宗)의 효릉(孝陵)이 쓰여져 중종과 인종 2대 능기(陵基)의 관(觀)이 보이더니 근처에 왕실 묘지가 이루어져 명종, 숙종 이후 조선 말기까지 역대의 후궁(後宮), 대군(大君), 군(君), 공주(公主), 응주(翁主)의 묘가 만들어졌고 고종 원년에 철종의 예릉(睿陵)이 들어서면서 서삼릉이란 별칭을 얻게 되었다.

6) 묘(墓)와 신도비(神道碑)

왕이나 왕비의 무덤인 능과 구분하여 일반 양반, 사대부의 무덤을 묘로 정한다.

■ 최영(崔瑩) 장군 묘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충신이며 장군

지정 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23호

소재지 : 덕양구 대자동 대적골 마을

1975년 경기도 지방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이 묘는 대자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데 부인 문화 유씨(文化柳氏)와 하나의 봉분을 이루는 1기(基)의 묘로 만들어져 있다. 장방형의 2단 호석(護石)을 두른 방형묘(方形墓)로서 곡장(曲牆)을 설치하였다. 묘 앞에는 좌우에 묘비와 충혼비가 있으며 상석, 혼유석(魂遊石), 향로석(香爐石)이 있고 망주석(望柱石)과 문인석(文人石) 각 한 쌍이 좌우에 배열되어 있다. 봉분은 사각이며 위쪽에 아버지 최원직(崔元直)의 묘가 있다.

최영은 충숙왕 3년(1316년)에 동주(東州, 지금의 철원)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철원(鐵原)이며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주와 위엄이 있었고 기골이 장대하였다. 장군이 무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양광도 순문사(楊廣道巡問使)의 휘하에서 여러 차례 왜구를 토벌하여 공을 세운 때부터였다. 공민왕 3년(1354년) 원나라에 속했던 압록강 남쪽의 8참(站)을 수복하고, 1358년에는 왜구의 배 400여 척을 격파한 뒤, 이듬해에는 홍건적(紅巾賊) 4만이 서경(西京)을 함락하자 이를 물리치고 서북면 도순찰사(西北面都巡察使)가 되었다. 1361년 홍건적이 일어나서 개성까지 점령하자 이를 격퇴하여 수도를 수복한 공으로 훈일등(勳一等)에 전리판서(典理判書)가 되고, 1364년에는 덕흥군(德興君)의 왕위 쟁탈 반란군을 거의 전멸시켰다. 우왕 2년(1376년) 왜구가 삼남(三南) 지방에 침입했을 때 홍산(鴻山) 싸움에서 적을 크게 무찔러 그 공으로 철원부원군(鐵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388년에 요동(遼東) 정벌을 결정,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가 되어 평양에서 군사를 독려하였으나, 이성계의 위화도 희군으로 요동 정벌은 좌절되었다. 이성계 군이 개성에 들어와 장군을 체포하여 고양 고봉(高峯)에 유배시키고 다시 합포(合浦, 지금의 마산)에 옮겼다가 창왕 1년(1389년)에 개성에 압송해

참형시켰다. 그가 치형되던 날 도성의 사람들은 일제히 모든 일을 그만두고 원군의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부녀자들까지도 눈물을 흘렸다. 장군은 고려를 지키려는 마지막 보루로서 일생 동안 80여 회의 전투에서 항상 승리한 명장이었고, 강직하고 용맹하며 청렴결백한 인물이었으나 그가 죽자 고려 왕조는 몰락하였다. 시호는 무민(武愍)이다.

■ 월산대군(月山大君) 묘 및 신도비

—조선조 전기 석물 연구의 원형

지정 번호 : 고양시 향토 유적 제1호

소재지 : 덕양구 신원동 능골 마을

전주 이씨 월산대군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월산대군 묘와 신도비는 조선조 전기의 묘장 제도 연구 및 금석문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묘는 신원동 능골에 자리잡고 있으며 뒤에 부인 순천 박씨(順天朴氏)의 봉분을 두었다. 월산대군의 큼직한 봉분 앞에는 묘비와 상석, 문인석, 망주석, 장명등(長明燈)과 신도비 등의 석조물이 배치되어 조선 시대 묘제(墓制)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상석 뒤편의 묘비는 운문(雲文)이 조각된 비두(碑頭)와 장방형의 대석을 갖추었고, 규모는 높이 180cm, 폭 74cm, 두께 32cm이다. 상석은 3매의 장판석(長板石)을 놓았는데 정면 270cm, 측면 155cm의 규모이다. 성종 20년(1489년)에 왕명에 의해 세워진 신도비는 90cm의 이수(螭首)와 장방형의 비좌(碑座)를 갖추었는데 '月山大君碑銘'이란 전자(篆字)가 새겨 있다. 비신(碑身)의 높이는 218cm, 폭 94cm, 두께 32cm의 규모이고 비문과 전액은 임사홍(任士洪)이 짓고 썼다.

현재 신도비는 전액을 제외하고는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멸되어 있다.

월산대군 이정(李婷)은 추존된 덕종의 장남으로 단종 2년(1454년)에 출생하여 성종 19년(1488년)에 돌아갔다. 대군의 자는 자미(子美)이며 호는 풍월정(風月亭)이다. 어린 시절은 궁중에서 보냈으며 일찍이 월산군에 봉해지고 좌리공신(佐理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문장이 뛰어나고 책을 좋아하여 그의 작품은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지금의 덕수궁은 월산대군의 옛집이었으며 친 아우인 성종이 자주 대군의 집에 드나들며 집의 정자를 풍월정이라 이름

짓고 근체오언율시(近體五言律詩)를 지어 주었다.

현재의 고양 북촌(北村)에 별장을 두고 자연을 벗하며 일생을 보냈다. 시호는 효문(孝文)이다.

■ 정지운(鄭之雲) 선생 묘

– 성리학의 대가 이황과 교류

지정 번호 : 고양시 향토 유적 제II호

소재지 : 일산구 일산 2동 중산 마을

1986년 향토 유적으로 지정된 이 묘는 일산 2동 중산 마을 고봉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配) 정부인(貞夫人) 충주 안씨(忠州安氏)의 묘와 쌍분을 이루고 있다. 묘 앞에는 모두 3기의 묘비와 상석, 향로석, 그 좌우에는 망주석, 문인석을 각각 설치했다. 명종 17년(1562년) 5월에 건립한 묘갈(墓碣)에는 ‘추만거사정지운지묘(秋巒居士鄭之雲之墓)’라 새겨져 있는데 비문은 퇴계 이황이 짓고 송인(宋寅)이 썼다. 비의 규모는 높이가 157cm, 폭 61cm, 두께 32cm이다. 1981년 2월에 건립한 2기의 묘비는 대리석 비신에 화강암, 이수를 갖추었다.



중산 마을에 위치한
정지운 선생 묘

정지운은 조선 시대 중기 고양이 낳은 대표적인 성리학자로서 고양 8현 중의 한 사람이다. 중종 4년(1509년)에 출생하여 명종 6년(1561년)에 돌아갔다. 자는 정이(靜而)이며 호는 추만(秋巒)이다. 본관은 경주(慶州)로서 인필(仁弼)의 아들이다.

일찍이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과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의 문하에서 학문에 힘써 성리학을 깊게 연구하였다. 성리학의 대가로서 「천명도설(天命圖說)」을 저술하여 조화의 이치를 규명한 뒤에 한성에서 퇴계를 만나 수정을 받았다. 이것은 훗날 사칠논쟁(四七論爭)의 발단이 된 중요한 학설인데 이 천명도설의 진본(眞本)은 일본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마이크로 필름화한 것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을 뿐이다.

추만은 주희의 성리론을 한층 심화시켜 '사단(四端)은 리(理)에서 발(發)하고 칠정(七情)은 기(氣)에서 발한다'고 주장하며 사단은 리에, 그리고 칠정은 기에 배분하여 설명했다.

고양의 문봉서원에 제향(祭享)되었다.

■김주신(金柱臣) 선생 묘 및 신도비

—숙종의 장인 아름다운 묘소

지정 번호 : 고양시 향토 유적 제18호

소재지 : 덕양구 대자동 대적골 마을

경주 김씨 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유적은 곡장, 신도비, 원형 돌레석 등이 있어 아름다운 묘이다. 이 묘는 대자동 대적골에 있으며 가림부부인(嘉林府夫人) 조씨(趙氏)와 부좌(附左)되어 있다. 호석을 두른 봉분을 중심으로 벽돌, 기와를 사용한 운치있는 곡장(曲牆)이 조성되어 있다. 묘 앞 우측에는 화강암에 옥개석을 갖춘 묘비가 있으며 중앙에는 상석, 향로석, 장명등 그리고 좌우에는 망주석, 문인석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특히 문인석의 조각 수법은 매우 뛰어나 아름다운 운문을 연상케 한다. 영조 10년(1734년) 3월에 세워진 묘비는 취규서(崔奎瑞)가 짓고 서명균(徐命均)이 썼으며 갓형의 두부와 기단이 갖추어져 있다. 현재 비의 크기는 높이 100cm, 폭 65cm, 두께 33cm이다.

신도비는 화강석 재료로 장방형의 비좌와 옥개를 갖추었고, 비의 총 높이는 300cm, 폭은 95cm, 두께는 45cm의 규모이다. 순조 26년(1826년) 7월에 건립된 신도비의 비문은 박종훈(朴宗薰)이 글을 짓고 김이교(金履喬)가 썼으며 김조순(金祖淳)이 머릿글을 쓴 것이다.

김주신(1661~1721년)은 조선조 후기의 문신으로 숙종의 장인이다. 자는 하경(廬卿), 호는 수곡(壽谷), 세심재(洗心齋).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판서 김남중(金南重)의 손자, 생원(生員) 일진(一振)의 아들로서 박세당(朴世堂)의 문인이다. 숙종 22년(1696년) 생원

시에 합격하여 이듬해 장원서별검(掌苑署別檢)이 되었다. 숙종 28년에 순안현령(順安縣令)으로 땔이 숙종의 계비, 즉 인원왕후(仁元王后)가 되자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이 되고 이어 영돈령부사(嶺敦領府事)에 이르러 경은부원군(慶恩府院君)에 봉해졌다. 도총관(都摠管)으로서 상의원(尙衣院), 장악원(掌樂院)의 제조 및 호위대장을 겸임하였다.

저서로 「거가기(居家紀)」, 「수사차록(隨事劄錄)」, 「수곡집(壽谷集)」 등이 있으며 시호는 효간(孝簡)이다.

■ 기응세(奇應世) 선생 묘

—한석봉과 주지번 등 명필의 흔적이 있는 곳

지정 번호 : 고양시 향토 유적 제23호

소재지 : 덕양구 성사동 사근절 마을

조선 시대에 조성된 기응세의 묘는 1986년에 향토 유적으로 지정되었으며 금석문으로서의 가치가 큰 문화 유적이다. 이 묘는 성사동 사근절 마을에 위치하며 배(配) 선산 임씨(善山林氏)와 쌍분으로 되어 있다.

묘 앞에는 2기의 묘비와 상석, 향로석 그리고 좌우에 망주석, 문인석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봉분 바로 앞의 대리석 묘비는 선조 19년(1586년)에 세운 것으로 석봉(石峰) 한호(韓護)가 글씨를 썼으며 높이 120cm, 폭 40cm, 두께 18cm의 규모이다.

묘비 5m 앞쪽에 위치한 묘갈은 선조 39년(1606년) 여름에 세운 것으로 높이 130cm, 폭 54cm, 두께 18cm의 규모이다. 대리석으로 된 비의 비문은 신숙(申熟)이 찬하고 글씨는 당시 중국의 명필인 주지번(朱之番)이 썼으며 세서(細書)는 석봉(石峰) 한호(韓護)가 썼다.

기응세는 조선 시대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행주(幸州)이다. 고양 8현의 한사람인 복재(服齋) 기준(奇遵)의 손이며 한성 판윤(判尹)을 지낸 대항(大恒)의 장자(長子)이다. 후에 영의정을 역임한 자헌(自獻)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이다.

평소 효행이 있어 조선 선조조에 정려(旌閭)를 내렸고 삼강록(三綱錄)에 책록되었다. 아들 자헌의 공으로 보조 공신(補祚功臣) 대광보국(大匡輔國) 숭정대부(崇政大夫) 영의정(領議政)에 중직되었다. 시호는 삼강(三綱)이다.

■유진동(柳辰仝) 선생 묘

—아파트 속의 문화 유산

지정 번호 : 고양시 향토 유적 제28호

소재지 : 덕양구 행신동 무원 마을

1991년 향토 유적으로 지정된 이 묘는 행신동 무원 마을에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봉분 주위에는 상석, 장명등, 문인석, 망주석이 배치되어 있고 상석 뒤편에는 묘표가 세워져 있다.

대리석의 묘표에는 ‘資憲大夫工曹判書兼同知春秋館事五衛都摠府摠管柳辰仝墓(자헌대부공조판서겸동지춘추관사오위도총부총관유진동묘)’라 기록되어 있으며 크기는 높이가 123cm, 폭 48cm, 두께가 19cm이다. 비문 측면의 내용에 의하면 이 비는 명종 17년(1562년)에 세운 것이다.

또 묘 아래 50m 지점에는 명종 18년(1563년)에 건립된 신도비가 있는데 크기는 높이가 160cm, 폭 75cm, 두께 23cm이며 옥개석이 건조되어 있다. 비문은 홍섬(洪湜)이 짓고 송인(宋寅)이 썼다.

유진동은 조선조 중기의 문신으로 연산군 3년(1497년)에 출생하여 명종 16년(1561년)에 돌아갔다. 자는 숙춘(叔春), 호는 죽당(竹堂), 본관은 진주(晋州)로 한평(漢平)의 아들이다.

중종 17년(1522년) 사마시를 거쳐 1531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중종 33년(1538년) 정언(正言)을 지냈으며 이어 지평(持平), 교리(校理), 장령(掌令)을 두루 역임한 후 중종 38년(1543년) 부제학(副提學)에 올랐다.

전라, 경기, 평안도의 외직을 맡고 명종 5년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러나 4년 뒤 대사헌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으며 이때 경언(經筵)에서 주역을 진강(進講)하게 되었는데 그가 적임자라 하여 경연관(經筵官)으로 다시 기용되었다. 이어 공조판서에 이르렀고 명종 14년(1559년) 도총관(都摠管)을 겸임하고 이어 중추부사가 되었으나 곧 증풍으로 돌아갔다.

문사와 글씨, 그림에 뛰어났으며 일설에는 남대문의 현판 ‘송례문(崇禮門)’을 썼다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다. 시호는 정민(貞敏)이다.

■ 효자동 태묘(胎墓)

—태실의 신비를 간직

시대 : 조선 시대

소재지 : 덕양구 효자동 태봉 기슭

재료 : 화강석

태묘는 북한산성에서 의정부 방향의 63번 도로 옆 효자동 태봉(胎峰)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비는 태봉의 오른쪽 입구에 세워져 있으나 본래는 산봉우리 정상에 있던 것이다. 비는 화강석으로 되어 특별한 문양이나 조각은 보이지 않으며 일반적인 묘비와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비의 앞면에는 ‘왕녀태실(王女胎室)’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비 뒷면에는 ‘成化十三年立石(성화 13년 입석)’이라 기록되어 이 비가 조선 성종 8년(1477년)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비의 규모는 기단을 포함한 총 높이가 112cm, 폭 31cm, 두께 9cm이다.

태묘는 조선조 사회에서 매우 중요시 되어 일반 능과 같이 풍수지리설에 의거해 만들어졌다. 태묘는 대개 대석(臺石), 옥개석, 비신 등으로 이루어지며 태는 중앙 조정의 안태사(安胎使)를 보내어 묻게 하였다.

태실비(碑)에서 북한산 기슭 방면으로 약 50m 떨어진 곳에는 태실의 개첨석(蓋檐石)으로 보이는 화강암 뚜껑이 있는데 전체 지름이 1m에 이르는 큰 규모이다. 또한 태봉 정상에는 뚜껑의 봄체에 해당하는 화강암 석재가 있는데 땅에 묻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흔히 태묘에서 발견되는 태호(胎壺)가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서삼릉 경내에 태묘가 있으나 일제 시대에 새로이 조성된 것이고 이곳 효자동 태묘는 옛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보존 가치가 크다.

■ 화정동 지석묘(支石墓)

—선사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산

시대 : 청동기 시대

소재지 : 덕양구 화정동 산대골 마을

재료 : 자연석

화정동의 고인돌(지석묘)



화정동 지석묘(고인돌)는 화정동 찬우물 마을에서 성사동 베라산 마을로 넘어가는 산대골 고개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지석묘의 앞쪽은 다듬어져 있는데 바위의 평평한 부분에는 총

24개의 성혈(CUP-mark)이 발견되었다. 성혈의 크기는 직경 3~5cm, 깊이 1~2cm 정도인데 지석묘의 중앙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상석의 남쪽에서 70cm 정도 되는 지점에는 돌을 채석하기 위한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현재 상석은 비교적 지석묘의 모

습을 간직하고 있으나 하부 구조인 기단은 훼손되거나 장소가 옮겨져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1991년 화정 지구 유적 조사에서 서울대 박물관 조사 팀은 지석묘로 추정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7) 건축물

건축물은 인간적 요구와 건축 재료에 의해 실용적, 미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진 구조물로서 옛부터 우리 민족의 주요한 시설물로 여겨져 왔다.

■ 벽제관지(碧蹄館址)

—관서대로의 주요 건물로 벽제관 전투의 슬픔이깃들어 있는 곳

지정 번호 : 사적 제144호

소재지 : 덕양구 고양동 읍내 마을

이 자리는 옛날 역관(驛館)이 있던 자리로 현재 고양초교 북쪽에 인접해 있다. 조선 시대에 한성에서 중국으로 통하는 관서로(關西路), 또는 의주로(義州路), 연행로(燕行路)에는 이와 같은 역관이 10여 곳 있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사절단이 숙박 휴식하였고 특히 벽제관은 때로 임금이 쟈릉(齋陵) 친제시(親祭時)에 숙소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에게는 역관에 머물러 휴식하는 공용 숙박 시설이라 하겠다. 더

육이 이들 역관은 역(驛)을 동반하고 있어서 교통, 통신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벽제관은 한성에 인접하고 있었으므로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은 한성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이 역관에서 숙박하고 다음 날 관복으로 갈아 입고 예의를 갖추어 들어가는 것이 정해진 예법이었다.

본래 고양시의 고읍치(古邑治)는 벽제관에서 서북방으로 5리 정도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위치로 읍치를 옮긴 인조 3년(1625년)에 이곳에 새로 세운 객관이 지금의 벽제관이다. 당시 규모는 면적 1,265평, 건물은 601평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언제 다시 건물을 세웠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며 일제 때 일부가 헐렸고 6·25 때 완전히 불타버렸다. 그러나 1960년경까지만 해도 객관문(客館門)이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퇴락(颓落)해 무너져버려 객사의 유팽과 터, 그리고 7척(尺) 간격으로 원좌주초석(圓座柱礎石)의 장대석(長臺石)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곳을 기점으로 북방에 혜음령(惠陰嶺)과 동북방으로 퇴폐현(退敗峴)이 있다. 그리고 서남으로 이어진 도로를 이어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이여송 군대와 왜군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 이른바 벽제관 싸움의 전장터 중심지가 되는 곳이 있기도 하여 많은 뒷얘기를 남기고 있다.

벽제관은 관서로 연로(沿路)에 설치한 첫 번째 역이었다는 점 외에도, 임금이 중국 사신을 친히 맞았던 모화관(慕華館)에 버금가는 곳으로 반드시 하루 전에 이곳에 머물러 입경하도록 한 객사 자리였던 만큼 보존과 복원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한미산 흥국사 약사전(漢美山興國寺藥師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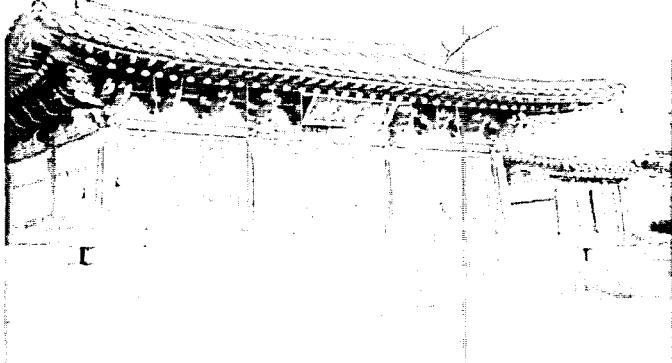
—고양의 아름다운 건축 문화재

지정 번호 :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57호

소재지 : 덕양구 지축동 절골 마을

재료 : 목조와습(木造瓦葺)

한미산(일명 노고산) 아래에 있는 이 절의 본래 이름은 흥서암(興瑞庵)으로, 신라 문무왕 1년(661년)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그후 조선 시대 숙종 12년(1686년)에 중창되었으며 영조 46년(1770년)에는 왕이 친히 행차하여 잠시 머물렀다고 한다. 이때 산 이름을 노고산(老姑山)에서 한미산으로 고치고 절 이름을 흥국사로 바꾸었



홍국사의 본 전인 약사전

다. 다시 정조 9년(1785년)에 북한산성을 쌓을 때 참여한 승대장(僧大將) 겸 도총섭(都摠攝) 관선(觀禪)이 중창하였다. 또한 고종 4년(1867년)에는 화주(化主) 과명(廓明)이 약사전을 중수하였으며, 그 후에도 몇 차례의 중수가 더 있었다. 현재는 경내에 약사전, 산신각(山神閣), 칠성각(七星閣), 요사채 2동, 강당, 범종각(梵鍾閣), 석등(石燈) 2기가 있으며 입구에 만일회비(萬一會碑), 일주문(一柱門)이 있다.

약사전은 이 절의 본 전(本殿)이다. 전 안에 약사여래상을 모시고 불상 뒤에 정조 16년(1792년)에 제작된 약사후불탱화가 걸려 있다. 건물은 1867년에 중수되어 19세기 후반의 일반적인 건축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장대석 기단 위에 사각형의 잘 다듬은 초석을 놓았는데 초석의 높이가 36cm 정도로 비교적 높다. 기둥은 훌림이 거의 없는 등근 기둥이며 기둥 머리에 창방(昌防)과 평방(平防)을 돌리고 그 위에 다포(多包)식의 공포(貢包)를 짰다. 공포는 내외 1출목이며 살미첨차는 바깥 끝이 아래로 처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며 연꽃으로 장식되었고 내부 끝에 등글게 조각되었다. 또한 어칸의 양측 기둥 머리에는 용머리가 장식되고 공포의 각 살미 위에는 봉황 머리가 장식되었다. 내부는 중간에 고주(高柱)를 세우지 않고 앞뒤 기둥 위에 대들보를 보냈으며 중보에 대어 우물천장을 가설하고 주변에 빗천장을 대었다. 처마는 겹처마이고 지붕은 팔작(八作) 지붕이다. 벽체는 전면 3칸 모두 분합문을 설치하고 나머지 3면은 판벽으로 처리하였다. 이상의 건축적인 세부 구성은 대체로 19세기 중반의 일반적인 불교 사찰 건축의 특징을 고루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초석, 공포의 세부 장식과 가공 수법, 판벽 구성 등에서 그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고양 향교(鄉校)

—고풍스러움이 남아 있는 옛 교육 기관

지정 번호 :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69호

소재지 : 덕양구 고양동 향교골 마을

재료 : 목조와 석

고양 향교는 고양초등학교를 지나 대자산 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선조 초기 태조 7년(1398년) 고양 문묘(高陽文廟)라 하여 옛 벽제면 대자리 고읍(古邑)에 창건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3년 후에 다시 지었는데 그후 원래의 위치인 이곳에 국장(國葬)을 지내게 됨으로써 향교 이전 명이 내려져 현 위치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당시 세워진 건물들은 대성전, 동·서무(東·西廡), 전사청(典祀廳), 내·외삼문(內·外三門) 등이 있었다. 그러나 6·25 전쟁 때 소실되어 1980년대 이후 몇차례 중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향교의 정면에는 홍살문(紅箭門)이 있고 그 뒤에 외삼문 그 안쪽에 정면 4칸, 측면 2칸의 명륜당이 위치해 있다. 그 좌우에 동재, 서재가 있으며 정면 가장 중앙되는 곳에 공자(孔子)와 그의 제자들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이 있으며 동서무에는 우리 나라 선현(先賢) 등 총 20위가 봉안되어 있다.

대성전은 장대석 바른층 쌓기 기단 위에 원형의 정평주추가 있으며 기둥은 나무로 만든 둑근 기둥이다. 연등 천정에는 익공이 있으며 맞배 지붕 외에 방풍판이 있다. 단청은 고풍스럽게 칠해져 있으며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면적은 58.5m²이다. 대성전 좌측에는 전사청 건물이 있다.

향교에서는 매년 음력 8월 27일 공자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석전 대제(釋奠大祭)를 봉행하고 있다.

■ 월산대군 사당(月山大君祠堂)

—영조의 친필이 보관되어 있는 사당

지정 번호 : 문화재 자료 제79호

소재지 : 덕양구 신원동 능글 마을

재료 : 목조와가(木造瓦家)

조선 제9대 성종의 친형인 월산대군 이정의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일명 석광사이다.

월산대군은 부모에 대한 효성과 왕에 대한 충성이 지극하였으며 특히 동생 성종과의 우애가 깊었다. 시주(時酒)를 좋아하여 집 뒤뜰에 풍월정(風月亭)을 짓고 서적을 쌓아두고 풍류 생활을 하였으며 문집으로 「풍월정집(風月亭集)」을 남겼다.

사당은 묘소의 서쪽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처음 창건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숙종 19년(1693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건물은 정조 10년(1786년)에 중수한 것이다.

네모난 담장 중앙에 삼문(三門)을 세우고 그 안에 사당을 모셨는데 담장은 개인 사당에서는 보기 드물게 장대석으로 하단을 축조하였고 석조 배수구까지 갖추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민도리 맞배 기와 지붕 건물이다. 역시 장대석으로 쌓은 기단 위에 8각형의 장초석을 놓았으며 두리 기둥에 맞걸이 3량을 걸고 홀쳐 마로 지붕을 만들었다.

건물의 앞면은 재계 행사(齋戒行事)에 알맞도록 1칸을 개방하였다. 영조가 친히 석광사(錫光祠)라는 편액을 내렸으며 정조, 순조 때에는 조정에서 신하를 보내 왕을 대신해 제사를 올리기도 하였다. 신주를 운반할 때 쓰던 요여가 당내에 보존되어 있다.

■ 일산 밤가시 초가

—일산의 신비스러움, 여름다음이 있는 집

지정 번호 : 경기도 민속 자료 제8호

소재지 : 일산구 일산 4동 밤가시 마을

제질 : 목조 초가

정발산 북동 기슭에 위치한 이 초가는 조선 후기 우리 나라 중부 지방의 전통적인 서민 농촌 주택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집은 평면 구성의 형식이나 기둥 등 주요 부재의 부식 정도로 미루어 대략 150년 전의 건축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가옥의 주요 목재는 기둥, 대들보, 중방, 문틀, 마루, 서까래 등에 이르기까지 밤나무 재목을 쓴 것이 특징이다. 이는 옛부터 이 마을은 밤나무가 울창했고 가을이면 밤가시가 야산에 산재해 있다는 데서 밤가시, 곧 율동(栗洞)이란 마을 이름이 유래될 정도로, 밤은 이 마을의 주요 수입원이자 나무 또한 주요 생활 용품이었던 것이다.

이 집은 서북쪽이 언덕에 기대어 동남쪽으로 향해 앉았으며 그

형태는 그자형의 안채를 중심으로 현존하지 않는 행랑채가 맞은편에 대청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자형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채는 한 칸의 좁은 대청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각각 한 칸 반씩의 안방과 부엌, 왼쪽으로 한 칸의 건넌방을 이룬 간단한 구조로 되었으며 암마당 밖의 헛간은 중간에 증축된 것으로 보인다.

안채의 구조는 막돌로 된 주춧돌 위에 네모 기둥을 세우고 도리를 4개 걸쳐 소위 평사랑 가구를 짰는데, 이것은 초가 지붕에서 부재를 절약하면서 지붕들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기둥에 도끼나 자귀로 거칠게 다듬은 흔적이 드러나고, 서까래도 불규칙한 배열을 보여 서민 가옥의 특징인 소박하면서 튼튼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 집은 특별한 담장이 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0여 년 이상의 풍상을 겪으면서도 기둥, 도리, 쪽마루 등이 아직껏 생생하여 조선 후기 경기도 지방의 영세성을 떤 농촌 가옥의 형태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일산 밤가시 초기집의 내부 모습

■ 북한산 중흥사지(重興寺址)

—136칸 규모의 큰 사찰

지정 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136호

소재지 : 덕양구 북한동 중창 마을

중흥사는 북한산성 내 장군봉과 구암동 사이에 위치해 있다.

중흥사는 고려 초에 창건되었다는 구전이 있으나 창건 연대는 미상이며 고려 말 태고(太古) 보우국사(普愚國師)에 의해 중수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유물로 1103년 작 금고(金鼓)와 1344년 작 항완(香奩)이 현존하고 있어 12세기 초 이전에 이미 개창(開創)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북한지(北漢誌)」에 의하면 이 중흥사는 본래 30여 칸 규모의 작은 사찰에 불과했으나 1713년(조선 숙종 39년) 외적에 대비하여 북한산성을 축성하였는데 성이 완성된 1715년에 증축하여 136칸의 큰 사찰이 되었다고 한다. 당시 조정에서는 팔도(八道)의 사찰에 영(令)을 내려 1년에 6차례에 걸쳐 번갈아 의승(義僧)을 뽑아 산성 내의 11개 사찰에 주둔시켜 성문(城門), 수문(水門), 장대(將臺), 창고(倉庫) 등을 지키게 하였다.

승군(僧軍)들이 주둔하였던 사찰은 용암사(龍巖寺), 보국사(輔國

寺), 보광사(普光寺), 부왕사(扶旺寺), 원각사(圓覺寺), 국녕사(國寧寺), 서암사(西巖寺), 태고사(太古寺), 진국사(鎮國寺)이며 증홍사는 이 10개의 사찰을 관장하였던 주요 사찰로서 북한산성의 승영(僧營)이었던 것이다. 그후 1828년에 이르러 대웅전(大雄殿)과 만세루(萬歲樓)를 중건하여 유수한 사찰로 존속하였으나 1894년 화재를 입었고, 다시 1915년에 홍수를 당해 석축(石築)이 허물어지고 현재는 유지(遺址)만 남아 오늘에 이른다.

■ 북한산성 행궁지(行宮址)

— 숙종의 숨겨진 사연과 의지가 담겨 있는 곳

시대 : 조선 시대

소재지 : 덕양구 북한동

이 행궁지는 태고사(太古寺)에서 대성문(大成門)으로 오르는 등산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행궁지는 땅 위로 드러나 있는 건축물은 현존하지 않으며 건립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화강암 재질의 석축과 우물 터, 그리고 약 3천 여 평에 이르는 지(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행궁은 유사시 왕의 행재소(行在所)가 되는 곳으로 북한산성이 축성을 시작하기 한 달 전인 숙종 37년 5월 25일에 당시 산성의 공사를 주관하던 감동당상(監董堂上)인 김우항(金宇杭)에 의해 건립이 제기되었다. 동왕 5월, 왕의 윤허(允許)를 얻어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바위가 많고 지세가 험하여 공사에 큰 어려움을 겪자 조정에서는 영건청(營建廳)을 두고 호조판서 김수항과 공조판서 이언강(李彦綱)을 주관당상(主管堂上)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목재는 산성 밖의 삼천동(三千洞)에서 얻어 지었는데 동왕 37년 10월까지는 내전의 기와(蓋瓦), 외전(外殿)의 정초(定礎)가 공사에 들어갔다. 다음해 2월부터는 다시 내전의 창호(窓戶) · 청판(廳板) · 토역(土役) 등의 수장 공사(修裝工事)와 외전의 입주상량(立柱上樑) 등의 일이 순서대로 진행되어 숙종 38년 5월에 낙성(落成)을 보게 되었다.

당시의 이 행궁 규모는 내전이 좌우 상방(上房) 각 2칸, 대청이 6칸, 사면퇴(四面退) 18칸을 합한 28칸이었으며 이 정전 외에 또 좌우 각방(左右 閣房) · 청 · 대문 · 수라소(水刺所) 등의 부속 건물이 35칸이나 되었다. 외전 역시 내전과 같은 규모의 정전 28칸, 내

행각방 12칸을 위시한 루(樓) · 청 · 고간(庫間) · 대문 등 총 33칸의 부속 건물이 있었다. 이 모든 건물을 합치면 130여 칸에 달하는 많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있어 그 위용을 자랑하였다.

그후 일제 시대까지 그 건물이 보존되어 있었으나 언제 지금과 같은 모습의 터만 남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행히 일제 시대에 찍힌 사진이 남아 있어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을 뿐이다.

■ 흥국사 칠성각(興國寺七星閣)

—조선 시대 건축 미술의 수법을 보여줌

소재지 : 덕양구 지축동 절골 마을

규모 : 정면 3칸, 측면 2칸

재료 : 화강암 및 목재

이 건물은 지축동의 흥국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칠성각 옆으로는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57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약사전(藥師殿)이 있는데 1867년에 중수한 건물이다. 약사전에 비해 규모가 약간 작은 칠성각은 전체적으로 동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목조로 된 건물은 잘 다듬어진 화강암 재료의 기단석(基壇石) 위에 세워져 있는데 정면으로 계단이 축조되어 있다. 건물을 받치고 있는 초석은 장방형이며 총 4개의 배수구가 만들어져 있다. 건물 정면에 모두 3개의 문이 있는데 문살의 무늬가 매우 세밀하고 화려하다.

칠성각 안에는 1832년에 제작된 탱화가 보관되어 있다. 건물은 광서(光緒) 4년(1878년)에 지어져 19세기 후반의 일반적인 건축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건물의 기둥은 사각으로 훌립이 거의 없는 등근 기둥이며 기둥 머리에 평방과 창방을 돌리고 그 위에 다포(多包)의 공포(貢包)를 썼다. 맞배 지붕의 형태를 한 칠성각 정면에는 ‘七星閣(칠성각)’이라 쓰여진 현판이 걸려 있는데 초서체로 쓴 뛰어난 필체의 작품이다. 이 현판은 조선조 후기의 김성근(金聲根)이 송판(松板)에 쓴 것이다.

건물의 측면에는 단청된 방풍판(防風板)이 있으나 특별한 문양이나 조각은 보이지 않는다.

■ 문봉서원지(文峰書院地)

—고양 사람들의 얼과 사상을 강론하던 곳

소재지 : 일산구 문봉동 빙석촌 마을

이 서원지는 고양 지역 내에서 가장 유서 깊은 서원 중의 하나인 문봉서원의 옛 터 유적이다. 현재 이 터는 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상에 남아 있는 건축물은 없고 땅 위로 몇 기의 주춧돌과 대석이 있을 뿐이다. 화강암 재질로 된 주춧들은 원형과 사각형 두 종류가 남아 있다. 이 중 둑근 원형의 주춧들은 그 지름이 61cm, 네모난 사각형의 주춧들은 한 면의 길이가 61cm이다. 석재의 각 사이사이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어 당시 건물의 규모나 형태를 보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봉서원은 조선조 숙종 14년(1688년)에 건립되어 동왕 35년(1709년)에 왕명으로 사액(賜額)을 받은 고양 지역 최초의 서원이다. 문봉서원에는 고양 지역 출신이거나 관련이 있는 현인들을 제향, 존모하고 있었는데 이른바 고양 8현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서원에 제향된 고양 8현은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 1454~1492년), 사재 김정국(思齋 金正國, 1485~1541년), 복재 기준(服齋 奇遵, 1492~1521년), 추만 정지운(秋巒 鄭之雲, 1509~1561년), 행촌 민순(杏村 閔純, 1519~1591년), 모당 홍이상(慕堂 洪履祥, 1549~1615년), 석탄 이신의(石灘 李愼儀, 1551~1627년), 만회 이유겸(晚瞻 李有謙, 1586~1663년) 선생이다.

문봉서원은 고양 지역 내의 행주서원과 함께 학문 연구와 제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고종 2년(1865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 정책으로 훼철되어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

8) 비(碑)

비는 사적을 후세에 오래도록 전하기 위해 나무, 돌, 쇠붙이 따위에 글이나 무늬를 새겨놓은 것을 부르는 명칭이다.

■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1기(太古寺圓證國師塔碑 1基)

—보물로서의 가치가 뛰어남

지정 번호 : 보물 제611호

소재지 : 덕양구 북한동

재료 : 화강암

현재 북한산 태고사 법당 우측에 목조와 화강암의 비각을 세워 보존하고 있다. 널찍한 정방형의 지대석(地臺石) 위에 귀부(龜趺)를 안치하고, 그 위에 비신(碑身)을 세웠으며 꼭대기에 이수를 놓은, 통일신라 시대 이래 고려 시대까지 유행된 일반적인 탑비 형식을 갖추고 있다.

큼직한 귀부의 뒷면에는 6각의 귀갑문(龜甲文)이 길쭉하게 조각되었고, 용의 머리 모습과 흡사한 귀두(龜頭)는 윗부분을 향하였으며, 두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입을 크게 옆으로 벌려 이빨만 보인다. 모든 부분의 조각은 형식화에 흐르고 있다. 뒷면 윗부분에 비좌(碑座)를 마련하고 석비(石碑)를 세웠는데 아래쪽 끝을 귀부 정상 부분에 꽂은 형식이다.

비신(碑身)은 장방형으로 앞면에 본문을 새기고, 뒷면에는 음기(陰記)가 있으며, 앞면 윗부분에 ‘원증국사탑명(圓證國師塔銘)’이란 6자의 제액(題額)이 있다. 이수는 밑면에 낮은 1단의 받침이 있고 그 밖으로 양련문(仰蓮文)이 돌려졌으며, 위에는 운룡(雲龍)이 새겨 있다.

현재 전체 높이 3.42m, 비신 높이 2.27m, 옥개석 높이 0.55m의 규모이다. 이 석비는 고려 말의 명승인 보우대사(普愚大師)의 부도탑비(浮屠塔碑)로서 대사의 출생부터 입적에 이르기까지의 내력을 적은 것이다.

이 비문에 의하면 원증국사의 이름은 보우(普愚)이며, 호는 태고(太古), 속성은 홍 씨(洪氏)이다. 본관은 홍주(洪州)로서 아버지는 연(延) 씨, 어머니는 정(鄭) 씨이며, 충렬왕 27년(1301년)에 출생하였다. 13세에 출가하여 회암사(檜巖寺) 광지선사(廣智禪師)를 사사(師事)한 후 많은 사찰을 다니면서 수학(修學)에 전념하였다. 46세에는 중국에 다녀왔는데, 이후 재차 중국에 갔을 때에는 순제(順帝)가 소식을 듣고 영령사(永寧寺)에 개당(開堂)하여 금란가사(金欄袈裟) 침향(沈香) 불자(佛子) 등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공민왕이 광명사(廣明寺) 원용부(圓融府)를 세우자 왕사(王師)가 되었다가 신돈의 횡포를 미워하여 소설사(小雪寺)에 은거하였

으며, 이후 그곳에서 우왕 8년(1382년)에 입적하였다. 태고사는 충혜왕 복위 2년(1341년)에 대사가 삼각산 중흥사에 주석(住錫)하면서 창건한 것이다.

비각은 석주(石柱)만 남아 있던 것을 1979년에 복원한 것이다.

■ 행주대첩비 구비(舊碑)

—행주산성 내에서 그 문화재적 가치가 가장 높음

지정 번호 : 유형문화재 제74호

시대 : 조선 선조 35년(1602년), 현종 11년(1845년)

소재지 : 덕양구 행주내동 행주산성 경내

규모 : 초건비(初建碑) — 높이 188cm, 너비 80cm, 두께 19cm,

중건비(重建碑) — 높이 233cm, 너비 102cm, 두께 47cm

재료 : 대리석 및 화강암

이 비는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왜병을 격퇴한 승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로서 1기는 선조 35년(1602년)에, 또 한 기는 현종 11년(1845년)에 세운 것이다.

덕양산 정상에 세워져 있는 구비(舊碑)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비문은 최립(崔立)이 짓고 한석봉(韓石峰)이 글씨를 썼으며 김상용(金尙容)이 전액(篆額)을 썼다. 비문 끝의 추기(追記)는 이항복(李恒福)이 지었고 김현성(金玄成)이 썼다. 이 비는 오래되어 마모가 심해지자 비를 새로 새기면서 한때 방치되었으나 일제 시대에 비각을 세워 보존하였다. 그 이후 비각이 훼손되자 1970년 비각을 새로 개축하였다.

비문은 1593년 행주산성 대첩의 경과와 권율 장군의 공덕을 기리는 내용이다. 새로 세운 비는 현종 11년에 종전의 비문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규모를 훨씬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비문의 뒤에는 추기(追記)를 다시 새겨 넣었는데 조인영(趙寅永)이 짓고 이유원(李裕元)이 썼다. 그 내용은 기존의 기록에서 누락된 장군의 사적과 행주 기공사 중창기(紀功祠 重創記)를 아울러 기록하였다.

행주대첩비를 들러싸고 있는 산성이 행주산성이다. 현재 덕양산 중턱 산허리에는 성지가 남아 있으며 사적 제56호로 지정되어 있다. 두 번째 대첩비와 이웃하여 1970년에 권율 장군의 사당인 충장사가 건립되었다.

■ 금표비(禁標碑)

—고양군의 역사 연구에 결정적으로 기여함

지정 번호 : 경기도 지방 문화재 자료 제88호

시대 : 조선 시대

규모 : 높이 147cm, 너비 55cm, 두께 23cm

재료 : 화강석

금표비는 대자동 간촌(間村) 마을 금천군(錦川君) 묘소 내에 위치하고 있다. 비 주변에 다른 건축물이나 표시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비는 땅 속에 오랜 기간 묻혀 있다가 출토되어 황토빛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비의 대좌는 장방형이며 후에 새롭게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비신의 앞면에는 '禁標內犯入者論棄毀制書律處斬(금 표내범입자논기훼제서율처참)'이라 표기되어 있다.

비문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이 금표비는 조선조 연산군 때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비문은 '금표 내에 들어온 사람은 기훼제서율에 의해 처참한다'는 것으로 당시 금표 구역은 지금의 고양시·파주시·양주군·포천군·남양주시·광주군·미금시·김포군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연산군 일기에는 연산군 10년(1504년)부터 동왕 12년에 이르기까지 금표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 금표비는 1980년대 중반 인근의 전주 이씨 자손들이 묘역 정화사업을 벌이던 중 발견되고 필자에 의해 금표비임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연산군대 금표비가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금석문이다. 특히 고양시는 연산군대에 금표를 세우고 일반 백성의 출입을 금지시키며 고양군 자체를 혁파했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표비의 의미와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 최원직(崔元直) 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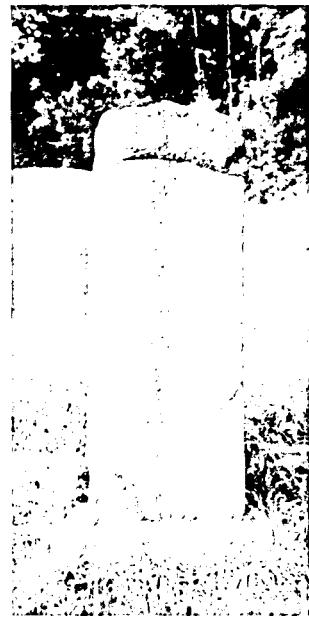
—고려 시대에 드문 금석문

시대 : 고려 시대

소재지 : 덕양구 대자동 대적골 마을

규모 : 높이 96cm, 너비 66cm, 두께 27cm

재료 : 화강석



대자동의 연산군 시대 금표비

이 묘비는 대자동 대적골 최영 장군 묘 뒤편 최원직의 묘 좌측

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묘 앞에는 상석 1기와 향로석이 있을 뿐이며 봉분은 고려 시대, 조선조 초기에 쉽게 볼 수 있는 사각묘이다. 봉분 뒤편으로는 약 50m 길이의 곡장(曲牆)이 둘러쳐져 있다.

묘비는 팔각 형태의 옥개석과 비신, 그리고 기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립 시기는 고려 우왕(禥王) 12년(1386년) 12월에 세워진 것이다. 비의 앞면에는 '贈推忠雅毫廉檢輔世翊贊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判門下府事上護軍兼判藝文春秋館事東原府院君崔公墓(충추충아 호령겸보세익찬공신벽상삼한삼중대광판문하부사상호군겸판예문춘 추관사동원부원군최공묘)' 라 새겨져 있다.

이 묘비는 공의 아들인 최영이 직접 쓰고 세운 것이라 하는데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고려 시대의 매우 보기 드문 화강석 묘비이다. 최원직은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상호군, 예문관, 춘추관사를 지낸 뒤 동원부원군에 봉해졌다.

■ 고양동 송덕비(頌德碑) 7기

-고양의 역사를 이끈 인물들의 흔적

시대 : 조선 시대

소재지 : 덕양구 고양동 읍내 마을

고양동 송덕비들은 옛 고양동사무소 옆 벽제관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특별한 비각이나 보호 난간 없이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총 7기의 비가 한 줄로 전립되어 있다. 비의 내용은 조선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대 고양군수 및 관찰사(觀察使), 면장(面長)의 선정(善政), 치적(治績)을 기리기 위한 송덕비들이다.

- 군수 정진목 애민 선정비(郡守鄭晉默愛民善政碑)

이 비는 화강석의 대좌 위에 세워져 있는데 총 높이는 167cm, 너비 54cm, 두께 24cm의 규모이다. 정진목은 고종 12년(1875년) 3월 2일부터 동왕 14년(1877년) 8월 24일까지 고양군수를 지낸 인물이다. 이 비는 1877년에 그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 관찰사 이재원 영세 불망비(觀察使李載元永世不忘碑)

이 비는 정진목 선정비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총 높이는 184cm의 규모이다.

비는 고종 14년(1877년)에 건립되었는데 화강석의 비신과 대좌를 갖추고 있다. 이재원은 당시 경기도 관찰사로, 공덕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영세불망비라 하였다.

• 군수 유시증 청덕 선정비(郡守俞是曾清德善政碑)

이 비는 관찰사 이재원의 영세 불망비 우측에 세워져 있는데 그 규모는 높이 162cm이며 채질은 화강석이다.

인조 14년인 1636년에 건립되었으며 장방형의 대좌에 비신을 갖고 있다. 유시증은 당시에 고양군수를 역임한 인물이다.

• 군수 최창대 선정비(郡守崔昌大善政碑)

이 비는 유시증 청덕 선정비 우측에 위치하며 그 규모는 높이 153cm이다. 비는 화강석 대좌와 비신으로 되어 있는데 최창대는 숙종 40년(1714년) 11월 7일부터 동왕 41년(1715년) 5월 7일까지 고양군수를 지낸 인물이다.

• 군수 영사비(郡守永思碑)

이 비는 최창대 선정비 우측에 위치하며 화강석 대좌에 대리석 비신과 이수로 되어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92cm, 너비 58cm, 두께 16cm이다. 비는 조선조 인조 10년(1632년)에 건립되었는데 비문의 마모가 심하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 군수 홍진유 청덕 애민 선정비(郡守洪晉猷清德愛民善政碑)

이 비는 군수 영사비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총 높이는 162cm이다. 영조 9년(1734년)에 세워졌으며 대리석 비신에 장방형의 대좌로 되어 있다. 홍진유는 영조 6년(1730년) 11월 27일부터 동왕 7년(1731년) 10월 21일까지 고양군수를 지냈다.

• 면장 신규선 치적비(面長申圭善治績碑)

이 비는 홍진유 선정비 우측에 위치하며 높이 142cm의 규모이다. 화강암 대좌에 오석의 비신을 갖추고 있는데 비문에 의하면 벽제면 유지들이 건립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규선은 1932년 1월 30일부터 1939년 10월 13일까지 벽제 면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 이석탄 장대(李石灘將臺)

— 임진왜란 의병의 증거들

시대 : 조선 시대

소재지 : 덕양구 도내동 석탄촌 마을

규모 : 높이 94cm, 너비 38cm

재료 : 화강석

이 장대는 도내동 홍도초등학교에서 창릉천으로 연결된 도라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장대 주위에는 다른 묘나 비는 보이지 않으며 산을 깎아 터를 만들어 잘 보존되어 있다.

장대는 화강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면에는 ‘李石灘將臺(이석 탄장대)’라 표기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先生壬辰起義兵設臺後百四十九年庚申洞人立(선생임진기의병설대후백사십구년경신동인립)’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보아 이 장대가 세워진 곳이 석탄 이신의(李愼儀, 1551~1627년) 선생이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접전을 벌인 장소임을 알 수 있다. 비문의 내용은 이 장대가 1740년에 마을 주민들에 의해 건립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고양군지」에도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서 왜병을 소탕했으며 그가 살던 곳에 장대가 있다’란 기록이 있다. 장대는 5cm의 기단과 비신이 합쳐진 1기이며 옥개석과 비두는 만들지 않고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약간 넓은 모양을 하고 있다.

석탄 이신의는 문봉서원에 제향된 고양 8현의 한 사람으로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석탄은 일찍이 현천동에 거주하던 행촌(杏村) 민순(閔純) 선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던 인물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군(鄉軍) 3백여 명을 거느리고 도내동 부근에서 적과 싸워 공을 세운 후 형조참판(刑曹參判)을 역임하였다. 돌아간 후에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는데 묘는 장대비의 서쪽 서촌(西村) 마을에 위치해 있다.

9)문(門)

문은 건축물 등의 출입에 쓰이는 건축 구조물로 문짝을 달는 것이 주종을 이룬다.

■ 이정암 정려문(李廷誡旌閭門)

—400년 전의 충절이 이어짐

소재지 : 일산구 사리현동 학교길 마을

규모 : 높이 210cm, 너비 250cm

재료 : 와가(瓦家) 및 목조

이정암 정려문은 관산동에서 문봉동~일산 방면으로 이어진 69번 시 도로 우측의 벽제초등학교 정문 옆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정려문은 맞배 지붕 형태의 정려각 안에 보존되어 있다. 원형 기둥에 주 추를 놓아 지어진 정려각은 단청부연을 했는데 정려문은 북남쪽으로 길게 세워져 있다. 이 정려문은 1592년 임진왜란

과 정유재란 때 큰 무공을 세운 충목공(忠穆公) 이정암의 충군애국정신(忠君愛國精神)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이 정려문은 1598년 전쟁이 끝난 지 25년 후인 1623년 조선조 인조 원년에 하사된 것이다. 문의 규모는 높이 210cm, 폭이 250cm인데 37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문의 정면 상단에는 총 78자의 정려문 목판 글씨가 남아 있다. 그 내용은 '忠臣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黃海道觀察使兵馬節度使都巡察使贈効忠杖義協力宣武功臣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世子師傅月川府院君謚忠穆公李廷璫之間(충신자헌대부지중추부사겸황해도관찰사병마절도사도순찰사증효충장의협력선무공신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좌의정겸영경연감춘추관사세자사부월천부원군시충목공이정암지려)' 라 되어 있다. 정려문의 문자는 청색 바탕의 목판에 흰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문은 댓글 위에 올려져 일반적인 홍살문의 모습과 비슷하다.

충목공 이정암은 조선조 중기의 문신으로 종종 36년(1541년)에 출생하여 선조 33년(1600년)에 돌아갔다. 본관은 경주로 탕(宕)의 아들이며 지퇴당(知退堂) 이정형의 형이다. 명종 13년(1558년)에 진사가 되고 3년 뒤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의 정자(正字)가 되었다. 선조 11년에 양주목사로 나아가 향교와 서원을 중수하여 유학 진흥에 힘쓰고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는 등 여러 업적을 남겼다. 임진왜란 때는 이조참의(吏曹參議)로서 개성 방위에 공을 세우고 연안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적을 격퇴. 그 공으로 가선 동지중추부사(嘉善 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 병조참판, 전라감사, 지중추부사, 황해도 순찰사를 역임하고 돌아가니 선조 37년(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에 추록, 좌의정 월천부원군(月川府院君)에 추증되었다.

■ 장의중 정려(張宜中 旌閭), 효자문(孝子門)

—고양 사람의 효 사상을 보여주는 곳

시대 : 조선 시대

소재지 : 덕양구 원당동 왕릉골 마을

규모 : 효자문 높이 92cm, 너비 201cm

재료 : 목재, 화강석

장의중의 묘와 정려, 효자문은 원당동 왕릉골 입구에 위치해 있다. 봉분 앞에 1905년 9월에 세운 오석의 묘비가 있는데 비문에는



장의중의 효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효자문

‘仁同張公宜中孺仁恩津宋氏之墓(인동장공의중유인은진송씨지묘)’라 기록되어 있다. 묘비는 높이 120cm, 두께 25cm, 너비 45cm의 규모이다.

묘소 아래 30m 지점에는 1905년 9월 고종이 하사한 정려와 효자문이 위치해 있다.

정려는 한옥 형태의 맞배 지붕 기와집으로 일부가 훼손되어 콘크리트로 일부 개축하였다. 정려의 규모는 정면 2칸으로 안에는 위패, 제기 등이 보관되어 있다. 정려에 달려 있는 효자문은 땅으로부터 152cm 위에 위치하고 있다. 정려에는 ‘孝子學生張宜中之閭(효자학생장의중지려)’란 글자가 흰색으로 쓰여져 있다. 정려문의 판은 붉은색으로 홍살은 모두 8개이다. 문의 끝 부분에는 광무(光武) 8년에 명려(命閭)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효자문은 정려로부터 연결된 쇠줄로 지탱되고 있다.

장의중은 조선조 말·구한말의 효자로 순조(純祖) 21년(1821년) 10월 7일에 출생하여 고종 32년(1895년)에 돌아갔다. 본관은 인동(仁同)이며 어머니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헌혈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소식이 조정에 전해져 1905년 고종으로부터 이정려와 효자문을 하사받았다.

10) 그림

■ 흥국사 극락구품도(極樂九品圖)

—불화 그림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문화재

지정 번호 : 경기도 유형 문화재 제143호

소재지 : 덕양구 지축동 절골 마을

규모 : 전체 폭 214×154cm, 화폭 205×146cm, 각 화면 67×47cm

이 극락구품도는 흥국사 경내의 미타전에 봉안되어 있는데 흥천사 극락구품도(1885년), 봉원사 극락구품도(1905년)와 함께 서울 인접 지역에 봉안된 것으로서 그림에 기록은 없지만 수법은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래 극락구품도란 아미타사상(阿彌陀思想)에 의한 극락정토(極樂淨土)의 아미타 회상(會上) 장면과 왕생(往生) 장면을 상품(上品), 중품(中品), 하품(下品)의 상중하생(生)으로 구품(九品)을 묘사한 그림이다. 이러한 그림은 고려 시대에 성행했던 관경변상도

(觀經變相圖)의 변모된 형식으로 보이며 그리 흔히 남아 있지는 않다.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화폭을 상하좌우 3등분씩 모두 9등분 하여 T자형으로 제작하여 타회상도(陀會上圖)와 왕생정토(往生淨土)를 도설(圖說)하였다. 본래 극락구품도는 구품왕생 장면을 그려야 하나 여기서는 5품의 왕생 장면만을 묘사하였다.

이 그림의 화법(畫法)을 살펴보면 각 화면의 구성이 짜임새가 있으며 색채는 전체적으로 짙은 녹색과 밝은 황토색으로 설채(設彩)하고 흥색, 백색, 청색을 가미하였다. 필선(筆線)은 모두 세필(細筆)로 묘사하였는데 전각(殿閣)의 계선(界線)은 정확하며 정교한 선이 구사되었다. 표현된 인물과 연화, 극락조, 구름 등에서도 섬세하면서도 유연하게 처리해 인물들의 얼굴과 자세가 비교적 생동감이 있어 보인다. 산수(山水) 표현에 있어서도 산을 몇 개의 선으로만 도식적(圖式的)으로 처리하였고 보수(寶樹)의 나뭇잎은 빗살문으로 공간의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장식적인 서운(瑞雲)을 배치하였다.

홍국사 극락구품도는 서울 교외에 있는 극락구품도 중의 하나로서, 아미타사상을 잘 도설한 19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19세기 불화의 양식적인 특징을 감안할 때 그 화법이 대단히 뛰어난 작품이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 형성되어 양주 홍국사를 기점으로 강원, 경기, 충청 일대의 중부권에서 활동한 금곡당파(金谷當派)의 작품임을 화풍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흔치 않은 불화라는 점과 비교적 수준 높은 화풍을 구사한 점, 일반 산수 회화 연구의 보조 자료로서의 가치, 그리고 10~20세기 초 화사(畫師)들의 사보(師譜) 연구에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한천斗 초상화(韓天斗 肖像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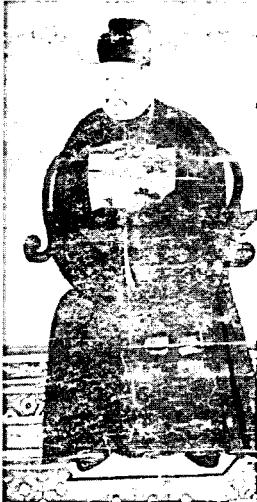
—조선 시대 관복과 옷의 무늬를 보여줌

소재지 : 덕양구 행신동 무원 마을

규모 : 세로 220cm, 가로 110cm

재료 : 한지(韓紙) 및 무명

한천斗(韓天斗, 1563~1649년) 초상화는 현재 행신동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본래 이 초상화는 행신 지구 택지개발 이전, 소만이 마을에 있던 것을 옮겨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초상화는 세로 220cm, 가로 110cm의 크기로 초상화의 우측 상단 일부를 제



한천두 초상화

외하고는 별 훼손없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 초상화는 한천두가 공신(功臣)으로 책봉될 때 왕에게 하사받은 것으로 당시 회화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관복에는 한 마리의 호랑이가 매우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소나무가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또 각띠가 둘러져 있으며 얼굴의 표정은 근엄한 느낌을 주고 있다. 얼굴 부분에서 인상적인 곳은 수염 부분인데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관복 전체에는 아름다운 곡선 무늬가 새겨져 있다. 특히 1613년에 완성된 이 초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오래된 작품으로 매우 섬세한 솜씨, 전체적인 색채의 화려함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천두는 조선조의 문신인 한숙창(韓淑昌)의 아들로 임진왜란 당시 공적을 세워 공신이 되고 무과에 급제하여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인물이다. 본래 묘소는 행신동 소만이 마을에 있었으나 지금은 행신 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파주시로 이장하였다. 초상화 우측에는 만력(萬歷) 41년(1613년)에 내려진 교지(教旨)도 보인다.

■ 경기도 고양군 관내도

—근대 역사의 사실적인 증거물

시대 : 일제 시대

소재지 : 일산구 풍동

규모 : 세로 39.8cm, 가로 54.8cm

재료 : 종이

이 지도는 일제 시대인 대정(大正)년간에 제작된 지도로 현재 풍동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지도는 축척 10만분의 1로 제작되어 각 방위와 도로, 경계 등이 자세히 표기되어 있다. 뒷면에 표기된 연대가 대정 9년이란 기록으로 보아 1920년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지도에 의하면 당시 고양에는 벽제면, 송포면, 중면, 원당면, 신도면, 지도면, 은평면, 연희면, 용강면, 한지면, 숭인면, 독도면 총 12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면적은 현재의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강북 전 지역을 포함하는 구역으로 당시 군청은 경성(京城)과 경계를 이루는 서대문(지금의 서울 적십자병원) 부근으로 보이고 있다. 경성부와 고양군의 경역은 현재의 도성 성벽 안쪽 그

리고 용산구 일부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각 면별로 면사무소 소재지,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및 공립보통학교 등의 교육 기관, 유적지, 경찰서, 주재소(駐在所), 금융조합, 우편소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외에도 붉은색으로 큰 도로인 1등 도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의 통일로와 원산, 강릉으로 가는 도로가 이에 해당하고 있다. 다음의 2등 도로는 노란색으로 표현하여 3등 등의 도로와 구분하고 있다.

하천은 따로 청색으로 그렸으며 현재의 난지도, 여의도, 잠실 등은 모래사장의 섬으로 그려 점으로 표기했다. 이 지도에는 현재의 고양시 행정 구역 가운데 가장 중심지로 고양동과 일산 1·2동이 표기되어 있다.

지도의 뒤편에는 당시 고양군의 군세가 자세히 기록되어 이 지도의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있다. 당시 고양의 호(戶) 수는 24,462호, 인구는 124,030명, 각 리당 평균 인구는 4,212명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 각 토지의 종류별 소유 현황, 기온, 직업, 성별 인구 분포, 교육, 종교, 농업 현황 등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지도는 당시 고양군의 행정 구역 및 면적의 범위를 자세히 표기하고 통계를 자세히 조사하여 수록한 군세 현황을 기록하였다 는 점에서 매우 큰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11)암각문(岩刻文)

암각문은 산의 바위 등에 새겨진 글자나 무늬 등을 부르는 이름이다.

■북한산 3·1 운동 암각문

—3·1운동 정신이 백운봉 정상에 깃들어 있다

지정 번호 : 고양시 향토 유적 제32호

소재지 : 덕양구 북한동

규모 : 가로 150cm, 세로 270cm

재료 : 화강암

이 암각문은 북한산의 주봉인 백운봉 정상의 화강암 바위에 새겨져 있다. 기록문은 독립운동가인 정재용(鄭在鎔)이 3·1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가로 150cm, 세로 270cm 정

도의 평평한 바위 위에 ‘敬天愛人(경천애인)’ 이란 네 글자를 새기고, 그 안에 ‘독립선언문은 기미년 2월 10일 최남선(崔南善)이 작성하였으며 3월 1일 탑동공원에서 자신이 독립선언 만세를 도창(導唱)했다’는 내용이 정자체(正字體)로 새겨져 있다. 이 글을 새긴 시기 및 그 목적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1운동 이후로 추정되며 그 목적은 거족적 독립만세 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 영구히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새긴 정재용은 1886년 해주에서 출생한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1919년 2월 19일 해주에서 상경하여 3·1운동 전날밤 서울역에서 100장의 독립선언서를 원산교회로 송달하고 남은 한장을 가지고 있다가 탑동공원에서 이를 낭독하여 3·1운동의 불을 당겼던 장본인이다. 그후 해주로 귀향하여 독립운동을 하던 중 1920년 1월 20일 일제에 의해 검거되어 2년 6개월의 형을 언도받고 평양 감옥에서 육고를 치렀으며 1976년 91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이듬해인 1977년 건국포장과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북한산 승도 절목 명문(僧徒節目銘文)

—옛 스님들의 주장을 바위에 새김

시대 : 조선 시대

소재지 : 덕양구 북한동 용학사 아래

규모 : 가로 226.5cm, 세로 107.5cm

재료 : 화강암

이 명문은 북한산 용학사(龍鶴寺) 아래 비석거리 내 화강암 암벽에 새겨져 있다. 명문의 기록을 보아 조선조 철종 6년(1855년)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모두 325자로 되어 있는 이 명문의 내용은, 19세기 중엽 북한산성 내의 사찰이 폐폐하고 승도가 흩어지는 것이 승병대장인 총섭(摠攝)의 책임이므로 그의 임용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규칙을 새겨 놓은 것이다.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에 수록되어 있는 승도절목 번역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산성은 국가보장의 중요한 곳이다. 사찰을 창건하고 승도를 끌어들이는 것이 어찌 헛되이 그러는 것이겠는가? 즉 산성을 쌓아 수호하려는 뜻이거늘 최근에 승도가 잔멸하고 사찰이 폐폐하여 아침 저녁을 보장하지 못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가? 대개 승도들이

질고 마른 것을 꺼리지 않고 힘을 다해 봉공하는 것은 장수에게 기대하는 바로서 오직 총섭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매번 그를 차대(差代)할 때에 성외승(城外僧)으로 임명하려는 폐단이 자주 있으니, 이로 인해 승도들은 성을 고수하려는 뜻이 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중략).....

이에 이번에 절목을 지어 바위 위에 새기니 이에 의해 준행할 것이며 결코 이루어진 법령을 어기지 말 것이다. ①총섭이 비어 차대할 때에는 이번의 예에 의거하여 먼저 항동(비밀 문서를 넣는 대나무로 만든 통)을 받고 다시 권검을 행한 후에 점수의 많음으로써 시행하여 공평무사한 뜻을 알게 할 것이다. ②이번에 이 정식을 천명한 후에 만약 성외승 중에 그 임명을 도모하는 자가 있다면 성내의 승도들이 수교 정식과 이번의 절목을 들어 영문에 소송하여 그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이번 절식은 진실로 승도들을 위해 보장하려는 뜻에서 나왔으므로 총섭은 이 마음을 알아 사찰의 폐단을 바로잡고 봉공에 극진히 노력하여 앞으로 실효가 있게 할 것이다. 을묘(1855년) 5월 사동 김등(寺洞金等).'

이 금석문 명문은 당시 불교계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2) 도요지(陶窯址)

121

■ 원흥동 신리말 고려 초기 청자오

—우리 나라 천 년 전 초기 청자의 모습

지정 번호 :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64호

시대 : 신라 말~고려 초기

소재지 : 덕양구 원흥동 나무드머리 마을

이 가마터는 1937년, 당시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던 일본인 도자사학자인 '야수건(野守健)'에 의해 발견된 이래로 우리나라 초기 청자 가마터 중의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중국 당나라 시대 월주요(越州窯) 청자와의 관련으로, 통일신라 말기~고려 초기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우리나라 청자의 초기 가마터들은 지금까지 서해안, 남해안 일대에서만 10여 곳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원흥동 가마터는 경기도 용인군 이



원홍동 고려 초기 청자 도요지 유물

동면 서리 가마터, 충남 보령군 성연면 오사리 가마터,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가마터와 더불어 대규모의 퇴적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이 가마터는 전지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하며 전체 유적의 면적이 약 3,300m²에 달하는데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4개의 구릉처럼 보이는 거대한 퇴적데미는 대량의 갑발과 소량의 자기 조각 및 폐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동쪽에서 북서 방향으로 놓여 있다.

아직 발굴 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알 수는 없고, 지표 조사에 의해 채집된 출토품으로 대략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데 갑발류는 일반적인 원통형과 초기의 특징적인 갑발 받침대가 있으며 자기 조각은 거의 무늬가 없는 청자 조각으로 짙은 암록색이나 황갈색을 띤다.

그릇의 형태는 완류(碗類)가 대부분이고 극소량의 항아리나 주전자 조각이 있는데 이 중 청자 완류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모습이 많이 반영되어 굽 바닥 폭이 약간 넓고 내저원각(內底圓刻)이 없으며 내화토(耐火土) 받침으로 포개 구운 것이 많다. 이런 양상은 용인 서리 가마터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최고식(最古式) 청자와 같은 양상이다. 한편 장방형 벽돌의 존재로 보아 이곳에서는 벽돌로 만든 가마를 운영했던 것 같은데 역시 용인 서리 가마터의 최초 가마터가 벽돌 가마였던 점을 보아 이곳에서도 월주 지방의 등요식(登窯式) 벽돌 가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3)석교(石橋)

석교는 강이나 하천, 능 등에 만들어져 있는 돌다리를 이르는 이름이다.

■강매리 석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돌다리

시대 : 1920년

소재지 : 덕양구 강매동 강구산 마을

규모 : 총 길이 14.08m, 높이 3.55m, 높이 1.6m

재료 : 화강암

이 다리는 강매동 강구산 마을 창릉천 위에 있다.

본래 이 석교는 고양의 일산, 지도, 송포 지역 등 한강 연안의 서부 지역 사람들이 서울을 오가던 교통로로 이용한 곳이다. 이 다리를 이용해 각종 농산물, 맷감, 갈당 등을 현천동, 수색, 모래내를 거쳐 서울 염천교에 내다 팔았다. 현재 다리의 구조는 네모진 돌기둥 18개로 교각을 만들고 그 위에 교판석(橋板石)을 깐 모양이다. 또 교각과 교각 사이에는 6개의 교판석이 2열로 놓여져 있다. 다리의 전체적인 모양은 길게 북남쪽으로 이어져 약간의 곡선을 이루며 매우 견고하고 세밀하게 구축되어 있다. 또 각 부재에 사용된 석재는 크고 장대하며 여러 각도를 이용하여 매우 안정된 느낌을 주고 있다. 총 길이 14.08m 중 남쪽 끝 3m 정도는 시멘트로 보수한 상태이나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견고하다.

이 다리에 관한 기록은 「고양군지」에 보이는데 당시에는 해포교(海浦橋)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이는 해포교는 오늘날의 석교가 아닌 목교(木橋)였다. 석교에 관한 기록은 현재 강매리교 교각 부근의 문자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석교 중간 부분에는 ‘江梅里橋庚申新造(강매리교경신신조)’라 음각된 다리 건립 연대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1920년에 새로 다리를 신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다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리 옆에 오석으로 만든 비석에 기록하였으나 6·25 당시 충격으로 일부 훼손되어 현재는 도로에 묻혀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 강매리 석교는 축조 연대가 과히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조선조 전통적인 교량 축조 방법의 맥을 잇고 있으며 고양시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다리라는 점에서 그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14) 지석(誌石)

지석은 죽은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무덤의 소재지를 기록해 묻은 판석이다.

- 어세공(魚世恭) 묘지
—5백 년 전의 역사가 숨겨져 있음

시대 : 조선 시대

소재지 : 일산구 성석동

제료 : 자기(磁器)

고양시 성석동 진밭 마을에 위치한 양숙공(襄肅公) 어세공 묘에서 출토된 묘지이다. 묘지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규격은 세로 38cm, 가로 25cm, 두께 2.2cm이며 총 1,059자로 되어 있다. 묘지 앞부분에는 ‘精忠出氣敵愾功臣資憲大夫牙城君魚公墓誌(정충출기 적개공신자현대부아성군여공묘지)’ 라 표기되어 있다. 묘지는 황토 흙에 청자 유약을 발라 구워 만들었는데 묘지의 뒤편에는 붉은 황토빛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묘지문의 내용 중에는 ‘고양군 북면 구이동리(高陽郡北面仇耳洞里)’란 지명이 나오는데 구이동리가 현재 고양시 성석동 지역의 옛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이 묘지문의 제작 연대는 조선조인 1486년으로 묘지 끝부분에 성화(成化) 22년(1486년) 9월 19일 장례를 치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글씨체는 한 사람이 일정하게 쓴 것으로 보이며 일정한 규격이나 제한을 받지 않은 듯이 보이는데 묘지문의 문자는 가느다란 글씨로 되어 있다. 진한 녹색으로 구워 다른 부분과 차이를 두었으며 기록 문자는 음각하였다.

이 묘지는 1984년 양숙공 500주년 추모 기념으로 묘소 정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발굴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양숙공 어세공(1432~1486년)은 조선조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경(子敬)이며 본관은 함종(咸從), 판증추부사 효첨(孝瞻)의 아들이다. 1453년 사마시를 거쳐 세조 2년(1456년)에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후 요직을 거친 뒤 세조 13년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나자 함길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적개공신 2등으로 아성군(牙城君)에 추봉되었다. 성종년간에 이조판서를 역임한 후 우참찬(右參贊)에 이르렀다. 경학에 밝았으며 시호는 양숙(襄肅)이다.

15)석상(石像)

■ 밥할머니 석상

—전설과 역사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석물

시대 : 조선 시대

소재지 : 덕양구 삼송동 숫돌고개

규모 : 높이 141cm, 가슴 둘레 85cm

재료 : 화강암

석상은 삼송동 숫돌고개 충적의 통일로변 도화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이 공원 내에는 이 석상 외에도 3기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총 4기의 석물 중 가장 동북쪽에 위치한 밥할머니 석상은 다른 석물과는 달리 북한산을 바라보며 45도 정도 옆으로 세워져 있다. 최근에 만들어진 대좌를 포함하여 총 높이 155.5cm의 석상은 현재 얼굴 부분이 소실된 상태이다. 본래 이 석물들은 동산동 능모탱이에 있었으나 통일로 확장 사업으로 1993년 현 위치로 옮겨지게 되었다.

석상의 팔목과 어깨 등은 매우 풍만하며 전체적으로 얇은 곡선들이 몸을 휘감은 듯 보인다. 원손은 손가락을 꾀 하늘 방향으로 하였다. 오른손은 수평으로 좌측을 향하고 있는데 손등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 석상의 아래 부분은 특별한 조각이나 문양 없이 대좌에 꽂는 형태이며 뒷부분은 자연석에서 볼 수 있는 갈라짐과 굴곡을 발견할 수 있다. 목 부분에는 시멘트가 약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질려진 머리 부분을 복원하려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다.

고양 지역과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는 이 석상을 밥할머니라 부르고 있다. 이 밥할머니는 임진왜란 때 아군을 전멸 위기에서 구한 슬기로운 할머니의化身(화신)이라 여기고 있다. 고양 시내에서는 보기 드문 석상이라는 의미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공양왕릉이 있는 왕릉골에 갔다 와서

나는 역사 기행으로 공양왕릉이 있는 왕릉골로 교외선 텁텁이 기차를 타고 갔다. 단 두 칸으로 된 텁텁이를 타고 내다본 우리 고장은 들과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농촌형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왕릉골에 처음 들어서니 마을을 지켜준다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품종은 적송이라는 우리 나라 고유의 소나무였다.

1km쯤 더 가니 무순 큰 비가 있었는데 쓰러져 있었다. 이것을 세우면 경기도에서 가장 큰 비가 된다고 한다.

0.5km쯤 더 가니 윤신지 정혜옹주 묘가 있었다. 그의 자손뻘 되는 분께서 우리한테 정혜옹주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 앞에 있는 모자 한복집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이때 늙으셔도 이 묘를 가꾸시는 분의 모습을 우리 고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

그 뒤 일행은 나무와 풀들이 무수히 많은 산길을 걸었다. 낙엽이 밟히는 소리가 우리 일행의 자신감과 씩씩함을 더 돋워주었다.

이렇게 3km쯤 걸으니 공양왕릉에 도착하였다. 많이 걸은 탓인지 배가 고팠다. 먹는데는 형, 엄마, 아빠가 없다. 그래서 O X 퀴즈를 뽑기를 했다. 나는 큰 감자와 큰 오이를 먹었다. 공해없는 쓰레기를 가진 감자와 오이가 우리들의 간식거리였던 것이다. 맛은 꽃맛이었다.

특이하게도 공양왕릉에는 사자 같은 동물 모형이 있지 않고 삼살개의 모습을 한 석상이 있었다. 그것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다.

공양왕이 이성계 군사한테 쫓기고 있었다. 그때 공양왕이 데려고 있던 삼살개가 먹으려고 대여섯 명의 병사들려 싸울 때 공양왕은 왕비방 도망을 치다 '이제 끝났다' 하고 우물에 몸을 던졌다. 삼살개는 달려와 우물에서 공양왕의 왕비를 건져냈다. 하지만 죽어

이충렬(성라초등학교 4-7)

있었다. 삼십개는 너무도 많이 듣고 슬퍼서 옆에서 같이 죽고 말았다는 전설이다.

우리 일행은 다시 오솔길을 15km쯤 걸어 훈자문이라는 곳에 갔다. 그 속을 보니 옛날에 임금이 내렸다는 글과 그림이 포근하게 담겨져 있었다. 여기에도 역시 두 가지의 전설이 있다.

장의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아프셨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하며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바로 뚱의 맷을 봐서 매일 기록해 놓고 약이 훈용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일년 후 장의중의 어머니는 나았다고 한다. 이 소문을 들은 임금은 '훈성이 가득한지고' 하며 이 훈자문과 글, 그림을 상으로 내렸다고 한다.

또 한가지 전설은 이렇다. 장의중의 어머니께서 또 아프셨다. 그런데 의원이 가망이 없다고 하며 한 가지의 비방이 있다고 하였다. 무엇이냐면 자기 손가락에 있는 피를 어머니께 먹이면 된다고 하였다. 장의중 훈자는 엘은 자기 손가락을 물어 어머니께 피를 마시게 해드렸다. 그래서 어머니를 낫게 해드려고 이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상을 받았다는 전설이다.

나는 이 전설을 듣고나서 장의중의 훈성이 깊탄하였다. 내가 그 당시 임금이었다면 왕의정이라는 높은 벼슬을 주겠다. 왜냐하면 훈신이 강하면 충성심도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뒤 이 장의중이 죽으려고 하면 내가 그 장의중 아들라 떡에게 장의중의 훈신을 알려주고 그 아들 떡이 잘 죽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 기분이 좋았다.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유적지가 많은 고장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또 내가 사는 고장에 있는 유적지는 빼놓지 않고 모두 가 보겠다는 생각도 함께 했다.

5

고양의 인물

이야기

인물 선정 기준

우리 시에 묘나 비석이 있는 분
우리 시에서 태어나셨거나 성장하신 분
우리 시에 잠시라도 거주하셨거나 그 흔적이 남아 있는 분
우리 시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신 분

1) 은영(殷影)

—가장 오래 된 인물(행주외동에 묘 있음)

은씨는 중국 황하 하류에서 고대문명을 꽂피웠던 동이족의 나라 은이 바로 은씨 성의 시작으로서 신라 문성왕 12년(850년) 당나라에 살다가 귀화해 온 흥·기·길·봉·목·방·위 등 이른바 팔학사 중 한사람으로 은홍열이 신라에 건너와 뿌리를 내려 살았다는 것이다. 그 후 고려조 23대 고종 때까지 260여 년에 걸친 기록이 실전되어 시조로부터 몇대 손인지,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삼국사기에 전하는 기록으로 살펴보면 은영이 신라 때 행주에 자리잡아 은씨가 행주를 본관으로 쓰게 되었다고 하며, 고려조에서 태보로 추대하고 시호를 충숙이라 내렸다. 신라 효공왕 15년(911년) 왕이 천한 청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아 은영이 이를 간하였으나 듣지 않자 직접 그 청을 죽이고 옥에 갇혔던 충신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최영(崔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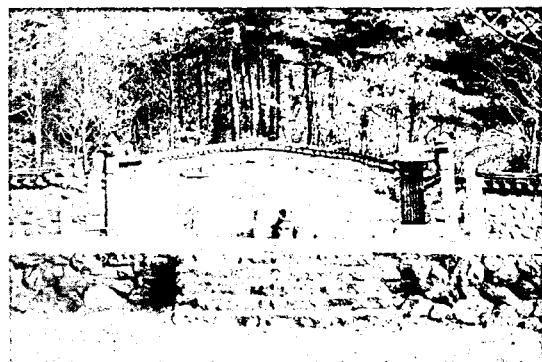
— 고려 말의 명장, 황금 보기를 둘같이 한 충신(대자동에 묘 있음)

1316(충숙왕 3년)~1388(우왕 14년)년, 고려 말기의 명장. 유청(惟清)의 5대손으로 사헌규정(司憲糾正) 원직(元直)의 아들. 무인(武人)으로서 양광도 도순문사(楊廣道 道巡問使)의 휘하에 있으면서 여러 번 왜구를 토벌하여 공을 세웠으며, 1352년(공민왕 1년) 9월에 조일신이 난을 일으키자 안우(安祐)·최원(崔源) 등과 같이 그 일당을 소탕하고 호군(護軍)에 올랐다. 1354년에 중국 산동 고우에서 반란을 일으킨 장사성(張士誠)을 치기 위해 원(元)에서 원병을 요청하자 그는 대호군(大護軍)으로서 난군을 토평하고, 그 용맹을 대륙에 떨쳤다. 서북면 병마부사(西北面兵馬副使)가 되어 원나라에 속했던 압록강 서쪽의 8참을 수복했다. 1358년(공민왕 7년)에는 양광전라도왜적체복사(楊廣全羅道倭賊體復使)가 되어 오예포(吾耶浦 : 長淵)에 침입한 왜구의 배 400척을 격파, 1361년 홍건적이 창궐하여 개경까지 점령하자 이를 격퇴시켜 훈 1등 도형벽상공신(圖形壁上功臣)에 전리판서(典理判書)가 되었다.

1363년 홍왕사의 변을 진압하여 진충분의 좌명공신(盡忠奮義佐命功臣) 1등이 되고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에 승진한 뒤 평리를 거쳐 찬성사(贊成事)가 되었다. 1364년 원나라에 있던 최유가 덕흥군을 왕으로 추대하고 군사 1만으로 쳐들어오자 서북면도순위사가 되어 이성계 등과 이들을 의주에서 섬멸했다. 1365년에는 왜구가 교동 강화를 노략질하자 동서강도지휘사(東西江都指揮使)로 있다가 신돈의 참언으로 계림운(鶴林尹)에 좌천되었다. 1371년(공민왕 20년)에는 신돈이 처형되자 곧 소환되어 찬성사가 되었다.

1376년(우왕 2년)에 홍산 싸움에서 왜구를 크게 격파하여 이 뒤부터 왜구들은 최영을 백수최만호(白首崔萬戶)라 하였다. 철원부원군(鐵原府院君)에 피봉되었으며, 1378년에는 왜구가 승천부(昇天府 : 豊德)에 침입하여 개경까지 위태하자 이성계, 양백연 등과 합세해서 적을 섬멸시키고 안사공신(安社功臣)의 호를 받았다. 이리하여 안으로는 조일신 등의 모반을 분쇄시키고, 제주 목호들의 반란을 평정하였다. 그뒤 명

고려 시대의 명장이며 충신인
최영 장군의 묘



나라와의 철령위(鐵嶺衛) 문제를 계기로 최영은 요동 정벌을 주장, 그 계획이 서자 팔도도통사가 되어 우왕과 함께 평양까지 출진하였으나 이성계의 위화도 희군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일파에 잡혀 고양(고봉)에 유배되었다가 뒤에 죽임을 당하였다. 이 사건으로 고려조의 종말을 초래하였으며 시호는 무민공(武愍公)이다.

3) 이무(李茂)

—조선 초기에 세계지도를 작성(주교동에 묘 있음)

1355(공민왕 4년)~1409(태종 9년)년. 조선 태조 때의 문신. 자는 돈부(敦夫), 본관은 단양.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 우왕 때 지밀직 사사(知密直司事). 공양왕 때 이인임(李仁任)의 일당으로 곡주에 유배되었다가 조선 개국 후 1393년(태조 2년) 참찬문하부사로서 제 1차 왕자의 난에 방원(芳遠)을 도와 정사공신 1등으로 단산부원군(丹山府院君)에 봉해졌다.

1400년(정종 2년) 우의정, 1401년(태종 1년) 좌정승에 승진, 이어 영중추부사, 우정승 겸 판병조사를 역임하고, 1406년 검사형(金士衡)·이회 등과 「흔일강리역대국도지도」라는 세계 최초의 세계 지도를 그렸다. 이 지도는 현재 일본 용곡(龍谷) 대학에 소장되어 있다.(길이 171cm×폭 164cm)

1409년 민무구(閔無咎)의 옥사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죽주에서 돌아갔다. 시호는 익평공(翼平公)이다.

4) 박심문(朴審問)

—사육신과 함께 절개를 지킴(성사동에 묘 있음)

?~1456(세조 2년)년. 조선 세종 때의 문신. 자는 신숙(慎叔), 호는 청재(淸齋), 본관은 밀양. 1436년(세종 18년) 문과에 급제, 기주관·평안도 판관·도체찰사의 종사관 등을 역임. 1453년(단종 1년) 계유정난으로 김종서가 실해되자 불만을 품고 성삼문, 하위지 등과 왕래하며 단종의 복위를 모의했다. 1456년(세조 2년) 질정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다가 의주에 이르러 성삼문 등 육신(六臣)이 참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음독 자살했다. 이조판서에 추증, 시호는 충정공(忠貞公)이다.

5) 정지운(鄭之雲)

—천명도설로 이황 선생과 교유(일산 2동에 묘 있음)

1509(중종 4년)~1561(명종 16년)년. 조선 명종 때의 학자. 자는 정이(靜而), 호는 추만(秋巒). 본관은 경주. 성리학의 대가로 일찍이 「천명도설(天命圖說)」을 저술하여 조화의 리(理)를 규명한 뒤 한성에서 이황을 만나 수정을 받았다. 이것이 뒤에 사칠논쟁의 발단이 되었다. 고양의 문봉서원에 제향되었다.

6) 정철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인물(유적지 신원동 송강 마을에 위치)

1536(중종 31년)~1593(선조 26년)년. 조선 선조 때의 명신·시인. 자는 계함(季涵), 호는 송강(松江). 본관은 연일(延日). 판관(判官) 유침(惟沈)의 아들. 기대승(奇大升)·김인후(金麟厚)의 문인. 어려서 인종(仁宗)의 귀인이 만누이이기 때문에 궁중에 출입하여 어린 경원대군(慶原大君: 明宗)과 친숙해졌다. 고향인 전라도 창평 성산 기슭 송강가에서 10년 동안 수학하는 동안 기대승 등 당대의 석학들에게 사사(師事)하여 이이(李珥)·성휘(成揮) 등과도 교유했다.

1561년(명종 16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지평(持平)·직강(直講)을 거쳐 수찬(修撰)·교리(校里) 등 여러 벼슬을 지내다가 고향에 돌아갔다가 장악원정(掌樂院正)으로 다시 기용되어, 사간(司諫)·직제학(直堤學)·승지(承旨)에 올랐으나 진도군수(珍島郡守) 이수의 뇌물 사건으로 동인(東人)의 공격을 받아 사직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1580년(선조 13년)

강원도 관찰사로 등용되고 이어
전라도·함경도의 관찰사를 지내
면서 지방 장관으로서보다는 한사
람의 시인으로서 그의 천재적 재
질을 나타낸 작품을 썼다. 그의 최
초의 가사 「관동별곡(關東別曲)」,
「훈민가(訓民歌)」 등은 이때의 작
품이다.

1583년(선조 16년) 예조참판이
되고 이어 형조·예조판서를 역임

송강 선생의 발자취가 있는
신원동 송강 마을



하고 1584년 대사헌이 되었으나 동인의 논척(論斥)으로 사직, 다시 고향에 돌아가 「사미인곡(思美人曲)」, 「속미인곡(續美人曲)」 등 수 많은 가사와 단가를 지었다. 1589년 우의정으로 발탁되어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을 다스리게 되자 서인(西人)의 영수로서 철저하게 동인을 추방했고, 다음해 좌의정에 올랐으나 1591년 광해군의 책봉을 건의하다가 신성군을 책봉하려던 왕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당하여 진주로 유배되었으며, 이어 강계로 유배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부름을 받아 왕을 의주까지 호종했다. 이후 체찰사를 지내고 다음해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얼마후 동인들의 모함으로 관직을 떠나 강화의 송정촌에 우거(寓居)하면서 만년을 보냈다. 당대 가사 문학의 대가였다. 창평의 송강서원, 연일의 오천서원 별사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청공(文清公)이다. 저서로 「송강집(松江集)」, 「송강가사(松江歌辭)」, 「송강별추록유사(松江別追錄遺詞)」가 있으며, 작품으로 시조 70여 수가 전해진다.

7) 권율

—행주산성 승리의 주역, 고양을 지킨 인물

1537(중종 32년)~1599(선조 32년)년.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이며 장군. 자는 언신(彦愼), 호는 만취당(晚翠堂)·모악(慕嶽), 본관은 안동. 영의정 철(撤)의 아들. 1582년(선조 15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정자가 되고, 1587년 전라도 도사, 1591년에 의주 목사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서울이 함락된 후 전라도 순찰사 이광(李光)·방어사 곽영(郭榮)과 함께 북진, 용인에서 왜군과 싸웠으나 패전했다. 광주로 되돌아가 천여 명의 의용군을 모집, 금산군 이치에서 고바야까와(小早川隆景)의 정예부대를 대파하고, 전라도 순찰사에 승진했다. 정병 8천여 명을 인솔, 병마절도사 선거이(宣居怡)를 부사령관으로 삼아 서울로 진격하던 중 수원 독산산성에서 지구전과 유격전을 전개하여 우끼다(宇喜多秀家) 부대를 격퇴했다.

1593년 병력을 나누어 선거이에게 시흥 금주산에 진을 치게 한 후 자신은 2,3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한강을 건너 행주산성에 주둔, 3만의 대군으로 공격해 온 고바야까와의 왜군을 맞아 2만 4천 명의 사상자를 내게 하고 대패시켰다. 1596년 충청도 순찰사에 이어 도원수가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적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명나라 제독 마귀(麻貴)와 함께 울산에서 대진했으나 사령관 양호(楊鎬)의 돌연한 퇴각령으로 철수, 이어 순천 여교에 주둔, 일본군을 공격하려고 했으나 전쟁의 확대를 꺼리던 명나라 장수들의 비협조로 실패하여 왜군은 모두 본국으로 철수했다. 죽은 뒤 영의 정에 추증, 1604년(선조 37년) 선무공신(宣武功臣) 1등에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으로 추봉되었다. 충장사, 고양 땅 기공사(紀功祠)에 제향되고, 시호는 충장공(忠莊公)이다.

8) 문봉서원과 고양 8현

—고양의 역사를 이끈 진정한 고양 사람들

문봉서원은 일산구 문봉동에 세워졌던 서원의 이름이다. 조선조 숙종 14년(1688년)에 창건되어 숙종 35년에 왕으로부터 사액(賜額) 받은 고양시 최초의 서원이었으나 고종 2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 정책으로 훼철되었다. 문봉서원은 조선 후기에 경기도 연천의 임강 서원(1680~1864년)과 함께 서울 근역의 인재를 많이 길러낸 서원으로 손꼽히던 곳이다. 이 서원이 고양에 자리했던 까닭에 고양의 현인들을 제향, 존모(尊慕)하고 있었다.

문봉서원에 배향된 혜인, 이른바 고양 8현은 다음의 여덟 분이다.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바르고 곧은 진정한 선비 정신의 전형.

사재 김정국(思齋 金正國)—지역의 인재들을 키워낸 학자.

복재 기준(服齋 奇達)—조광조와 함께 개혁을 이끈 도학자.

추만 정지운(秋巒 鄭之雲)—천명도설을 확립한 성리학의 대가.

행촌 민순(杏村 閔純)—현천동에 기거하며 의를 지킨 인물.

모당 홍이상(慕堂 洪履祥)—성석동에 묘가 위치한 청백리 인물.

석탄 이신의(石灘 李慎儀)—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항토를 지킨 분.

만희 이유겸(晚晦 李有謙)—조선조 선비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

이들 8현은 당대 최고의 선비로 인정받던 인물들의 제자들로서 조선조 대표적으로 추앙받던 선비의 전형이다. 즉 이들은 혜인(선비다운 선비)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높은 학문을 근본으로 곧고 바른 삶을 살았으며 진정한 선비다운 일생을 마친 고양의 대표적인 분들이다.

9) 김홍집(金弘集)

—우리 나라 개화의 선구자(대자동에 묘 있음)

1842(현종 8년)~1896(건양 1년)년. 구한말 개화당의 거두. 자는 경능(景能), 호는 도원(道園). 1868년(고종 5년) 문과에 급제하여 1880년(고종 17년) 수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후 중국인 황준현의 「조선책략」을 소개하고, 개화정책을 적극 추진케 하여 예조참판으로 승진했다. 1882년 구미 열강의 통상 요구와 임오군란의 뒤처리 등 국제 문제에 외교 수완을 발휘하였고,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전권 대신으로 한성조약을 체결한 뒤 판중추부사로 머물렀다.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 세력에 의지하여 개화당이 득세하자 영의정이 되어 김홍집 내각을 조직하고 총리 대신 흥범 14조(洪範 14條)를 발표하는 등 새로운 국가의 체계를 세우고 갑오개혁을 단행했으나 1895년 일본 사람이 민비를 죽인 사건으로 민심을 잃고, 1896년(건양 1년) 러시아 세력이 증대되어 아관파천 후 친로파에게 붙잡혀 참살당하였다. 시호는 충현공(忠獻公)이다.

10) 한규설(韓圭嵩)

—절의를 지킨 큰 인물(원흥동에 묘 있음)

?~1930년. 조선 고종 때의 문신. 자는 순우(舜佑), 서울 출신. 무과에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포도대장·의정부 찬성 등을 역임하고, 1905년(광무 9년) 참정대신으로 내각을 조직했다. 이 해 을사조약 체결을 끝까지 반대, 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 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압력으로 파면되었으나 후에 다시 궁내부 특진관을 역임, 한일합방 때 일본 정부에 의해 남작이 되었으나 절개를 지키며 거절하였다.

6

고양의 전설

이야기

1)식사동과 고려 공양왕 이야기

이 이야기는 식사동, 원당동 일대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제보자들마다 그 내용이 약간씩은 다르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일치하여 역사적 사건과 현지의 문화재(공양왕 고릉)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태조 이성계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그의 칼을 피해 수도인 개성을 나와 도망다니고 있을 때였다. 개성에서 도망친 공양왕과 왕비가 이곳 고양 땅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어 사방이 어둠침침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양왕은 식사동의 어느 마을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쉬며 하룻밤을 묵었는데, 날이 어둠침침하여 쉬어 갔기 때문에 오늘날 그곳을 어침(御寢)이라 부른다. 또 왕이 잠을 잔 곳이라 하여 어침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이다. 왕이 인적도 없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저 멀리서 한가닥 불빛이 보였다. 왕이 반가운 마음에 그 불빛이 비치는 곳을 찾아가 보니 그곳은 조그마한 절이었다. 이 절 근처를 현재는 박적굴(혹은 밤절)이라고 부른다.

고려는 오래 전부터 국가 시책으로 불교의 발전을 도모하였기에 공양왕은 하룻밤 유숙하기가 쉬운 줄 알았다. 그러나 이미 왕조는 바뀌었고 또 새 왕조는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하룻밤을 절에서 자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절의 입장에서도 쫓기는 옛 임금을 숨겨주었다가는 자칫 화를 입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이 절의 스님은 공양왕에게 “저희 절은 인적이 번잡하여 왕을 모실 수가 없으니 이곳에서 동쪽으로 10리 정도 떨어진 곳의 한 누각에

공양왕릉 앞에 있는 삽살개 석상



가 계시면 저희들이 매일 음식을 갖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누각이 있는 곳이 바로 현재의 원당동 다락골인데, 이 말을 들은 공양왕이 절에서 다락골로 가기로 마음먹고 다시 발길을 돌려 길을 재촉했으나 밤은 여전히 깊고 산도 험하여 힘든 일을 해보지 않았던 왕으로서는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었다.

결국 발도 부르트고 기운도 빠진 공양왕은 도중의 길목 고개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임금이 주무신 장소는 대궐이나 마찬가지라하여 이 고개를 지금도 대궐 고개라 부르고 있다. 날이 밝아 다락골에 도착한 왕은 누각에 숨어 절에서 날라다 주는 음식으로 목숨을 연명하였다. 이로 인해 절에서 밥을 날라다 주었다는 뜻으로 식사동(食寺洞)이라는 명칭이 처음 생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기를 며칠, 어느날 갑자기 공양왕이 보이질 않았다. 밥을 날라다 주던 스님이 이상히 여겨 그냥 돌아가 다음날 밥을 새로 지어 갖고 왔으나 그날도 역시 왕의 일행은 보이지 않았다. 왕이 없어 밥을 다시 지어 오기를 며칠, 결국 절에서도 더이상 밥을 지어 오지 않게 되었다.

한편 왕씨의 친족들은 공양왕의 행방을 여기저기 수소문하던 중 왕이 다락골에 은신했던 일과 절을 찾아갔던 일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친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원당동 다락골 일대를 뒤졌으나 도무지 왕의 종적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친족들은 공양왕이 평소에 귀여워하던 삽살개 한마리를 이곳으로 데려와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 이 개가 어느 연못 옆에만 가면 물 속을 들여다보고 자꾸 짖어대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결국 그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가 빠져 죽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사람들이 그 못의 물을 모두 펴내 보니 연못 안에는 옥새를 품은 왕이 왕비와 함께 죽어 있었다. 쫓겨다니는 신세와 세상사의 덧없음을 비관한 끝에 왕과 왕비는 이 조그마한 연못에 투신 자살한 것이었다. 친족들은 비통에 잠겨 왕의 시신을 꺼내 연못 바로 뒤 약 20여 미터쯤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봉분을 만들어 안장하였다. 이때부터 이곳을 왕의 무덤이 있다고 하여 이 부근 마을을 왕릉골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묘소 앞에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개 모양의 석상이 있는데, 이는 왕의 시신을 발견하게 하고 주인을 따라 죽은 충견(忠犬)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 한다. 원당동 왕릉골의 위치는 식사동 견달산 동쪽으로 약 2km 지점, 즉 식사동에서 고개 하나 넘어간 곳인데 당시 공양왕이 빠져 죽은 연못은 현재 그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2) 주교동(배다리)이 옛날에 가난했던 이유

이 이야기는 옛날 우리 조상들의 풍수사상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주교동, 즉 배다리는 지리적으로 고양시의 중심으로 시청이 있는 곳인데 마을이 배의 형국으로 생겨서 불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곳은 오래 전부터 배의 모양으로 생겨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물을 많이 파지 않는 것이 풍수지리상 좋다고 여겼다. 또 그것이 이 마을의 규범 중의 하나였다. 옛날에는 마을 전체가 공동 우물을 하나 만들어서 다같이 썼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살았는데 6·25전란이 나기 전에 집집마다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해 제각기 우물을 파기 시작해 이것이 결국 배의 밑창을 뚫는 형상이 되었다. 결국 이 물에 의해 배가 침몰하는 꼴이 되어 마을이 점점 가난하게 되었다. 그후인 1980~90년대에 다시 한번 주교동이 번창하였는데 이는 인구가 늘어나도 우물을 파지 않고 수돗물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3) 북한동의 노적봉과 밥할머니

이 이야기는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 활동을 보여주는 내용 중의 하나이다. 왜국(일본)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전쟁을 일으켜 조선의 산천을 피로 물들인 지 8개월이 지난 조선 선조 26년 정월, 조선의 조정은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했고 이 요청에 따라 명나라는 이여송을 대장군으로 삼아 명군 4만 명을 파견했다. 총병관 이여송은 양국의 연합군을 충지휘하여 왜군에게 함락되었던 평양성을 탈환하고 그 여세를 몰아 한양에서 서울을 향해 남진하였다. 그러나 그 해 정월 26일 한양을 눈앞에 둔 고양시 벽제관의 남쪽 숫돌 고개 전투에서 조선·명나라 연합군은 왜군에게 참패하여 북한산으로 뿔뿔이 헤어져, 이여송과 장수들의 일부는 북한산 노적봉 밑에 집결하게 되었다.

왜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이여송은 “길은 이제 두 갈래뿐, 이대로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적에게 투항하여 목숨이라도 살려달라고 애걸하느냐,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낫겠는가?” 하고 말하면서 답답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조선관군의 총사령관 격인 도원수 김명원은 “길은 또 있습니다. 하나는 적에게 총반격을 가해 이번 패전의 수치를 씻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혈로를 뚫고 적진을 돌파



목이 잘려진
밥할머니 석상

하여 흘어진 병력을 재정비하는 길이외다.”라고 말했다. “김원수의 말씀이 좋기는 하나 아다시피 아군은 이번의 패전으로 다수의 병력을 상실했고, 적군은 의기양양하여 날뛰면서 시시각각으로 포위망을 좁히고 있으니 혈로를 뚫기는 고사하고 쥐 한마리 빠져나갈 구멍조차 찾기 어려운 형편이 아닙니까?” 하고 이여송은 침통하게 대답했다.

이에 김명원도 더 할 말이 없어 장막밖으로 나왔는데 한 노파가 “장군께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다가왔다. 이 노파는 숫돌 고개 남쪽의 진거리에서 떡장사를 하는 할머니였다. 그리고 그 노파가 컷속말로 속삭여주는 소리를 듣고 난 김명원의 안색은 금새 밝아졌다. 그는 즉시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여송에게 노파의 말을 전했다. “하늘이 우리를 도우려고 보낸 여신인지도 모른다.” 이여송은 김명원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회하의 장졸들에게 명령했다. “이 근처의 마을에 내려가서 짚단이란 짚단은 있는대로 다 모아 오도록 하라.”

얼마 후 노적봉 기슭을 휘돌아 진거리 앞으로 흘러가는 냇가에는 수많은 왜병들이 모여 들어 술렁대고 있었다. “목이 타서 죽겠는데 마실 물이 있어야지.” “글쎄 말이야. 저 냇물이라도 마셨으면 좋겠지만 물이 저렇게 뿌여니…….” 왜병들이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냇물은 어떤 까닭인지 흐려 있었다. 그때, 한 노파가 함지박에 흰쌀을 수북히 담아 이고 산에서 내려왔다. 조금 전에 아군 진영으로 김명원을 찾아갔던 그 노파였다. 한 왜병이 노파를 불러 세워 물었다. “여보 할멈! 이 냇물이 왜 이렇게 흐리오?” 노파는 그 왜병이 바보스럽다는 듯이 톡 쏘아 불였다. “아무리 남의 나라에 쳐들어왔기로 그까짓 것도 모르고 무슨 싸움을 한다는 거요? 저 산에 수만 명의 군사들이 집결해 있는데다 군량미가 남아서 처치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오. 그 흔한 쌀을 셋어 군사들의 밥을 지으니 당연히 냇물로 흘러들게 아니오?” “저 산에 그렇게 군량미가 많소?” 왜병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르다뿐이오. 정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저기를 똑똑히 보시오.” 노파는 손을 들어 노적봉을 가리켰다. “지기 저 산봉우리처럼 쌓여진 짚단이 뭔지 아시오? 그게 바로 노적가리란 거요.” “노적가리가 뭐요?” 왜병들은 고개를갸우뚱했다. “아따. 무식한 왜나라 사람들이라 할 수 없다니까. 우리 나라에

선 밖에 쌓아둔 곡식더미를 노적가리라 부른단 말이오.”노파는 왜병들을 편잔하고 나서 “자, 이걸 보시오.” 하고는 머리에 이고 있던 함지박을 왜병들 앞에 내밀어 보였다. “마침 산에 나무를 하려 올라갔는데 군사들이 마음대로 갖다 먹으라고 이렇게 옥같이 흰 쌀을 퍼주는구려.” 왜병들은 기가 막혔다. 노파는 그들을 싸늘한 눈초리로 쳐다보고는 총총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이튿날 왜병들은 멀리 도망가 보이질 않게 되었다. “그 노파의 계략이 들어맞았군. 아군의 병력과 군량이 엄청나다고 생각하여 도망친 것임에 틀림없어.” 도원수 김명원은 미소를 지었다. 왜병들의 눈에 노적가리처럼 보인 것들은 노적봉에 둘러쳐진 짚단들이었다. 그리고 낯물이 흐려진 것은 회를 탄 물을 흘려 보냈기 때문이었다. 이 모두가 노파가 제안한 계략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아군은 즉시 혈로를 뚫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지금도 통일로 길가에는 머리없는 보살의 석상이 있으며 사람들은 이것을 밥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그 석상이 아군을 전멸의 위기에서 구출한 슬기로운 노파의 화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외에 이 밥할머니는 고속 할머니, 밥보시 할머니 등의 명칭으로 불리우며 서로 다른 내용의 이야기들로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4) 효자동의 박효자(朴孝子)

옛날에 서울 서대문 안에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고양 땅 북한산 기슭에 묘를 마련하였다. 이 박씨는 종로통에서 큰 점방을 차리고 장사를 하였는데 선친 묘를 마련한 그날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걸어서 참배를 하곤 했다. 그러다보니 가게일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기를 몇 달, 하루는 서대문을 나와 지금의 무악재 고개를 걷고 있는데 난데없이 호랑이 한마리가 나타나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박씨의 갈 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박씨는 통곡하면서 “내가 내 선친께 인사하러 가는 길인데 어째서 네가 나를 못 가게 하느냐? 네가 정작 나를 죽이려느냐?” 하고 호랑이에게 묻자 호랑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네가 나를 어디 데려다 주려는 것이냐?” 하고 다시 물으니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박씨는 죽을 결심을 하고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다. 그러자 박씨를 태운 호랑이는 눈깜짝할 사이에 바위를 가르며 달려 박씨의 선

친 묘소 앞에 당도하였다. 그제야 박씨는 비로소 안심을 하고 선친 묘 앞에 무릎을 끊고 절을 다하고 일어섰다. 그러자 그 호랑이는 다시 등을 내밀어 박씨에게 타라는 시늉을 하였다. 박씨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호랑이를 타고 서대문 밖에 이르렀는데 호랑이는 거기 에 박씨를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이날부터 박씨는 매 일 호랑이를 타고 선친 묘에 갔다왔으며, 비로소 가계일과 집안일 도 제대로 돌볼 수 있었다. 몇 년 후 박씨가 병들어 죽자 박씨 집 안 사람들이 묘를 쓰고 제사를 지내려 할 때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이리저리 날뛰면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다가 박씨의 묘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이에 사람들이 탄복하여 호랑이의 시체도 거두어 박씨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다 한다. 그때부터 박씨의 묘가 있는 부근의 마을을 효자동이라 불렀다 한다.

5) 탄현동의 태조 이성계가 살아남은 이야기

조선왕조를 세운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의 도읍지를 정하기 위해 동생과 함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이 곳 고양 땅 탄현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두 사람은 양반 체면에 비를 그냥 맞을 수는 없고 해서 비를 피할 만한 곳이 없나 둘러보다가 마치 천막처럼 생긴 바위 밑에 굴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피신하였다. 그 속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굴 앞에 나타났다. 그 굴은 바로 호랑이 굴이었던 것이다. 호랑이는 제 집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앞발로 땅을 파며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두 사람은 무섭고 두려워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이때 동생이 이야기 하길 '둘다 죽을 순 없으니 각자 굴 밖으로 옷을 벗어던져서 호랑이가 깔고 앉은 옷의 임자가 굴 밖으로 나가 호랑이의 밥이 되기로 하자'고 제의했다. 이성계도 이 제의에 찬성 하여 두 사람은 제각기 자기 옷을 벗어 굴 밖으로 내던졌다. 그러자 호랑이는 이성계의 옷을 깔고 앉아 으르렁거렸다. 이성계는 할 수 없이 동생과 약속한 대로 호랑이의 밥이 되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사실 호랑이는 굴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이성계가 굴에서 나오자마자 호랑이는 굴 안으로 뛰어들어가 동생을 덤석 물어 죽였다. 이는 호랑이도 이성계를 나중에 나라를 세울 큰 인물로 보았기 때문에 이성계 대신 그의 동생을 물어 죽

인 것이라 전하고 있다. 후에 왕이 된 이성계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동생의 묘 자리를 쓰게 되었는데 그 자리는 현재 홀트 학교 가 있는 고개 쪽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6) 백석동의 흰 돌 이야기

고양 땅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처음 마을이 생길 때의 일이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사람들이 흘어져 마을을 이루고 산 곳이 38군데, 사람들은 아직 마을 이름조차 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곳의 마을 이름을 하나 둘씩 짓기 시작했는데, 그 이름들 중에는 싸리나무골, 절골, 달걀뿌리 등 제각기 마을의 특성이 담긴 좋은 이름들을 지어 서로 뽐내며 자기 마을 자랑을 했다. 그리고 38개 마을의 사람들은 3년에 한번씩 식사동에 있는 견달산에 올라 기우제를 지내고는 했다. 그렇게 어쩌다 모여도 사람들은 자기 마을의 자랑과 마을 이름을 뽐내며 이야기 꽂을 피웠다.

그러나 38개 마을 중에서 단 한군데, 한강 옆 용체이 벌판 웃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3년이 되도록 마을 이름을 짓지 못해 이웃 마을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었다. 그런 탓에 마을 사람들은 이웃 마을 사람들 보기가 창피해 이웃 마을에 놀러가는 것은 물론 바깥 출입조차 금하고 동네의 큰 느티나무 밑에 모여 마을 이름을 짓기 위해 회의를 열고는 했다.

견달산에서 기우제를 마친 그해 여름, 한번 내리기 시작한 비는 그칠 줄을 모르고 한달 내내 장대 같은 비를 쏟아붓고 있었다. 가뭄은 이제 해소되었지만 비는 여전히 내렸다. 계곡마다 물이 넘쳐 흘렀다. 드디어 한강이 넘쳐 물이 마을로 차오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견달산으로 올라가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한강 물은 여전히 불어났고 집더미 같은 물이 상류에서 쓴 살같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때 물 위에서 이상한 물체가 반짝반짝 빛을 내며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빛은 더욱 밝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신기한 물체에 이끌려 물가로 몰려들었다. 그 이상한 물체는 용체이 벌판의 웃마을 강가로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 그 반짝거리는 물체는 다름아닌 흰 돌이었다. 그리고 그 돌 위에는 벌거벗은 어린 아기가 앉아 조용히

웃고 있는 것이었다. 그 하얀 돌은 이상한 빛 때문에 매우 신비하게 보였다. 잠시후 그 하얀 돌과 어린 아기는 물결을 따라 용채이 벌판을 몇 바퀴 돌더니 마을 옆 도당산 끝에 걸려 멈추었다. 순간 한달 내내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괴이한 광경에 신기해 하면서 하늘의 신령님이 보내주신 길조라며 흰 돌과 아기를 마을로 데려와 돌봐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기의 울음이었다. 이 아기에게 동네 아낙네들은 돌아가면서 젖을 먹였는데 어찌된 것인지 이 아기는 흰 돌로부터 불과 3~4미터만 떨어지면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며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아낙네들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아기를 달래보았으나 모두 헛수고였다. 얼마후 그 이유를 알게 된 아낙네들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는 반드시 흰 돌 옆에서 젖을 먹였다.

이 뜻하지 않은 흰 돌과 아기가 마을로 들어온 후 동네 사람들은 모두 모여 회의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강영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신비스런 흰 돌과 아기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낸 신령한 것이 분명하오. 그리고 마침 우리에게는 마을 이름이 없으니 저 흰 돌의 모습을 따서 마을 이름을 백석(白石)이라 짓고 돌과 아기를 돌보면 필시 우리 마을에 기쁜 일이 생길 듯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

그러자 여기저기서 ‘좋습니다’ 하고 찬성의 뜻을 표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집집마다 돌아가며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흰 돌에게 제사를 지냈다. 동네 아낙네들의 젖을 먹은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다. 아기가 자라면서 마을의 나쁜 일들은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다. 한강으로 고기잡이를 나갔다 배가 뒤집혀 사람이 죽는 일도 없어졌고 괴질로 고통을 받거나 죽어가던 사람도 깨끗이 나았다.

또 교통이 불편해 장사가 안되던 마을에 새로 땃길이 뚫리고 육로가 생겨 많은 장사꾼들이 드나들게 되어 가난에 허덕이던 백석 마을은 차츰 부자 마을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한양과 강화, 파주는 물론 멀리 개성에서까지 장사꾼들이 모여들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나날이 번창해 가는 백석 마을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인근 홍구대 마을에 사는 욕심 많고 심통 많기로 이름난 민머리 최영감의 시기심은 누구보다도 더했다. 그는 시기심

때문에 배가 아파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급기야는 화병이 생길 지경이었다.

“이럴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백석 마을이 부자 마을로 변했는지 알아보기나 해야겠군.”

궁리 끝에 최영감은 자신의 둘째 아들을 백석 마을로 보내 그 까닭을 알아오도록 했다. 백석 마을을 갔다온 최영감의 둘째 아들은 백석 마을의 신기하게 변한 모습을 그대로 전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흰 돌 이야기와 아기, 그리고 수많은 장사꾼들에 대해 상세히 말했다.

다음날 최영감은 아침 일찍 둘째 아들을 앞세우고 백석 마을의 흰 돌과 아기가 있다는 도당산으로 향했다. 과연 그곳에는 눈이 부시도록 흰 돌 하나와 천진하게 웃고 있는 아기가 있었다.

“음, 평범한 돌과 아기가 아니군.”

최영감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돌아오는 길에 백석 마을의 장터에 들른 최영감은 인근에서 모여든 장사꾼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다시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최영감은 어떻게 하면 흰 돌과 아기를 없앨 수 있을까 하고 궁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최영감은 배가 아파서 밤잠을 못 이루었고 낮에는 화병으로 하루 종일 찬 물만 들이켰다.

그러던 어느 날 최영감은 백석 마을의 흰 돌과 아기를 없애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리고 새벽에 도끼와 망치를 갖고 백석 마을 사람들 몰래 도당산으로 올라갔다. 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아기는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최영감은 순간 가지고 간 도끼로 흰 돌을 내려쳤다. 순간 흰 돌이 쪼개지면서 피가 흘렀다. 최영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놀라 잠에서 깨어난 아기를 자루 속에 넣어 한강 멀리 던져버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리더니 주위의 나무가 쓰러지고 하늘이 온통 시커멓게 구름으로 뒤덮였다. 그리고 쪼개진 흰 돌에서 하얀 학이 피를 흘리며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다. 천둥번개 소리에 놀란 백석 마을 사람들이 허둥지둥 도당산 위에 올라왔을 때는 이미 흰 돌은 쪼개졌고 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벼락에 맞아 검게 타죽은 최영감이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백석 마을에는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고기잡이를 나갔던 마을 사람들이 예전처럼 빈번하게 죽었고 괴질이 나돌았다. 그리고 그토록 번창하던 장터는 서서히 시들해져 갔고

장터는 일산으로 옮겨져 장사꾼들은 그쪽으로 몰려들었다. 이제 백석 마을은 예전처럼 다시 가난한 생활로 돌아가게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또 언제 올지 모를 흰 돌과 아기를 기다리며 부지런히 일하며 살았다고 한다.

7) 문촌 오마 마을의 아기 장수 이야기

일산 신시가지 내 문촌 오마 마을에 심상치 않은 아기가 태어났다. 이 아기가 태어나던 날 마을 앞 5백년 묵은 느티나무가 아이의 울음소리에 놀라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그 큰 울음소리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귀가 맹명할 정도였다.

이 울음소리 큰 아기의 부모는 나이 사십이 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해 매일 별아산 산신께 기도를 올리던 만수와 도래울에서 시집온 분례였다. 이 아기는 울음소리만 우렁찬 것이 아니라 손 힘과 젖빠는 힘 역시 대단해 어머니 분례는 아기에게 젖을 한번 먹이고 나면 온 몸의 힘이 빠져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젖을 어찌나 극성스럽게 뺏아대는지 이윽고 어머니는 더이상 젖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동네 아낙들은 돌아가면서 아기에게 젖을 먹여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기에게 젖을 뺏린 동네 아낙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몸이 말라갔고 눈이 쑥 들어가는 게 건강이 심상치 않았다. 그러나 동네 아낙들의 젖을 모두 먹어 없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두 살이 되었다. 이런 별난 아기를 사람들은 아기 장수라고 불렀다.

아기는 두 살이 되자 골동산에 올라 큰 바위를 갖고 공기놀이를 하기도 하고 바위에 올라 벼락 같은 목소리로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한번은 아기 장수가 급한 김에 바위에 대고 오줌을 눈 적이 있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위에 오줌 자국이 생겨버리고 말았다. 그 자국을 지우려고 발바닥으로 바위를 문지르자 이번에는 발바닥 자국이 남는 것이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골동산에 올라 ‘용마야, 용마야!’ 하고 정발산 쪽을 향해 고함을 지르면 날개 달린 흰 용마가 날아와 아기 장수를 등에 태우고 놀기도 하였다. 이런 아기 장수의 별난 행동에 동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아기 장수가 장차 커서 나라에 큰 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때는 우리 조선 땅에 왜놈

들의 첨자들이 들끓고 있을 때였다. 마침 호시탐탐 조선으로 쳐들어오기 위해 염탐을 하던 왜놈의 첨자가 이 소문을 듣고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음, 분명히 저 아기 장수는 보통 놈이 아니야. 우리 왜국을 없애 버릴지도 모를 위험한 놈이야.”

왜놈의 첨자는 문촌 마을로 숨어 들어와 마을을 살피기 시작했다. 궁리 끝에 마을 사람 하나를 매수하기로 하고 왜놈의 첨자는 동네에서 수다쟁이로 소문난 넙죽에미를 매수했다. 왜놈 첨자에게 매수를 당한 넙죽에미는 어떻게 하면 아기 장수를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고약한 궁리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넙죽에미는 젖을 먹으려고 자신에게 달라붙는 아기 장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아기 장수의 몸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아기 장수는 보통 사람과 달리 유독 단단한 고추에 양쪽 겨드랑이에는 작은 날개를 달고 있었다. 아기 장수의 그 무시무시한 힘이 이 날개에서 비롯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넙죽에미는 화로에 인두를 벌겋게 달구어 아기 장수의 양쪽 날개를 지졌다. 고통을 못 이긴 아기 장수는 비명을 지르다 마침내 기절을 해버렸다. 그러자 온 마을이 어두워지더니 천둥번개가 진동을 하는 것이었다. 덩달아 온 마을의 짐승들도 사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며 날뛰었다. 영문도 모르고 이 기괴한 일을 당한 동네 사람들은 혼비백산해 무조건 하늘에다 대고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다.

한편 정발산에서 살던 흰 용마는 며칠 동안 아기 장수를 부르며 골동산을 맴돌다 아기 장수가 오줌을 누었던 오줌 바위에 머리를 박고 죽었다.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난 후 하늘은 예전과 같이 조용해졌고 아기 장수도 눈을 부시시 뜨며 깨어났다.

아기 장수는 목숨이 불어 있기는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침을 질질 흘릴 뿐 젖에는 입을 대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기 장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무런 치료도 해주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안타까워 몇 날 며칠을 시름에 젖어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아기 장수가 8살이 되던 해였다. 이 마을에 시주를 하러 자주 들르던 보광사의 한 스님이 아기 장수를 보고 말했다.

“장차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아기가 가엽게 되었구나.”

스님은 ‘이 나라에 난리가 나면 이 아기가 나라를 구할 인물이니 잘 키워 나라의 큰 기둥으로 만들겠다’며 아기 장수를 절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아기 장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스님의 청을 받아들여 아기 장

수를 절로 보냈다. 그후 몇 년이 흘렀다. 스님의 말대로 조선에는 왜놈들이 침략해 와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파주 보광사에서는 바보 아기 장수라고 불리우는 장수가 나타나 왜놈들을 물리치고 마을 사람들을 구했다고 한다. 아기 장수는 온 몸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는데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아기 장수가 살던 골동산 마을까지 전해져 왔다.

*문촌 오마 마을은 현재의 오마초·중등학교가 위치한 곳으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곳에 유명한 골동산이 있었다.

8) 고봉산의 안장왕과 한씨 미녀

신라, 고구려, 백제 세 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한강 유역에 위치한 고양시(당시 개백현, 달을성현)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세 나라는 서로 이곳을 차지하려고 대결하였다. 처음 이곳은 백제 땅이었으나 후일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침하여 백제의 세력을 한강 유역에서 몰아내고 고구려 땅으로 만들었다. 한강 유역을 빼앗긴 백제는 신라와 손을 잡고 나제동맹을 체결, 고구려를 다시 한강 유역에서 내몰았다. 고구려는 빼앗긴 이곳을 다시 찾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보고 있었고 백제도 또 다시 이곳을 뺏기지 않으려고 철저한 수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때 이 고양 땅 내의 한 고을에 한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미색이 출중하여 인근에 소문이 자자한 ‘한주’라는 딸이 있었다. 한씨는 아름다운 딸이 나이가 들자 훌륭한 신랑감이 나타나 주길 바라고 있었고, 그 딸 한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한주는 날씨가 좋아 집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 이때 한 청년이 그녀의 모습을 보고는 아름다운 자태에 넋

을 잃고 말았다. 그 청년의 웃차림은 천민의 웃차림이었으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귀한 인상이었다. 한참 동안 한주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청년은 용기를 내어 가까이 접근하였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본 한주는 비록 천민 복장을 하고 있으나 준수한 풍모와 늠름한 자세에서 풍기는 청년의 위엄에 한순간에 압도되고 말았다.

“낭자, 낭자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무례함을 무릎쓰고 이렇게 낭자 앞에 나섰습니다. 몇

한씨 미녀 이야기가
전해지는 고봉산 전경



마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는 숲속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한주는 당황해 망설였으나 자기도 모르게 그 청년을 쫓아갔다. 숲속에서 청년은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혔다. 그는 고구려의 태자로서 한강 유역을 백제로부터 빼앗기 위해 이곳에 들어와 정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후 한주와 태자는 몇 차례 몰래 만났다. 어느 날 태자는 “나는 이제 내 임무를 끝냈으니 이곳을 떠나 고구려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즉시 군사를 동원하여 이곳을 쳐서 정복하고 낭자를 아내로 맞이할 테니 기다려 주길 바랍니다.” 하고는 고구려로 돌아갔다.

태자는 얼마 후 고구려의 임금 자리에 올랐다. 그가 바로 고구려의 안장왕이었던 것이다. 안장왕은 한주에게 약속한 대로 여러 차례 군사를 내어 백제를 공격했으나 번번히 실패하여 한주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그러는 중에도 한주의 아름다움은 소문을 더하여 인근 지방의 백제 태수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태수는 사람을 보내 청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주는 이미 장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어 청혼을 승락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태수의 화를 돋웠다. 태수는 한주를 강제로 불잡아들이고는 장래를 약속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한주가 대답을 하지 않자, “네가 장래를 약속한 사람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보니 적의 침자와 장래를 약속하고 내용한 것이 틀림없다.”며 한주를 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고구려의 안장왕은 크게 낙심하여 부하들에게 큰 상을 걸고 고양 땅 개백현을 정복하고 한주를 구해 오도록 하였다. 당시 안장왕에게는 안학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을밀이라는 장수가 안학 공주를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있었다. 을밀은 임금이 한주를 구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장왕 앞으로 나아가 자기가 개백현을 정복하고 한주를 구해올 터이니 안학 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청하였다. 왕이 이를 허락하자 을밀은 20명의 용감한 병사들과 함께 무기를 옷 속에 감추고 평복을 입고 춤추며 광대놀이를 하는 무객으로 변장한 후 개백현에 잠입하였다.

한편 옥에 갇혀 있던 한주는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태수의 청혼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다. 태수는 한주의 굳은 결심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태수는 한주를 포기하지 않고 생일 잔치 때 옥에 갇혀 있던 한주를 끌어내어 다시 청혼을 하였다. 한주가 이를 완강히 거절하자 태수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한주를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바로 이때 무객으로 가장한 채 잠입해 있던 을밀과 그의 부하들이 몸속에 감추고 있던 무기를 꺼내 들고 일제히 뛰쳐나와 고구려 대군이 이미 이곳에 쳐들어 왔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백제의 군졸들을 쳐 죽이니, 백제의 군졸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태에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을밀은 백제군을 물아내고 한주를 구했으며 이 소식을 안장왕에게 전했다. 대군과 함께 국경에 주둔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안장왕은 크게 기뻐하며 한시바삐 한주를 만나고자 하였다. 을밀에 의해 구출된 한주도 빨리 안장왕을 만나고 싶은 심정에 높은 산에 올라 봉화를 밝혔다. 마침내 안장왕과 한주는 결혼하게 되었고 한주를 구출한 을밀도 안학 공주를 아내로 맞게 되었다고 한다.

9)지영동의 장자터 우물

장자터는 옛날 큰 부자가 살았던 통일로 주변과 문봉동 인근에 있는 동네를 일컫는 지명인데 이곳에는 옛날 무지개가 뻗는 우물이 있었다 한다. 옛날 이곳에 살던 부자가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구리로 된 떡판을 갖고 갈 수가 없어 우물에 그냥 던져 넣었다. 그 이후부터 이 우물에서 무지개가 뻗어나와 부근인 내 유동까지 닿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무지개가 나오는 것이 부자가 빠뜨린 구리 떡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떡판을 꺼내려 우물로 내려가곤 했는데, 우물로 내려가면 비가 마구 내려 우물물이 불어 도저히 구리 떡판을 꺼낼 수가 없었다고 한다.

10)대장동의 의견비(義犬碑)

대장동에 있는 작은 다리 옆에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바람에 깎여 그 글씨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개의 거룩한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전해져온다. 그런데 그 개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관해선 두 가지 설이 있다.

그 하나는 개의 주인이 행주 나루를 건너 김포장(金浦場)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술에 취하여 다리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마침 풀에 불이 붙어 불자 주인 옆에 있던 개가 다리 밑의 개울물을 몸에 축여 그 불을 끄고는 죽었다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술 취한 주인이 잠자는 도중 호랑이가 나타나 주인을 해치려 하자 개가 호랑이와 싸워 결국 주인을 살리고 자신은 죽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주인을 살려낸 개에 대하여 그 주인은 감사하는 마음과 명복을 비는 마음에서 다리 옆에 비석을 하나 세워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의견비이며 그 다리는 지금의 대장교(大壯橋)로 일명 캠비다리 [개(犬)비다리]라고도 전해진다.

11) 현천동 난점 마을의 장사와 홍도적

이곳은 비록 특별한 장사가 나오지는 않았어도 산(대덕산)의 형세가 좋아 이곳에서 태어난 남정내들은 모두 기운이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 밖에선 난점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들 무서워하여 꼼짝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데 언젠가 가무내(현재의 현천동)에 사는 이판서가 자기 조상의 묘를 만들고 주변에 묘막을 짓기 위하여 나무를 들여왔다. 이때 이판서는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만을 믿고 난점의 산맥(아마도 대덕산을 가리키는 것 같다)을 끊어 나무를 들여왔다. 이판서가 산맥을 끊을 때 그 산에서는 갑자기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때부터 산맥이 끊어진 이곳 난점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예전처럼 기운이 세지 못했고, 또 도적도 생겨났다. 여기에서 태어난 도적 중에서 유명한 도적은 구한말의 홍도구란 사람인데 그는 좋은 터에 자리잡은 산소를 골라 시체를 파내어 목을 자른 뒤 그 후손들에게 조상의 목을 찾으려면 돈을 갖고 오라는 식으로 도적질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죄상이 발각되어 러시아 쪽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12) 대화동의 용구재 전설

옛날에 강화에 살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묘를 쓰기 위해 삼각산 줄기를 타고 내려온 곳을 찾았으나 마땅한 자리가 없어 지금의 대화동 뒷산인 용구재에 묘 자리를 쓴 이후로 집안이 망했다고 한다. 그 내력은 다음과 같다.

강화 사람이 이곳에 묘 자리를 잡고 망부석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꿈속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망부석

을 빨리 해다 세우고 비석도 서둘러 세워라.”라고 하기에 부랴부랴 망부석과 비석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들을 묘 앞에 미처 세우기도 전에 한양의 도성에서는 그 묘 자리가 정기가 뻗치는 곳임을 알게 되었다. 옛부터 어떤 묘에서 정기가 뻗치면 그 집안 사람 중에 역적이 나와 왕권을 찬탈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기에 왕실에서는 정기가 뻗친 그 묘를 파내기로 하였다.

도성에서 사람들이 와 묘를 파내 보니 시체는 손톱과 발톱만을 제외하고 모두 용이 되어 있었다. 묘 속의 죽은 사람은 손톱, 발톱마저 용이 되려고 아들의 꿈속에 나타나 빨리 망부석과 비석을 세우라고 한 것이다. 아들이 허겁지겁 망부석과 비석을 배에 싣고 한강을 건너려 올라와 묘 자리가 바라다보이는 동나무 고개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도성에서 온 사람들이 완전히 용이 되지 못한 용을 토막내어 다시 묻어 버린 후였다. 그 이후 그 묘 주인의 후손들은 계속 번성치 못하였다고 한다.

13) 구산동의 암노루 산

구산동에 있는 노루메를 암노루 산이라고 하며, 숫노루 산은 파주시 교하에 있다. 그 숫노루 산 어딘가에는 조그마한 차돌멩이가 묻혀 있는데 비와 바람이 불어 산이 패이고 쟁기다 보니 가끔씩 그 차돌멩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숫노루 산의 차돌멩이가 보이게 되면 노루메의 처녀들이 모두 바람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노루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숫노루 산에 올라가 그 차돌멩이를 찾아서 땅 속에 묻어 버리는데 그러면 바람난 노루메 처녀들은 모두 다시 예전의 맑은 정신을 차린다고 한다.

1

고양의 민속

놀이 이야기

1) 송포 호미걸이

전래지 : 일산구 대화동 범개 마을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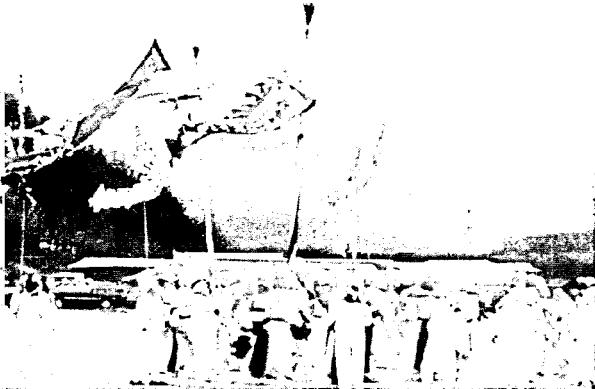
종 류 : 민속놀이

이 호미걸이 놀이는 일명 ‘호미씻이’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김을 다 매고 난 뒤 올 농사는 큰 일이 끝났으니 내년을 대비하여 호미를 씻어 걸어둔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이곳 호미걸이가 전래되는 대화동은 송포 벌판이라는 넓은 평야가 위치한 곳으로 아주 오랜 기간 농경 사회가 유지되어 온 곳이다.

논 농사는 두별김을 매고 나면 더 손볼 것이 없고 이때쯤이면 우기(雨期)도 지난 후이기 때문에 그해 농사의 풍흉(豐凶)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두별김이 끝날 무렵 두레째의 조사에 의해 올 농사는 바람과 비가 순하여 풍년이 예상되니 앞으로 자연의 재해를 막아 풍년이 들게 할 것을 기원하고 심신의 피로도 덜 겪 호미걸이를 하자고 발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의를 받은 영좌는 두레째 모두의 의견을 물은 뒤 합의가 되면 두별김을 모두 마치고 전체 대동회의(大洞會議)에 부의(附議)하고 7월 7석을 전후한 날을 택해서 호미걸이를 하게 된다.

호미걸이에 사용되는 음식과 기구들은 온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능력에 맞도록 분담해서 마련하게 된다.



송포 호미걸이의 향장면

호미걸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①상산제(上山祭)
- ②대동(大同) 고사
- ③대동(大同) 놀이
- ④유가제(遊街祭)

이러한 호미걸이 놀이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과 같이 피땀 흘려 가꾼 농사가 기후가 순조로워 결실을 잘하여 풍년이 들게 해 달라는 축원의 의미와 여름 내내 농사를 짓느라 피로해진 몸을 쉬며 노는 잔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민속놀이이다.

이 호미걸이는 농악을 중심으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진행되는데 이때의 농악은 두레 공동 노동 과정에서의 농악 보다 확대된 것으로서 여러 두레패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상례였다. 따라서 이 호미걸이는 그 마을의 두레꾼들만의 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한데 어울려 음식을 먹고 즐기는 잔치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또 호미걸이는 독특한 농요 소리와 몸 동작이 특이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편 송포 호미걸이는 1984년 경기도 내 민속예술 경연 대회에서 종합우수상을 차지하여 그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았다.

2) 진밭 두레패 농악놀이

전래지 : 일산구 성석동 진밭 마을

종류 : 농악놀이

진밭 두레패 농악놀이는 성석동 진밭 마을 일대에서 행해지는 농악놀이로 농사 작업기에 본(本) 농악으로 등장하며 모두 12마당 놀이를 갖추고 있다. 농악의 가락은 1채 가락에서부터 12채 가락까지 다양한 변형 가락을 갖추고 있다. 이 중 1~3채 가락은 춤가락이며 자진모리 가락에서 율동을 하게 된다. 본래 본 농악에서는 소(牛)와 농기구를 사용했으나 요즈음은 생략하여 간소화되었다.

진밭 두레패 농악놀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오방진(五方陣, 멍식 감기와 풀기)

농악 두레패가 놀이판의 동서남북 방향으로 돌아다니다가 상쇠

를 가운데에 놓고 그리며 겹겹이 돈 후 다시 원을 푸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가운데에 진(陣)을 치는데 이로써 각 방위와 중앙에 모두 진을 치게 된다.

■ 군사놀이

두레패가 3개 종대로 서서히 행진하다가 그 앞열은 왼쪽으로 3보, 그 뒷열은 오른쪽으로 3보 등으로 대형을 변경시킨다. 그후 세 방향, 여섯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 행진하다가 다시 본 대열을 만든다.

■ 당상 법구(법고)놀이

두레패의 풍물잡이 중에서 법구잡이를 상대로 법구놀이를 하는 것이다.

■ 상(사)통백이놀이

농악대가 동서로 나뉘어서 법구잡이와 그밖의 풍물잡이들이 서로 엇갈려 지나가다가 두 개의 원형을 만들어 사방으로 돌면서 다시 원형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 좌우치기 놀이

법구잡이와 그밖의 풍물잡이들이 각각 1열로 행진하면서 좌우로 일보씩 움직이다가 여섯채 가락에 맞추어 노는 것이다.

■ 거상(舉床) 가락놀이

거상 가락이란 느린 가락으로서 농악대에 참가하지 않은 남녀노소가 모두 이 가락에 맞춰 어울려 노는 것이다.

■ 3채 가락에 춤추기

거상 가락에 흥이 나면 장고잡이와 날라리잡이가 3채 가락을 치고 상쇠가 선(先) 소리를 선창하면 모두가 그것을 받아 따라 부르면서 풍년가를 부른다. 노래와 함께 흥겨운 춤을 추면서 한바탕 어우러진다.

■ 열두발 상모놀이

마지막 마당셋기에 해당하는 놀이판으로 채상잡이(법구잡이 중에서 마지막 가락)가 열두발이나 되는 부전지를 붙인 상모를 서서 돌리거나 앉아서 돌리거나 누워서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는 것이다.

이곳 두레패의 특징은, 제금이 있다는 것과 법구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제금은 다른 농악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이곳 두레패에만 있다. 이런 특이한 점과 지금까지 조직이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고양시의 대표적인 두레패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무형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3) 멩개안 사(厓 : 巴)줄다리기

전래지 : 일산구 대화동, 가좌동

종류 : 민속놀이

멩개안 사줄다리기는 현재의 대화동과 가좌동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멩개 개울(고리포동)에서 행해지는 민속놀이이다. 멩개안 사줄다리기라는 놀이의 명칭도 멩개안 개울에서 뱀 모양의 긴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를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놀이는 매년 멩개안 개울에서 음력 12월 그믐에 시작하여 이듬해 정월 엿셋날 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놀이의 목적은 마을 전체의 평안함과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놀이가 펼쳐지는 멩개 개울은 한강 하류에서 올라오는 조수가 드나드는 곳으로 겨울에도 소금물 때문에 물이 얼지 않는 곳이다. 이곳은 대화동의 뱀개 마을 사람과 가좌동의 배미 마을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막고 동둑을 만들었는데 이곳이 놀이가 이루어지는 고리포동이다.

놀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다리목 베기

베르게 동다리를 만들기 위하여 뱀개 마을과 배미 마을 사람들이 다리에 사용될 나무를 베어 오는 것이다. 다리목을 베는 날짜는 반드시 섣달 그믐날을 택하며 나무를 베어 고리포동으로 옮겨 놓는다.

■ 마당놀이

마당놀이는 정월 초나흘인 뱀날이라 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풍물을 치는 놀이이다. 가면을 쓴 풍물패를 맞은 집에서는 술과 음식을 내놓으며 대접한다. 그리고 윈동아줄과 명주로 된 의복을 내놓게 된다.

■ 사줄 꼬기

사줄 꼬기는 여러 집에서 내놓은 윈동아줄을 각 줄마다 머리 끝에 대주의 의복을 잡아 매고는 줄을 꼬는 것이다. 뱀개 마을에서는 사두라 하여 외줄로 줄을 만들어서 남사신(男巳神)의 모양으로 하고, 배미 마을에서는 여사신(女巳神)이라 하여 줄을 쌍줄로 하여 두 줄로 만든다.

■ 사줄 옮기기

사줄 옮기기는 정월 열엿셋날을 귀신날이라 하여 풍물꾼이 앞서

고 그 뒤를 사줄 맨 사람들이 따르며 사줄을 옮기는 것이다. 이때 동네 부녀자들은 해묵은 부지깽이와 수수빗자루로 사줄을 두드리며 ‘꽉깨비야, 꽉깨비야’ 하며 고사진원을 한다.

■ 다리목 세우기

다리목 세우기는 양쪽 마을을 향하여 다리목을 삼각대식으로 세워 놓고 한 사람씩 그 위에 올라 앉아서 줄을 당겨 하장목을 올려놓는 것이다.

■ 사줄다리기(합사, 합단)

합사는 양쪽의 사줄을 연결하여 한 줄로 만드는 놀이이다. 남사신이 외줄을 여사신의 두 줄 사이로 옮기면서 줄을 꼬는 것이다. 합사를 끝마치면 사줄다리기가 시작되는데 뱃개 마을과 배미 마을 사람들이 편을 나누어 줄을 당기게 된다.

■ 액 불사르기

액 불사르기는 합사와 사줄다리기가 끝나면 사줄을 하장목 위에 올려 놓고 횃불로 불을 붙여 명주의 액의를 태워 버리는 것이다. 모든 액이 새로 변하여 맹계안 개울로 흘러내리면 일년의 평안과 풍년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풍물꾼들은 풍물을 치면서 다리목을 들며 밤새도록 즐긴 후 각기 마을을 향해 떠나게 된다. 그러면 놀이는 끝이 나는 것이다.

이 놀이는 마을의 공동 축제이면서 기원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민속놀이라 할 수 있다. 각 줄거리별로 다양한 울동, 소품이 등장하여 힘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중요한 민속놀이라 할 수 있다.

4) 용구(龍口)재 이무기제(祭)

전래지 : 덕양구 대화동 뱃개 마을

종류 : 민속놀이

용구재 이무기제는 대화동 내촌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마을 제사, 공동 축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민속놀이이다.

용구재란 지명이 언제부터 내려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마을 사람들의 구전에 의하면 용이 되려고 도를 닦던 지네가 물에서 천 년, 돌에서 천 년, 흙에서 천 년, 도합 삼천 년 동안 도를 닦아야 하는데 흙에서의 천 년을 3일 앞두고 마을 사람의 부정으로 인해 용이 못 되어 큰 이무기로 변해 마을을 괴롭혔다는 전설에서

용구제 이무기제의 현장면



유래된 것이다.

용구제 이무기제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이무기 만들기

이무기는 반드시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도 각기 성(姓)이 다른 다섯 명이 반드시 한밤중에 만들어야 한다. 이무기의 모습은 말의 머리, 사슴뿔, 뱀의 몸으로 나누어서 만드는데 각 부재의 재료는 대나무로 하고 이무기의 곁은 섬거적으로 만든다.

■ 제(祭) 지내기

제는 황의(黃衣)를 입은 제관(祭官)들이 지내는데 제관은 마을에서 연배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선임하게 된다. 제를 지내는 동안 무녀, 악사, 제관들 이외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

제물은 마을 사람 전체가 내놓은 명계라 불리우는 산 닭과, 제옹(허수아비)을 만들어서 흰 기에 매달고 지내게 되는데 반드시 축문을 읽게 된다.

■ 이무기 돌기

이무기 돌기는 이무기 제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풍물을 치며 이무기와 제옹, 명다리 깃발을 들고 큰 대갓집을 돌며 춤을 추는 것이다. 이때 집주인은 음식을 차려 놓고 찾아온 마을 사람들을 대접해야 한다.

■ 이무기 놀리기

이무기 놀리기는 이무기 돌기가 끝난 후 이무기를 장광틀 위에 엎어서 틀꾼들이 메고 이무기를 놀리는 것이다. 이때 장광틀 위에는 새해에 흉액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태우고 행렬 앞에 있는 용구새(초가 지붕에 비가 새지 않도록 벗짚으로 만들어 엎은 것)와 썩은새를 불태우며 넘어가야 한다.

■ 이무기 모시기

이무기 모시기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장광틀 위에 올려 놓은 이무기를 강구(江口)재로 옮겨 모시는 것이다. 강구재는 한강물과 육지가 맞닿은 곳으로 옛부터 이무기가 길을 내서 통과했다는 구령목에 해당하는 곳이

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무기를 안치하고 이무기를 모셔갈 배를 기다린다.

■ 이무기 출해(보내기)

이무기를 강구재에 모시고 있으면 한강을 통해 황해로 나가는 상선들이 이 이무기를 가져가면 장사가 잘 된다고 하여 배에 싣고 가다가 항해가 위험한 곳에 띄워 보내게 된다. 이무기를 배에 싣기 전에 이무기 장팡틀에 꽂혀진 명다리 깃발을 올려 선원들이 배에 꽂는다. 기 꽂기가 모두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이무기를 배 위로 엎는다.

■ 뒤풀이

이무기 출해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풍물을 치면서 마을로 돌아와 함께 모여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밤새워 놀게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마을에서 큰 축제를 벌이는 것이다.

이 용구재 이무기제는 마을 뒤편 용구재에 이르기 전까지는 경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놀이에 참가하다가 제를 지낸 뒤 배에 이무기를 실어 보내면서 갑자기 분위기를 변화시켜 흥겨운 마을 축제를 벌이는 특이한 민속놀이이다. 또 능촌, 어촌의 형태가 결합된 놀이 풍습도 보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더욱 크다.

5) 십이지신(十二支神) 불한당 물이 놀이

전래지 : 덕양구 일산구 한강가 일대

종류 : 민속놀이

십이지신 불한당 물이 놀이는 고양시의 한강 연안 일대인 장항동, 대화동, 법꽃동 마을에서 행하던 마을 공동체 민속놀이이다. 놀이의 배경이 된 이 일대는 주변에 한강이 있어 물이 풍부하고 들판은 기름져 비교적 넉넉한 살림을 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서로 도우며 마을을 지키다 보니 재물이 많이 들어 생계에 큰 도움을 주는 배들도 갖게 되었다.

그런데 한강 연안의 동령말에는 거칠고 힘센 불한당 패거리들이 자주 출몰하여 마을 사람들과 한강을 오가는 상인들을 괴롭혔다. 이들 불한당 패거리들은 웃대인 한양의 마포에서 강화의 선돌목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분탕질 주무대로 삼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였다. 이 불한당 패거리들은 마을로 들어오기 열흘 전부

터 곳곳에 방표를 붙여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어귀로 재물을 가져 오라는 경고를 하게 된다.

지정된 시간까지 이 방표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밤중에 패거리들이 폐거리로 몰려와 벗짚을 쌓아 둔 노적가리에다 불을 지르고 짐짓마다 들어가 식량, 돈 등을 약탈하곤 하였다. 한편 불한당 출현 지역 주민들은 혐상궂은 불한당을 몰아내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마을의 전 주민들을 동원하여 초겨울부터 이듬해 정월까지를 불한당 물이 기간으로 정하게 된다. 그리고 12지신(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개, 닭, 돼지)으로 하여금 이들 불한당의 접근을 막았다. 마을 사람들은 12지신의 힘으로 이들 불한당을 혼내주고 쫓아내면 모두 모여 큰 잔치를 벌이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음식은 대갓집에서 내게 된다.

놀이의 줄거리는 처음 십이지신 탈과 깃발, 오방 기를 준비하면서 시작된다. 이렇게 준비된 십이지신 기와 오방 기를 노적가리 주위에 설치해 놓고 동이줄로 연결하여 돈대(음막) 위에다 막을 짓게 된다. 마을 사람들이 이들 불한당을 발견하면 줄을 당겨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이때 마을 장정들은 북과 징을 두드리며 마을 전체를 소란스럽게 해 불한당의 혼을 빼게 한다. 마을 장정들은 몽동이질을 잘하는 매꾼, 패대기를 잘하는 씨름꾼, 발길질을 잘하는 택견꾼, 손을 잘 쓰는 수벽꾼 모두가 모여서 힘을 합쳐 한강 쪽으로 불한당을 쫓아낸다. 쫓겨난 불한당 패거리들은 후일을 기약하며 물러나는데 이들이 마을 어귀를 절룩거리며 벗어나게 되면 불한당 물이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마을의 큰 부잣집에서는 물이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듬해 정월 중에 좋은 날을 잡아 술과 떡, 고기 등을 대접하며 하루를 즐겼던 것이다. 이 놀이는 십이지신을 등장시켜 마을의 부정한 것을 물리치고 불한당을 몰아내는 경기 서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이다.

6) 정발산 말머리 도당굿

전승지 : 일산구 정발산 일대
종류 : 마을 공동굿

정발산 말머리 도당굿은 옛 일산읍의 6개 자연 촌락인 낙민, 강촌, 설촌, 냉촌, 놀메기, 닥밭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진산(鎮山)인

정발산에서 행하던 도당굿이다. 굿은 2년마다 한 번씩 음력 3월 초순경에 좋은 날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굿을 행하는 목적은 마을 전체의 안녕을 축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발산은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영산(靈山)으로 여겨지고 있다. 옛날 정발산에 흰 수염이 많이 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마을에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는 동자를 쫓아내 마을이 무사하게 된 이후부터 굿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도당굿을 관장하는 단골 무당은 만신(여자 무당)이 맡는데 보통 무당 5~8명, 악사 3~5명이 참여한다. 악기는 퍼리, 대금, 호적, 장고 등이 사용된다.

굿의 줄거리는 첫 장고소리를 내는 초당을 시작으로 부정거리, 부정말령, 성황거리, 대감놀이, 불사거리, 칠성거리, 도당대받이, 산신거리, 장군놀이, 별산거리, 신장거리, 건립, 영산풀기 등 의 순서로 보통 12거리 또는 16거리를 치르게 된다.

연세대학교 김인희 교수는 이 도당굿의 개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첫째, 온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합동 축제라는 점.

둘째, 6개의 마을 주민들 거의 전부가 굿에 참여하지만 이 중에서 특히 할머니들이 전원 참석하여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일종의 경로 잔치라는 점.

셋째, 굿의 제의적인 전통과 절차가 큰 변화없이 지켜왔다는 점.

한강 북쪽의 경기 지역 도당굿 중에서도 정발산 도당굿은 무속 절차의 지역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강신무 중심의 굿에서, 전체적인 흐름은 서울 지역 마을굿을 닮았으면서도 마을의 수호신인 도당 할아버지와 도당 할머니를 모셔오는 대내림의 절차와 규모가 다른 굿에서는 보기 힘든 장중하고 화려한 특징을 갖고 있다. 굿의 후반부 군웅거리에서는 황해도 지역의 마을굿과 그 내용이 유사한, 막둥이 사냥놀이 절차가 들어있는 것도 특이하다. 여기에 마을굿을 책임지고 대대로 관장해 온 단골 무당(도무당) 제도가 존속되어 왔다. 정발산 할머니 도당굿은 황해도 지역 굿과 서울 지역 굿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토속 신앙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공동굿으로서 전통 문화로서의 가치 또한 매우 높은 것이다.



정발산 도당굿 중의 한 거리

고양의 소리꾼 동관 김현규 선생의 삶



동관 김현규 선생

동관 김현규(53세,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경기민요 선소리·선타령 전수 학원 원장,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이 본적이다) 선생은 조상대대로 고양시 대화동에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왔고 동관 선생 자신도 양촌 마을에서 태어나 1970년 고양 땅을 떠날 때까지 30여 년 동안 고양의 소리·몸짓을 완벽하게 익힌 유일한 사람이다. 실제로 현재 대화동에는 선생과 같은 금녕 김씨 집안사람들이 옛 전통놀이·문화를 보존하며 살고 있다.

동관 선생의 소리에 대한 삶은 그의 음성이 변성기로 들어서기 이전부터 시작되어, 몸 동작과 함께 악기 다루는 손놀림이 아주 자연스럽다. 동관 선생에게 여러 가지 소리와 민속놀이를 전수해 준 사람은 동관 선생의 큰아버님 되는 양촌 마을 김형운옹으로 작고하기 전까지 대화동 두레째의 영자 노릇을 오래 지낸 인물이다. 동관 선생은 김형운옹이 작고하기 4년 전, 즉 동관 선생이 16세 때부터 공식적으로 선소리 매김을 하기 시작했다.

동관 선생이 전수받은 것은 멍개안 사줄다리기를 비롯한 민속놀이와 민요의 선소리, 지경 다지는 소리 등 구전되는 민요, 북, 장고 등의 재비 놀림 방법 등이다. 이것은 특히 대화동 지역에만 전래되던 것으로 이 중 고양 12채 가락은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후 1976년 11월 현재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이은관 학원에서 경기 선소리를 교육하다가 1985년 11월 독립하였다. 현재 동관 선생은 서울 종로 37가에 경기민요 선소리·선타령 전수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학원에는 30여 명의 전수 학생이 민요를 배우고 있으며 1년에 70여 명의 전수생을 배출하고 있다.

동관 선생이 주로 연구·전수 교육하고 있는 경기민요는 이미 이은주, 목계월, 안비취 씨 등이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동관 선생이 빌굴, 재현한 민속놀이

옛 송포면 대화, 가좌, 법꽃리 지역은 한강 주변에 위치해 제방을 축조하기 이전까지는 농사 짓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었다. 또 마을마다 집성촌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강해 이에 따른 민속놀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먼저 음력 동짓달에는 용구재 이무기제를 올린다. 이 민속놀이는 마을 제사의 역할과 민속놀이가 복합된 특이한 전통 민속놀이이다.

호미걸이는 음력 칠월 칠석 때 대화리 두레패가 주된 구성을 이루어 송포 호미걸이가 행해진다. 이 호미걸이 놀이는 상산제, 대동고사, 유가제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긴소리, 사두어, 양산도, 자진놀놀이 등 다른 지방에 비해 특색 있는 소리도 병행되어진다. 이 줄거리에서 동관 선생은 전체적으로 놀이를 이끌면서 열 가지 가락을 구성지게 되어낸다.

맹개안 사출다리기는 음력으로 봄에 가좌동과 대화동 사이의 맹개안 개울에서 두 마을 사람들이 범(巳)줄을 만들어 하는 놀이로 수십 명의 청장년이 등장하게 된다.

이상의 세 가지 민속놀이는 수백년 전부터 전래되어 오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제의 민족 탄압과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 사장되어 왔으나 1980년대 초중반부터 동관 선생에 의해 조금씩 재현되기 시작했다. 동관 선생의 소리와 몸 동작 등은 고양의 순수하고 전통적인 것에 한국 민요 소리의 대가인 유개동 선생(중요 무형 문화재 19호)에게 배운 시조 가사를 익히고 가꾼 것이다.

동관 선생이 말하는 고양 소리의 특징은 다른 지방에 비해 신나고 경쾌하며 소리가 길고 이름답다고 한다. 고양의 유일한 농요·민속놀이의 전수자, 보유자인 동관 김현규 선생은 그 민속적 가치나 특이성, 독특성으로 볼 때 무형 인간문화재의 지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동관 선생의 뒤를 이어 고양의 아름다운 민속·소리·놀이 등을 전수받을 전수자가 빨리 나타나 무형의 유산을 전수, 보존하는 일도 시급하다.

호미걸이 '놀노리'

(예) 놀농농노리 놀노리 놀아	(예) 김현규
(발) 놀농농노리 노 — 야	(발) 김선규 등 호미걸이 회원
(예) 신보 - ○ 사의 거동을 보아라	(예보) 이소라
(발) 놀농농노리 노 — 야	
(예) 상두릿체 - 틈새 — 그 잡고	
(발)	
(예) 골거 - ㄴ 제복으 - ㄹ 정히 하고	
(발)	

8

고양의 민속

• 풍습 이야기

1) 고양의 금기(禁忌) 사항

고양 지역은 오래 전부터 일정한 대상을 위한 관습·풍습이 있어 왔다. 여기에는 오랜 기간 농경 중심의 생활에서 터득한 삶의 경험에서 축적된 것도 있고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도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금기(禁忌) 곧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보통 금기에는 민간 신앙 차원의 금기와 평상시 행위의 지표로 제시된 금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금기의 시작은 신성함에 대한 조심스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례 차원에서 발생한 것도 있고 오랜 기간 단순한 형상이나 말의 유감 현상에 의해 꺼리게 된 것도 있다. 그러나 고양 지역에서는 주변의 상황이나 교육의 정도에 따라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들 금기 사항이 본래의 뜻을 잊거나 변형된 것들이 매우 많다.

(1) 금기 사항의 전수자

고양 지역에서 각 금기 사항을 전수하거나 유지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자식이나 가족, 친지에게 전래시키고 있다. 특히 질병이 많거나 자손이 귀한 집안일수록 그 정도가 심한 편인데 여자의 경우 어린 시절에 듣고 습관이 되어 버린 관습을 평생 동안 지키며 살아간다.

(2) 금기 사항의 종류

■ 상례에 관한 것

- 마을에 초상을 당한 집이 있어 부고장을 돌리게 되면 절대 대문 안에 부고를 들여놓지 못하게 한다.
- 마을에 초상을 당한 집이 있으면 집안에서 절대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해서는 안된다.
- 초상집을 방문할 때는 모든 행위를 평상시와 반대로 한다. 예를 들어 출입을 할 때 원발 먼저 들어가고 문고리도 반드시 왼손으로 잡아당겨 들어간다.
- 초상집에 다녀온 사람은 삼칠일 이전에는 절대 아기가 있는 방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 초상집 관 위 천정으로 고양이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고양이가 지나가면 시체가 벌떡 일어난다고 한다.
- 상여를 이용하여 시체를 산소로 옮겨 갈 때 절대 총각은 상여를 메지 말아야 한다.
- 상여가 마을을 지날 때 마을 주산(主山) 고개로는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 당제(堂祭)에 관한 것

- 마을에서 도당제를 올리는 도당나무 근처에서는 절대 오줌을 누거나 나무를 해서는 안된다.

- 도당제 날짜가 정해지거나 제주·제관 등이 정해지면 부부간에 동침을 해서는 안된다.

- 도당제 날짜가 다가오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마을 안에서 마을 밖으로 수저, 그릇 등을 빌려주지 않는다.

- 도당제를 지내는 도당대에는 뱀띠를 가진 사람은 부정 소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



고양의 금기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는 토당동 토박이 주민들

■ 평상시 행동에 관한 것

- 문을 출입할 때 문지방을 밟거나 문지방에 앉으면 안된다.
- 아침(조반) 전에 아무런 통고 없이 남의 집 대문 출입을 해서는 안된다.

- 남자가 새벽녘에 논 일을 보거나 밖에 불 일이 있어 나갈 때 여자가 앞을 지나가서는 안된다.
- 사내아이가 지렁이에게 오줌을 누면 고추가 봇는다고 한다.
- 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의 어깨를 짚으면 안된다.
- 한밤중에 피리나 호루라기 등 소리나는 물건을 불면 안된다.
여름밤에 피리를 불면 뱀이 나온다고 한다.
- 아랫목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된다.
- 화롯불, 연탄불 등에 손톱, 발톱, 머리칼 등을 태우면 안된다.
- 혼자 밥을 먹을 때 절대 바깥쪽으로 밥상을 향해서는 안된다.
- 신발을 벗을 때 뒤집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뒤집어진 신발은 반드시 바르게 놓아야 한다.
- 쌀을 갖고 놀면 안된다. 쌀에 미끄러져 넘어지면 얼굴이 곰보된다.
- 머리에 흰 봉지나 종이를 써서는 안된다. 상체나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 밥 먹을 때 수저를 밥에 꽂아 두어서는 안된다.
- 밥상에 놓여진 수저가 뒤집혀서는 안된다.
- 여자의 신발(고무신)은 거꾸로 신으면 안된다.
- 밥을 먹고 난 뒤 방을 훔칠 때(청소할 때) 걸레만을 사용해야지 빗자루를 사용해선 안된다.
- 누워있는 아이의 몸을 함부로 넘어서는 안된다.
- 여자 아이가 입던 옷을 남자 아이에게 입혀서는 안된다.

■ 건강·위생에 관련된 것

- 임산부는 절대로 게를 먹어서는 안된다. 게를 먹은 후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가 옆으로 기거나 사람을 잘 문다고 한다.
- 임신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로를 넘어 다녀서는 안된다. 아기에게 태독이 생긴다고 한다.
- 임산부는 순두부를 먹어서는 안된다. 순두부를 먹으면 아기가 생인손을 앓아 뼈마디가 나왔다가 없어진다고 한다.
- 아기를 낳은 산모는 절대 호박을 먹어서는 안된다. 호박을 먹으면 산모의 이가 모두 빠진다고 한다.
- 상가집에 갈 때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속주머니에 게의 뼈를 넣고 간다. 게 뼈를 몸에 지니면 귀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 어린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회초리로 부지깽이나 빗자루를 사

용해서는 안된다. 부지깽이로 사람을 때리면 평생 빌어먹는다고 하며 빗자루로 때리면 3년 동안 재수가 없다고 한다.

- 음력 동짓날 밤에는 잠을 자면 안된다. 잠을 자면 눈썹이 희게 변한다고 한다.

- 아침 일찍 집 안팎을 청소할 때 비를 밖으로 쓸어서는 안된다. 밖으로 비질을 하면 집안의 복과 돈, 행운이 모두 나간다고 한다.

- 아침 일찍 부엌에서 접시를 깨면 식구들은 하루 종일 근신하고 조심해야 한다.

- 접시에 물을 부어 먹으면 안된다.

■ 징조에 관한 것

- 남자가 아침 일찍 큰일을 하려고 나가는데 새벽녘에 여자를 보거나 여자가 남자 앞을 지나가면 동네 밖을 떠나서는 안된다.

- 아침에 학교에 가거나 눈에 나갈 때 까마귀가 울면 세 번 '공중', '땅', '앞쪽'으로 '퇴퇴퇴' 하고 침을 뱉어 액땜을 해야 한다.

- 씨나락을 뿐릴 때나 못자리를 할 때 날짜를 가려 '셋날(닷새, 옛새)'을 피해야 한다. 셋날에 씨나락이나 못자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새의 피해를 많이 보게 된다고 한다.

■ 그외 금기 사항

- 자리에 앉아 손이나 발을 심하게 흔들어서는 안된다. 특히 발을 고의로 흔들면 재수가 나쁘다고 한다.

- 공책이나 교과서로 사람의 머리를 때려서는 안된다.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한다.

- 명절날 아침 밀가루 음식을 먹어서는 안된다. 평생 빌어먹는다고 한다.

- 길조인 제비에게는 돌을 던지거나 총을 쏘아서는 안된다.

- 마을 앞 정자나무를 자르거나 가지를 꺾으면 입이 돌아간다고 한다.

- 사과나 배 등 음식을 갖고 장난을 치면 거지가 된다고 한다.

- 밥상이나 가마솥 위에 앉지 말아야 한다. 특히 밥상에 앉으면 재수가 나쁘다고 한다.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금기 사항들은 아직까지도 고양 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전래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미신이며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기도 한다. 사실 보이지도 않고 문헌 기록에

도 없는, 과학적인 증명이 따르지 않은 것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양 땅에 오래 전부터 전래되고 있는 민속·풍습 중의 하나인 금기 사항에는 부모나 친지, 이웃에 대한 애정이 담뿍 담겨 있다. 조그마한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건강과 행복을 해칠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생긴 일종의 약속, 이는 분명 고향 어머니의 따뜻한 정성임에 틀림없다. 자식의 건강과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바람과 어린아이의 건강한 탄생을 기원하는 온 가족의 염원이 서려 있는 아름다운 풍습인 것이다.

이러한 금기 사항은 일제시대, 6·25 등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성하고 자손이 귀한 집안일수록 더욱 잘 보존되어 전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이를 애써 어기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악습이거나 미신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2) 전래놀이

고양 지역에 전래되는 놀이는 놀이의 주체에 따라 소년 놀이, 소녀 놀이, 성인 놀이, 특정인이 행하는 재주꾼 놀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전래되는 어린이 놀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도구없이 하거나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놀이의 도구로 사용했다.

특히 옛 놀이의 형태는 단순한 개인 놀이보다는 두 명 이상이 즐기는 집단 놀이가 많았다. 또 놀이의 목적이나 내용으로 살펴볼 때 내기 놀이, 겨루기 놀이, 놀이 자체가 목적인 놀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놀이는 눈싸움, 썰매타기 등과 같은 겨울철 놀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시기를 가리지 않으며 실내 놀이보다는 야외 놀이가 많았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놀이 중에서 고양에서 행해졌던 놀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비석치기

비석치기는 고양 지역에서 행해지는 보편적인 놀이의 하나로 마을이나 집 앞 큰 마당에 약 4~5m 정도 사이를 두고 긴 금(줄)을 횡으로 긋고 놀이를 시작한다.

먼저 두 명 이상의 아이들이 모여 가위바위보로 편을 나눈 뒤 자신에게 알맞은 비석(말)을 만들어 놓고, 편의 대표자(왕)끼리 가위바위보로 공격과 수비를 정한다. 먼저 공격하는 편은 방어편이 건너편의 사선 위에 자신의 비석을 올려 놓으면 신체의 10여 곳 부위를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 상대편 말을 모두 쓰러뜨리면 1년이라 하고, 보통 3~5년으로 승리를 서로 가른다. 공격 순서는 처음 말을 던져, 비석 쓰러뜨리기→발차기→발등→무릎 사이→배→어깨→등→겨드랑이→볼(뺨)→머리 등 신체 부위에 비석을 올려 놓고 건너편의 사선까지 가서 비석을 떨어뜨려 수비자의 비석을 쓰러뜨리면 된다. 이때 수비자는 말이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세워두며 공격자 쪽에서 모두 공격이 끝났는데도 상대편(수비자)의 비석이 한 개라도 서 있으면 공격과 수비가 서로 바뀌게 된다.

■ 물싸움

물싸움은 소나기가 지나간 뒤 마을 앞 개울에서 하는 놀이로, 상류와 하류에 각각 편을 갈라 위치한 뒤 일정한 시간을 두고 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먼저 공격편은 상류에 위치하여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 담수시키면서 보다 많은 물을 가두기 위해 보를 높게 쌓는다. 하류의 수비편은 공격편의 10m 아래쪽에 나무, 진흙, 잔디 등을 이용하여 튼튼한 보를 막는다. 놀이의 승패는 공격편이 물을 터놓아 방어편이 쌓아 놓은 보가 무너지면 공격편이 이기고 무너지지 않으면 방어편이 이기게 된다. 승패가 결정나면 서로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놀이를 계속한다.

■ 죽마타기

죽마타기는 마을의 빈 터나 논둑에서 하던 놀이로 밤나무, 아카시아나무 등을 길게 잘라 장대를 만들어 우두머리를 쫓아 한 사람씩 가랑이 사이에 장대를 넣고 뛰어다니며 하는 놀이이다.

이때 맨앞 우두머리는 행동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대로 쫓아한다. 아이들은 동요 등을 부르며 즐거워한다.

■ 참새잡기

참새잡기는 동네 초가집 지붕 처마 밑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던 놀이로 주로 야간에 행해졌다. 참새잡이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붕 밑의 구멍에 손을 넣고 손전등을 비춰 잡자고 있는

참새를 잡는 것이다. 아이들은 잡은 참새를 모두 모아 털을 뽑고 머리를 따낸 후 간단한 장작으로 참새구이를 만들어 밤늦도록 먹으며 즐긴다.

■ 자치기

고양 지역에 전래되는 자치기 놀이의 방법은 모두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땅바닥에 구멍을 파고 구멍에 놓인 새끼를 쳐내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둥근 원을 그려놓고 긴 막대기(머리)로 짧은 나무토막(새끼)을 쳐서 멀리 보내는 것이다.

놀이의 첫 번째 방법인 구멍을 이용한 놀이는 구멍 위에 새끼 자치기를 올려 놓고 어미 자치기로 밀어 보내기, 두 번째로 자치기 때리기, 세 번째로 토키방아로 멀리치기를 한다. 공격한 새끼 자치기를 수비측이 손으로 받아내거나, 구멍 위에 놓여진 어미 자치기를 새끼 자치기로 맞추었을 때, 또 공격자가 부른 거리가 모자랄 경우 공격과 수비가 바뀐다.

두 번째 방법인 원을 그려 하는 놀이는 서로 정한 약속에 따라 긴 어미 막대기(자치기)로 새끼 자치기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몇 번이고 친 뒤 멀리 보내면 된다. 공중에서 친 숫자와 거리를 곱해서 점수로 가산한다.

■ 그림자 놀이

그림자 놀이는 한여름 또는 장마철 밤중에 촛불이나 등잔을 밝혀놓고 손을 이용해 갖가지 모양의 그림자를 벽에 비춰 개, 토키, 사람, 여우 등 여러 모양을 만들며 하는 놀이이다.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모양 만들기가 어려우면 종이나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기도 하며 손을 움직여 짐승의 우는 모습을 흉내내기도 한다.

■ 땅 재먹기(땅 따먹기)

땅 따먹기는 두 명 이상의 아이들이 넓은 마당에 네모난 공간을 줄로 긋고 동전만한 말을 만들어 시작한다. 놀이는 양쪽 네 귀퉁이에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 말을 손가락으로 쳐서 집 밖으로 보냈다가 세 번만에 다시 집으로 들어오면 다녀온 길 양쪽의 땅을 따먹게 된다. 여기에 자신의 손뼉으로 재어 추가로 땅을 만드는데 서로 빙 땅이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여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이기게 된다.

■ 줄놀이

이 놀이는 마을 어귀에 정자나무나 큰 마당이 있는 집 앞에서 처음 술래를 정하면서 시작한다.

술래는 보통 여러 아이들이 모여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는데 결정된 술래는 정자나무나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뒤돌아서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계속 반복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나무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줄을 긋고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움직인다.

이때 술래에게 움직임이 발각된 아이는 술래의 손을 잡고 길게 줄을 잇게 된다. 결국 술래에게 모든 아이들이 걸리게 되면 다시 술래를 뽑게 되지만 한 사람이라도 남게 되면 계속 술래에게 다가가 술래와 연결된 줄을 내려쳐 잡힌 사람들을 구하고 도망친다. 이 때 도망가지 못하고 술래에게 잡힌 사람이 새로 술래가 돼 놀이는 계속된다.

■ 짬뽕(뽕) 놀이

마을의 넓은 공터나 학교 운동장에서 하던 겨루기 놀이의 하나로 오늘날의 야구 놀이와 유사하다.

먼저 한쪽에 두 명 이상으로 편을 나누어 공격편은 타자 순번을 결정하고 수비편은 수비의 위치를 정한 후 경기를 시작한다. 짬뽕놀이는 야구와는 달리 투수, 포수가 없이 타자가 공중으로 공을 어느 정도 던진 후 떨어지는 공을 멀리 쳐내고 1루로 달려가면 된다.

공은 주로 정구공을 사용했고 글러브는 비료 포대로 만들어거나 신문지를 이용하여 만들어 사용했다. 또 방망이는 각목이나 통나무를 잘라 만들며, 나머지 경기 방식은 야구와 거의 같다.

■ 달구 놀이

달구 놀이는 주로 논둑이나 골목길, 무덤 부근의 공간에서 하던 놀이로 장례의식 때 무덤을 만들면서 땅을 치는 달구질을 어린 아이들이 흉내낸 놀이이다. 아이들은 달구나무를 하나씩 들고 땅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하는 시늉을 하며 서로에게 고개를 숙인다. 잠시 있다가 아이들은 자신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를 부르며 우두머리를 쫓아 동네를 누빈다. 보통 어른들은 이 놀이를 하면 어머니가 죽는다고 크게 야단을 치는데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놀이를 하다 상가 근처나 상주를 만나게 되면 놀이를 일시 멈춘 후 눈을 피해 놀이를 계속한다.

■ 딱지치기

딱지치기는 주로 학교나 마을 빈터에서 행해졌던 놀이로 딱지먹기 놀이와는 구분된다.

딱지는 보통 시멘트 포대나 신문지, 공책 등을 접어 만드는데 배꼽 부분과 등 부분을 뚜렷이 구분시켜 만든다.

딱지의 크기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딱지를 치는 방법에 따라 배꼽치기, 땅치기, 헐렝이, 키스치기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배꼽치기는 딱지 위를 직접 내려쳐 넘겨 먹는 것이고, 땅치기는 딱지 옆의 땅을 쳐 바람을 일으켜 딱지를 넘겨 먹는 것이다. 또 헐렝이는 얇은 종이로 딱지를 만들어 바람을 일으켜 먹는 방법이다. 키스치기는 딱지 밑으로 딱지를 쳐서 서로 맞불게 하여 먹는 방법이다. 딱지를 엎어트리기 위해서는 경사도나 바람을 이용해야 한다.

■ 공동묘지 놀이

이 놀이는 주로 한여름밤 공포 영화를 본 다음이나 여러 아이들이 모여 놀이를 하다가 짖증이 나면 하던 놀이로 자정 시간 즈음에 행해졌다.

공동묘지 놀이는 한 사람이 먼저 묘지로 출발하여 공동묘지 한 가운데 있는 큰 묘소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 쪽지를 두고 오면, 다음 아이가 가서 그 쪽지를 가져오는 식으로 진행되며 놀이이다. 놀이가 진행되는 도중에 집으로 도망가거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아이는 다음날부터 놀림감이 되고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된다.

■ 고무줄 놀이

이 놀이는 주로 여자 아이들이 하던 놀이로 고무줄은 주로 검은 고무줄을 사용하며 편을 나누어 고무줄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한다. 아이들은 이때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퐁당퐁당’ 등을 부른다. 놀이를 계속하면서 고무줄을 밟거나 넘어지면 아이들은 서로 놀이의 행위를 교체하게 된다.

3) 민간요법

민간요법은 일종의 응급 처치 수준의 처방법으로 민간에서 전해져 오는 치료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민간요법은 실제로 한 세대 이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인 만큼 현재 우리의 의식 생활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고양 지역에 전해오는 민간요법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개한테 물리면 문 개의 등덜미 털을 잘라 태워서 가루를 내 그것을 들기름에 섞어 물린 곳에 바른다.
- 벌에 쏘였을 때는 된장을 발라주는 것이 특효이며, 술을 거르고 남은 술찌개미를 발라주거나 오이 꼬지를 문지른다. 그리고 꿀이 있으면 발라준다. 꿀은 요즘에는 흔해도 예전에는 귀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 뱀에 물렸을 때는 머리카락으로 만든 다(타)락줄로 잡아 맨다. 다락은 머리카락을 새끼줄처럼 꼰 것인데 짚으로 만든 새끼줄보다 훨씬 튼튼해서 뱀의 독이 퍼지지 않게 줄라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뱀에 물리는 것을 예방할 때는 백반을 양말 속에 넣고 다닌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메주콩을 자루에 담아 아랫목에 두고 동상 걸린 부분을 자루 속에 넣고 있다. 또는 가지나무나 나뭇잎을 끓인 물에 발을 담근다.
- 더위를 먹었을 때는 소주에 마늘을 짓이겨 섞어 먹는다. 또는 논에 가서 벼 잎에 붙은 이슬을 받아다 먹는다.
- 상처가 나거나 베었을 때는 오랑캐풀을 짓이겨서 발라주거나, 쑥이나 어성초를 찧어서 바른다. 목화송이의 속껍질을 발라주기도 한다.
- 불에 데었을 때는 벽의 흙을 물에 풀어 먹었으며 시궁창 흙을 던 곳에 바르고 김으로 감싸주기도 했다. 또는 어떤 기름이든지



민간 요법을 전수하는
장성 미을 토박이 할머니들

기름을 많이 바르고 고운 소금을 그 위에 잔뜩 빌라주면 금방 화기가 빠졌다. 요즘에는 소주를 덴 부위에 부어 화기를 빼낸다.

■ 과거에는 일도 많았고 주방의 환경도 극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등이 터지거나 갈라졌다. 이렇게 손이 터지고 갈라졌을 때는 소기름을 등잔불에 대 기름이 지글지글 끓다가 떨어지는 것을 식혀 터진 손에다 빌라주면 나았다.

■ 연주창(명우리)에는 쇠비름을 뜯어서 엷을 고아 그것을 상처에 붙여준다.

■ 간기는 아기가 잠을 안 자고 울며, 얼굴이 노랗고 파란 뚫을 싸는 병이다.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의 마디에 있는 파란 핏줄을 따준다. 그리고 뽕나무 속에서 자라는 벌레를 잡아다 들기름에 뿐아준다.

■ 어린아이들이 열나고 아플 때는 땅딸기를 참기름에 졸여서 한 방울씩 먹인다.

■ 치통에는 인분을 조금 떠다가 뚝배기에 담아 화롯불에 끓여서 콩알만하게 만든 숨을 끓인 인분 물에 묻혀 아픈 치아에 물고 있다. 또는 인분을 파란 헝겊에 싸서 뜨거운 불에 달궈 치아에 대고 있다. 왕겨를 삶아서 그 물을 물고 있거나 태운 고추씨를 가루내서 물에 타 그 물을 물고 있어도 낫는다.

■ 치질은 지네와 약쑥에 불을 붙여서 요강에 넣고 요강에 앓아 김을 쏘이면 치료할 수 있다. 또 두부를 만들 때 쓰는 간수로 세척해 주면 치료에 도움이 되었고, 사금팔이 가운데에다 구멍을 조그맣게 내 환부에 대거나 부젓가락을 달궈서 항문에 넣고 환부를 지지면 나았다.

소나무 가지 사이의 송진이 많은 부분을 잘라서 뜨겁게 달구어 헝겊으로 썬 후 그것을 항문에 대어도 효과가 있으며, 창호지로 뚜껑을 만든 사발을 등겨 속에다 묻는다. 그리고 사발을 묻은 등겨를 태운다. 창호지 안쪽으로 등겨의 진이 고이는데 그것을 빌라주면 효과적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좁쌀겨를 사용하기도 한다.

■ 무좀이 심할 때는 무좀풀을 짓이겨서 바르거나 담뱃재를 발가락 사이마다 빌라준다. 또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일 때처럼 봉숭아에 백반을 넣어 짓이긴 다음 그것을 발가락 사이에 끼운다. 양초에 불을 켜서 그 촛농을 떨어뜨리면 시원하다.

■ 사마귀가 심할 때는 상가집에서 바느질하던 바늘을 구해 사마귀를 파면 낫는다.

■ 이질에는 매우 쓴 개죽나무 껍질을 벗겨 말린 후, 뽕아서 삼베

에 쳐서 꿀이나 조청 등을 섞어 소화제만하게 환약을 만들어 먹는다. 또는 비듬 나물을 참기름에 무쳐서 먹으면 낫는다.

■ 황달에는 참외 꼭지를 말려서 곱게 가루를 내 물과 함께 마신다.

■ 감기에는 파뿌리를 들기름에 졸여서 먹는다. 또는 머리카락 한 가닥과 엿기름, 들기름과 함께 파뿌리를 삶아서 그 국물을 마신다. 또는 인분을 섞은 흙을 환약처럼 만들어서 불에 태운 다음 먹는다.

9

고양의 집 이야기

1) 집의 생김새와 특징

고양 지역의 전통 가옥은 ㄱ자형의 안채에 ㄴ자형의 아래채(사랑채)가 결합하여 ㅁ자형의 배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집의 방향은 대개가 남향이며 동향의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주택의 방향이나 구조는 고양 지역이 면적이 좁고 지형적으로 큰 경계가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집의 안채는 부엌, 마루, 건넌방, 안방으로 구성된 것을 기본으로 하여 부엌 앞에 광 혹은 나뭇간이 붙는 경우가 많다. 부엌은 서울 지방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전퇴(앞쪽 마루)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 지은 집들은 이 전퇴 부분을 없애고 안방과 나란하게 하며 안방 앞에는 헛마루 대신 쪽마루를 시설하는 것이 보통이다. 바깥채는 크게 사랑방, 대문, 광, 외양간이 들어서는데 부엌의 구조는 없으며 아궁이는 각 방마다 설치했다.

ㅁ자형 이외에도 一자형, ㄱ자형, 뒤리집 등이 가끔 있다. ㄱ자형은 부엌, 안방, 마루, 건넌방의 평면 구성을 이루며, 一자형 집은 보통 부엌, 방, 마루의 구조로 구성된다.

집의 빼대는 막돌주춧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평사량 구조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고 내부장재로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 수수, 옥수수대를 사용한다.

그후 1950년 이후에 지어진 한옥들은 서울 지방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들이어서 5량 구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의 평사량 구조는 보 위에 동자 기둥을 세우고 도리 없이 서까래를 얹는 것이 대부분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3량 혹은 5량이 일반적이나 이 평

사량 구조는 경기도 서부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뼈대 구성 방식이다.

2) 집 공간의 이용

■ 안방

안방은 주택의 중심 부분에 위치하며 주인의 생활 및 취침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 안방 뒤편에는 이불장 등이 함께 있으며 벽장이 빌려 있어 책이나 음식물 등을 보관한다.

■ 다락

다락은 보통 안방 아랫목 위쪽에 작은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다락에는 필수품, 책, 양식 등이 보관되는데 부엌의 친장에 해당하게 된다.

■ 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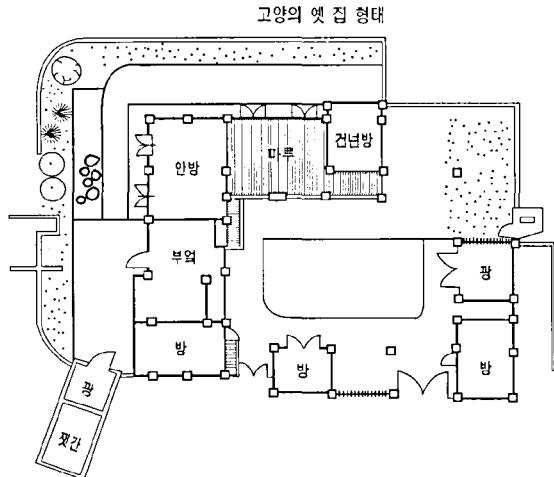
흔히 대청이라 부르는 공간으로서 여름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공간이다. 요즘 아파트의 거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예전에는 농산물을 다듬거나 무엇을 만들 때 주로 이용되었다. 부엌이 나무 아궁이인 경우에는 찬장, 뒤주 등을 보관하고 상부에는 시렁을 매 밥상 등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보관한다. 고양 지역에서는 마루를 보통 ‘말우’라 부른다.

■ 건년방

안방과의 사이에 있는 방으로 마루 건너편에 있다 하여 흔히 ‘건년방’으로 부른다. 건년방에는 주로 안방 주인의 자녀들이 기거하며 고양 지역에서는 ‘결음방’으로 부른다. 크기는 안방에 비해 작으며 헛마루 등을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 부엌

부엌은 안방 앞편에 위치하며 대부분 나뭇간과 병존한다. 흔히 아궁이는 3개이나 간혹 1~2개인 집도 있다. 아궁이는 부엌 바닥보다 1자 정도 낮게 시설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엌은 측면으로 장독대와 연결되는 쪽문이 이어져 있고 아궁이 위에는 가마솥이 걸려 있다.



■ 뒤뜰

부엌에서 이어진 뒤란(뒤곁)으로는 장독대, 우물 등이 만들어져 있다. 뒤란에는 호박, 고추 등을 심으며 터줏가리, 감나무 등도 뒤뜰에 위치한다. 뒤곁, 두ヶ, 뒤란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 집안의 음식물을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장독대도 이곳에 배치된다. 이외에 터줏가리, 굴뚝새 등도 위치한다.

■ 울타리

울타리는 뒤란 뒤편에 위치하여 집의 영역을 표시,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보통 울타리는 개나리, 싸리나무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돌과 흙을 적당히 쌓아 만드는 돌담의 경우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화장실, 앞마당 등이 하나의 집을 이룬다.

3) 집 지을 준비

아주 오래 전부터 집 짓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알려져 왔다. 좋은 지형을 살펴 집터를 고르는 일도 어렵고, 좋은 날을 잡아 모탕고사를 지내고, 숨씨 좋은 대목(大木)을 얻어 하나하나 집을 지어 나가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많다. 여기에 좋은 재목과 자재들을 알맞은 시기에 공급받는 일도 수월치 않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실제로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미리미리 몇년을 두고 준비하고 생각을 정리하여 두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주는 대목과 의논을 계속해야 한다. 또 선대 어른들이 어떤 경험으로 집을 지었는가, 어른들이 써 놓은 글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를 실제로 어떻게 반영시켜야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 한다.

홍만선(洪萬選)은 좋은 집을 짓기 위하여 여러 가지 궁리한 내용들을 그의 저서인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 제시하고 있다.



기와집의 돌벽과 대문

4) 반드시 피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 숫자의 사용에서는 반드시 홀수의 씀이 좋다고 하며, 따라서 1간, 3간으로 정한다. 기둥의 척수(尺數)나 서까래 · 도리 · 보의 규

모 등도 모두 홀수로 치목한다.

- 집을 낮고 어둡게 지어서는 안된다.
- 집의 평면 형상이 ‘日(일) · 月(월) · 口(구) · 吉(길)’의 글자 형상이면 좋고, ‘工(공) · 戸(호)’의 형상이면 불길하다.
- 문 · 창 · 벽을 배치함에 있어 서로 마주보도록 하는 것은 나쁘다. 부득이 창을 마주보게 해야 한다면 두 짝으로 구성하는 분합문보다는 외짝문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 뒷동산의 둑 불그려진 벼랑이 대청 뒤쪽에 있으면 나쁘다. 또 집 한채만 달랑 있는 것도 피해야 한다. 여러 채의 집들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사방에 서로 결함이 없도록 집을 짓는다. 좋은 날(손 없는 날, 집 주인의 운명에 맞는 날)을 택하고, 집의 규모는 식구의 반을 계산하여 짓는 것이므로 24간 정도면 된다. 큰 규모로 지어야 하며 새로 지은 집이 기왕에 있던 집에 너무 바싹 다가서 있으면 나쁘다. 더구나 새 집의 규모가 작으면 더욱 나쁘다.
- 살던 집의 벽을 뚫고 창을 내면 재앙이 뒤따른다. 뒷방을 구획하여 마루를 깔면 나쁘다.
- 집을 지을 때 집주인은 상례(喪禮)나 초상집에 가지 말아야 한다.

5) 조옥(造屋)

우리 조상들은 큰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더라도 큰 집 짓기를 꺼려 했다. 그 이유는 재력과 인력의 동원이 어렵고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여 자손들을 고스란히 양육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큰 집은 무덤에 이르고 작은 집은 좋은 일을 부른다’고 하였다.

6) 살림집을 꾸미는 법도

만일 선조의 무덤과 집이 같은 터에 자리잡게 될 경우, 집이 무덤 앞쪽에 있어야 한다. 무덤이 집 앞에 있으면 집의 기운을 빼앗고 맥을 끊어 집이 쇠락해진다. 또 집 뒤편에서 흘러드는 용맥(龍脈)을 억누르는 일은 집의 생기(生氣)를 빼앗기는 일이 되므로 이를 피해야 한다.

- 집에 다섯 가지 허(虛)한 점이 있으면 주인을 가난하게 한다.
 - 1허 : 집이 큰 것에 비하여 사람의 수가 적은 것.
 - 2허 : 대문은 큰데 집이 작은 것.
 - 3허 : 담장과 울타리가 불완전한 것.
 - 4허 : 우물과 부엌이 적절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것.
 - 5허 : 집터가 지나치게 넓어 집이 자리한 터보다 마당이 엄청나게 넓은 것.
 - 부잣집 터의 흙을 몰래 얻어 맑은 물에 개어 대문 위에 바르면 부자가 되고 그 부잣집도 해치지 않는다. 또 쇠똥을 땅에 묻고 쇠 뼈를 동남쪽에 묻으면 좋다.
 - 큰 돌을 집 네 귀퉁이에 눌러 두면 재이(災異)가 일어나지 않고, 설날 그믐날 큰 돌 또는 돌기와를 네 귀퉁이에 묻으면서 복승아 씨를 일곱 알 깨뜨리면 좋다.
 - 집 지을 때 기둥에 쓰는 나무를 뿌리 쪽이 하늘로 향하도록 거꾸로 쓰면,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계속 되므로, 솔 뚜껑으로 나무를 두드리며 거꾸로 섞어도 좋다고 자꾸 외쳐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길함을 얻을 수 있고, 사는 사람들도 두고두고 온존할 수 있다.
-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나 유익함을 추구하고 당시의 사상, 풍속 등을 짚으려는 모습들에서 우리의 산역사를 볼 수 있다.

7) 일반적인 자재

집을 짓는 데 있어 각 자재들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주인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였다.

목재의 선택은 옛부터 아주 까다로워서 어떤 나무를 어느 시기에 벌목하여 어떤 방법으로 운반했느냐에 따라 목재를 선호하는 기준이 달라졌다. 한강 주변의 옛 지도, 일산, 송포 지역에서는 한강의 뗏목을 이용해 집을 짓기도 했다. 특히 일산, 송포를 흐르는 장월평천은 그 이용이 매우 많았다.

집을 짓는 데는 목재 말고도 돌, 흙, 모래, 풀, 가죽, 석회, 철재, 종이, 수수, 슬레이트, 유리, 벗짚 등의 자재와 구워서 만든 기와, 벽돌, 상하수도관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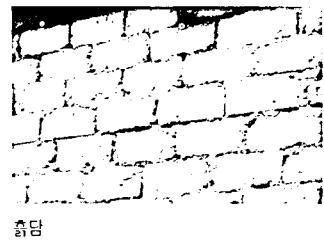
■ 목재의 선택

- 소나무를 벌목할 때에는 반드시 길일을 택해야 한다. 그래야 나무가 뒤틀리지 않는다.
- 소나무를 벌목할 때에는 날씨가 쾌청해야 한다. 비가 와 껍질에 물이 먹게 되면 나쁘다. 또 오후 3~5시경에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흰개미가 살지 못한다.
- 집의 재목으로는 소나무가 으뜸이다.
- 4월과 7월에 날을 받아 벌목하면 벌레가 먹지 않고 질기다.
- 재목은 구부러진 것, 벌레 먹은 것은 피한다. 또 죽은 나무나 말라 비틀어진 것, 벼락 맞은 나무등걸이나 단풍나무, 대추나무, 혹은 사당이나 법당 건물, 관아 건물을 뜯은 재목, 베어서 뜯어낸 나무는 절대 쓰지 않는다. 서낭당의 신수사목이나 새가 동우리를 턴 나무로도 집을 짓지 않는다. 집에 쓸 수 없는 나무를 쓸데없이 벌목해서도 안된다.
- 얇은 나무를 이어서 기둥이나 들판, 도리에 사용하는 것은 피한다. 또 나무를 거꾸로 세우는 일도 매우 나쁘다.

■ 흙

토재(土材)에는 땅에서 흙을 파 가공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공하는 경우는 주로 두 가지 이상의 흙을 섞는 방식을 사용한다.

-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명개 : 맥질 하는데 쓰는 흙. 갯가나 흙탕물이 지나간 자리에 앙금앉은 부드럽고 고운 흙(매흙).
- 모래 : 모래 흙을 이겨서 사용하면, 굳으면 돌처럼 단단해져 입사 기초나 흙담, 또는 상화토를 만드는 데 좋다.
- 진흙 : 진흙은 홍토라고도 부르는데 대체적으로 붉은 기가 짙고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잔흙이나 찰흙과는 다르다. 물을 뺏고 이기면 차져서 전득거리고, 마르면 단단해진다. 모래가 적은 분말이 주성분이어서 토담치는데, 초맥하는데, 기와를 이거나 맞담 쌓는데, 구들을 놓거나 부뚜막을 거는 데 쓰인다.
- 잔흙 : 찰흙과 더불어 기와나 벽돌을 만들고 흙을 박아 심을 구성하는 데 쓰인다. 장석질(長石質)이 많아 잘 섞이고 차져서 옹기를 만드는 재료에도 이용된다. 색조는 갈색에 가깝다.
- 석회 : 흙을 이길 때 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강회가 쓰인다. 강회란 생석회를 이르는 말로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흙담

석회를 건축용 자재로 사용했다.

■석재(石材)

고양 지역에는 좋은 질의 화강암이 많아 옛부터 일반 집에 돌을 깎아 건축 재료로 사용했다. 다만 삼국사기 ‘왕조실록’에 보면 돌을 다듬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양 지역에서도 마음대로 돌을 다듬어 사용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 수수대 : 일반 초가나 작은 기와집을 지을 때 고양 지역에서는 벽의 내부장재로 수수대를 사용해 왔다. 보통 수수대를 내부 재료로 사용할 경우 가느다란 잡목도 동시에 사용하며, 이는 토벽으로 집을 지을 때 주로 쓰인다.

- 풀, 벗짚 : 초가 지붕을 올릴 경우 그 재료로 고양 지역에서는 벗짚을 엮어 ‘이엉’을 만들어 썼다. 또 송포, 지도 지역에서는 벗짚풀과는 달리 ‘달’이라 부르는 ‘갈당’ 일종의 풀을 집 짓는 데 사용했다. 이 달풀은 한강 주변 습지에 서식하던 것으로 이 일대 주민들은 연료로 사용하거나 토산품을 만들었다.

이밖에도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내부장재로 철, 구리 등이 사용되었다.

10

고양의 김치 이야기

고양 지역은 풍부한 채소를 바탕으로 많은 김치를 만들어 왔다. 김치는 그 종류와 맛이 각 지방의 기후와 풍습에 따라, 또 각 가정의 기호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북부에서는 김치를 국물이 많고 조금 싱겁게 담그며, 남부에서는 김치에 물을 적게 넣는 반면 고춧가루와 젓갈, 소금을 많이 넣어 맵고 짜게 담근다. 또 중부 지방은 남부와 북부의 중간 정도의 간으로 젓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김치는 제철에 나오는 채소로 담가서 먹는 제철 김치와 겨울을 대비해서 담그는 김장 김치로 나눌 수 있는데, 제철 김치도 봄에는 봄배추 김치, 달래 김치, 여름에는 오이소박이, 열무 물김치, 가을에는 햇배추 김치, 깍두기를 주로 담그며 김장 김치로는 무와 배추를 주재료로 한 통배추 김치, 깍두기, 동치미 등을 담근다.

고양시 전통의 저장 김치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동치미

한겨울 시원하고 싸한 맛이 그만인 동치미는 입동 전이나 입동 3~4일 후에 담근다. 비교적 몸매가 가늘고 단단하며 잔잔하게 보기 좋은 무를 골라 잘 셋어 소금에 둉굴린다. 무에서 물이 배어 나오면 소금에 절여 노랗게 삭은 고추를 함께 넣은 다음 가제 헝겊에 마늘과 생강을 싸서 무 사이사이에 같이 넣는다. 배는 동치미 무와 같이 통배로 꺾아 넣는다.

이때 쪽파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중간중간 넣어둔다. 그리고 15일 내지 한 달 사이 입맛에 맞게 익었을 때 꺼내 먹으면 계절에 맞는 동치미 특유의 맛이 배어 나온다. 단지에 재료를 담은 후 무청과 같은 우거지를 덮어 줌으로써 시원한 맛을 냈고 짚을 덮어 들뜨지 않게 하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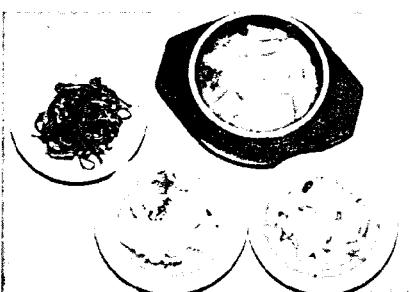
2)깍두기

깍두기는 깍둑깍둑 썰었다 하여 '깍두기'라고도 하고 정사각형으로 자그마하게 송송 썰었다 하여 '송송이'라고도 하였다.

고양에서는 특히 깍두기를 작고 아담한 크기로 썰어 한입에 맛 좋고 보기 좋게 먹도록 하였으며 양념 중 막고춧가루를 넣어, 익은 후 국물이 걸죽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깍두기를 버무릴 때 갖을 넣고 손으로 골고루 섞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익혀두었다가 매콤하고 맛깔스러운 깍두기를 꺼내 먹었다.

3)배추 김치(포기 김치)

속이 일차고 색깔이 희며 힘줄이 적어 연한 맛이 도는 배추를 골라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 마을 아녀자들이 모여 김장 김치를 담궜다. 이 날은 아이들과 동네분들의 즐거운 얘기 소리로 집 안이 떠들썩한데 이것이 바로 겨울나기의 시작이었다. 우선 김장 담그기 전날 배추를 하루 저녁 더운 소금물에 절여 아침에 꺼내 물을 뺀 후 속을 넣는다. 이때 소금물의 농도는 배추 50포기에 소금 한 말 정도로 한다. 고양의 선조들은 배추 절임에서 60~70%의 맛을 냈다고 할 정도로 절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속을



김치의 여러 종류와 된장찌개

버무릴 때 양념으로 갖은 양념과 비타민 C가 많은 고추, 갖 등을 넣고, 어패류로는 굴, 동태, 오징어, 조기, 황선택 등을 속으로 넣었다. 김치를 다 담그고 나면 아녀자들은 그 집에 서 담근 속과 포기를 따로

조금씩 가져가 그날 반찬으로 먹으며 정을 나눴다. 특히 배추 김치는 겨울 내내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담그는데 김삿갓, 김치 부침, 김치 볶음 등 김치만으로도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 겨우내 상에 올리기도 했다. 또 단지에 담을 때 중간중간 통 무를 크게 썰어 넣어 두었다가 김치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국물이 시원하고 맛이 좋다.

4) 총각 김치

알타리 김치라고도 하는 이 김치는 무에 잔털이 남지 않도록 잘 다듬는다. 소금에 절여 물을 빼고 갖은 양념을 해 버무려 줄기를 돌돌 말아 단지에 담은 후 절인 무청을 덮고 소금을 뿌려 돌로 눌러 놓는다. 이때 무청에서 나는 독특한 풀 냄새를 없애기 위해 고춧가루 양념에 찹쌀풀을 첨가시키기도 했다.

5) 짠지

외무를 셋어서 항아리에 넣고, 그 위에 소금을 뿐려 매콤한 맛을 우려낸 후, 노르스름한 색깔을 내기 위해 고추씨를 뿌린다. 그대로 저장해 두었다가 이른 봄에 꺼내어 먹는다. 그밖에 일부 절임 김치는 저온 저장법에 의해 이듬해 초여름까지 먹는 것도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군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우젓을 넣지 않고 소금에만 절이는 것이다.

6) 나박 김치

무는 얇게 썬다. 썰어 놓은 무와 배추를 30분 간 소금에 절인 후 물에 헹구어 전진다. 무에 고춧가루로 물을 들인 후 미나리, 파, 마늘, 생강, 배추 채썬 것, 붉은 고추를 넣고 버무린다. 버무린 재료에 소금 물을 넉넉하게 부어 놓는다.

7)정월 대보름과 음식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한해의 첫 번째 보름달이라 하여 특별히 한해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풍습이 전한다. 토정비결을 보고 나쁘다면 보름 안에 예방하도록 한다. 또 '홍수택이'라 하여 단골 만신집에 가서 1년 홍수를 막는 풍습도 전한다.

대보름날 새벽에 1년 내 귀가 밟으라는 뜻으로 귀 밟이술을 마시고 밤, 호도, 땅콩, 잣 등을 이를 속에서 깨물어 1년 내 부스럼을 않지 말라고 했다. 이날은 오곡밥, 약식, 고기 등을 먹고 특히 아홉 가지 나물을 반찬으로 먹는데 묵은 반찬은 먹지 않았다. 놀이에는 달맞이, 지신밟기 등이 있고 '낫갈이 쌓기' 마당에 가을이면 낫갈이 쌓을 자리에 미리 짚으로 우물 정자를 놓고 풍년 농사를 비는 풍속과, 대추나무, 감나무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가지가 잘 뻗어 열매가 많이 열리기를 비는 '과일 나무 장가 보내기'라는 풍속이 있다.

■오곡밥

찹쌀, 수수, 조, 팥, 콩을 깨끗이 씻어서 따뜻한 물에 담가 놓는다. 충분히 불린 후 잘 헹구어 시루에 넣어 찔 때 물을 뿌려가면서 익힌다. 이때 팥은 잘 익지 않으므로 미리 삶아서 넣어야 하며 조는 씻어서 맨 위에 뿌려 놓고 익힌다. 다 익은 후에는 소금물로 약간의 간을 하여 먹는다.

나물류는 모두 볶거나 데친 숙채나물로 지방마다 그 종류는 다양하지만 아홉 가지 나물을 먹는다.

■무나물

무를 채 썰어 부서지지 않게 적당히 볶다가 양념하여 익힌 나물이다. 파, 마늘은 나중에 넣어 무치고 생강즙으로 독특한 향내를 낸다.

■시금치 나물

삶아서 물기를 꼭 짠 다음 양념을 하여 무친다. 이때 약간의 소금물에 삶아야 간이 들고 담백한 맛이 난다. 끝으로 실고추를 고명으로 얹고 후춧가루로 맛을 낸다.

■고사리 나물

고사리를 쌀뜨물에 담가 두었다가 쌀뜨물째 삶는다. 건져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 볶으면서 양념을 하고 파, 마늘은 나중에 넣는다. 깨소금과 후춧가루로 맛을 낸다.

■ 도라지 나물

도라지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쓴맛이 나기 때문에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놓는다. 소금물에 삶아서 쓴맛을 뺀 다음 적당한 크기로 썰어 볶으면서 양념을 한다.

이밖에도 시래기 나물, 호박오가리 나물, 막김치 등이 있다.

11

고양의 옛 시장 이야기

1) 기록에 나타난 고양의 장시

문헌에 나타난 고양 땅의 장시는 사포(巴浦, 옛 송포면 대화리 지역)장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고양군지」 방리조(坊里條)에 사포면 성저리의 하위 촌락으로 장리촌(場里村)이 나와 있다. 물론 이 문헌에는 이곳에 장이 섰다는 기록은 없지만 지명이 그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즉 오늘날 장성 마을 인근에도 장촌(옛 대화 3리)이란 지명이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이 장리촌이 그 뒤에 기록되어진 '사포장'임을 알 수 있다. 또 1770년에 나온 「동국문헌비고」에는 고양에 세 개의 장이 기록되어 있다. 사포(巴浦), 사애(沙崖), 신원리(新院里)장이 그것이다.

이보다 60여 년 가량 뒤에 나온 「임원경제지(林圓經濟志·1827)」에는 고양 지역에 모두 9개의 장이 기록되어 있다. 임원경제지는 장시의 위치와 개장일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장과 거래 품목을 기록했는데 신원장에서는 쌀, 콩, 마포, 고기, 소금, 과일 등이 거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863년경에 나온 「대동지지(大東地誌)」에는 사포(3, 8일장), 백석(5, 10일장), 신원(4, 9일장)장이 있는데 여기서 동국문헌비고에 표기된 사애장이 행주장으로, 그리고 나머지 7개 장은 없어지고 백석장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기전읍지」(1894~1895년)에는 장시에 관한 항목은 없고, 다만 고양군에 장시가 네 곳 있어서 관에서 장세를 걷었다는 기록뿐이다. 장시가 섰던 네 곳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일제가 기록한 「한국수산지」(1908년)에는 백석장(5, 10일)과 일산장(3, 8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양군지 아래로 줄곧 나오던

사포장이 사라지고 새로이 일산장이 등장했다.

근래의 대표적인 '사포', '백석', '신원' 세 장의 특징을 보면 모두 배의 운항이 가능하여 상선이 접근하기 쉬운, 즉 하천과 육로가 만나는 곳에 있었다. 특히 사포장은 한강변에 인접하여 한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하천을 끼고 있다. 지금은 사포장 부근이 송포 평야를 이루고 있으나 한강둑 축조 이전에는 갯벌과 농로 사이에 작은 하천이 있었다. 백석장도 사포장과 마찬가지로 백석천(현재는 도춘천)을 끼고 있으며 한강 제방 축조(1926~1932년) 이전에는 백석마을 훤돌까지 배가 들어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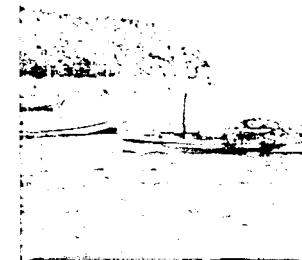
신원장(고양시청으로부터 동쪽 3km 정도 거리에 위치)은 나머지 두 장보다는 훨씬 내륙에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곡릉천이란 보다 큰 하천이 관서대로와 마주치는 곳에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양시의 전통적인 장은 수로 교통과 육로 교통에 의지한 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08년 경의선 철도가 개통되어 고양 지역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고양 시장 체계에 큰 변화가 왔다. 즉, 고양 지역의 대표적인 수로 교통에 의지한 백석장과 신원장은 점차 위세를 잃고 철도역이 놓인 일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장이 형성되었다. 그후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 한강둑이 새로이 건설됨으로써 백석장은 배의 운항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포장과 같이 일산장에 상권을 모두 빼앗기고 소멸되어 버렸다. 또 신원장도 경의선 부설, 신작로(경의대로)의 발달로 봉일천, 금촌장에 그 상권을 빼앗겼으며 고양군청이 서울로 이전하게 된 1910년대 초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 후기 고양의 옛 재래 시장 현황표〉

장 시	위 치	개장일
신원장	군 남쪽 10리 원당면	3, 8
휴조암장	군 서쪽 10리 사리대면	1, 6
사포장	군 서쪽 30리 사포면	3, 8
덕온리장	군 서쪽 40리 하도면	3, 8
덕수천장	군 남쪽 15리 덕수면	4, 9
이패리장	군 서쪽 20리 구지도면	4, 9
행주장	군 서쪽 30리 구지도면	1, 6
엄포장	군 서쪽 20리 구지도면	1, 6
하패리장	군 서쪽 20리 하패리	1, 6



행주장이 섰던 행주나루터

2) 고양 사람들이 이용하던 재래 시장

■ 일산장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일산장

일산장은 1908년 경의선이 개통되어 일산역이 생김에 따라 처음 생긴 장이다. 지금 일산 신시가지에 속한 옛 송포면의 사포장이었던 대화동 지역과 약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이미 없어진 사포장과 새로 생긴 일산장의 개장일이 3, 8일로 동일한 것을 볼 때 일산 와야촌 마을에 역이 생김으로써 사포장이었던 장이 일산으로 옮겨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상설 점포가 일산역 부근과 일산 사거리로 이어진 도로 주변에 펼쳐져 있다.

■ 사포장

사포장은 옛 대화 3리 장말·장촌 마을 부근에 있던 장으로 현재는 그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 개장일은 3, 8일이었으며 주로 선박을 이용하여 육지와 연결하는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8년 경의선이 개통되고 인근에 일산역이 생김에 따라 장이 일산으로 옮겨가 계승되었다.

■ 백석장

백석장은 옛 일산읍 백석 4리 핸들 마을에 있던 장으로 현재의 백석동 백석공원 인근 지역이며 일명 '핸들 구장터'라 부르는 곳이다. 이 장의 개장일은 5, 10일이었으며 거래되었던 물품들은 농산물 및 소금, 어류 등의 농산 가공품들이었다.

■ 봉일천장

일명 공릉장(恭陵場)이라고도 불리는데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에 위치하고 있다. 동국문헌비고에 2, 7일 장으로 표기된 아래 문헌에 계속 나오며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만기요람」(1808년)에는 공릉장이 전국에서 가장 큰 15개 장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고양 지역에서는 1960년대까지 소와 송아지를 살 때에 주로 이장을 이용하였다. 개장일은 출곧 2일과 7일이었다.

■ 마포장

마포장은 주로 수로를 이용한 선박으로 유지되었는데 한강을 이용한 많은 배들이 고양 땅을 지나 마포장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관내의 송포 지역 사람들은 마포에 있는 방앗간을 많이 이용한 듯한데 밀기울, 옥수수 가루, 보릿가루 등을 직접 마포에서 구하기도 했다.

■ 영천장

영천장은 지금의 서울시 독립문 부근의 장을 부르던 이름으로 고양시의 화전, 원당, 능곡, 일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장이다. 이곳에는 서울 장안의 물품과 경기 서북 지역의 농산품, 멜감 등이 교환되었는데 그 규모는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단했는데 현재는 영천 시장으로 남아 있다.

3) 주요 거래 품목

■ 수산물

동국여지승람에는 고양 땅의 토산으로 웅어, 게, 은구어, 숭어 등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수산물은 대부분 한강에서 채집되었고 웅어는 4~5월경, 게는 음력 7~9월경, 숭어는 음력 8월 경이었으며 모두 산 채로 영천이나 남대문 시장에 내다 팔았다.

■ 달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고양군 압도(지금의 신평동, 장항동)에서 특산물로 '달'이 언급되고 있다. 달은 흔히 갈당과 비슷한 것으로 달을 거두어 발과 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또 이 지역 부근에서는 달을 벽체(흙담집의 내부 자재)로도 사용하였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사람들이 고용되어 달을 잘라 거두기도 했으며 이를 서울로 가져다가 멜감으로 팔았다고 한다.

1920년대 후반에 시작된 한강 제방의 축조, 그리고 보다 결정적인 것은 1960년대, 70년대 초 이후 경지 정리로 인해 달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던 초장(草場)이 사라져 달은 이 지역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고양의 특산물인 '달'을
손질하고 있는 주인들

■ 아채

고양 지역에서는 집 근처 밭에서 채소를 재배하였다. 일부는 집에서 섭취하는 음식을 제외한 잉여물은 인근에 내다 팔았다. 특히 예전에는 철로를 이용하여 남대문·영천·모래내 시장에 팔았으며 요즈음에는 서울 부근 지역과 원당·능곡·일산을 중심으로 소매로 팔고 있다.

4) 오늘날의 고양 장시

현재까지 명목이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전통 시장인 일산장은 인근의 파주·고양 지역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경의선 부근에 주민이 증가하면서 일산장도 번창하였는데 일산 신시가지 지역의 민속·풍습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생활 필수품, 물물교환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일산장은 3, 8일 장으로 10여 년 전의 장 규모에 비해 매우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그 품목, 내용은 아직까지 전통 장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쌀, 보리, 두부, 콩, 옛, 깨, 참기름집 등 길게 이어진 일산 시장의 장터는 옛 우리의 경제 생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12

고양의 이로 난 나무 이야기

1) 산활동 느티나무 1그루

지정 번호: 경기도 나무 제5-105호

지정연월일 : 1982. 10. 15

수령 : 650년

소재지 : 덕양구 산활동 417 안말 마을

나무 크기 : 높이 12m, 가슴 높이 나무 둘레 9.2m, 나무 가지 직경 18m

학명 : Zelkova serrata Makino

고양시 산활동 안말[内村]에 위치해 있다. 나무 면적 350㎡의 거대한 나무로 느릅나무과에 속한다.

나무의 아랫부분은 목질부가 없이 퍼질부로 지탱하고 있으며 나무 줄기 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큰 밀동가지 하나가 2m 높이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이 중 한 가지가 동쪽을 향해 길게 이어져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전해 오는 옛이야기에 따르면 이 나무는 조선 태조 2년(1394년), 조선 왕조의 창업에 공이 커던 무학대사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심었다고 한다. 본래는 모두 세 그루였는데 두 그루는 죽고 지금은 한 그루만 남아 있다. 나무의 모양은 윗쪽 가지가 무성하고 오른쪽 가지는 상대적으로 빈약해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시 여기고 있는데 나뭇잎이 위에서부터 피면 봄에 모를 심을 때 논 위에서부터 아래로 심어 내려오고, 나뭇잎이 밑에서부터 위로 피면 모를 논 아래에서부터 위로 심어 올라간다고 한다. 이것은 나뭇잎이 밑에서부터 피면 물이 적어 홍년이 들 징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잎이 피기 시작하는

부위가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 풍년과 흥년을 미리 점쳐 보기도 했다. 잎이 아래에서 위로 피면 흥년이고, 위에서 아래로 피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2) 고양동 은행나무 1그루

지정 번호 : 경기도 나무 제5-106호

지정연월일 : 1982. 10. 15

수령 : 500년

소재지 : 덕양구 고양동 34 향교 마을

나무 크기 : 높이 24m, 가슴 높이 나무 둘레 6.7m, 나무 가지 직경 20m

학명 : *Ginkgo biloba* Linne



덕양구 고양동의 은행나무

고양시 고양동 향교 마을에 위치해 있다. 은행나무과에 속하며 총 면적 350㎡에 이른다.

나무 주위로 보호대가 돌려져 있는 이 나무는 두 개의 기둥 가지가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은행이 열리는 매우 튼튼한 나무이다. 나무 밑둥으로부터 2m 지점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고 표피가 매우 울퉁불퉁하다. 현재 북쪽의 나무 가지에서 하나가 갈라져 나와 지주대를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나무는 조선 시대에 나무 아래쪽에 있는 고양 관아에 부임한 어느 원님이 심은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은행은 남쪽 가지에만 치우쳐 열린다고 한다.

3) 덕은동 향나무 1그루

지정 번호 : 고양시 나무 제5-18-2호

지정연월일 : 1982. 10. 15

수령 : 400년

소재지 : 덕양구 덕은동 140

나무 크기 : 나무 높이 6m, 가슴 높이 둘레 2.3m, 가지 8m

학명 : *Juniperus chinensis* Linne

이 나무는 고양시 덕은동 대터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데 측백나무과에 속하며 총 면적 65㎡이다.

이 향나무는 두 개의 큰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작은 가지의 줄기 일부가 고사되었다. 나무는 전체적으로 동쪽을 향하고 있다. 동쪽 나무의 가지는 상하로 누워 있어 정면에서는 왜소하게 보이

나 측면에서는 우람해 보인다. 나뭇가지의 구멍에는 보존 치료를 실시해 각 가지가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일설에 의하면 전쟁이 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나무 밑으로 피난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이 매년 음력 10월에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지낸다고 한다.

4) 주엽동 회화나무 1그루

지정 번호 : 동 나무 제5-18-3-3호

지정연월일: 1982. 10. 15

수령 : 200년

소재지 : 일산구 주엽동 강선 마을 382

나무 크기 : 높이 20m, 가슴 높이 나무 둘레 3.9m, 나무 가지 12.6m

학명 : *Sophora japonica* Linne

이 나무는 일산 신시가지 내 주엽동 강선 마을 호수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콩과에 속하며 총 면적 150㎡에 이르고 있다.

지상으로부터 50cm 부위에 목질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보존 처리된 구멍이 있다. 나무 밀둥으로부터 3m 높이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강낭콩과 같은 나무 열매가 가지마다 열려 있다. 옛부터 나무의 꽃이 안쪽에서부터 피면 온 집안에 풍년이 들고 밖에서부터 피면 들과 논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일산 신시가지 내에 유일하게 보존된 큰 보호수이다.

일산 신시가지 내
주엽동의 회화나무



5) 북한동 귀룽나무 1그루

지정 번호 : 마을나무 제5-18-1-6-7호

지정연월일: 1994. 5. 12

수령 : 142년

소재지 : 덕양구 북한동 15번지 태고사 경내

나무 크기 : 높이 22m, 가슴 높이 둘레 22m, 나무 가지 20m

학명 : *Prunus padus* Linne

이 나무는 북한동 태고사 경내의 요사채 마당에 위치하고 있다. 매년 3월 20일경이면 나무 전체가 하얀 꽃으로 뒤덮이는데 마치 백설 같다고 한다. 특히 경내의 태고사 고찰과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이룬다. 오래 전부터 머리가 가려울 때 이 나뭇가지를 삶아서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민간요법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고양시의 보호수(명목)》

지정 번호	소재지	나무의 종 류	수령	키 (m)	기슴높이 돌레(m)	면적 (m ²)	유형	지 정 보호기한	나무에 얹힌 이야기
5-105	일산구 산청동 417	느티나무	650	12	9.2	350	느릅나무과	도	잎이 피는 것을 보고 풍·홍년을 알 수 있다 함. 무학대가 식재하였다 함.
5-106	덕양구 고양동 34	은행나무	500	24	6.7	350	은행나무과	도	2위 수간(樹幹) 우나무. 고양군 어느 원님의 식재하였다 하나 식재자 미상.
5-107	덕양구 고양동 235-1	느티나무 4본	500	20	3.4	890	느릅나무과	도	조선 성종 7년에 벽제관 기공시 벽제관 연못을 만들고 느티나무를 심은 것이라 함.
5-108	일산구 가좌동 34	은행나무	520	20	7.2	400	은행나무과	도	1위 수간 6이고 2위 수간 우인 상태. 지면 부위에서 접착되었음. 부락 주민들이 매년 가을 제사를 지냄.
5-109	일산구 덕이동 207	느티나무	520	25	5.2	370	느릅나무과	도	2위 수간. 잎이 위에서부터 피면 풍년, 잎이 아래서부터 위로 피면 홍년이 든다 함.
5-110	덕양구 오금동 3	느티나무	500	15	5.3	330	느릅나무과	도	소유자 이종열의 18대조가 식재. 잎이 골고루 잘 피면 풍년, 불균형하게 피면 홍년이 든다 함.
5-18-1	덕양구 북한동 331	향나무	350	7	2.3	80	촉백나무과	시	동공이 있었으나 시멘트로 메웠음. 수세가 좋음. 향을 사용기 위하여 나무를 상처 입히면 동네에 병이 난다 함.
5-18-2	덕양구 덕은동 140	향나무	400	6	2.3	65	촉백나무과	시	2위 수간. 그 중 작은 줄기의 가지가 일부 고사. 임진왜란 때 나무 밑으로 피난하였다 함. 부락 주인이 매년 가을 평안을 기원하는 제를 지냄.
5-18-3	덕양구 신원동 29	느티나무	350	15	4.2	200	느릅나무과	시	동공이 있으며 일부 가지가 고사하였음. 죽은 가지도 베어다 때면 우환이 있다 하여 죽은 가지도 보호하고 있음.
5-18-4	일산구 장항동 8	촉백나무	450	18	4.5	150	촉백나무과	시	5위 수간이며 1위 수간 고사. 연제군이 중국 사신으로 갔다가 이식. 나무 밑에서 호랑이가 살생을 한 일이 있다고 전해짐.
5-18-5	덕양구 대장동 59	향나무	350	14	2.4	50	촉백나무과	시	6.25사변 때 일부 불탔으며 목질부가 노출되었음.
5-18-7	일산구 법곳동 434	은행나무	450	20	5.1	200	은행나무과	시	상층부에 목질부가 노출되고 악간 고사 부분이 있음. 예전에는 강의 나루터로서 배들이 이 나무에 닻을 매고 물건을 매매하였다 함.
5-18-8	일산구 구산동	은행나무	350	25	4.5	200	은행나무과	시	송나무. 지상 4미터에서 큰 가지가 벼락에 의해 절단. 이조 때 피주 출신 성명 미상의 내시가 이곳에서 묘를 쓰고 치산기 위해 식재하였다 함.

지정 번호	소재지	나무의 종 류	수령	키 (m)	기슴높이 돌레(m)	면적 (m)	유형	지 정 보호기관	나무에 얹힌 이야기
5-18-11	덕양구 대자동	느티나무	300	10	4.4	100	느릅나무과	시	원 줄기 내부가 비어 있고 큰 가지가 고사되었음.
5-18-1-1	덕양구 용두동 330-1	회화나무	250	15	2.6	110	콩과	등	동공이 있음. 2위 수간.
5-18-1-2	덕양구 향동동 181	느티나무	200	20	3.4	260	느릅나무과	등	2위 수간. 상층부 가지 일부 고사.
5-18-3-3	일산구 주엽동 382	회화나무	200	20	3.9	150	콩과	등	동공이 있음. 나무의 꽃이 인쪽에서부터 피면 집안 풍년, 바깥에서부터 피면 들(논)에 풍년이라 함.
5-18-4-4	덕양구 문봉동 49	느티나무	200	16	3	250	느릅나무과	등	동공이 있음. 수세 양호.
5-18-4-5	덕양구 벽제동 50-1	느티나무	200	24	3.2	70	느릅나무과	등	우나무. 생육 상태가 양호하여 수세가 좋음.
5-18-4-6	일산구 시리현동 2	은행나무	200	21	3	200	은행나무과	등	2분(木)이 쌍립(雙立). 작은 나무가 이씨 집안 자(子)를 지칭. 큰 나무가 외손을 지칭. 큰 나무가 무성하여 외손의 집안이 번창한다 함.
5-18-2-7	덕양구 신원동 424	회화나무	250	20	2.4	260	콩과	동	밑 부분 내부가 비어 있음. 잎이 피는 것을 보고 풍흉을 예상한다 함.
5-18-5-8	덕양구 내곡동 13	느티나무	200	15	4	100	느릅나무과	등	목질부가 약간 노출되었으며 생장 양호. 동네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를 가을에 지내고 있음.
5-18-3-9	덕양구 벽제동 50-1	느티나무	300	26	5.3	200	느릅나무과	동	우나무. 매년 은행 결실이 좋음.
5-18-6-10	일산구 구산동	은행나무	300	25	32	200	은행나무과	동	우나무. 수세 양호.
5-18-1-6-7	덕양구 북현동	귀룡나무	142	22	2.2	200	귀룡나무과	마을	태고사 내에 있으며, 나무 밑에 있는 우물대 나무의 행나가 배어 있어 악수로 유명.
5-18-1-9-1	덕양구 오금동 301	은행나무	100	20	2.4	160	은행나무과	마을	잎이 피는 것을 보고 풍흉을 예상할 수 있다 함.
5-18-2-1-2	덕양구 주교동 산33	느티나무	120	18	2.4	300	느릅나무과	마을	석양과 단풍이 아름다음.
5-18-2-5-3	덕양구 원흥동 204	느티나무	120	15	2.4	100	느릅나무과	마을	임목 생장이 양호하여 지상에서 20미터 위치에 분자.
5-18-2-2-4	일산구 식자동 204	느티나무	150	18	3.2	250	느릅나무과	마을	동공이 있음. 일산대군의 손자 묘를 쓰고 묘의 풍치를 위하여 심은 나무. 나무를 꺾거나 절단하면 몸이 아프다 함.
5-18-2-4-5	덕양구 신원동 437	느티나무	150	12	3.8	100	느릅나무과	마을	지면이 약간 경사진 곳에서 생장하고 있어 밑부분이 노출.
5-18-2-4-6	덕양구 신원동 산 14	느티나무	100	20	2.6	100	느릅나무과	마을	나무가 튼튼하고 모양새가 좋음.

13

고양의 주요 행사와 특산물 이야기

1) 음력 정월 대보름 놀이

정월 대보름날의 쥐불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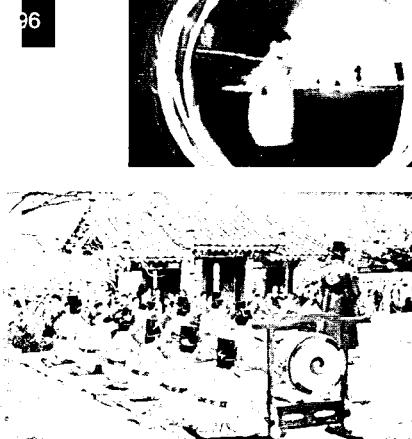


매년 고양문화원이 주관하고 있는 민속놀이 축제로 음력 정월 대보름날 실시된다. 행사에는 달跷 만들기, 달跷 태우기, 쥐불놀이, 달님보기, 달점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가 열리며 새끼꼬기 등의 대회 등도 펼쳐진다. 이외에도 널뛰기, 그네뛰기, 줄다리기 행사 등도 있어 우리의 옛 전통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행사이다.

2) 행주대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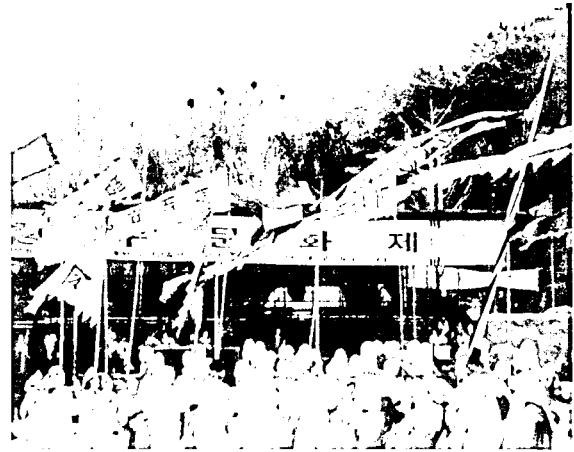
행주대첩제는 매년 3월 14일 행주산성 일대에서 펼쳐지는 문화 행사이다. 이 행사는 1593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격파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충장공 권을 장군을 기리는 제전 행사와 승리의 주역이 된 민, 관, 군, 의병, 승병, 여성들의 행주 열을 되새기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가장 주요한 행사 중의 하나인 충장사 제전 행사는 제전위원을 비롯해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을 장군의 영정이 모셔진 충장사에서 치루어지는데 초현관에는 고양시장이, 아현관에는 의회의장, 그리고 종현관에는 지역 유림의 대표가 맡게 된다. 이외에 민속놀이 한마당, 궁도(활쏘기 대회), 유적 답사 등도 펼쳐진다.

행주대첩제 충장사 제전 행사



3) 행주문화제

행주문화제는 매년 5월 초에 고양문화원이 주관하여 고양시 일대에서 펼치는 전통 민속 축제이다. 1996년 현재까지 제10회 행주문화제를 치루었으며 평상시에 쉽게 볼 수 없는 민속놀이, 전통놀이 등이 공연된다. 행주문화제는 62만 고양시민의 큰 잔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6년도에는 향토 역사 기행, 송포 호미걸이 공연, 진밭 두레파 공연, 행주 농악놀이, 신원초등학교 농악놀이를 비롯해 행주대첩 승전 굿, 궁도(활쏘기 대회), 서예 전시회, 탁본 전시회, 광대 줄타기, 전통 무용 춤공연, 경기민요 소리 공연, 만답, 연날리기 시연 등이 행주산성, 문예회관 등에서 치루어졌다.



행주문화제의 민속놀이 시현

4) 꽃 아가씨 선발대회 및 꽃 전시회

고양시와 경기 화훼협동조합이 주최, 주관하고 있는 이 행사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꽃을 다른 지역에 널리 홍보하고 고양시민 간의 꽃 축제로 만들기 위해 준비된 행사이다. 보통 5월 중에 실시하며 꽃 아가씨 선발대회는 문예회관에서, 꽃 전시회는 일산의 호수공원에서 치루어지고 있다.

5) 향토 역사 기행, 향토 학교

지역의 학생 및 일반 시민들에게 향토의 애향심과 문화재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고양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이다. 역사 기행은 관내의 문화 유산을 비롯해 마을, 전설이 있는 현장을 현장 학습으로 연결하는 교육 내용으로, 1개월에 1회씩 실시하고 있다. 향토 학교는 여름, 겨울 방학을 이용해 관내 시민 및 학생들에게 조상들의 전통적인 삶을 체험하게 하고 고양시의 여러 가지 학습 내용을 2박 3일 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행사이다.

6) 학생 예능 발표대회

고양 교육청이 주관하는 문예 행사로 고양시 관내 각 학교의 문예 활동을 진작시키고 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높여주기 위해 치루어지고 있다. 시청 내의 문예회관에서 펼쳐지며 국악 공연, 합창, 무용, 합주 등 다양한 형태의 경연이 펼쳐진다.

7) 고양시민의 날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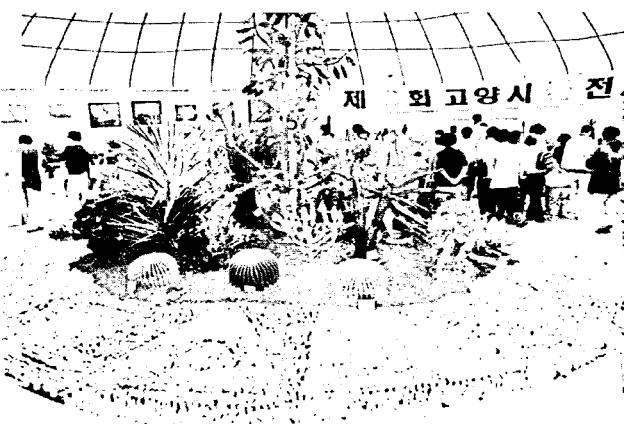
매년 10월 1일 고양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고양시민 모두의 화합과 발전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준비된 행사이다. 이 행사에는 고양시 관내 34개 행정동을 중심으로 수만 명의 고양시민들이 매년 참가하고 있는데 축구, 족구, 배구, 줄다리기 등 체육대회 행사와 민속놀이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 내용이 있다.

8) '97 고양 세계 꽃박람회 개최(WFEK '97)

—주제 : 꽃과 인간의 만남

고양시의 대표적인 향토 특산물, 꽃을 전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이를 통해 고양시의 화훼 산업을 육성, 자족 도시의 기능을 넓히기 위한 고양시 역사상 최대의 행사이다.

호수공원에서 개최된
꽃 전시회에 전시된 선인장의 아름다운 모습



■ 박람회 개요

기 간 : '97. 5. 3~5. 18(16일 간)
장 소 : 일산 호수공원
규 모 : 총 30만 평(호수 10만 평)
참 가 : 외국 15개국 50개 업체, 국내 1,000개 업체
성 격 : 국내 최초의 세계 꽃박람회
기본 방침 : 공직자 경영 개념이 조화된 박람회 개최
소요 예산 : 100억(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시설 설치

국내 전시 시설 : 원형 텐트식(디스관 1,500평, 자연관 1,500평, 첨단 농업관 1,000평), 자생 식물원, 수생 식물원, 각종 공

원, 꽃 조형물(토피어리, 꽃탑), 장미공원, 초화류 동산, 구근류 동산, 꽃길 8km 등 동산 이용 자연 경관 연출

보조 시설: 꽃 전시회와 어우러지는 이벤트 행사 실시(조각 공원, 공연 시설, 수생 유람 시설, 서비스 시설 등)

주차 시설: 5만 평(5천 대분)

9) 고양의 특산물

고양시는 산과 물이 좋아 옛부터 많은 특산물이 있어 왔다. 특히 북한산과 통일로 주변, 그리고 한강 주변의 넓은 벌판에 이러한 토산물이 많이 출토되어 왔다.

■ 행주 웅어

행주 웅어는 밀물과 썰물이 있는 강 하류에서 3~5월에 잡히는데 고양 땅에서는 행주나루 부근에서 특히 많이 잡혔다. 웅어는 바닷고기로 강을 따라 산란기를 맞이한다. 요즈음에는 몇몇 음식점에서 회, 덮밥, 구이 등으로 요리하고 있다. 예전에는 많은 양의 웅어가 잡혔으나 타지에 희귀성 우량으로 널리 알려져 고양 사람보다 인근의 서울 사람들이 일류 음식으로 즐겼다고 한다.



■ 떨감

서울에 근대적인 연료가 보편화되기 이전까지 서울 시내 떨감의 대부분은 고양 사람들이 충당해 주었다. 특히 산이 많은 옛 벽제, 신도, 원당 등지에서는 나무의 가지를 쳐 적당한 크기로 잘라 지게 위에 묶어 서울 영천, 염천교 장에 내다 팔곤 하였다.

■ 꽃(화훼 산업), 선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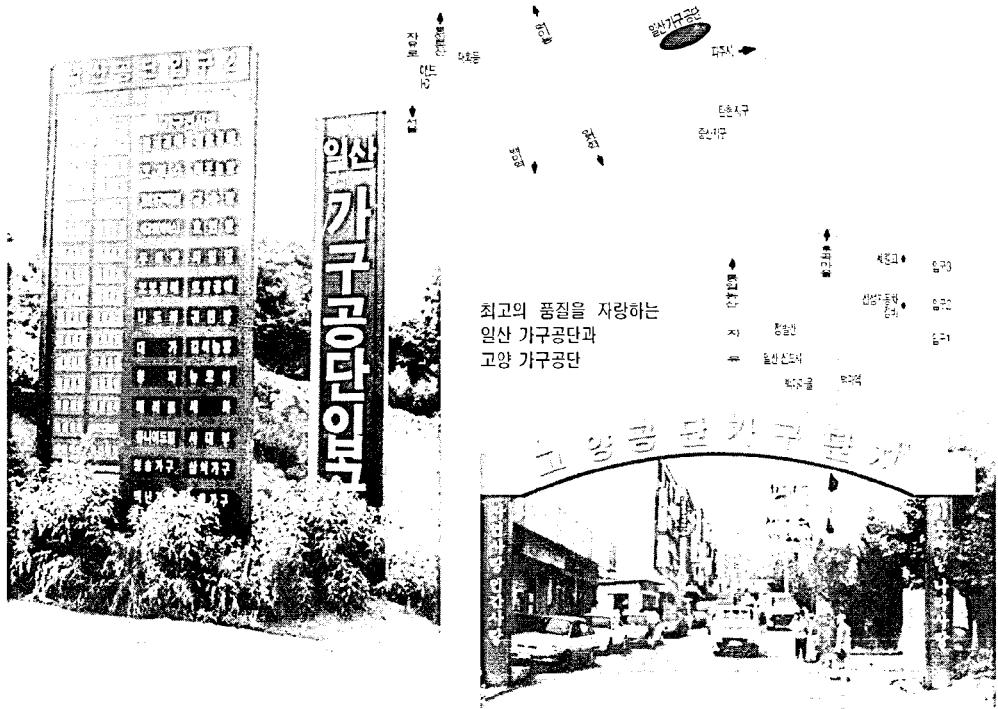
1980년 중반 이후부터 고양 지역에는 화훼를 중심으로 한 근교 농업이 급격히 발달했다. 통일로와 310, 398번 도로 주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장미, 국화, 관상수 등을 재배해 서울 시민들에게 공급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대규모의 선인장, 수목원 등이 새로 등장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대의 화훼 단지가 육성되었다.

■ 가구 산업

가구 산업은 1980년대부터 식사동 소재의 고양공단을 비롯해, 덕이동 소재의 일산공단, 항동동 등에서 급속히 성장했다. 이곳에서 가구의 제작, 전시, 판매 등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수백 개 업체가 우수한 가구, 값싸고 좋은 양질의 가구를 제작, 시판하고 있다.

고양시에 등록된 가구 공장은 총 330여 개 업체인데 이 중 일산구 덕이동에 위치한 일산 가구공단은 총 110개, 식사동에 소재한 고양 가구공단은 100여 개이다. 그리고 덕양구 항동동 공단에는 총 60여 개의 업체가 위치하고 있다.

20여 만 평의 부지 위에 소재한 230여 개 가구 공장은, 대기업의 유명 가구들이 기계 생산에 의한 대량 생산 방식인 테 반해 가구의 전통 공법인 짜맞추기 공법을 그대로 사용해 가구의 매무시가 미끈하고 튼튼한 장점을 갖고 있다. 품목도 나전칠기, 등나무, 원목 나무 등을 비롯해 초현대 감각의 가구까지 다양한 가구가 생산된다. 이들은 소비자와 직접 교류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양 공단은 서울과 가까운 위치, 넓고 다양한 가구의 전시 및 선택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 이들 가구 업체들은 스스로 공단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새상품 아이디어 개발, 미인선발대회, 장인 선출, 디자인상 수상, 신혼부부 선발대회, 가구 축제 중 할인 판매 등 다양한 행사를 갖고 있다.

■ 채소

197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비닐하우스의 활성화로 1년 내내 사시사철 싱싱한 채소를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원당동의 오이, 도내동의 파리 고추, 대장동의 부추, 산황동의 깻잎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일산 옹기

예전에 지금의 일산역 부근에 대규모의 옹기점들이 위치해 있었다. 일산은 옛부터 경의선 기차를 이용하여 양질의 옹기(독, 항아리)를 대량으로 생산하던 곳으로 지금도 독재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 갈당(갈대)

지금의 한강 주변에 대규모로 자생하여 많은 특산물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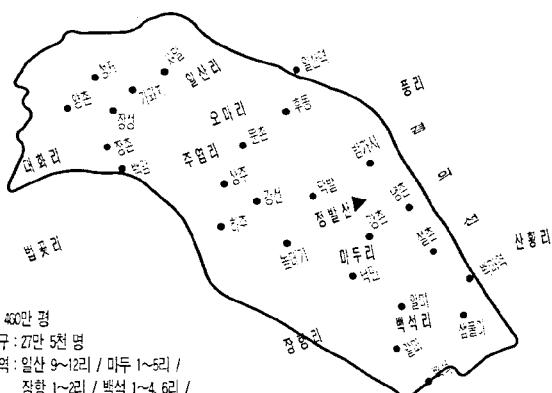
코양의 새로 만들어진 마을 이야기

1) 일산 신시가지

(1) 개관과 역사

옛 일산읍은 지금의 고양시청이 있는 원당(주교동)을 기준으로 고양시의 서북쪽에 위치했던 행정 구역의 명칭이다. 일산읍의 북쪽으로 파주시, 교하면과 인접하고, 서쪽으로는 송포면, 남쪽으로는 김포군과 지도읍, 그리고 동쪽으로는 원당읍, 지도읍, 벽제읍과 경계하고 있던 곳이다.

〈신시가지 개발 전의 일산 안내도〉



- 총연적 : 400만 명
 - 예정 인구 : 27만 5천 명
 - 포함 지역 : 일산 9~12리 / 마두 1~5리 /
 장항 1~2리 / 백석 1~4, 6리 /
 대학 1~5리 / 주엽 1~6리
 - 교육 기관 : 백마초등학교
 - 교통 : 경의선 열차, 388번 지방도로(한곡~일산간)

포군과 지도읍, 그리고 동쪽으로는 원당읍, 지도읍, 벽제읍과 경계하고 있던 곳이다.

원래 일산읍은 시 승격 전까지 일산리 13개 행정리, 장항리 6개 리, 풍리 3개 리, 마두리 5개 리, 백석리 6개 리, 주엽리 6개 리, 탄현리 2개 리, 산황리 1개 리로 모두 8개 법정리에 42개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일산 신시가지에 포함된 곳은 일산리(9~12리), 백석리(1~4, 6리), 마두리(1~5리), 장항리(1~2리), 주엽리(1~6리) 지역에 송포면 대화리(3~5리)까지 하여 모두 6개 법정리에 25개 행정

리가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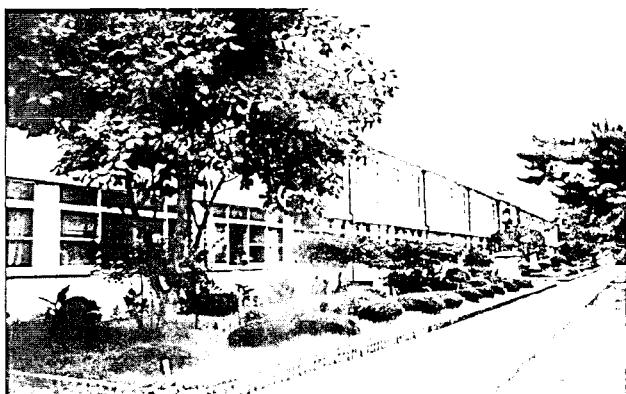
조선 중종 때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일산읍의 옛 이름인 중면은 ‘고양현의 서쪽으로 처음이 15리, 끝이 30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양군지에 보면 중면은 ‘구지도면과, 서쪽으로 사포면과 접해 있으면서 남쪽에 흐르는 강은 김포와 맞닿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중면에는 지전일패리, 후곡천, 주아곡촌리, 와야촌, 저전이패리, 마두리, 장항리, 내곡촌, 주엽리, 독종촌리, 풍동리, 쇠곡촌, 산황리, 석곶촌, 백석리, 방기리, 갈두리, 천초리, 도중리, 상도촌, 무검촌 등의 마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산읍의 전신인 중면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로 부·군·면 폐합 당시 고양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 중면(中面)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198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005호로 읍 승격에 따라 읍 소재지인 일산리의 명칭을 따서 붙여진 명칭인 것이다.

일산이란 지명에 대해서는 세 가지 유래설이 있는데 그 하나는 옛 송포면 덕이 2리의 옛 지명이 한산인데 일제 식민지 시대에 경의선을 부설하면서 당시의 와야촌에 새로운 역 명칭을 일산으로 명명하면서 붙여진 지명이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일산 지역 부근의 고봉산을 하나의 산[一山]으로 비하,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만든 지명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설은 일산의 한 집안 가승(한 집안의 내력을 적어 놓은 죽보와 같은 작은 책자)에 의하여 일산이 고유의 지명이라는 설이다. 현재 일산 신시가지 지역은 중앙의 정발산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산줄기는 모두 사라졌고 신시가지 지역 내에 남게 된 것은 옛 일산 9리(일산 4동) 밤가시 초가와 백마역, 그리고 일부 나무뿐이며 각 마을의 촌락은 그 흔적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또 이곳에 살던 수만 명의 주민들은 인근 고양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또한 옛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 속에 살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 고향의 백석리의 방터골, 청천말, 알미부락, 헌둘, 백마, 그리고 마두리의 낙민, 강촌, 설촌, 냉촌, 산동네, 그리고 일산리의 밤가시, 후동, 수용소, 문화촌,

백마 초등학교의 옛 모습



주엽리의 새말, 오마리, 문촌, 강재, 상주, 하주, 장항리의 노루메기, 닥밭, 대화리의 장촌, 성저리, 장성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 기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일산의 유물

■ 범씨

일산 신시가지 발굴 지역 중 범씨 유물은 1지역(선사문화연구소), 2지역(충북대학교), 3지역(단국대학교) 등 모두 3곳에서 발견되었다.

이들 범씨가 출토된 1지역 지층은 대부분 갈색 토탄층 상부인데 모두 10여 기가 발견되었다. 범씨 분석 전문가인 허문희 교수(전 서울대 농학대학 교수)에 의하면 ‘낱알의 모습은 자포니카 (*japonica*)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고대형답게 줄기(소수경) 쪽이 좁고 벼 끝쪽이 넓으며, 끝쪽에 억세고 긴 실털을 갖고 있어서 고대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충북대학교 중앙박물관이 조사를 맡은 2지역에서는 거의 완형에 가까운 범씨가 출토되었는데 범씨 측정 전문 기관인 미국 베타 연구소에서는 보정 연대를 5,020년으로 추정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가와지 범씨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범씨의 출토는 수천 년 전 고양의 자연 환경과 주민의 정착 생활 등 많은 고고학적 연구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토기

신시가지 발굴 지역 4곳에서 출토된 토기의 숫자는 수천 점에 이른다. 토기는 대부분 지하 3~5m 사이의 토탄층에서 발견되었는데 손잡이, 입술 부분 등이 잘 보존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도 3지역(옛 주엽 1리 새말 지역)에서 출토된 새김무늬 토기는 최대 입술 지름 31.7cm, 발전 당시 높이 26.5cm의 규모이다.

이 토기는 뾰족밑 토기로 보이는데 몸체 윗부분이 불룩한 모습을 하고 고운 찰흙질 바탕 흙에 석영, 장석과 비침을 넣어 만든 질 그릇 종류이다. 무늬는 입술 부분부터 시작해 몸체 전면에 이어져 있는데 토기에 새겨진 무늬는 부위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 진다. 입술에서 몸체의 2/3 지점까지는 물고기 등뼈 무늬가 있고, 그 아래부분에는 짧은 줄 무늬가 있다.

입술 쪽에서 보면 먼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여 빗금

을 내려 그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무늬와 빗금의 길이는 5~9cm에 이른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를 향하여 반대 방향으로 빗금을 내려 그어 갔으며 이렇게 방향을 달리하는 빗금 무늬의 따가 몸체 전면에 5단 정도 있다.

이 새김무늬 토기는 흔히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빗살무늬 토기로 고양 지역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복원된 유일한 토기이다.

■ 석기

발굴 조사에서 발견된 석기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것이 모두 발견되었다. 특히 옛 백석 3리(알미 마을) 주먹도끼는 134×10×64mm의 크기로 그 재질은 개차돌이다. 이 석기는 무너져 내린 붉은 갈색 염토층의 흙더미에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이 석기의 결면에는 붉은 갈색 염토가 붙어 있었다.

이 타원형의 석기는 전체 둘레를 돌아가며 고르게 폐기를 베풀어 만든 주먹도끼로 윗면과 아랫면에 각각 일곱 번 정도에 걸쳐 1차 폐기를 한 흔적이 남아 있고 부분에 따라 마른날이 잔손질 되었다. 이 석기는 매우 뛰어난 솜씨로 만들어졌는데 전체 날 길이는 320mm이며 날 각도는 78~90도 사이이다.

돌도끼는 사람의 손에 잘 맞추어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한데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윤곽이 뚜렷한 우수한 석기이다.

(3) 각 마을의 유래

■ 백송(白松) 마을

백석동의 남동쪽에 위치한 마을 명칭으로 고양시 덕이동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60호 송포 백송의 이름을 딴 것이다. 특히 이 백송은 고양시의 상징 나무로 다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소중한 나무이다.

■ 흰돌(白石) 마을

흰돌은 백석(白石)을 한글로 풀이한 이름이다. 백석, 흰돌의 유래는 백석동의 동쪽 끝인 백석공원 내의 흰돌에서 연유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돌을 신성시하여 3년에 한번씩 도당제를 열었다.

■ 백마(白馬) 마을

백마 마을은 마두 1동에 위치한 마을 이름으로 대부분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는 곳이다. 백마라는 명칭은 옛부터 백마초등학교, 백마역 등에서 사용되어 오던 이름이다. 백마는 백석리와 마두리 사

일산의 어제와 오늘
(신시가지 개발 전과 후)





지금의 문촌 마을에 해당하는
옛 오마 마을의 모습

이에 위치해 백석리에서 '백'자를 마두리에서 '마'자를 따 생긴 이름이다.

■ 강촌(姜村) 마을

강촌 마을은 마두 2동에 위치한 마을 이름으로 옛부터 이 마을에 진주 강씨(姜氏) 자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호수 마을

호수 마을은 장항 2동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으로 국내 최대의 인공 호수인 일산 호수공원 부근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정발(鼎鉢) 마을

정발 마을은 정발산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대부분 5층 이내의 빌라형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정발이란 이름은 정발산 기슭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밤가시 마을

밤가시 마을은 일산 4동에 위치한 마을 이름으로 5층 이내의 빌라형 아파트나 단독주택 단지 지역으로 일산 밤가시 초가집으로 유명한 마을이다. 밤가시란 이름은 신시가지 개발 이전의 이 마을 자연 촌락 이름으로 옛부터 밤나무가 이 마을에 많아 가을에 산에 오르면 온통 밤가시가 널려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양지(陽地) 마을

양지 마을은 정발산의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대부분 빌라형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양지란 이름은 주변에 높고 큰 산이 없어 항상 햇빛이 잘 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후곡(後谷) 마을

후곡 마을은 일산 3동에 해당하는 곳의 마을 이름으로 1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대부분인 인구 밀집 지역이다. 북동쪽으로 옛 일산(본 일산)을 두고 있으며 후곡은 뒤흘짜기를 한문으로 읊긴 것이다.

■ 문촌(文村) 마을

문촌 마을은 주엽 2동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으로 대부분 대규모의 고층 아파트가 있는 곳이다. 이곳이 문촌으로 불리는 것은 글마을을 한문으로 읊긴 것인데 이 명칭은 예전 신시가지 개발 전에 서당(글방)이 이곳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강선(降仙) 마을

강선 마을은 주엽 1동에 위치한 마을로 대부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강선이란 이름은 신선이 내려온 마을이란 뜻인데 신시가지 개발 전 이곳이 경치가 뛰어나 신선이 내려올 만큼 아름다운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성저(城低) 마을

성저 마을은 대화동에 위치한 소규모의 아파트, 단독주택이 주로 위치한 마을의 이름이다. 이곳이 성저 마을로 불리는 것은 신시가지 개발 이전 이 마을에 고구려 시대에 쌓여진 것으로 보이는 토성이 있어 토성 밑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장성(長成) 마을

장성 마을은 대화동에 위치한 대형 고층 아파트와 단독택지 등이 위치한 마을의 이름으로 신시가지가 개발되기 이전의 장성 마을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장성은 북한의 장단 사람들이 새로이 이룬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 행신(幸信) 지구

행신 지구는 옛 능곡의 중심지인 능곡역을 기준으로 동남쪽에 위치한 신시가지 마을의 명칭이다. 행신동은 동쪽으로 도내동, 강매동과 경계하고, 서쪽으로 토당동, 남쪽으로 행주내동과 경계하며 북쪽으로는 화정동과 경계하고 있다.

본래 행신동 지역은 논농사, 밭농사 위주의 농촌 지역이었는데 1980년대 중반부터 일부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고 서울 근교의 도시 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일부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이 되었고 나머지 지역도 1990년대 고양시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대부분 도시화가 추진되었다. 현재는 가라뫼 마을과 무원·소만 마을 등이 있으나 예전에는 오거리, 가라뫼, 소만이, 차창말, 변데미, 장고뫼, 서두물, 무원이, 성신 마을 등의 자연 촌락이 있었다.

행신동이라는 명칭은 한윤석 씨(1987년

행신동 무원 마을의 옛 모습.
예전에는 장고뫼 마을로 불렸다.



당시 90세)에 의하면 약 300여 년 전에 청주 한씨들이 이곳에 묘자리를 쓰면서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그후 후손들은 이곳에 머물러 사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서로 믿으면서 살라는 의미에서 행신동이라는 지명을 썼다고 한다. 이 중 무원(茂院) 마을은 마을이 앞으로 크게 변성하라는 의미에서 '성할 무', '고을 원' 자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소만(小滿) 마을은 하늘의 달이 점점 떠올라 커진다는 의미로 발전, 성장, 희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다. 시 승격과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인 1989년 통계로 이곳 행신동에는 총 3,679가구 13,811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이 택지개발 지구 내에는 진주 류씨 선산의 류형 장군 묘 등 총 5점의 문화재가 위치해 있다.

3)화정(花井) 지구

화정 지구는 고양시 시청이 있는 원당(주교동)을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한 신시가지 개발 지역의 명칭으로 능곡역이 있는 토당동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화정 지구는 고양시에서 능곡 방향으로 이어진 39번 국도를 따라 약 2km 정도 가면 차례로 화수촌(골머리), 냉정(찬우물), 박양동(뱅골) 등의 순으로 촌락이 형성되어 있던 마을이다. 화정동의 동쪽으로는 성사동, 도내동이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 대장동, 주교동, 남쪽으로 행신동, 토당동과 북쪽으로 성사동, 주교동과 인접하고 있다.

화정동은 화정 1리 화수촌(花水村, 지금의 은빛, 달빛 마을 일대)과 화정 2리 찬우물(冷井, 지금의 은빛 마을) 두 마을의 '꽃 화(花)' 자와 '우물 정(井)' 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시가지 개발 전의 화정동 모습



화정동은 옛부터 특별한 지배층이나 가문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집성촌이나 동족 촌락은 없었으나 전주 이씨, 진주 정씨 등이 토호 주민으로 살고 있었다. 특히 화정 3리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다.

화정동 마을 주변의 지형을 보면 화정동 북쪽에 국사봉(배라산, 별아

산, 국수봉)이 위치해 있고 이를 주봉으로 하여 산 줄기 하나는 화정동과 주교동이 경계하는 신상골 뒤편 지역으로 이어지고, 나머지 한 줄기는 성사 1동 궁골 지역을 지나 지령동, 뱅골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두 줄기의 산등성이 이어지고 다시 작은 야산들의 산 뿌리가 마을 주변으로 이어져 있다.

이 마을의 촌락들은 앞에서 소개한 산 줄기와 야산 기슭에 자연촌락 형태로 자리하고 있었는데 마을의 앞쪽에는 대부분 소규모의 밭과 낮은 구릉에 배를 주로 하는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냉정, 즉 찬우물은 이 마을에 있는 차가운 우물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시가지 개발 전의 마을인 화수(일명 꽃물, 골머리)란 이름은 마을 앞의 시냇물에 꽃잎이 흘러간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백양동 마을은 예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은백양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시 승격 전인 1989년 통계로 이곳 화정동에는 701가구 2,685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이곳에는 지령산 기슭에 3기의 고인돌이 위치해 있다.

4) 탄현(炭峴) 지구

옛 일산읍 탄현리는 현재의 탄현동을 부르던 옛 행정명칭이다. 고양시청이 있는 원당을 기준으로 탄현 마을은 서북쪽에 위치하며 일산 지역의 여러 마을 중에서 가장 북쪽에 치우쳐 있는 법정동이다. 북쪽으로 파주시 교하면, 조리면과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 중산 마을, 서쪽으로 덕이동과 남쪽으로 삼정, 천주교 마을과 경계하고 있다.

탄현동은 1987년 1월 1일부로 옛 송포면 덕이리에서 경의선 철도를 기준으로 우측 지역이 일산읍으로 편입된 곳이다. 시 승격 전 탄현리는 탄현 1리와 2리로 행정 분리되어 있었는데 탄현 1리와 2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즉 탄현 1리는 1980년대에 들어서 대부분 도시화된 데 반해 2리는 농촌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현재의 탄현동은 1990년대 초반, 고양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실시하면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이다. 인근에 경의선과 도로 등이 지나며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이곳을 탄현이라 부르는 것은 예전 이 마을 사람들이 마을 뒤편



개발되기 전의 탄현(송포개) 마을

동산에 있는 참나무로 숯을 구워 만들어 팔았다고 해서 생겨난 이름이다. 탄현은 숯고개를 한문으로 표기한 명칭이다. 개발되기 이전인 1989년 통계로 1,263가구 4,72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5) 중산(中山) 지구

중산 지구는 일산역에서 고봉산 방향으로 1km 지점에 위치한 택지개발 지구의 이름이다. 일산~고양시청 간의 310번 지방도로에서 고봉산 방향에 위치한 마을이다. 현재 행정 구역상 일산 2동에 해당하며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어 있다.

신시가지가 건설되기 전에는 중산말, 안악골, 왜골, 더부골 등의 자연 촌락 마을이 있었으며 1989년 통계로 225가구에 80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현재 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개발되기 전 소나무가 우거져 있던 곳이다. 이 지역은 대부분 산, 밭, 논 등이 있던 곳이며 많은 전설과 설화가 전해져 왔다.

중산이란 이름은 고양 지역의 주봉(主峰)이며 중심 산인 고봉산 인근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추만 정지운 선생의 묘소와 연세대학교 천문대 등이 이곳에 소재하고 있다. 이곳의 유적 발굴 조사는 명지대, 한양대가 맡았으며 수백 점의 유물이 발굴되고 있다.

개발되기 전의 중산 마을

6) 성사(星沙) 지구

성사 지구는 고양시청이 있는 주교동 인근에 위치한 택지개발 지구로 시청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택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는 대부분 논, 밭, 산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특별한 마을은 없었다. 현재 흔히 신원당 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원당 지역에 새롭게 만들어진 마을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 달리 이곳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신원당 목장이 있어 이 목장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의 신원당 마을

15

통계로 본 오늘날의 고양 이야기

이 통계는 고양시청에서 발간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고양'의 일부 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 인구 밀도

타도시와의 인구 밀도 비교 : 서울시(17,491명/km²), 인천시(2,473명/km²), 수원시(6,200명/km²), 안양시 (10,203명/km²)

고양시	1996년	2000년
	2,282명/km ²	3,627명/km ²

■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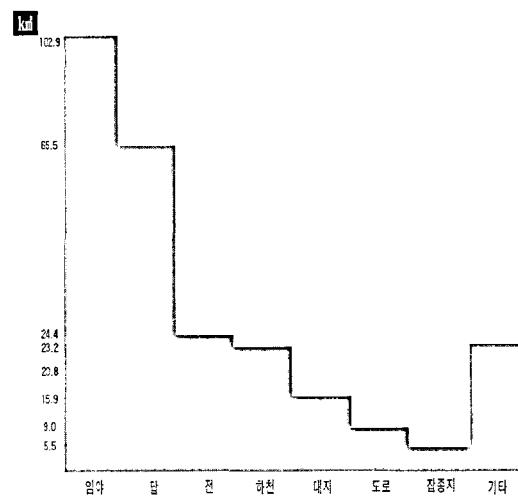
• 면적(총 267.2km²)

군사 시설 보호 구역—57%

수도권 정비 계획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100%

개발 제한 구역(134.48km²)—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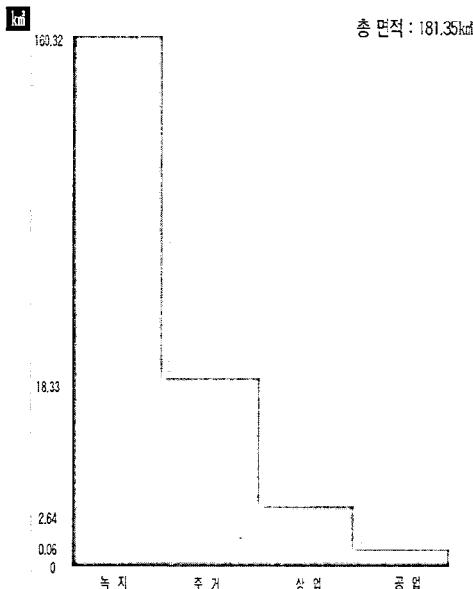
〈고양시의 행정 구역별 현황표〉

구별	구 분	면적 (㎢)	구성비 (%)	행정구역				
				동		통	반	자연 마을
				행정동	법정동			
총 계	266.44	100	34	51	755	5,810	233	-
덕 양 구	소 계	159.32	59.8	17	32	360	2,469	163
	주교동	4.76	1.79	1	1	24	207	8
	원신동	11.79	4.43	1	2	7	32	17
	홍도동	10.65	4.0	1	2	10	50	16
	성사 1동	3.15	1.18	1	1	28	284	4
	성사 2동	1.20	0.45	1	-	23	152	-
	효자동	28.38	10.65	1	3	10	54	14
	신도동	8.54	3.21	1	2	12	73	10
	창릉동	13.85	5.20	1	2	9	51	15
	고양동	21.30	7.99	1	4	20	99	15
	관산동	13.14	4.93	1	2	25	103	11
	능곡동	6.92	2.60	1	3	20	106	10
	화정동	4.86	1.82	1	1	70	543	4
	행주동	7.74	2.90	1	3	22	161	7
	행신 1동	5.57	2.09	1	2	21	131	11
	행신 2동	1.03	0.39	1	-	30	267	-
	화전동	9.5	3.57	1	2	20	108	15
	대덕동	6.94	2.60	1	2	9	48	6
일산 구	소 계	107.12	40.18	17	19	395	3,341	70
	식사동	7.07	2.65	1	1	11	45	8
	일산 1동	3.95	1.48	1	2	27	216	3
	일산 2동	4.80	1.80	1	1	34	351	6
	일산 3동	1.10	0.41	1	-	32	383	-
	일산 4동	1.77	0.66	1	-	16	203	-
	풍산동	5.25	1.97	1	2	7	25	2
	백석동	2.46	0.92	1	1	45	411	-
	마두 1동	2.21	0.83	1	-	31	263	-
	마두 2동	0.78	0.29	1	1	22	171	-
	주엽 1동	1.06	0.40	1	-	29	325	-
	주엽 2동	1.26	0.47	1	-	37	329	-
	대화동	3.03	1.14	1	-	40	327	-
	장항 1동	12.29	4.61	1	1	5	12	4
	장항 2동	2.06	0.77	1	-	18	116	-
	고봉동	24.79	9.30	1	5	16	78	20
	송포동	14.86	5.58	1	2	8	21	11
	송산동	18.38	6.90	1	3	17	65	16

〈주민등록 인구 현황(1996. 5. 31 현재)〉

구별	구 분	세대수	인 구			전월말 인구	인구 증감
			계	남자	여자		
	총 계	199,410	609,816	305,716	304,100	600,405	9,411
덕 양 구	소 계	92,544	268,673	136,092	132,581	261,828	6,845
	주 교동	6,063	16,932	8,489	8,443	16,859	73
	원 신 동	1,523	4,358	2,307	2,051	4,422	-64
	홍 도 동	2,057	5,685	3,024	2,661	5,717	-32
	성사 1동	8,086	21,465	10,671	10,794	21,356	109
	성사 2동	4,963	14,877	7,439	7,438	14,886	-9
	효 자 동	2,922	8,068	4,290	3,778	8,096	-28
	신 도 동	3,866	10,580	5,521	5,059	10,630	-50
	창 릉 동	2,641	7,173	3,842	3,330	7,227	-54
	고 양 동	5,194	14,865	7,639	7,226	14,789	76
	관 산 동	5,702	16,004	8,140	7,864	15,919	85
	능 곡 동	4,313	12,354	6,235	6,119	12,460	-106
	화 정 동	14,483	47,456	23,555	23,901	40,798	6,658
	행 주 동	6,744	19,306	9,728	9,578	19,346	-40
	행신 1동	5,623	15,919	8,041	7,878	15,874	45
	행신 2동	12,134	37,187	18,492	18,695	37,001	186
	화 전 동	4,434	11,353	6,022	5,331	11,356	-3
	대 덕 동	1,796	5,091	2,656	2,435	5,092	-1
일 산 구	소 계	106,866	341,143	169,624	171,519	338,577	2,566
	식 사 동	1,730	4,588	2,498	2,090	4,529	59
	일산 1동	9,677	29,928	14,990	14,938	29,787	141
	일산 2동	10,910	32,940	16,373	16,567	32,597	343
	일산 3동	12,946	43,332	21,295	22,037	43,220	112
	일산 4동	4,355	14,196	7,028	7,168	13,770	426
	풍 산 동	2,034	5,824	3,027	2,797	5,840	-16
	백 석 동	11,215	35,585	17,632	17,953	35,334	251
	마두 1동	7,558	25,345	12,463	12,882	25,223	122
	마두 2동	6,480	21,295	10,413	10,882	21,355	-60
	주엽 1동	11,607	37,865	18,695	19,170	37,867	-2
	주엽 2동	10,516	34,519	17,101	17,418	34,330	189
	대 화 동	6,322	20,670	10,225	10,445	20,025	645
	장항 1동	1,127	3,106	1,622	1,484	3,044	62
	장항 2동	4,045	13,304	6,556	6,748	13,249	55
	고 봉 동	2,886	8,564	4,418	4,146	8,491	73
	송 포 동	791	2,382	1,226	1,156	2,385	-3
	승 산 동	2,667	7,700	4,062	3,638	7,531	169

- 도시계획 면적—문화, 체육 휴식 공간을 고루 갖춘 다기능 공원을 원당, 일산, 능곡 등 3개권역에 4개소 26만 평을 2001년까지 조성하고 성사동 산 32번지 일원에 생활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1995년 6월부터 개방하고 있다.



214

■ 재정

<예산 규모>

총액 : 448,212백 만 원(특별 회계 147,630백 만 원, 일반 회계 300,582백 만 원)

- 일반 회계

세입 : 300,582백 만 원

※재정 자립도 83%

수입원별 분포도표	
지방세 77,963(26%)	보조금 33,381(11%)
세외 수입 180,366(60%)	지방채 6,720(2%)
지방 양여금 2,152(1%)	-

세출 : 300,582백 만 원

장별 세출 분포도표	
일반 행정 65,672(22%)	민방위비 1,739(1%)
사회 개발 106,964(35%)	지원 및 기타 6,762(2%)
경제 개발 119,445(35%)	-

• '96 덕양구청 예산 규모(일반+특별)(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총 계	49,876	100%	45,715	100%	3,771	100%
세출	인건비	10,008	20	9,998	22	10
	물건비	7,361	15	7,069	15	292
	이전 경상	1,886	4	1,870	4	16
	자본 지출	30,203	61	26,778	59	3,425
	융자 및 출자	-	-	-	-	-
	보전 재원	-	-	-	-	-
	내부 거래	-	-	-	-	-
	기타	-	-	-	-	-
	예비비	28	-	-	-	-

• '96 일산구청 예산 규모(일반+특별)(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총 계	32,216	100 %	31,655	100 %	561	100%
세출	인건비	9,514	30	9,494	30	20
	물건비	7,067	22	6,768	21	299
	이전 경상	1,906	6	1,890	6	16
	자본 지출	13,729	42	13,503	43	226
	융자 및 출자	-	-	-	-	-
	보전 재원	-	-	-	-	-
	내부 거래	-	-	-	-	-
	기타	-	-	-	-	-
	예비비	-	-	-	-	-

■ 도로

★주요 도로명

자유로(덕은동~구산동)

통일로(동산동~내유동)

39번 국도(행주대교~벽체동)

310번 도로(삼송동~일산간)

398번 도로(화전~일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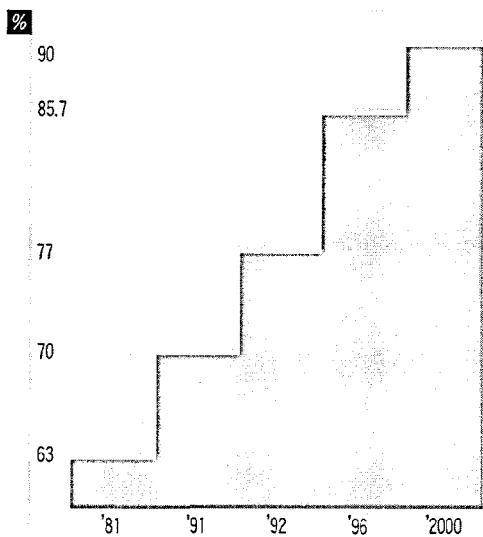
구분 도로별	총연장 (km)	노선수 (개)	포 장 연장(km)	비 포 장 연장(km)	포장율 (%)
계	600.81	1,399	528.95	71.86	96
국 도	31.53	2	31.58	-	100
지방도	24.9	4	24.9	-	100
시 도	544.33	1,393	472.47	71.86	87

■ 개발 제한 구역 현황(단위 :㎢)(1995. 12. 31 현재)

지정고시 일자	해당 동수	면적(㎢)							가구	인구	관리 요원수
		계	대지	임야	전	답	접종지	기타			
'71.7.30	20	140.51	5.01	67.97	13.02	28.24	2.92	23.35	25,126	69,290	38

■ 주택 현황(1995. 12. 31 현재)

기구(수)	인구(명)	주택(동)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보급율(%)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185,210	562,894	158,725	28,601	108,288	9,457	12,379	-	85.7



■ 아파트 현황(1995. 12. 31 현재)

동 수	'95 사 입 실 적			규 모 별 세 대 수(호)									
	세대수			총건평 수(㎡)	대지 총 평수 (㎡)	계	33 ㎡ 이하	34 ~ 66 ㎡ 이하	67 ~ 99 ㎡ 이하	100 ~ 132 ㎡ 이하	133 ~ 165 ㎡ 이하	166 ~ 198 ㎡ 이하	199 ㎡ 이상
	계	공 간	민 간				㎡	㎡	㎡	㎡	㎡	㎡	㎡
62	5,829	-	5,829	48,322	230,976	5,829	-	2,492	2,451	175	711	-	-

■ 하천 현황(단위 : km)(1995. 12. 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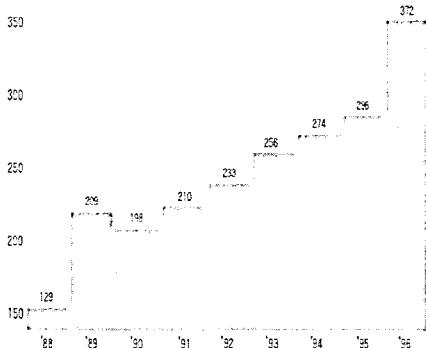
구분	하천명	시점	종점	연장	기성체 연장
		동이름	동이름		
총계	19	-	-	120.0	128.9
소계	1	-	-	19.9	19.9
직할 하천	한강	현천	현천	19.9	19.9
소계	18	-	-	100.1	109.9
준용 하천	창릉천	효자	현천	17.6	21.51
	북한천	북한	북한	4.5	-
	순창천	용두	용두	2	2.85
	성사천	성사	강매	5.0	9.7
	향동천	향동	덕은	3.0	2.18
	곡릉천	내유	선유	13.8	19.15
	벽제천	고양	대자	7.4	3.0
	선유천	선유	선유	2.5	-
	오금천	오금	오금	4.75	-
	대자천	대자	대자	2.5	-
	원당천	원당	사리현	2.5	0.6
	장진천	성석	상지석	5.5	9.2
	문봉천	문봉	문봉	1.75	-
	대장천	대장	신평	5.6	-
	행신천	행신	토당	2.6	5.2
	도촌천	식사	신평	6.5	11.5
	장월평천	덕이	구산	10	19.3
	기좌천	기좌	기좌	2.6	4.8

■ 상수도

• 상수도 보급

400

1인1일급수량(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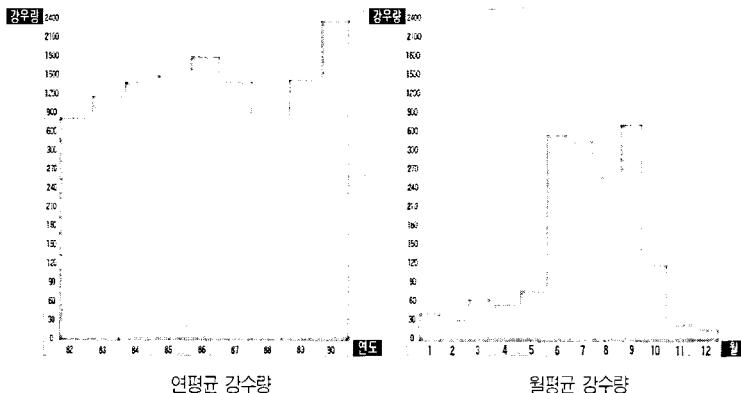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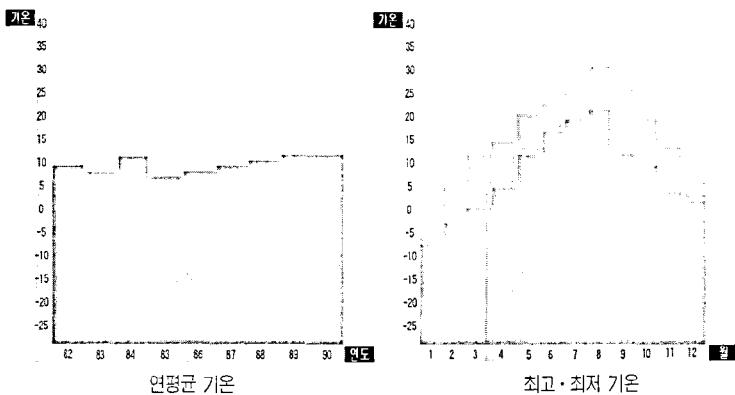


■ 고양시의 기후

고양시의 기후는 서쪽에 위치한 한강과 동쪽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산악 지대 등의 여러 가지 지형 조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기후의 특징은 온대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중간 성질을 보이며 여름과 겨울철의 기온 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의 기후 통계를 보면 연평균 기온이 12.6°C 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1,233mm로 나타나고, 평균 습도는 71.2%이며 바람의 방향은 북서풍이 주로 불고 있다. 1년 중 맑은 날이 209일, 흐린 날이 43일, 비온 날이 85일로 나타나 맑은 날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월별 기온은 8월이 평균 27.8°C 로 가장 높고, 1월이 영하 7.2°C 로 가장 낮다. 또 강수량은 9월에 가장 많고 12월이 가장 적다.

〈고양시의 기후〉



〈기상 개황(1995. 12. 31 현재)〉

월별	기온(°C)			강수량(mm)	일조 시간	천기 일수(Day)			
	평균	최고	최저			맑음	흐림	강수(0.1mm 이상)	눈
1995	10.2	15.5	5.7	1423.9	2217.8	88	192	85	14
1월	-2.5	0.9	-8.9	8.1	212.0	6	22	3	6
2월	-1.2	5.2	-7.2	7.9	207.0	13	11	4	2
3월	4.3	9.1	-0.4	39.5	211.2	14	10	7	2
4월	8.3	15.6	4.3	25.0	237.1	16	9	5	-
5월	13.4	21.1	9.4	41.0	264.3	18	7	6	-
6월	20.2	25.3	16.2	75.0	199.3	9	13	8	-
7월	23.1	26.8	20.9	397.3	151.6	3	12	16	-
8월	25.0	28.8	22.3	720.2	144.7	2	15	14	-
9월	18.3	23.5	13.4	54.4	130.7	-	20	10	-
10월	13.2	19.0	8.1	54.4	137.2	2	24	5	-
11월	4.0	9.6	-1.3	33.5	151.9	2	22	6	1
12월	-3.4	1.1	-7.8	1.5	170.8	3	27	1	3

■ 고양 공예품

전통 도예품, 노리개, 풍속물, 전기 스텐드, 보석함, 목각 장식품 등.

〈업종별 공장 현황〉

계	음식료품	섬유	목재	종이 인쇄	화학	비금속 광물	조립금속기계	기타
569	25	32	116	53	110	110	136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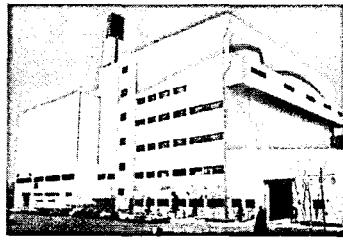
■ 선인장 수출

'96년 목표 : 12,298천 그루, 4,526천 불(세계 시장 점유율 : 72%)

선인장 수출단지 : 행주외동 44-10번지 일원(면적 : 부지 6ha, 시설 14,170평)

■ 1일 쓰레기 배출량 및 수거량

1일 배출량	1일 수거량	장비 및 인력	
		차량(대)	인부(명)
370톤	370톤	83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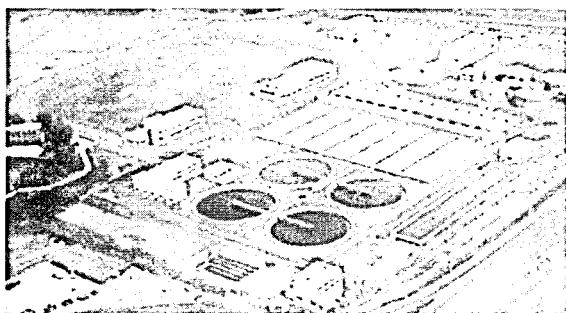


■ 쓰레기 처리 시설

위치 : 백석동 367번지, 규모 : 1일 처리 300톤, 사업비 : 323억 원

■ 1일 분뇨 배출량 및 수거량

1일 배출량(kt)	1일 수거량(kt)	수거율(%)	장비 및 인력	
			흡입차(대)	인부(명)
468톤	468톤	100	18	183



■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

위치 : 고양시 법꽃동 740번지, 규모 : 1일 처리 능력 135천 톤

16

고양의 농촌 관 이야기

1) 시청

고양시청은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에 위치하며 고양시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관할한다.

〈사업소별 민원 처리〉

기구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민원 처리 내용
농촌지도소	62-6102	성시동	농어민 후계자 신청, 전업농 신청, 농업 기술 보급 등 농촌 지도에 관한 사항
상수도 사업소	본 소	63-0004	상수도 관련 종합 민원 상담 (송수관로 배수 등)
	덕양지소	966-6790	회정동 (덕양구청 사내)
	일산지소	975-0194	일산동 (일산 2동 시무소 건물 지하)
덕양구 보건소	62-6015	주교동 (보건소 본 건물)	병·의원 허가, 약국 개설, 안마 시술소 허가, 인정점 허가, 예방 접종, 방역 소독, 성병·에이즈 검사, 가족계획, 수질 검사 등 국민보건에 관한 종합 민원
일산구 보건소	976-0367	일산동 (일산 2동 시무소 건물 1, 2층)	차량 신규 등록, 주소 변경, 소유권 이전·말소, 번호판 재교부, 시도간 전입 등 자동차 관련 종합 민원 처리
차량등록사업소	966-7305	성시동 (원당 주공 아파트 단지)	차량 신규 등록, 주소 변경, 소유권 이전·말소, 번호판 재교부, 시도간 전입 등 자동차 관련 종합 민원 처리

- 건축 허가(7층 이상, 5000㎡ 이상), 시장 개설 허가, LPG충전소 허가, 석유 판매업 허가, 공장 신설 및 등록, 산림 형질 변경(10,000㎡ 이상), 농지 전용 허가 및 용도 변경, 온천 개발 등.

-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등) 허가, 공연장 개설 허가, 국내 여행업 등록, 직업 소개 허가, 식품 기공 제조업 허가, 묘지 관련 사업, 옥상 광고물 허가 등.

- 노동조합 설립, 자동차 관리 사업 허가, 동물병원 허가, 부화·증축(계)업 등록, 시영 버스 운영 등.
- 국·공유지 대부 및 매각 신청 등.
- 여권 신청 등.

2) 구청

구청은 현재 화정동에 덕양구 청사, 마두동에 일산구 청사로 나뉘어져 있다.

〈구청이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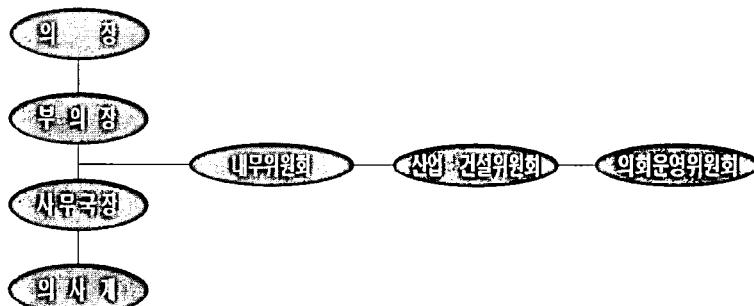
부서별	민원 처리 내역
기획실	공연 신고, 음반 및 비디오업소 등록 관리, 출판·인쇄업 등록 관리 등
총무과	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체육 시설 신고 처리 등
세무과	지방 세무 행정, 지방세 부과, 각종 지방세 납부 증명 발급 등
징수과	지방세 징수, 체납세 징수, 체납자 재산 압류 및 해제, 지방세 과오납 환불, 지방세 결손 차분 등
민원봉사과	호적등·초본 발급, 호적 신고 접수, 제증명 발급,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 운영, 외국인 등록, 예비군 사무, 병영장소집, 병력 등원 등
지적과	토지 분할 및 합병 신고, 지목 변경 신청, 토지 거래 신고·허가, 부동산 중개업 허가, 개별 지가 관리, 측량 신청(지적 공사), 지적(임야)도, 토지(임야) 대장 발급 등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 지원 관리, 민방위 교육 훈련, 재난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등
사회복지과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관리, 장애인 관리, 여성·아동·노인복지,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로사업, 가정의례 등
환경위생과	환경오염 방지, 배출 시설 허가, 식품위생업소 허가, 하천 오염 감시,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 심야 영업 단속, 부정 식품 단속, 식품 유통 관리, 환경 개선 부담금 고지 등
청소과	쓰레기 규격 봉투 공급, 일반 폐기를 수거 처리, 폐기물 소각장 및 적환장 관리, 정화조 설치 신고, 오수 정화 시설 신고, 쓰레기 폐수 관리, 재활용품 수거, 공중 화장실 관리 등
교통행정과	주성차 단속, 주차장 개설, 교통 시설물 관리, 무단 장치 차량 강제 처리 등
건설과	도로 및 하천 점용 허가, 노점상 단속, 기로등·보안등 설치, 도로, 하천 관리, 지하수 이용 개발 신고, 광고물 인허가, 빙재 및 재해 대책 등
건축과	건축 허가(7층 미만, 5000㎡ 미만), 그린벨트 내 인허가 및 단속, 조림 사업, 가로수 관리, 보호수 지정 관리, 야생 조수류, 임목 벌채 허가, 산지 정화, 산림 보호, 산불 감시 등
생활민원과	생활 불편 민원 접수, 긴급 현장 민원 처리 등

3) 고양시 의회

〈고양시 의회 약사〉

- 1991년 3월 21일—제1대 군 의원 선거
—임기 4년, 의원수 15명
- 1991년 4월 15일—제1회 고양군 의회 개원
- 1992년 2월 1일—시 승격에 따른 고양시 의회 출범
- 1992년 5월 4일—상임위원회 설치 운영(내무, 산업·건설, 의회 운영)
- 1996년 현재—총 38명의 시의원이 재임중

〈의회 기구표〉



〈의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

계	4급	행정·별정 5급	행정·별정 6급	행정 6급	행정 7급	기능직		
	사무국장	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사계장		운전	속기	조무
13	1	2	1	1	2	2	2	2

4) 교육청

고양시 교육청은 고양시 관내의 학교, 학원 등을 도와주고 감독하며 학생, 학교,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한다.

교 육 장	학 무 과	초등교육계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장학 지도, 교원 인사
		중등교육계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장학 지도 및 교육 연구교 지도
		사회체육교육계	학교 급식, 보건 체육, 체육 행사
		과학실	과학 행사, 자료 선정, 자료실 운영, 선도 실험
		서무계	문서 수발, 민원 처리, 감사 계획 수립
관 리 과	관리계	예산 편성 및 배정, 각종 통계	
	경리계	예산 집행, 재산 취득 및 처분, 수수료 수납	
	시설계	각종 시설의 계획 수립, 공사 실거래와 감독	

5)경찰서

고양경찰서는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맡아보는 기관이다. 고양 경찰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도와주는 일을 맡고 있으며, 시내의 여러 곳에 파출소를 설치하여 지역 시민들의 안전 생활을 돋고 있다.

경찰서에는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주로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도둑을 잡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붙잡아 벌을 받게 하여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또 교통 규칙을 잘 지키도록 지도하고 교통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게 하여 모든 자동차와 사람들이 교통 규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명랑한 거리가 되도록 힘쓴다.

이러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양 경찰서는 여러 부서들을 두고 있다. 여러 부서의 짜임은 경찰서장 밑에 경무과, 방범과, 수사과, 경비과, 형사과, 정보과, 보안과, 민원실을 두고 있다.

경무과에서는 경찰관들이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방범과에서는 고양시 관내를 24시간 순찰하며 범죄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시민들을 위험에서 구출한다. 수사과와 형사과에서는 주로 범인을 잡는 일을 하며, 정보과와 보안과에서는 국가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간첩 잡는 일을 하며, 민원실에서는 시민의 각종 불편을 덜어주는 일을 한다.

6)소방서

소방서는 많은 재산과 생명을 앓게 하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시 이를 진압하는 일과,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을 주로 하지만 그 외에도 소방 검사, 건축 허가, 화재 경계 지구 지정, 화재 경계, 화재 진압, 구급·구조, 소방 봉사(소방 시설 고장 신고 센터 운영, 소방안전 교육 실시, 각종 상황에 따른 대민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고양소방서는 고양시, 괜주시 일원 948.76㎢의 면적에 771,869명의 인구를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다. 총 2과 5계 9파출소 1구조대로 구성되어 있고, 소방 공무원 222명, 기능직 7명, 의용 소

방대원 830명 등 총 1,059명의 인원이 소속되어 있다. 차량은 사다리차 4대, 구조차 1대, 화학차 1대, 펌프 33대, 구급차 6대, 기타 6대 등 총 5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 소방과

- 소방계 : 소방 공무원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도 시켜주는 일을 한다.
- 장비계 : 소방 차량을 비롯한 각종 장비 관리와 청사 및 행정 장비, 재산 관리, 봉급 지급 등 예산 편성 및 지출을 한다.

■ 방호과

- 방호계 : 화재를 어떻게 하면 빨리 끌 수 있을까 연구하고 직원 및 대상처 관계자 소방 교육을 한다.
- 예방계 : 화재를 내지 않도록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 구조계 : 각종 재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위급한 환자를 응급 처치 및 이송하도록 도와준다.
- 방호계 지령실 : 불이 났을 때 119신고를 받아서 소방차에게 출동 명령을 내린다.
- 피출소 : 화재, 구급, 구조 업무를 최일선에서 처리한다.

7) 우체국

고양시 우체국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일을 돋는 기관이다. 우체국이 맡은 일은 우편 업무에 관한 일이 많다. 우체국에서는 우편물의 접수, 분류, 배달과 우표의 판매 업무를 하고 그외 예금과 보험, 세금과 공과금 수납, 지역 특산물의 우편 판매, 열차표의 예매 등에 관한 일을 한다. 이와같이 우체국의 일은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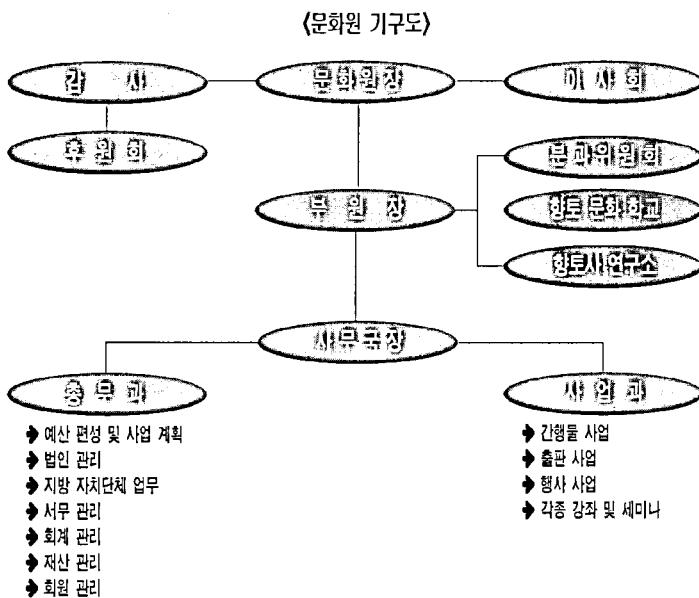
우체국에서는 우체국장과 일을 나누어 맡은 4개의 계가 있다. 4개의 계는 서무, 우편, 창구, 예금 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우편계에서는 우리가 보내는 우편물을 보내고 배달하는 일들을 나누어 맡아 본다. 여기에서는 우편물의 접수에 관한 일도 창구계와 함께 맡고 있다. 창구계에서는 우표와 엽서의 판매, 물건을 우편으로 보내는 소포, 안전하게 우편물을 보내고자 하는 등기,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속달우편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본다. 또 지역 특산물의 우편 판매와 열차표의 판매도 하고 있다. 예금 보험계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의 저금을 맡아보는 예금과 세금·공과금의 수납, 체신 보험에

관한 일을 맡아 본다.

우리 지역 주민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편번호를 바르게 기입하고 이 일을 맡아 애써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8) 고양문화원

고양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대통령령 제14303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단체로서 지역 사회의 문화 발굴 사업에 해당하는 여러 문화 사업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하는 문화 단체이다.



고양문화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우리 고양 지역 시책과 전통 문화의 홍보(시정 위원회의 참석, 아파트·학교 이름 등의 부여, 자문)
2. 향토 문화 예술의 진흥과 보존(민속놀이 보존, 십이월 가락의 전승,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 신원초교 등 옛 가락 육성)
3. 향토 고유 문화의 보전과 발굴(고양시 문화 유적 정기 조사, 문화재 대관, 지명 유래집 등 발간, 역사 기행)
4. 지역 주민에게 역사·문화에 관한 향토지 발간(행주얼 지, 학생

문예지 발간)

5. 정신의 계도와 민족 문화의 창조를 위한 교육(향토 학교, 향토 사 교육, 역사 현장 학습, 서예실 등 운영)

6. 옛 역사의 조명 등으로 향토 애향심 고취 등과 같은 사업(행주 문화제, 대첩제 등 주요 행사를 주관·주최)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문화·예술 등을 조사 연구하고 기록하여 교육 기관에 알려 주고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순수 문화 단체이다.



고양문화원이 매달 개최하고 있는 향토 역사 기행

17

고양의 교육 이야기

1) 옛날의 교육 기관

■ 고양 향교

고양시 내에 지방의 공설 교육 기관으로서 향교가 세워진 것은 조선왕조 19대 왕인 숙종 때였다. 조선왕조를 개설한 태조가 즉위하자마자 지방 교학을 장려하기 위해 부(府)·목(牧)·군(郡)·현(縣)에 향교를 하나씩 세우도록 하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양 향교의 설립은 꽤 늦은 편이라 하겠다.

고양 향교는 다른 지역의 향교와 마찬가지로 고양군 내의 양반·향리(鄉吏)의 자제들에게 소학, 사서, 오경, 근사록 및 저자 등과 같은 유학 과목을 교습하면서 장차 성균관에 입학하기 위한 예비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고양 향교에서는 그 같은 교육 활동 이외에 향교 내에 있는 대성전에서 선성(先聖)과 선현(先賢)들을 제향(祭享)하였는데, 이것은 일종의 지방 사회에 있어서의 국가 이념 교육이었다. 즉 1년에 두 번씩 군 내의 유림들과 향교의 유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성과 선현의 덕을 기립으로써 당시 유학을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고 있던 조선왕조의 평안과 지배 질서의 유지를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고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양 향교도 조선왕조 중기부터 발흥(發興)하기 시작한 서원에 밀려 점차 쇠퇴(衰微)해 갔고 마침내 고종 31년(1894년)의 갑오경장에 의해 과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예비 교육 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던 향교는 다른 지역의 향교와 함께 단순히 문묘(文廟)에서 선성선현(先聖先賢)을 제향하는 기능만을 가진 곳으로 남

게 되었고, 그 기능도 근대 국가가 수립됨에 따라 국가의 이념을 교육한다고 하는 종래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 행주서원

사립 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원은 대개 한 사람의 유명한 학자나 공신을 제향하는 지방의 사설 중등 교육 기관이었다.

그런데 이 행주서원은 그 설립이 왕명의 특지(特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서원들과 조금 달랐다. 즉 조선왕조 24대 왕인 현종이 고양군에 있는 서삼릉에 거동하기 위하여 행주산성 부근을 통과하던 중 임진왜란 때 공적이 높은 충장공 권율 장군의 제향을 지낼 건물이 없음을 유감스럽게 여겨 왕명으로 특지를 내려 현종 8년(1842년)에 완공시킨 것이 바로 기공사(紀功祠)이다. 그러나 단순히 권율 장군의 제향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양반과 향리의 자제들을 모아놓고 유학을 교습하게 됨으로써 행주 서원이라는 지방교육 기관이 된 것이다. 이 행주서원(기공사)은 대원군에 의한 서원 철폐령으로 전국의 거의 모든 서원이 문을 닫았을 때에도 철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존속하였다. 행주서원이 철폐되지 않았던 것은 그 설립 시기가 매우 늦어 오래 전에 설립된 서원들처럼 여러 가지 악폐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서원 철폐령에서 살아남았다고는 하나 근대 교육이 우리 나라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체제를 갖춘 근대 학교가 전국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자, 행주서원도 지방의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정지한 채, 다만 고양군 내의 유림들이 권율 장군의 위업을 기리는 제향장으로서만 남게 되었다.

더구나 일제하에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제사가 치러졌으나 해방이 된 후에는 한해에 한번 양력으로 3월 14일에 치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충장사에서 행해지고 있는 권율 장군에 대한 제사는 고양시장이 초헌관(初獻官)(권율 장군의 입패(位牌) 앞에 첫 술잔을 올리는 사람)이 되는 대표적인 전통 행사가 됨으로써 단순히 권율 장군 한 개인에 대한 추모 행사가 아니라 전 시민들에게 전통

행주서원 강당 모습



적인 유학 정신, 유학 이념을 일깨워주는 사회교육적인 행사가 되고 있다.

■ 문봉서원

문봉서원은 조선왕조 19대 왕 숙종 14년(1688년)에 건립되었고 그로부터 21년 후인 숙종 35년(1709년)에 사액(賜額)을 받았다. 건립 연대로 보면 행주서원보다 약 150여 년 빠르고 고양 향교와 거의 비슷하므로 문봉서원은 고양군 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설 교육 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서원에는 민순(閔純), 남효온(南孝溫), 김정국(金正國), 기준(奇遵), 정지운(鄭之雲), 홍이상(洪履祥), 이신의(李慎儀), 이유겸(李有謙) 등과 같은 명유(名儒)들이 봉안되어 있었는데 오늘날 그 서원의 자취는 찾아볼 수 없다.

2) 오늘날의 교육

■ 각급학교

학교 구분	개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계	100	2,128	96,895	3,062
초등학교	56	1,333	58,554	1,556
중 학 교	25	451	22,070	744
고등학교	15	294	13,368	613
대 학 교	2	13	2,412	83
특수학교	2	37	491	56

■ 유아교육

각급 구분	개수	학급수	원생수	교원수
유 치 원	128	326	10,484	377
보육시설	204	-	7,026	447

■ 공공도서관

위치	좌석수	장서수	연간 이용자 수
덕양구 주교동 600 시청 내	210	36,989	44,915
덕양구 협신동 103-22	500	14,000	85,689

3) 고양시 관내 학교 현황

(1) 초등학교 ('96. 5. 9 현재)

학교명	개교 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학교명	개교 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고양	1909. 5. 1	고양동 236	62 - 9022	호수	1994. 3. 1	장항동 830	904 - 6073
일산	1924. 4. 18	일산동 630-1	975 - 2392	주엽	1994. 3. 1	주엽동 100	912 - 0033
능곡	1929. 10. 7	토당동 335	974 - 7594	오마	1994. 5. 1	주엽동 33	912 - 2124
원당	1932. 12. 9	주교동 313-3	965 - 1354	문화	1994. 5. 1	주엽동 37	912 - 2103
송포	1935. 1. 26	가좌동 355-1	975 - 0006	문촌	1994. 6. 1	주엽동 24	912 - 0144
덕은	1936. 4. 18	화전동 275	303 - 5581	신일	1994. 6. 1	일산동 1075	912 - 2074
홍도	1944. 4. 1	도내동 416-1	62 - 6235	백신	1994. 6. 1	백석동 1426	904 - 2054
행주	1934. 4. 1	행주내동 175	974 - 7236	무원	1994. 6. 1	행신동 636	972 - 9517
벽제	1945. 9. 24	사리현동 122	62 - 8011	신촌	1994. 10. 1	일산동 1068	912 - 2093
성석	1945. 10. 31	문봉동 203-6	977 - 8457	금계	1995. 3. 1	백석동 1192	902 - 4503
대화	1952. 9. 24	대화동 1643	911 - 0002	냉천	1994. 3. 1	마두동 830	902 - 3413
백마	1952. 10. 27	마두동 718	901 - 2004	율동	1994. 3. 1	일산동 1117	913 - 0382
장항	1962. 9. 1	장항동 438	63 - 6108	저동	1994. 3. 1	장항동 688	914 - 0382
용두	1966. 4. 1	용두동 325	387 - 1053	장성	1994. 3. 1	대화동 2210	915 - 0273
삼송	1960. 4. 1	삼송동 산 12-7	381 - 9029	장촌	1994. 3. 1	대화동 2269	914 - 0479
내유	1968. 10. 31	내유동 산 127	62 - 8109	소만	1994. 3. 1	행신동 730	970 - 2144
원중	1967. 3. 2	식사동 631	62 - 6067	옹현	1994. 3. 1	행신동 770	970 - 0163
신원	1988. 3. 1	신원동 산 27	381 - 5157	행남	1994. 3. 1	탄현동 799	970 - 0537
덕이	1973. 4. 7	덕이동 528	978 - 2118	일산동	1994. 3. 1	탄현동 1474	915 - 0293
대곡	1970. 3. 1	대장동 산 75	62 - 5491	상탄	1994. 3. 1	탄현동 1483	914 - 0303
지축	1980. 9. 1	지축동 654	381 - 5166	중산	1995. 7. 1	일산동 1576-3	977 - 4194
성사	1987. 2. 14	성사동 716	965 - 2163	성저	1995. 8. 1	대화동 2006	915 - 0211
행신	1988. 3. 1	행신동 산 81-8	974 - 4069	화수	1995. 9. 1	화정동 660	966 - 4036
백석	1992. 8. 1	백석동 1188	901 - 4292	화정	1995. 11. 1	화정동 972	970 - 1960
성라	1993. 3. 1	성사동	966 - 4205	화중	1995. 11. 6	화정동 871	911 - 6214
정발	1993. 3. 1	마두동 758	902 - 0181	고봉	1995. 12. 1	화정동 1554-1	976 - 8105
낙민	1993. 4. 1	마두동 795	902 - 1323	옹정	1995. 12. 1	화정동 918	967 - 0364
강선	1993. 6. 1	주엽동 64	911 - 6214	백양	1995. 12. 1	화정동 990	971 - 0093
한수	1994. 3. 1	주엽동 116	912 - 2053				

(2)중학교('96. 5. 9 현재)

학교명	개교 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학교명	개교 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고양중	1947. 6. 26	삼송동 산 24-7	381 - 6681	저동중	1995. 3. 1	일산동 1192	915 - 1903
일산중	1953. 4. 23	일산동 9666	975 - 2488	장성중	1995. 3. 1	대화동 2096	911 - 1764
능곡중	1955. 5. 3	토당동 364	974 - 7414	대화중	1995. 3. 1	대화동 2230	914 - 0522
덕양중	1968. 10. 12	화전동 274-3	374 - 4836	일산동중	1995. 3. 1	탄현동 1482	914 - 0219
원당중	1984. 9. 1	주교동 527-5	62 - 6884	정발중	1995. 5. 1	마두동 811	902 - 3381
백신중	1992. 9. 1	마두동 788	901 - 1741	행신중	1995. 5. 1	형신동 784	970 - 2333
빌산중	1993. 6. 1	주엽동 56	911 - 1983	중산중	1995. 9. 1	일산동 산 60-2	977 - 6493
백마중	1993. 6. 1	마두동 733	902 - 2813	화수중	1995. 9. 1	화정동 268	965 - 4364
한수중	1994. 3. 1.	주엽동 131	912 - 4073	화정중	1995. 11. 1	화정동 941	970 - 1988
백석중	1994. 3. 1.	백석동 1346	904 - 4073	백양중	1995. 12. 1	화정동 992	971 - 4003
오마중	1994. 5. 1.	주엽동 4	912 - 2033	고양여중	1969. 11. 17	일산동 산 18-15	975 - 2063
신일중	1994. 5. 1.	일산동 1096	912 - 4053	벽제중	1971. 1. 29	관산동 산 332	62 - 6169
무원중	1994. 9. 1.	행신동 695	974 - 9996				

(3)고등학교('96. 4. 1 현재)

학교명	개교 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고양중고	1947. 6. 26	삼송동 45-2	381 - 7179
일산중고	1956. 5. 4	일산동 산 5	975 - 2489
능곡중고	1962. 5. 9	토당동 394	972 - 6130
백석고	1992. 5. 9	마두동 784	901 - 0506
백신고	1992. 9. 1	백석동 1347	903 - 4902
일산정보산업	1994. 3. 1	주엽동 41	912 - 6033
주엽고	1994. 9. 10	대화동 2168	913 - 0053
형신고	1995. 3. 1	행신동 790	970 - 9242
일산동고	1996. 3. 1	탄현동 1471	915 - 0529
고양여중고	1969. 10. 25	일산동 산 16-15	976 - 2064
벽제고	1988. 1. 16	관산동 335	82 - 8169
세원고	1990. 1. 10	식사동 산 220-4	965 - 1303
대진고	1990. 3. 1	대화동 2097	911 - 2478

(4)대학교('96. 6. 1 현재)

학교명	개교 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한국항공대	1952. 6. 16	화전동	(02)300-0114
농협전문대	1962. 12. 28	원당동 산 38-27	60-4000

18

고양의 이야기

1) 고양의 명승지

■ 호수공원

일산 신시가지 주엽동, 장항동 일원에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공원이다. 1996년 5월 4일 개장되어 고양시민을 비롯한 인근 수도권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호수공원은 물 등 자연적 요소를 도입하여 도시민들이 접하기 힘든 자연 생태계를 재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물 주변 경관과 호수를 이용한 다양한 레크레이션 장소로 제공된다. 특히 가족 단위의 건전한 생활 휴식처로서 시민의 자긍심과 만족감을 고취하고 시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되며 '1997 고양 세계 꽃 박람회' 등 다양한 국내외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위치 :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장항동 일원

면적 : 31만 5천 평(호수 면적 9만 평)

사업 기간 : '92~'95

순 공사비 : 216억 원(부지 확보 토지 공사)

시설물 : 수변 광장, 인공섬, 약초섬, 자연 학습원, 팔각정, 야외 무대, 보트장, 자전거 전용 도로, 야외 식물원, 어린이 놀이터, 인공 폭포, 광장, 운동장 등 편의 시설 주차장, 피고라, 의자, 쉼터 등



일산 호수공원 약초섬 부근 모습

■ 정발산 공원

일산 신시가지 중앙에 위치한 공원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

고 있다. 정상에는 평심루가 있으며 인근에 밤가시 초가, 호수공원과 연계되어 교육,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 북한산 국립공원

고양시와 서울시 경계에 위치한 북한산 일대에 위치한 국립공원이다. 수만 명의 주민들이 주말을 이용해 등산,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다.

■ 고양 유스호스텔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위치한 고양 유스호스텔(대표 김이옥)은 주변의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 등이 있는 조용한 숲속에 자리하고 있다. 총 규모 3천 여 평에 숙식이 가능한 방(침대 4실, 온돌 17실)과 강당 2실(230명, 150명 수용 가능), 식당, 수영장, 국기 훈련장 등의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세미나, 연주회, 청소년 캠프, M·T, 수련회, 현장 학습 등의 다양한 행사를 치를 수 있다. 특히 이곳으로부터 1.5km 위치에 죄영 장군 묘가 위치해 산책, 역사 교육과 300m 지점에 있는 고양 향교에서 예절, 인성 교육도 가능해 좋은 학습 장소로 인기가 높다. (T : 62-9049)



고양 유스호스텔 전경

이외에도 고양시 풍동에 위치한 서울YMCA 수련장(T : 901-2796)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 중의 하나이다.

2)봉수대 이야기

■ 매면 봉수대

덕양구 강매동에 위치한 해발 95m의 봉대산(일명 강고산 또는 강구산) 산꼭대기에 위치한 봉수대이다. 강매동에 있다 하여 강매봉수대라고도 하며 조선 인조 14년(1636년) 병자호란 때 국방상 중요 임무를 떤 속보 전신의 역할을 하였으며 서울 남산(목멱산) 봉수대로 연락하던 곳이다.

■ 독산 봉수대

일산구 문봉동, 사리현동, 지영동에 둘려있는 독산(일명 문수산)의 산꼭대기 봉수대이다. 문봉동에 둘려 있다 하여 문봉 봉수대라

고도 하며 이 산의 옛 이름이 솟달산 또는 소아달산이라 하여 솟달봉수, 소질달산 봉수라고도 한다.

인조 14년(1636년)부터 고종 31년(1894년)까지 국방상 중요 임무를 맡 속보 경비, 전신의 역할을 한 제3선로의 봉수대로서 파주 대산으로부터 연결받아 동쪽으로 봉현 봉수를 거쳐 서울 모악의 안산으로 전달하였다.

■ 고봉 봉수대

일산구 성석동과 일산구 일산동의 경계 지점의 고봉산(일명 테미산, 테페산, 태산, 고봉성산) 정상에 있는 봉수대이다. 성석동에 있다 하여 성석동 봉수라고도 하며 이 산의 별칭인 고봉성산 봉수대라고도 불리어 왔다. 이 봉수대 역시 인조 14년(1636년) 병자호란 때부터 고종 31년(1894년)까지 봉수망 제4선로의 직봉으로 파주시 교하면의 형제봉에서 받아 동쪽의 해포 봉수대에 전달하였다.

■ 해포 봉수대

덕양구 덕은동과 현천동 경계에 있는 해발 126m의 대덕산 정상에 있는 봉수대이다. 이 산의 옛 이름이 해산이며 산 주위의 넓은 포구를 해포라고 부른 데서 해포 봉수라 하였다. 조선조의 봉수망 제4선로의 직봉으로 서쪽의 고봉 봉수대에서 받아 동쪽의 모악안현으로 전달하였다.

■ 봉현 봉수대

덕양구 용두동 및 향동동에 걸쳐서 서울 역촌, 구산동을 경계로 하는 봉산(일명 봉령산)의 정상에 있는 봉수대이다.

3) 고양의 신토불이 농협

■ 농협 중앙회-WTO에 대응하여 지역 수출입 정보 센터 운영

농협 중앙회 고양시 지부(지부장 백종현)에서는 1996년도 주요 특색 사업으로 첫째, WTO 대응 지역 수출입 정보 센터 운영과 둘째, 쌀은행을 운영 추진하고 있다.

먼저 1996년 1월 1일 설치된 지역 수출입 정보 센터는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세계 선진 시장의 개척과 수출 증대의 도모, 농가 소득 증대, 생산 수출 농가의 외국어 소통, 지난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본 센터는 시 지부장을 비롯한 실무 지원 팀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해외 선진 화훼 시장 유통 정보 제공(PC 통신 하이텔 이용), 최근 가격 동향 및 수출 유망 품목 분석 상담, 수출 관련 서류의 번역 및 Nego 등 여러 업무



지역 수출입 정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중 고양시의 특작물이라 할 수 있는 분자류, 선인장, 난, 장미 등 화훼류가 그 중심 수출 지원 품목이다. (대표 전화 : 62-6023)

■원당농협—두부 가공 공장 운영과 지산지소 운동 전개

원당농협(조합장 이택기)은 1969년 원당 단위 농협으로 설립되어 1990년 영농 지원 센터를 운영하였으며 1990년 종합 업적 전국 2위를 비롯하여 많은 영광을 차지하였다. 관내에는 조합장 1인을 포함해 총 10명의 임원이 있으며, 대의원 73명, 내부 총 7,551명의 조합원 가족이 등록되어 있다.

원당농협의 조합원을 위한 행사



고양시의 행정 중심지인 원당에 위치한 원당농협은 조합원과의 계약 재배로 유휴 농지 활동,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 환경 개선을, 건강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두부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 25농가 6ha에 우리 콩을 계약 재배하여 1일 원료 80kg을 생산해 총 1일 50판의 두부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가공 사업은 상품성의 제고 및 안전한 우수 농산물 생산 유도,

환경 보전 농업의 홍보, 지역 특산품화의 기대 효과를 얻고 있다. 이외에도 지산지소(地產地消) 운동을 전개하며 일반 지대미, 청결 미의 공급, 추곡의 자체 수매, 농업 금융 기능의 확충,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본소(주교동) : 965-5961

성사지소 : 965-5970

성래지소 : 965-5973

신원당지소 : 967-6128

신원지소 : (02)381-7331

식사지소 : 64-1804

■ 신도농협—지역 농업 개발 계획 '2010의 신화'

신도농협(조합장 원우연)은 1970년 5월 9일 구파발리 외 15개 동 협동조합을 합병하여 신도면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1973년 신도농협으로 개칭하였으며 12월 11일 자립 조합으로 승격하였다. 1991년 판매 사업 1,000억 달성, 1992년 예수금 400억 돌파, 1993년 현 원우연 조합장의 취임과 함께 조합원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5년도에 협동 조직 대상을 수상, 종합 업적 평가 전국 4위의 위업을 달성했다.

1995년도에 지역 농업 장기 발전 계획(2010의 신화)을 수립하여 살구나무 1만 주를 조합원 각 가정마다 5주씩 공급했으며 올해에는 미래의 꿈나무 동산 가꾸기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곳, 살기좋은 곳, 보고싶은 곳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1단계로 꽃의 거리를 만드는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다.

본소(삼송동) : (02)381-7761

화전지소 : (02)3158-3774

동산지소 : (02)358-7456

향동지소 : (02)3158-4825

대덕지소 : (02)3158-6240

지축지소 : (02)381-9754

용두지소 : (02)353-4743



신도농협 청사

■ 일산농협-생활 문화 복지 센터 운영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594의 28번지에 위치한 일산농협(조합장 유영선)은 신시가지 개발로 농경지의 70% 이상이 택지로 변함에 따라, 농촌형 농협에서 새로운 도시형 농협으로 발전하고 있는 농협이다. 1995년 말 전국 종합 업적 2위와 공제사업 제1위의 농협이다.

현재 조합원, 준조합원, 대의원, 임직원을 포함한 1만 4천 여 명이 조합을 구성하고 있으며 3개 지소, 25개 영농회와 부녀회 120곳, 작목반 3개 등의 내부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6대 중점 추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①지대미 가공 공장의 활성화

하루 250~300여 포의 맛좋은 일산 쌀을 공급한다.

②문화 센터 운영

조합원과 시민의 풍요로운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촌마을에 소재한 장항지소에 문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에어로빅 건강 무용, 어린이 발레, 고전 무용과 함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취미 생활,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③주말농장(내 가족 농장) 운영

신시가지와 자유로에 인접한 장항동에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농촌 현실 이해 증진을 위한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④농촌, 도시간 어린이 교류 사업

농촌과 도시가 하나라는 인식을 주지시키기 위해 매년 6회에 걸쳐 물놀이, 별자리 찾기, 유적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산농협 중동지소



⑤조합원 복지 지원 사업

농민들의 복지 문화 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매년 2억 1천 만 예산으로 장학금, 조합원 건강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⑥자동차 경정비 센터 운영

일산 신시가지와 인접한 일산농협 중동지소에 기존의 농기구 수리 센터 45평을 확장하여 60여 평의 종합정비 센터(자동차 및 농기계)를 확보하고 조합원, 신시가지 입주민에게 저렴한 수리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소 : 975-8061~5(Fax 975-5219)

백마지소 : 902-3236, 902-5866

중동지소 : 977-6540/3

장항지소 : 903-6251~5

■ 벽제농협—발효 퇴비 공장 운영하는 '96년도 전국 1등 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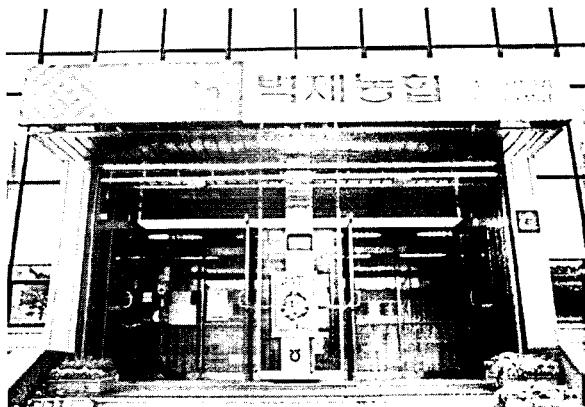
벽제농협(조합장 김보연)은 벽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민의 조합이다. 1995년 종합 업적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1996년 지도 사업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조합원 2,300여 명과 준조합원 5,800여 명의 거대한 가족이 가입되어 있다. 다가오는 금융시장 개방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조합원에게 실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하나로 거듭나기 운동의 연장으로 지속적인 의식 혁신 운동을 실천하여 조합과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WTO 출범에 따른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대외적인 난관을 사전에 대처함으로써 농민조합원이 믿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가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①지도 사업

- 공동 발효 퇴비의 준공
- 유기 농업 교육 및 화훼 재배 신기술 교육
- 주말 농장 운영
- 전조합원의 농작업 상해 문제 가입
- 공동 방역 실시
- 선진 영농 기술 습득을 위한 조합원 해외 연수 실시

벽제농협 청사



②신용 사업

조합원 및 지역 주민의 영농 자금, 생활 개선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③경제 사업

판매 사업에서는 농산물 순회 수집, 산지 농협과의 직거래 실시로 1996년 6월 현재, 실적 80억에 이르며 연간 계획인 200억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④구매 사업

- 영농 지원 센터 운영
- 각종 영농 자재의 주문 배달
- 농산물 슈퍼의 운영
- 신선한 농작물을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

⑤공제 사업

지난해 유효 계약고 56,479백만 원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129%의 성장과 공제료 3,800백만 원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176%의 성장을 이루하여 복지 농촌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다.

⑥기획 관리

새로이 고봉지소를 설치하고 맵시 창구를 열어 건전 가요 제창, 친절 봉사 교육 등을 실시해 맵시 창구 평가에서 전국 우수 농협으로 선정되었다.

본소 : 64-5921(덕양구 관산동 226-2)

신촌지소 : 64-2314

관산지소 : 64-0766

고양지소 : 64-1496

고봉지소 : 977-7283

■지도농협—쌀떡 가공 공장 및 복지 문화 사업 추진

지도농협(조합장 한상우)은 1969년 14개 리의 리동조합을 합병하여 지도 단위 조합으로 설립된 뒤 1970년 종합시설 준공 및 연쇄점 을 개점하였다. 1990년 제7대 현 한상우 조합장이 취임한 뒤 1991년 종합 업적 봉사조합 전국 1위를 수상한 후 행주지소, 무원지소를 개설했으며 1996년 7월 중 화정지소를 개점할 예정이다. 1995년에는 신토불이 쌀떡 및 두부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벼직파 농가 지원, 수산물 코너 신설, 조합원 건강 진단 실시,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 주부대학 운영, 취미 교실 운영, 주부문화 하나로 축제, 어

린이 한문, 서예, 예절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사 체험장 운영, 건강 검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떡가공 공장 운영은 미곡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가공사업 기반 확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전통 가공 기술 현대화에 기여, 우수 품질의 판매량 배가 추진, 경영 합리화의 기여 등에 효과가 예상된다.

본소 : 974-7591~3(덕양구 토당동 330-3)

능곡지소 : 970-1800/2

행신지소 : 974-8311

가람지소 : 971-1800/2

행주지소 : 973-0300/2

무원지소 : 971-2300/2



문화 강좌 사업을 펼치는 지도농협

■ 송포농협—송포 쌀 알리기와 장제 사업 추진

송포농협(조합장 이영태)은 장제 사업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장제 용품을 공급하며, 염사, 묘역 일부 알선 등의 지원과 영구 차량 운행 및 알선도 하고 있다. 그 외 장의 절차 등 장의 업무 상담과, 용품 방문 신청 및 고양시 전 지역의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다.

가좌지소가 1992년도 지소 부문 종합 업적 1위를 차지했고 송포 농협은 1994년도 공제 부문 장려상, 1995년도 농민신문 보급 우수상을 차지했다.

연혁

1970 송포면 조합 설립

1972 종합청사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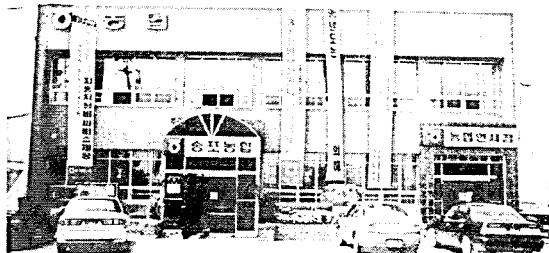
1981 농기구 서비스 센터 및 구판장 준공

1994 이영태 현 조합장 취임, 강선지소 개점

1996 성저지소 개점

송포 쌀의 우수함을 알리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다.

- 송포 쌀은, 신선도가 높아 밥맛이 뛰어납니다.
- 송포 쌀은, 품질을 믿을 수 있습니다.



송포농협 청사

- 송포 쌀은, 유통 경로가 짧아 가격이 저렴합니다.

- 송포 쌀은, 중량 표시가 정확합니다.

- 송포 쌀은, 100% 추청(일명 아끼바리) 원료곡을 사용합니다.

본소 : 911-0004~6(일산구 대화동 752-6)

가좌지소 : 975-0064

덕이지소 : 975-3241

강선지소 : 912-3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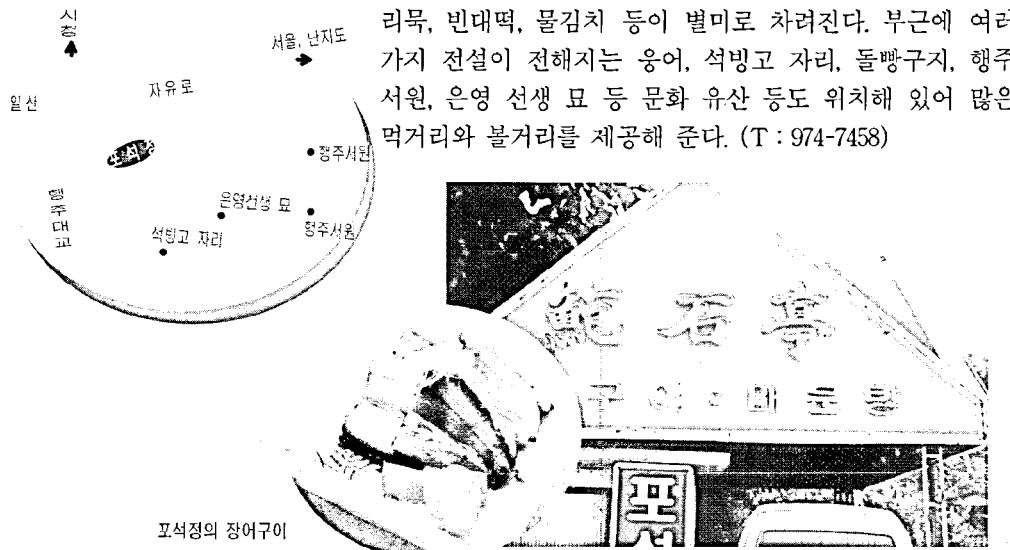
성저지소 : 917-0501

4) 고양의 맛과 멋이 있는 집

■ 포석정 장어구이—행주나루의 역사가 만드는 맛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98-7번지 행주나루 소애촌에 위치한 포석정(대표 박광배) 장어구이는 그 특유의 맛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 맛은 행주나루의 어부 생활을 하던 박은성(76세) 선생이 장어의 특징과 향내를 자문해 준 특유의 비법으로 옛 맛과 요즈음의 맛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것이다. 장어구이는 숯불에 직접 구워 기름을 적절히 제거해 담백한 맛이 배어 나오게 했으며 여기에 도토

리묵, 빙대떡, 물김치 등이 별미로 차려진다. 부근에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해지는 웅어, 석빙고 자리, 돌뱅구지, 행주서원, 은영 선생 묘 등 문화 유산 등도 위치해 있어 많은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 (T : 974-7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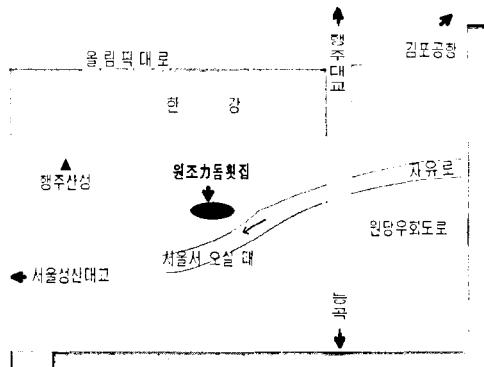


■ 원조 역동집—행주산성의 숨결이 있는 잿골 마을의 원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138-3번지 잿골(성동)

마을에 위치한 원조 역동집(대표 유병덕)은 고양의 정신이 살아있는 행주산성 아래에 위치한다. 현재 이 지역에는 많은 음식점들이 있으나 그 중 이곳 원조 역동집은 1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말 그대로 원조집이다. 역동(일명 틸라피아) 먹거리를 대중화하여 지역 경제에 크게 공헌하고 이곳을 먹거리의 거리로 만든 데에는 이 집만의 비법과 온갖 정성을 기울여 음식을 만들어 온 노력이 밀반침이 되었다. 특히 원조 역동집은 원조답게 매운탕 맛이 일품인데 그 맛에 많은 단골 손님을 확보하고 있다. 고양시의 원조와 최고의 역동 요리를 자랑하는 이곳은 주위의 편안한 교통과 행주산성의 자연 등과 어우러져 고양시의 자랑거리 중 한 곳이 되었다.

(T : 974-7228/972-8688)



원조 역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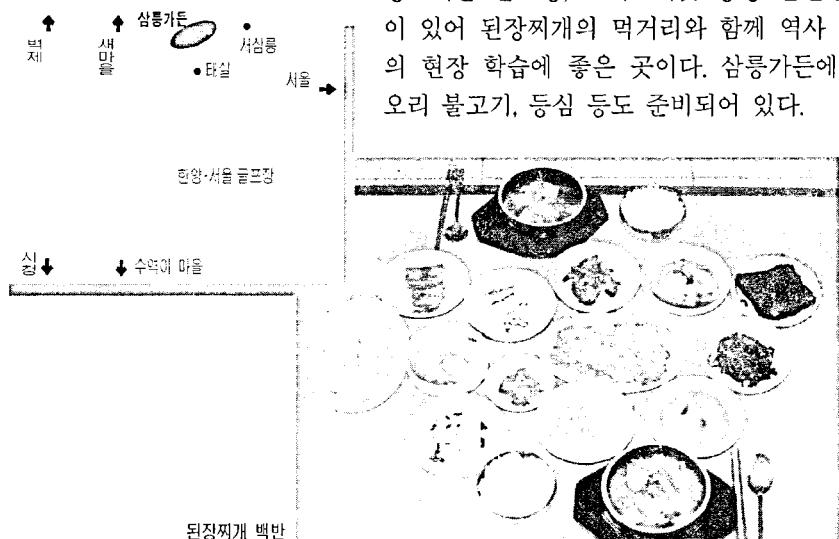
■ 삼릉가든—서삼릉의 문화 유산과 향토의 맛

고양시청이 있는 원당에서 서삼릉 입구에 위치한 삼릉가든(대표 남봉우)은 고양의 옛 맛, 향토 맛을 내는 된장찌개로 유명한 곳이다. 누대(고양의 토박이)에 걸쳐 간직해 온 조리법으로 먹거리를 만들어 오랜 고양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집이다.

된장찌개 이외에도 도토리묵, 오이지, 고추 조림, 오징어 젓, 청포묵 무침, 각두기, 김치, 취나물, 조기, 김 등의 반찬이 푸짐히 차려지며 된장찌개의 고향 맛을 내기 위해 호박, 표고버섯, 양파, 고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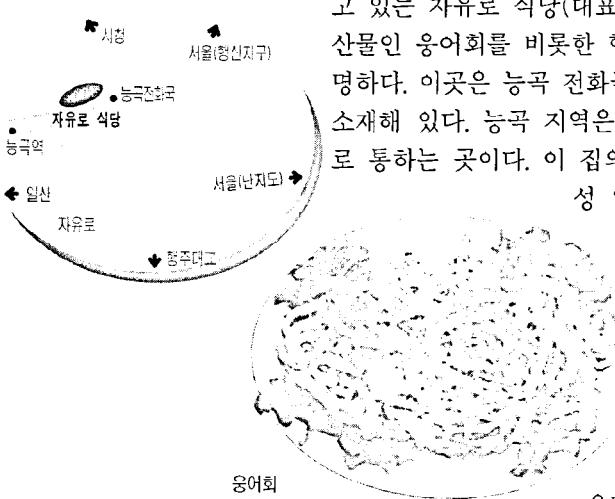
소고기 등이 사용된다.

주로 시청이나 구청, 농협 등 기관 사람들이 단골이라고 하며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특히 된장찌개 뒤에 누른밥을 별식으로 내놓는데 이는 옛 맛을 더해 주고 있다. 서삼릉의 문화 유적, 한양·서울 골프장, 보이스카웃 중앙 훈련원 등이 있어 된장찌개의 먹거리와 함께 역사 교육의 현장 학습에 좋은 곳이다. 삼릉가든에서는 오리 불고기, 등심 등도 준비되어 있다.



■ 자유로 식당—고양의 상징적 특산물인 웅어가 있는 집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도로, 자유로에서 고양시청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자유로 식당(대표 강병식)은 고양시의 상징적 특산물인 웅어회를 비롯한 향토 음식을 정갈하게 하기로 유명하다. 이곳은 능곡 전화국 앞 사거리에서 능곡역 방향에 소재해 있다. 능곡 지역은 토박이 주민들에게는 웅어집으로 통하는 곳이다. 이 집의 명물인 웅어는 한강가 행주산성 일대에서 잡히던 물고기로 5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고기의 여러 먹거리를 즐겼으나 지금은 급속히 줄어 손가락으로 셀 정도이다. 웅어회의 맛은 담백하며 깨끗한데 가느다란 가시의 맛은 일품이다. 웅어는 매운탕, 웅어 알탕, 회덮밥, 구이, 동



그랑땡 등으로도 요리가 가능하며 웅어를 구할 수 없는 계절에는 장어구이, 밴댕이 회 등이 이 집의 자랑거리이다. (T : 971-0418)

■ 감나무집—자연과 문화 유산에 둘러싸인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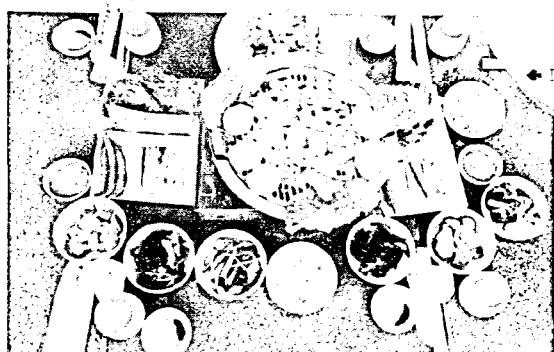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양짓말에 위치한 감나무집(대표 김세영)은 온통 90년 된 감나무로 뒤덮여 있는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당의 넓은 평상에서는 멀리 북한산의 준봉들이 멋진 모습으로 시야에 들어온다. 또한 주변에는 고양시 지정 문화재인 김홍집 선생 묘, 김주신 선생 묘 및 신도비, 최영 장군 묘 등이 위치해 역사 교육, 문화 유산 답사에 적합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 감나무집의 안채인 영사정 또한 숙종의 장인인 경원부원군 김주신 선생의 재실로 200여 년이 넘은 고건축물이다.

감나무집의 먹거리는 대자골의 옛 맛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특징인데 여러 먹거리의 채소는 주인이 직접 재배하여 사용하고 있다. 오리 속불구이(로스구이)에 사용되는 오리 역시 직접 키우고 있다. 오리 요리의 맛은 담백한데 이는 마늘, 기름 등을 사용해 그 냄새를 제거했기 때문이다. 이 오리구이는 혈압, 중풍,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전해지며 솔으로 한 밥은 많은 손님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이 집의 단골 손님은 주로 금융가 사

람들이 많다. (T : 62-8619)



오리 로스구이



부록

기관 및
사회단체 현황



■ 관공서(1995. 12. 31 현재)

기관 및 단체명(직위)	이 름	전화번호	주 소
고양시장	신동영	62-5322	덕양구 주교동 600
고양시의회 의장	허 준	62-5322	덕양구 주교동 600
고양 경찰서장	김구하	974-4311	덕양구 화정동 1008
고양시 교육장	홍을선	967-0170	덕양구 성사동 산 38-4
고양 소방서장	허성범	64-0119	덕양구 성사동 740
파주 세무서장	김경원	941-6105	파주시 금촌읍 금촌리 76-3
농산물 검사소 고양 출장소장	이만계	975-2161	일산구 일산동 551-2
경기도 농수산 통계 고양 출장소장	이광순	975-2515	일산구 일산동 551-2
일산 우체국장	조병기	905-0005	일산구 장항동 783
문화재 관리국 서삼릉 관리소장	김명열	62-6009	덕양구 원당동 37-1

■ 정부투자 기관(1995. 12. 31 현재)

기관 및 단체명(직위)	이 름	전화번호	주 소
대한주택공사 능곡사업단장	진병훈	972-2382	덕양구 행신동 산 101-16
한국담배인삼공사 고양 지점장	이강구	975-2107	일산구 일산동 552-3
한국전력공사 고양 지점장	정병열	60-2200	덕양구 주교동 622-13
한국통신 고양 전화국장	윤대원	63-0007	덕양구 성사동 399
한국통신 일산 전화국장	조명열	912-0007	일산구 대회동 2200
일산 복합화력 발전소장	김계수	902-1678	일산구 백석동 1143-1
토지개발공사 일산 직할 사업단장	이영복	900-3100	일산구 마두동 798-1
일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장	이종복	902-8271	일산구 백석동 1234

■ 공공 단체(1995. 12. 31 현재)

기관 및 단체명(직위)	이 름	전화번호	주 소
고양문화원장	어 한	63-0600	덕양구 주교동 600
고양 농지 개량 조합장	김찬경	974-7009	덕양구 토당동 345
고양시 축산업 협동 조합장	박성재	62-6488	덕양구 성사동 696-4
고양시 지역 의료보험 조합장	최한식	965-6489	덕양구 주교동 613 정하 빌딩
자유 총연맹 고양시 지부장	이훈섭	965-0300	덕양구 주교동 600
바르게살기 고양시 협의회장	문동호	967-6900	덕양구 주교동 600
새미을운동 중앙협의회 고양시 지회장	김도원	62-6010	덕양구 성사동 370
고양시 임업 협동조합장	최충호	972-2008	덕양구 토당동 845-13

■ 고양시 행정 기구 전화번호

시 청	
대표전화	62-5322~9
	62-5753~4
	966-8630~5
기획담당관실	965 - 3411
문화공보담당관실	965 - 4242
감사담당관실	966 - 3333
총무과	62 - 6008
회계과	966 - 2633
민원봉사과	966 - 8284
민방위재난관리과	63 - 4599
세정과	965 - 1927
지역경제과	965 - 5476
산업과	965 - 1340
사회과	965 - 1929
기정복지과	965 - 6756
환경보호과	966 - 2121
도시계획과	965 - 0998
도시주택과	965 - 4251
녹지과	62 - 3339
건설과	965 - 3412
하수과	966 - 0926
교통행정과	966 - 0927

유관 기관	
고양시 법원	967 - 8261
고양 등기소	62 - 0889
고양 경찰서	974 - 4311~2
일산파출소	974 - 2112
성사파출소	62 - 6112
능곡파출소	974 - 7112
신도파출소	381 - 0112
관산파출소	62 - 8112
화전파출소	3158 - 0112
효자파출소	386 - 9561
고양파출소	62 - 9112
송포파출소	911 - 0112
풍산파출소	967 - 0112
주교파출소	62 - 0112
행신파출소	974 - 0112
마두파출소	901 - 0112
주엽파견소	916 - 0112
고양 교육청	62 - 6132
피주 세무서	966 - 2100
원당 전화국	각국번
•한미음 센터	+ 0000
•전화 시정 안내	+ 1111
•고장 안내	+ 1166
•전화 요금	62.63.64 0200

의료 보험 조합	62 - 2345
	64 - 6630
주교우체국	62 - 0100
일산우체국	905 - 2014
• 일 산	975 - 2000
• 일 산2	977 - 2005
• 일 산3	911 - 5005
• 주엽동	911 - 2005
• 가좌동	975 - 7205
• 능곡동	974 - 7205
• 행신동	971 - 0205
• 화전동	3158 - 5231
• 백석동	901 - 0100
• 대화동	917 - 2006
• 탄현동	917 - 7005
• 벽제동	62 - 8205
• 고양 본동	62 - 9002
• 고양 신도동	381 - 1719
도시가스	
• 41지역관리소	901-0407~8
• 45지역관리소	913 - 4511
• 46지역관리소	977 - 4633
고양축협	62-3001~4
능곡역	974 - 7788
백마역	901 - 7788
일산역	976 - 7788
주택공사 고양지사	903-2597~8 911-4222~3
토지공사 일산사업단	900 - 3114

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965 - 2338
농촌지도소	966 - 0926
상수도사업소	966 - 0927
문화예관	64 - 5919
환경사업소	911 - 7512
행주산성관리소	974 - 7237
시립도서관	972 - 2260
공원관리사업소	911 - 1786
차량등록사업소	966 - 7305

고양 소방서	62 - 7119
	966 - 6119
•원당 파출소	62 - 0119
•지도 파출소	974 - 0119
•신도 파출소	381 - 0119
•백석 파출소	901 - 0119
•주엽 파출소	912 - 0119
•119 구조대	967 - 3119 119
한국 전력 공사	62 - 3111
	64 - 3111

덕 양 구 청					
대표전화	968 - 5000 ~ 7	교통행정과	968 - 3104	신도동	381 - 3001
	966 - 8030 ~ 7	건설과	968 - 3105	창릉동	382 - 0664
기획실	965 - 3005	건축과	968 - 3106	고양동	63 - 6280
총무과	965 - 3006	생활민원과	968 - 3003	관산동	62 - 8119
세무과	968 - 3000 ~ 966 - 1520	덕양보건소	62 - 6015	능곡동	972 - 7001
정수과	966 - 1522	상수도 덕양지소	966 - 6790	화정동	63 - 1485
민원봉사과	968 - 3001	동사무소		행주동	973 - 0150
지적과	966 - 1524	주교동	966 - 2250	행신 1동	972 - 4280
민방위재난관리과	968 - 3100	원신동	381 - 5438	행신 2동	973 - 1290
사회복지과	968 - 3101	흘도동	966 - 2275	화전동	372 - 5064
환경위생과	968 - 3102	성사 1동	62 - 6121	대덕동	375 - 4822
청소과	968 - 7289	성사 2동	967 - 8617		
지역경제과	968 - 3103	효자동	381 - 5418		구청장: 김영준

일 산 구 청					
대표전화	905 - 8411 ~ 6 904 - 8814 ~ 9	교통행정과	905 - 6491	백석동	901 - 3240
기획실	904 - 1325	건설과	905 - 6492	마두 1동	901 - 2572
총무과	904 - 1326	건축과	905 - 6493	마두 2동	901 - 1170
세무과	905 - 2761 905 - 2762	생활민원과	905 - 6494	주엽 1동	911 - 0488
정수과	905 - 2763	일산보건소	976 - 0367	주엽 2동	913 - 5297
민원봉사과	905 - 2764	상수도 일산지소	975 - 0194	장항 1동	903 - 5097
지적과	905 - 2765	동사무소		장항 2동	905 - 2198
민방위재난관리과	905 - 2766	식사동	966 - 2220	대화동	913 - 8631
사회복지과	905 - 2767	일산 1동	976 - 8396	고봉동	977 - 8203
환경위생과	905 - 2768	일산 2동	975 - 3001	송포동	911 - 0005
청소과	904 - 8289	일산 3동	915 - 8618	송산동	915 - 8410
지역경제과	905 - 2769	일산 4동	917 - 7827		
		풀산동	902 - 4700		구청장: 이인재

■ 금융 기관

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경기은행	(원당)	주교동 620-5	64-5671
	(일산)	일산동 616-1	676-6911
	(능곡)	토당동 866-1	972-9255
국민은행	(능곡)	토당동 343-1	974-3330
	(벽제)	관산동 231-41	64-5970
	(원당)	주교동 614-6	62-7401
	(일산)	일신동 617-3	976-3182
농협중앙회 고양시 지부		주교동 601-8	62-5023
	(시청 출장소)	주교동 600	966-0008
	(능곡 출장소)	토당동 343-13	970-6022
	(일산 지점)	일산동 621-2	975-2166
	(일산 탄현 지점)	탄현동 29-11	976-2331
벽제농협		관산동 225-2	64-5921
승포농협		대화동 752-6	911-0004
원당농협		주교동 603-20	965-5961
일산농협		일산동 584-28	975-8061
지도농협		토당동 333-3	974-7591
고양축협		성시동 635-4	62-6488
장기신용은행	(일산)	주엽동 73	913-3007
제일은행	(능곡)	도당동 677-8	970-0020
	(신일산)	주엽동 83	912-8252
	(원당)	성시동 501-2	965-6001
	(일산)	일산동 616-12	975-7611
조흥은행	(능곡)	토당동 292-30	972-2311
	(원당)	성사동 502-7	967-5700
	(일산)	일신동 618	975-1301
중소기업은행	(능곡)	토당동 831-1	972-4533
하나은행	(원당)	주교동 609-3	967-2121
한국상업은행	(원당)	주교동 610-4	64-0615
	(일산)	일산동 35-5	913-C121
한국외환은행	(원당)	일신동 582-3	976-7771
한국주택은행	(원당)	주교동 612-5	64-6654
	(일산)	주엽동 41-30	915-0763
한일은행	(원당)	성사동 609-11	967-0731
	(일산)	마두동 16	903-7103
서울신탁은행	(능곡)	토당동 822-1	972-8851
신용보증기금		주교동 616-1	965-8251
신한은행	(원당)	주교동 614-2	965-9955
	(일산)	주엽동 32	912-5055
더동은행	(능곡)	토당동 845-13	970-5331
	(원당)	주교동 602-1	965-5332
동남은행	(일산)	일신동 576-8	975-8111
	(원당)	주교동 576-8	965-5671
	(능곡)	토당동 99-31	972-9931

■ 열차 운행 시간표(경의선)

서울역 방면				문산역 방면			
문산발	백마발	서울착	비고	서울발	백마발	문산착	비고
05 : 15	05 : 45	06 : 30	-	04 : 50	05 : 34	06 : 03	-
06 : 13	06 : 44	07 : 34	-	05 : 23	06 : 08	06 : 37	-
06 : 42	07 : 10	07 : 58	-	05 : 45	06 : 30	07 : 05	-
07 : 27	07 : 33	08 : 18	일산발	06 : 45	07 : 34	08 : 05	-
07 : 17	07 : 48	08 : 34	-	07 : 50	08 : 35	09 : 09	-
07 : 40	08 : 12	08 : 57	-	09 : 00	09 : 44	10 : 14	-
08 : 45	09 : 16	10 : 08	토·일·공 신 촌 착	10 : 00	10 : 45	11 : 16	-
09 : 50	10 : 22	11 : 08		11 : 00	11 : 45	12 : 16	토·일·공 신 촌 발
10 : 50	11 : 22	12 : 08		12 : 00	12 : 45	13 : 16	-
11 : 50	12 : 22	13 : 08		13 : 00	13 : 45	14 : 16	-
12 : 50	13 : 22	13 : 59	신 촌 착	14 : 00	14 : 45	15 : 16	-
13 : 50	14 : 22	15 : 08	-	15 : 05	15 : 45	16 : 16	신 촌 발
14 : 50	15 : 22	16 : 08	-	16 : 00	16 : 45	17 : 16	-
15 : 50	16 : 22	17 : 08	-	17 : 00	17 : 45	18 : 16	-
16 : 50	17 : 22	18 : 08	-	18 : 00	18 : 45	19 : 16	-
17 : 50	18 : 22	19 : 08	-	19 : 00	19 : 45	20 : 16	-
18 : 50	19 : 22	20 : 08	-	19 : 30	20 : 20	20 : 52	토·일·공 운 휴
19 : 50	20 : 21	20 : 59	-	20 : 00	20 : 45	21 : 16	토·일·공 신 촌 발
20 : 28	20 : 59	21 : 45	-	21 : 00	21 : 45	22 : 16	-
21 : 28	21 : 59	22 : 45	-	22 : 00	22 : 46	23 : 16	-
21 : 52	22 : 23	23 : 08	-	22 : 30	23 : 16	23 : 21	토·일·공 운 휴

참 고 문 헌

1. 자료

- 『삼국시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地)
『고양군 읍지』(高陽郡 邑誌)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택리지』(擇里志)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고양군지』(高陽郡誌)
『독립운동사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간
〈고양군·고양시 통계 연보〉,
 고양시·고양군 간, 각 연도 판
〈고양신문〉 각호
〈고양시민 뉴스〉 각호
〈일산 21세기〉 각호
〈경기북부신문〉 각호
〈경기북부저널〉 각호
〈행주일〉 각호, 고양문화원 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간
『경기인물지』 상·하, 1991, 경기도 간
『한국인명대사전』, 1976, 신구문화사 간
『국시대사전』, 1980, 세진출판사 간
『서울 600년사 인물편』, 1993,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간

2. 저서

- 『경기도지』, 1957, 경기도지 편찬위원회 간
『문화 유적 총람』, 1979, 문화재 관리국 간
『경기도사』 1, 2권, 1979~1981, 경기도 간
『경기금석대관』 1~7, 1982~1994, 경기도 간
『고양군지』, 1987, 고양군지 편찬위원회 간
『고양시 문화재 대관』, 1995, 고양문화원 간
『고양군 지명 유래집』, 1991, 고양문화원 간
〈일산 새도시 개발 지역 학술 조사 보고〉,
 I · II, 1992, 한국선사문화연구소 외 간
〈고양 중산 지구 문화 유적 지표, 빙울 조사 보고서〉,
 1993, 한양대학교 · 경기도 간
〈북한산성 지표 조사 보고서〉,
 1996, 고양시 · 서울대학교 박물관 간
〈회정 지구 문화 유적 지표 조사 보고서〉,
 1991, 서울대학교 박물관 간
『행주산성』, 1991, 고양군 · 서울대학교 박물관 간
〈능곡 지구 문화 유적 및 민속 조사 보고서〉,
 1993, 한신대학교 박물관 간
〈행신 지구 문화 유적 및 민속 조사 보고서〉,
 1992, 한신대학교 박물관 간
〈고양시에 전해오는 전래 동화〉
 1994, 고양시민들 간



▶ 정동일(鄭東一)

1965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나무드머리)에서 태어나
홍도초등학교, 고양중, 고양중고,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를 졸업한 고양시 토박이이다.
일산 신시가지 역사유적발굴단조사원
(충북대, 성균관대, 선사문화연구소,
단국대 연합발굴단),
북한산성(서울대) · 화정 지구(서울대) ·
행신 지구(한신대) · 능곡 지구(한신대)
문화유적조사원,
고양신문 고양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고양시 지명위원,
고양시 학교명선정위원회를 지냈으며
현재 고양문화원 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고양시 문화유산답사회
연구위원으로 있다.
또 고양 유선방송 '마을 텁방'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저서로 「고양군 지명 유래집」
「고양시 문화재 대관」
「고양시에 전해오는 전래 동화」「홍도국교 50년사」,
논문으로 「고양 지역의 의병 활동 연구」
「일산에 전해오는 옛 놀이 연구」
「대자동 연산군대 금표비」
「일산의 토박이 오씨네 집안 연구」
등이 있다.

재미있는 고양 이야기

지은이 · 정동일

펴낸이 · 김종순

초판 1쇄 발행 · 1996년 8월 5일

펴낸곳 · 도서출판 민

출판등록 1991년 11월 8일(제9-289)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161 동화빌딩 신관 3층

전화 · 712-1508, 719-8048/팩스 · 719-8049

값 9,500원

ISBN 89-85299-60-3

*지은이와의 협약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MIN Publishing 1996, Printed in Korea

『재미있는 고양 이야기』는 고양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합니다.
현재 62만 고양시민이 살고 있는 곳곳마다 의미 깊은 이야기와 볼거리가 산재해 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은 곧 고양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자가 고양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 고양시 사람임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

신동영 / 고양시장

이 책은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이라는 고양 교육의 목적과 일치하는 면이 많습니다.
지역화 교육, 향토 사랑, 행주일 계승 교육이 본 교육청의 미래 교육 내용의 하나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책자의 발간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확실한 지역 의식, 역사 의식은 물론, 향토색 짙은 애향심까지 갖추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홍율선 / 경기도 고양 교육장

『재미있는 고양 이야기』는 현직 교사들이 오래도록 기다려 오던 책입니다.
지역 봉사 활동, 인성 교육, 현장 교육이 교육의 중점으로 부각되는 이때, 적당한 자료가 없어
그 동안 학부모, 교사, 학생들은 내 고장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 책자를 열린교육 등 미래 교육에 널리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정균 / 성저초등학교 교사

아파트, 농촌, 도시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고양시!
일산, 화정, 행신, 중산 등 신시가지에 새로 이주해 온 시민들과, 수대에 걸쳐 이곳에
살의 터전을 둔 토박이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고양시!
고양시에 새로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신도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 고장 알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표혜련 / 일산구 마두동 삼성 APT 주부

고양 역사기록

향토문화



ISBN 89-85299-60-3

9,500원